

## 第4章 流通 및 서비스産業

### 第1節 流通 및 서비스 産業의 發達概況

#### I. 解放以前(～1945)

##### 1. 概 況

大邱는 이조시대에 觀察使가 주둔하던 대도읍이었고, 大邱의 鄉市인 西門市場은 江景, 平壤과 함께 전국의 3대 시장으로 알려질 만큼 정기시장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당시까지의 ‘勸農抑商’ 정책으로 인하여 常設店舖는 발달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韓國보다 먼저 개화한 日本의 문물이 들어왔는데, 1905년 釜山을 출발, 大邱를 거쳐 京城으로 이어지는 京釜線철도의 개통을 계기로 大邱의 상업은 활기를 띠기 시작하게 되었다.

1918년에는 大邱～浦項線이 개통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안동, 영주, 현풍, 고령, 성주 등을 大邱와 연결하는 도로가 개통되면서 물자집산지로서 大邱는 釜山, 仁川 등의 港都를 제외하면 京城, 平壤 다음가는 상거래 실적을 나타냈다고 한다.



〈사진 4-1〉 1930年代 大邱의 日本人商街 元町(지금의 北城路 1街)

일제 초기의 大邱 상업의 발달은 크게 두가지의 특징이 있었다.

첫째로, 재래의 우리나라 상업제도에서는 5일에 한번씩 개최되는 정기시장이 그 주체를 이루었다.

그러던 것이 한일합병 이래, 일본인 거주자와 내왕자가 증가하고, 大邱가 종전의 행정도시에서 농산물 집산되고 거래되는 상업도시로서의 기능을 추가함에 따라 大邱의 거주자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고 지방과 타지의 상인들에게 상품을 도매하는 상설점포가 급증

하여 大邱의 상업은 크게 변화하게 되었다. 둘째로, 교통의 발달에 따라서 大邱의 상권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

일제하의 大邱市內의 상설점포와 상가는 크게 日本人 상가와 韓國人 상가로 나뉘어져 있었다. 韓國에 처음으로 등장한 신식소매기관인 미나카이[三井]백화점이 1905년에 설립되었는데 일용잡화의 도·소매와 고리대업까지 겸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 외에 대형소매점 ‘이비시야’와 한국인 경영의 茂榮堂百貨店 등 중소규모의 상설점포가 대구역전을 중심으로 상가를 형성하였는데, 특히 북성로[元町]가 중심상가지역이었다. 당시 일본인 경영의 상점들이 중앙통, 동성로[東城町], 북성로[元町], 서문로[本町]에 자리잡고 있었고, 지방소매상을 고객으로 하는 일용품 도매시장이 西門市場과 그 부근의 동산동[市場町], 서문로, 북성로에 밀집하고 있었다.

한국인 상설점포는 주로 서문로, 종로[京町]에서 한국인용 포목과 잡화를 취급하고 있었으며, 여름철에는 중앙통에 야시장이 밤마다 개설되어 청과물을 주로 한 각종 생활용품이 거래되었다.

## 2. 市場 및 去來狀況

일제하의 朝鮮總督府는 당시의 韓國의 시장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 ‘市場規則’(1914년 9월, 朝鮮總督府令)을 발포하였는데 그 규정에 따라서 시장을 분류하면, 大邱에 제 1호 시장(재래식 정기시장)은 4개소, 제 2호 시장(공설시장 즉 상설시장)은 1개, 제 3호 시장(농산물시장)은 6개소, 제 4호 시장(곡물시장)이 1개소가 있었고 그외에 大邱藥令市가 있었다.

〈表 4-1〉 大邱府의 市場 및 去來額(1928년) (단위: 천원)

시장명	소재지	경 영 자	개시일	연 간 거 래 액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물	잡 화	합 계
서문시장	신 정	大邱府	2, 7일	492	510	465	411	717	2,596
동문시장	덕산정	大邱府	4, 9일	449	199	112	15	280	1,055
나무시장	경 정	大邱府	매일	?	?	?	?	?	?
약 령 시	서성정	大邱府	11월	—	—	—	—	673	673
어채시장	원 정	大邱魚菜(株)	매일	36	207	—	—	12	255
곡물시장	대화정	穀物商組合	매일	269,296					269,296
계				279,273	916	577	427	1,682	273,874

資料: 朝鮮總督府, 《慶北統計年報》, 1930.

재래시장으로서는 서문시장, 동문시장, 남문시장이 있었다. 서문시장은 朝鮮 3대시장의 하나로 손꼽히는 큰 시장으로 음력 2일과 7일에 개시하는 원래의 대구시장이었었는데, 시가지의

발달에 따라서 1923년 9월 28일 서남쪽에 있던 天玉堂 못을 메꾸어서 옮기게 되었다. 총면적 4,544평, 건물평수 496평, 5개구로 나뉘어져 있었고 농산물, 수산물, 직물, 축산물, 기타 잡화가 주로 거래되었다. 한편 시장주변에는 술집을 주로 한 상설점포가 점차 늘어났다.

동문시장은 동문 밖에 있다가 1911년 東城路(현 大邱百貨店 자리)로 옮겨 왔는데, 면적은 서문시장의 약 반정도(2,500평)였고, 거래액도 약 반정도였다. 남문시장은 大邱의 인구증가에 따라서 거주지가 점차로 大邱驛 부근에서 남쪽으로 확대됨에 따라 1937년에 남산동[南山町]에 새로이 개설된 시장이다. 신설임에도 동문시장보다 규모가 컸었고 거래액도 많았다고 한다.

딸나무감을 주로 거래하는 나무시장(薪炭市場)은 동문시장에서 분리되어 1929년에 新川上流 가창면의 도로변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 시장은 대구시내로부터 거리가 멀고 취급품목이 딸나무 뿐이라서 크게 발달하지는 못하였다.



〈사진 4-2〉

1920年代의 市場風景

상설점포 20개소 이상이 일정한 장소에서 주로 철물, 식료품 및 일용잡화를 취급하고 매일 영업을 하는 곳을 공설시장(제 2호 시장)이라고 하였는데 1920년에 개설된 東門町市場(동문백화점 자리)에 하나밖에 없었고 주로 일본인들의 생활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었다.

농수산물의 도매와 소매를 하는 魚菜市場은 청과물과 수산물을 판매위탁받아서 경매

하는 시장과 수산물만을 위탁, 경매하는 수산물전문시장의 두가지가 있었는데, 1917년에 설립된 大邱魚菜株式會社가 운영권을 맡았고, 수산시장은 1931년 설립된 慶北水産株式會社가 관리하였다.

곡물시장은 1917년 大邱米穀商組合이 설립되면서 개설된 시장인데 거래액면에서는 서문시장을 훨씬 능가하는 큰 시장이었다. 그러나 양곡의 투기거래를 단속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1939년 ‘朝鮮米穀市場株式會社’를 설립하여 현물거래, 未着物去來(5일내에 現物受渡), 延去

來(2개월내에 現物受渡)만 허용하고 大邱의 양곡시장도 그 분장으로서의 통제를 받았다. 얼마 안가서 太平洋戰爭이 발발되자 ‘군수미’공급을 위한 방법으로 양곡의 유통은 완전히 국가가 독점하여 생산자로부터 강제할당에 의한 ‘공출’을 받아서 소비자에게 할당 배급하게 되고, 이것을 ‘朝鮮食糧營團’(1943년 10월 설립)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大邱의 양곡시장도 크게 쇠퇴하였다.

大邱의 藥令市는 한일합병 당시에는 전국 유일의 한약재 전문시장이었었는데 1914년 새로운 ‘市場規則’에 의하여 그 관리권이 大邱府로 이관되었다. 朝鮮總督府 치하에서 한때 위축되었던 大邱의 약령시는 대구한약상조합의 진흥노력으로 1925년부터는 거래액이 크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한국 민족만이 주로 거래하던 한약은 일제의 정부와 경찰의 간섭을 많이 받아 지장이 많았다.

일제의 중국침략전쟁[支那事變]이 시작되고(1938년), 이어서 태평양전쟁[大東亞戰爭]이 시작되자(1940~1945), 각종 물자의 부족이 심해지고, 드디어 1943년에는 주요물자의 유통을 정부가 통제하는 ‘新經濟體制’를 실시하였다. 이 정책에 따라서 전략적 물자(의약품, 도자기, 잠사, 직물, 섬유, 설탕, 原皮, 자동차부품 등)의 도매는 중앙[朝鮮總督府]이 직접 통제, 배급하고, 기타 대부분의 품목(의류, 포목, 양품잡화, 철물, 도자기, 구두, 문방구, 귀금속, 시계, 라디오, 전기기구, 유리, 자전거, 건축자재 등)의 소매는 각 도의 관할하에 유통을 통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통제경제하에서 大邱의 상업, 유통도 자유로운 거래가 크게 위축되고, 일본의 전쟁수행을 위한 조직의 일환으로서만 활동하게 되어서 상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 II. 解放~韓國戰爭期(1945~1950年代)

### 1. 解放直後(1945~1950)

해방 직후 大邱의 상업은 日本, 滿洲 등지에서 거주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귀환동포’의 귀국으로 인구의 폭증, 일본인 주축 경제의 붕괴로 공산품의 극심한 부족, 그리고 화폐의 폭증으로 인한 물가의 폭등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큰 혼란을 겪었다.

첫째로 해방 직후 日本 등지에 살던 동포들의 귀환으로 대구 인구는 1944년 5월 21만명에서 1946년 8월에는 27만명으로 35%가 증가하였으며 1947년에는 29만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행상 또는 영세상업으로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많은 시장이 새로



생겼다. 해방 전에 있던 6개소의 시장 이외에 1945~1947년 사이에 4개소의 시장이 새로 생겼다.

철성동에 ‘북문시장’이 1946년 10월에 설립되었는데 건평 690평의 이 시장은 주로 귀환동포 등 영세민이 많이 이용하였다. 1947년에는 원대시장이 시장부지 3,150평, 건물 273평으로 개장되었고, 연달아 같은 해에 봉산시장(시장부지 1,060평, 건물 560평)과 삼덕시장(부지 770평, 건물 280평)이 개장되었다.

둘째로, 일본경제와 종속관계에 있던 상태에서 갑자기 유대가 단절되고, 국내에 있던 많은 공장들이 기술난, 원료난으로 가동을 중지하게 되자 공산품의 극심한 부족으로 상점에 거래할 물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따라서 일본, 중국의 마카오 등지에서 들어온 밀수품이나 미 군부대에서 부정으로 유출된 물품이 거래대상품의 주류를 이루었다.

해방 직후에는 한때 패망하여 떠나는 일본군의 군수용 일용품과 군용미가 시중에 쏟아져 나와서 통제체제 하에 있던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일본군 잉여물자의 유통이 바닥나자 이번에는 반대로 극심한 물자부족현상이 생겼다. 그래서 각 道의 ‘物資運營組合’을 통하여 내의류, 작업복, 시멘트, 모직물, 못, 식용유, 자동차 타이어 등이 배급되었다.

셋째로, 물자부족과 통화증발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1936년을 기준으로 한 물가지수가 1945년 8월에는 120이던 것이 해방 1년 후인 1946년 8월에는 653으로 5배나 급등하였고 특히 직물류 값은 162에서 1,300으로 약 8.5배나 폭등하였다.

이러한 혼란과 물자부족 및 물가폭등 속에서 정상적인 상업이 발달될 수는 없었고 따라서 행상, 노점상, 밀수품 매매 등 비정상적인 상업조직과 단기적인 매매차익만을 노리는 비정상적인 상행위만 발달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올바른 통계가 나올 수 없고, 지하경제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공식통계수치가 있어도 무의미했을 것이다.

## 2. 韓國戰爭期 概況(1950~1959)

1950년 6월 25일에 시작된 한국전쟁은 민족적인 비극이지만, 大邱의 상업발달에는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첫째로, 다행히 大邱는 6.25사변 중에도 한국정부의 행정관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피난민이 급증하여 1950년에는 27만명이었던 대구 인구가 1957년에는 70만명이나 되었다. 이러한 인구의 급증은 소비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초래하였다. 둘째로, 전쟁으로 인하여 원조물자와 비정상적으로 유통되는 군수물자가 대량으로 시중에 나왔다.

그러나 인구의 폭등으로 물자는 부족하고 전쟁수행을 위한 화폐증발 때문에 물가는 1947년

기준, 1949년에는 200이던 것이 1951년에는 2,200, 1953년에는 8,200으로 폭등하였다. 이 때문에 혼란 속에서도 상거래는 활발하였다. 셋째로, 피난민과 영세민, 실업자가 폭주한 당시에 생존수단으로 손쉬운 것이 상업이었다. 그래서 상업인구가 폭증하여 대구시민의 35% 정도를 차지하였다. 한편 해방 후에 직물이 부족하여 가격이 폭등하였으므로 수익성이 좋은 직물 공장이 大邱를 중심으로 크게 발달하여 大邱가 전국의 직물거래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한국전쟁은 도매 및 소매면에서 大邱의 상업에 큰 활력을 준 계기가 되었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많은 피난민들이 생계를 위하여 영세상인들을 중심으로 대거 서문 시장에 진출하였다. 1950년 초 벌써 약 4,000명 이상이 서문시장에서 상업을 하고 있었는데 시장이 협소해지자 1952년에는 부근의 牛市場을 내당동으로 옮기고 서문시장을 확장하게 되었다. 또 1958년에는 수산물부를 태평로 3가로 이전시켜서 서문시장은 포목, 피복 중심의 대규모 전문시장으로 변창해 나갔다. 그래서 서문시장 포목부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섬유도매상들이 집중하고, 부근의 동산동에는 原絲 전문상가가 형성되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서문시장은 전국 최대의 포목시장이 되고 서문시장에서의 거래액은 大邱 시장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6.25사변으로 인하여 또하나 자생적으로 생긴 것이 교동시장이다. 교동시장은 1950년 5월에 시장개설을 추진하던 중에 6.25사변이 발발하여 이 시장건물이 피난민수용소로 지정되자 피난민들이 이 지역을 점거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부근에 있던 미군 PX에서 많은 생활물자가 유출되어서 물자가 부족하던 당시에 이것이 큰 인기를 얻어 교동시장은 ‘양키시장’의 별명으로 크게 번창하였다.

〈表 4-2〉 大邱市内의 主要市場(1958년) (단위: 평)

시 장	부지면적	시 장	부지면적
서문 시장	12,155	남문시장	7,896
북문 시장	2,183	동문시장	2,500
삼덕 시장	766	원대시장	3,150
내당우시장	4,094	봉덕시장	1,060
덕산 시장	313	국제시장	397
교동 시장	497	수산시장	600

資料: 大邱市, 《大邱市史》 제3권, 1973.

### III. 1960年代

#### 1. 商業의 發達

1960년대에 들어와서 大邱의 산업 중에서 가장 발달한 것은 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유통, 서비스 부문이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갑자기 증가한 도시민이 생계를 위하여 비교적 손쉽게 꾸릴 수 있는 행상, 노점상, 영세상들이 점차로 정착되면서 상업의 기반이 다져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1962~1971년의 10년 동안에 대구시내의 도소매업체수가 8,220개소에서 2만 2,085개소로 약 2.7배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에 도소매부문 종업원수는 1만명에서 4만 1천명으로 약 4배나 증가하였다.

〈表 4-3〉 1960年代의 大邱市内 都小賣業의 變化 (단위: 개소, 명)

연 도	사업체수	종업원수	점포당 종업원수	인구천명당 점포수
1962	8,220	10,272	0.8	11.5
1963	8,634	10,797	0.8	11.3
1964	9,346	15,444	1.7	11.9
1965	10,206	16,927	1.7	12.6
1967	18,389	—	—	20.7
1968	18,696	34,529	1.8	19.4
1971	22,085	41,206	1.9	19.5

資料: 1968년, 1971년은 경제기획원 《都小賣業센서스 報告書》, 기타 연도는 《大邱市統計年報》

상업에 관한 통계는 용어의 정의와 통계의 부정확성 등이 과거의 역사를 규명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지만, 1968년에 처음으로 전국적인 ‘도소매센서스’가 경제기획원에 의해서 실시되어 그해부터 비교적 정확한 통계수치를 얻을 수 있다. 이 도소매센서스는 4년 내지 5년마다 실시되고 있는데 1968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자료와 그 다음에 실시된 1971년의 자료를 분석하여 보면 1968~1971년 3년간에 대구시내 도소매업체수는 18%, 종업원수는 19%, 연간판매액수는 약 200%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4-4〉 1968~1971年間の 大邱市内 都小賣業體의 變化

구 분	1968	1971	증가율(%)
사업체수 (개)	18,696	22,085	18.1
종업원수 (인)	34,529	41,206	19.3
연간판매액 (억원)	421	1,297	208.0
업체당 종업원수 (인)	1.8	1.9	5.6
업체당 판매액 (천원)	2,253	5,874	160.7
종업원당 판매액 (천원)	1,220	3,148	158.0

資料：經濟企劃院,《都小賣센서스 報告書》, 1968, 1971.

그러나 도소매업체수의 반 이상이 3평 이하의 매장면적을 가진 영세업체이고, 그 비율은 1968년의 49%에서 1971년에는 64%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서울의 경우(1968년 39%, 1971년 53%)보다 영세매장이 더 많다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도소매업체수는 中區에 가장 많고(36%), 연간판매액도 中區가 大邱 전체의 71%를 차지하여 도매의 중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매업은 각 구청별로 비슷하다. 이것은 서문시장이 있는 中區는 오랜 전통을 이어 받은 大邱의 유통중심지로서 발달하였으며 소매기능은 주택이 많은 기타 구역에 분산되어서 大邱市 인구의 ‘도너츠형 분포’에 따른 상권의 변화를 의미한다.

〈表 4-5〉 大邱市の 區別 流通業 分布 (단위 : %)

구 청 별	면 적	인 구	사업체수	종업원수	연간판매액
중 구	2.5	12.1	36.4	42.0	71.2
동 구	53.2	26.1	15.0	13.8	3.8
서 구	18.1	26.2	18.9	16.1	8.9
남 구	10.7	23.8	19.4	18.5	12.5
북 구	15.4	11.8	10.3	9.6	6.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經濟企劃院,《都小賣센서스 報告書》, 1968.

## 2. 都賣業의 變化

〈表 4-6〉 大邱市內의 主要 都賣業種의 變化(1968~1971년)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업 종	연 도	사업체수		종업원수		연간판매액	
		업 체 수	비 율	인 원 수	비 율	판 매 액	비 율
섬 유 업	1968	256	19.8	572	14.6	3,173	18.5
	1971	458	22.0	935	16.9	26,232	35.9
신발·의류	1968	105	8.1	334	8.5	875	5.1
	1971	516	24.8	1,052	19.0	6,055	8.3
농 산 품	1968	148	11.4	343	8.7	1,176	6.9
	1971	136	6.5	321	5.8	4,536	6.2
식 료 품	1968	177	13.7	469	11.9	681	4.0
	1971	210	10.1	642	11.6	4,597	6.3
기 타	1968	607	46.9	2,210	56.3	11,242	65.6
	1971	758	36.5	2,573	46.6	31,564	43.2
일반도매업	1968	1,293	100.0	3,928	100.0	17,147	100.0
	1971	2,078	100.0	5,523	100.0	72,984	100.0

資料: 經濟企劃院 《都小賣業센서스 報告書》, 1971.

大邱市, 《大邱市 統計年譜》, 1971.

1960년대 大邱市 상업의 변화 중 특징적인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상업의 전반적인 발달이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한 도매업의 발달이 크게 부각되었다. 1960년대 大邱의 도매시장은 서문시장을 위주로 하여 대신동, 동산동, 서문로 1가 등에 집중되어 있으면서 경북일원의 도매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특히 동산동, 대신동은 원사도매거래의 전국적인 중심지가 되어서 서문시장과 동산동, 대신동에서의 거래액이 전국 원사거래액의 약 70~80% 정도를 차지하였다고 한다. 섬유제품이 大邱地域 도매업의 주종품목이었다는 것은 1968년에 처음 실시된 도소매업센서스 보고서와 그 다음에 실시된 1971년의 도소매업센서스 보고서를 비교하면 뚜렷이 알 수 있다.

위의 〈表 4-6〉에서 알 수 있듯이 대구시내의 일반도매업 중에서 섬유업이 1968~1971년 사이에 사업체수와 종업원수는 약 2배 증가하였으나, 연간판매액 면에서는 약 8배나 증가하였다. 그래서 섬유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수나 종업원수 면에서는 약간 증가하였으나, 판매액 면에서는 1968년의 18.5%에서 1971년에는 36%로 증가하여 大邱의 도매업 중에서 단연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섬유업은 大邱市에서는 물론이고 전국 섬유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판매액 면에서 1968년의 21.2%에서 1971년에는 52.6%를 차지하여서 전국의 섬유도매의 명실상부한 중심지가 되었다. 그대신 서울의 비중이 46%에서 32%로 감소하였고, 부산의 비중은 6.6%에서 2.5%로 격감하였으며 전국의 다른 지역도 26%에서 13%로 반으로 감소하였다.

〈表 4-7〉 纖維都賣業의 地域別 比重의 變化(1968~1971년) (단위: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기타지역	전	국
업 체 수	1968	32.8		14.0		24.4		28.8		100.0
	1971	41.5		6.5		24.4		27.6		100.0
판 매 액	1968	46.1		6.6		21.2		26.1		100.0
	1971	31.8		2.5		52.6		13.1		100.0

資料: 經濟企劃院 《都小賣業센서스 報告書》, 1968, 1971.

한편 농수산물의 도매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경매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농수산물 중앙도매시장에서 도매가 이루어져야 했다. 청과의 경우는 농협이 大邱市와의 업무계약에 의하여 도매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수산물부는 수산협동조합이 담당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내륙지 수산물 경매장이었다. 鳥獸肉部(축산물)는 (株)新興産業이 1970년에 운영을 시작하였다. 거래액은 1960년에는 청과물 2천 3백만원, 수산물 2억 3천만원이던 것이 1969년에는 청과물 8억 4천만원(40배), 수산물 12억원(5배)으로 크게 신장하였다. 그러나 법적 중앙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하여 거래되지 않고 개인위탁상을 통하여 재래식으로 거래되는 양, 즉 ‘類似商人’들을 통한 거래량이 합법적 도매시장의 거래량보다도 훨씬 많은 액수(약 5배)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제도권 밖의 ‘類似都賣市場’을 어떻게 제도권 속으로 유치하느냐가 정부가 보는 문제점이었다.

### 3. 小賣業의 變化

1960년대의 大邱의 소매지구는 북성로, 서성로, 동성로, 중앙로, 종로, 향촌동이 주요지역이었다.

북성로는 옛 성벽을 따라서 만들어진 도로인데 일제시대에는 大邱의 가장 변화한 길이었다. 이 지구는 해방 후부터 기계상, 철물상 등이 집중하였다. 중앙로(중앙통)는 대구역으로부터 반월당에 이르는 大邱의 간선도로변인데 1960년대 말에는 문방구, 서점, 금은방, 시계방, 양복점

등 300여개 상점이 있는 주요상가이었다. 서성로는 옛날 성벽을 철거한 뒤에 생긴 도로인데, 6.25사변 이후 각종 군수물자를 취급하는 상점들이 집중하여 60년대에는 강통가공업, 자전차상, 고철물상 등 50여개 점포가 모여서 고철가공판매의 중심상가가 되어 속칭 ‘강통도로’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졌었다. 종로는 옛날부터 있던 가구점이 더욱 발달하여 20여개의 가구점이 모여있는 가구전문상가가 되었다. 동성로는 1960년대 후반에 더욱 발전된 상가로서 양품류, 전기제품, 각종 장식품 등 중류 이상의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의 중심가가 되었다. 향촌동은 6.25사변 후 활기를 띄기 시작한 대중식사, 빠, 카바레, 주점, 당구장, 다방, 여관 등 유흥업소 50여개가 성업을 하고 있었다.

한편, 60년대에는 상설시장도 크게 신장하였다. 즉, 1962년 말 대구 시내에 사설시장 9개소, 정기시장 4개소, 중앙도매시장 2개소, 합계 15개소가 있었으나 1970년에는 공설시장 6개소, 사설시장 39개소, 중앙도매시장 3개소, 합계 48개소가 되어 10년 동안에 상설시장이 33개나 늘어났고, 따라서 지역내의 상권에도 많은 변동이 생기게 되었다.

즉, 1961년 8월에 공포된 ‘市場法’에 따라서 대부분의 공설시장이 시장상인들의 모임인 市場繁榮會로 拂下되어 민영화되고, 인구증가와 더불어(1960년대 100만명 초과) 사설시장이 대량으로 신설되었고, 따라서 변두리 주택가에는 무허가 시장도 많이 생겼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서 사설시장의 하나로서 1969년 11월에 현대식 대규모 소매업체인 한일아케이드가 문을 열었고, 1969년 12월에는 해방후 大邱에서 처음으로 본격적 백화점인 ‘大邱百貨店’이 개장되었다. 이것을 시발로 하여 1~2년 내에 한도백화점(1971년 2월), 로이열 데파트(1971년 6월), 성당상가 아파트(1971년 9월), 칠성백화점(1971년 9월), 신세계백화점(1971년 10월), 대구맨션마켓(1971년 11월) 등 비교적 대규모 소매상점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즉 이 기간 중에는 공설시장의 민영화, 사설시장의 급증, 정기시장의 쇠퇴(解顔 不老市場이 유일한 정기시장), 재래시장의 현대화, 백화점, 아케이드 등 새로운 유통기관의 출현 등으로 유통업계에 커다란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 IV. 1970年代

1970년대 大邱의 상업은 두가지 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생겼다. 첫째는 京釜高速道路의 개통에 따라 大邱의 주요업종인 섬유도매업이 쇠퇴한 것이고, 둘째는 근대적 소매형태가 크게 발전하였다는 것이다.

## 1. 都賣業의 衰退

1970년 7월에 京釜高速道路가 개통하여 대구~서울간을 4시간에 달릴 수 있게 되자 이것이 경제력을 서울에 집중시켜서 大邱의 도매기능을 쇠퇴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즉 京釜高速道路가 개통된 직후인 1971년에서 1976년 사이에 전국의 도소매업체수는 약 23%가 증가되었으나, 大邱의 경우 경제활동의 척도가 되는 도매업체수는 1971년의 2,104개소에서 1976년에는 오히려 1,309개소로 줄어들었다. 이와 같이 70년대에 大邱의 도매업이 크게 위축된 것은 입지여건의 불리 때문에 정부의 경제정책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은 데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이유는 京釜高速道路가 개통되어서 대구~서울 4시간, 대구~부산 2시간으로 운행시간이 단축되면서 도매업이 특히 서울에 많이 집중된 것에 그 이유가 있다. 이 기간 大邱의 도매업은 감소되었지만, 전국의 도매업체수는 23% 정도 증가하였는데 비해, 서울은 전국평균을 훨씬 능가하는 34%나 증가한 것으로도 알 수가 있다.

〈表 4-8〉 大邱市 都賣業의 年間 賣出額의 比重 變化 (단위: %)

구	분	서 울	부 산	대 구	전 국
도 매 업	1968	44.9	13.5	9.4	100.0
	1971	29.5	10.4	18.2	100.0
	1976	55.8	11.7	4.2	100.0
	1982	43.2	14.1	4.9	100.0
소 매 업	1968	39.6	9.4	10.2	100.0
	1971	34.8	10.9	8.8	100.0
	1976	38.0	10.4	4.6	100.0
	1982	40.6	8.7	5.3	100.0

資料: 經濟企劃院, 《都小賣業센서스 報告書》, 1969, 1972, 1977, 1983.

도매업의 쇠퇴는 섬유업이 주축을 이루었지만, 大邱의 명물인 한약재 도매업의 경우도 같은 현상을 나타내었다. 즉, 한약재 도매업체의 수로 보아서 1971년에 大邱는 한국 전체의 19.5%를 점했지만, 1976년에는 11.6%, 1979년에는 10.6%, 1982년에는 4.6%로 감소해 나갔다. 이러한 大邱의 주종업의 도매쇠퇴로 인하여 大邱의 전반적인 도매업의 비중이 1971년의 18.2%에서 1976년에는 4.2%, 1982년에는 4.9%로 감소되었다. 이것은 소매업 판매액의 감소추이(1971년 8.8%, 1976년 4.6%, 1982년 5.3%)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다.

섬유 및 의류 도매업체의 추이를 보면 이 경향을 더욱 뚜렷이 알 수가 있다. 즉 1971년에는 458개의 섬유류 도매업체가 大邱에 있어서 전국의 33.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가



개통된 수년 후인 1976년에는 섬유류 도매업체수가 197개소로 전국의 7.4%로 급감현상이 있었고, 1982년에는 2.7%로 더욱 하락하였다. 그대신 서울의 비중은 1968년 32.8%에서 1976년 67%, 1982년에는 88%로 급증하여 경제력의 서울 집중현상이 뚜렷히 나타났다.

〈表 4-9〉 1970年代의 纖維 및 衣類都賣業體數의 推移 (단위: 개소, %)

연 도	서 울		부 산		대 구		전 국	
	업체수	전국비중	업체수	전국비중	업체수	전국비중	업체수	비 중
1968	345	32.8	147	14.0	256	24.4	1,051	100.0
1971	564	41.5	88	6.5	458	33.7	1,360	100.0
1976	1,322	66.6	164	8.3	197	7.4	1,984	100.0
1979	4,071	79.6	320	6.3	302	5.9	5,114	100.0
1982	11,884	87.8	736	5.4	361	2.7	13,537	100.0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대구유통서비스산업현황》, 1988.

## 2. 小賣業의 變化

1970년대 大邱市 소매업체계의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유통형태의 급격한 발달이었다. 1970년대 초에 실시된 정부의 유통근대화정책에 힘입어 大邱에도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 대형소매점시대가 되었고, 한편 동신지하상가의 조성을 계기로 지하상가시대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에 생긴 대형유통업체들을 연대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는 특히 슈퍼마켓 체인이 급속히 발달한 시기인데 1971년에 처음 생긴 슈퍼체인 본부가 1980년에는 서울에 본점을 둔 체인본부를 합하여 체인본부는 10개, 점포수는 144개에 달하였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한남체인(39개 점포)과 한국생필품체인(30개 점포)인데 서울에 본사를 둔 이들이 大邱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48%나 되었다. 大邱地域의 체인으로서는 동아백화점이 모체가 된 동아수퍼체인(23개 점포)과 대구백화점이 모체인 대구수퍼체인(18개 점포)이 대표적인 것이고 나머지는 소규모였다. 이 중에서 직영점포수는 18개 점포(12.5%)뿐이고 나머지 126개 점포(87.5%)는 가맹점포였다. 한편 점포당 종업원수도 전국 평균 12명, 서울지역 15명인데 大邱의 경우에는 4.8명이었고, 매장면적은 전국평균과 서울지역에 훨씬 못미치는 57평 수준(직영 92.5평, 임대 7.5평)이었고, 매출액도 서울지역의 절반정도 밖에 안되었다. 즉, 당시의 大邱地域의 슈퍼체인 점포들은 양적으로만 급증했을 뿐 매우 영세한 것들이었다. 이것은 당시에 정부의 유통근대화자금 지원을 얻기 위한 출점경쟁으로 인하여 가맹점을 양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이라고 본다.

〈表 4-10〉 1970年代에 생긴 大邱의 近代의 流通業體

연 도	유 통 업 체
1970	대구백화점 정식으로 개점
1971	한도백화점, 로이얼 데파트, 성당아파트상가, 칠성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대구맨션마켓, 새마을수퍼체인
1972	영선수퍼마켓, 동아수퍼마켓, 동아백화점
1974	동아백화점의 정부지정 수퍼체인본부
1977	동신지하상가
1978	팔달종합백화점, 대보백화점, 대구백화점체인
1979	무궁화백화점, 미도백화점

〈表 4-11〉 大邱市内의 체인本部別 수퍼마켓 分布(1980년) (단위: 개소)

체 인 본 부	점 포 수
동아수퍼체인	23
대구(백화점)수퍼체인	18
대보(백화점)수퍼체인	7
미도(백화점)수퍼체인	1
대한수퍼체인	9
한남체인	39
한국생활품체인	30
새마을수퍼체인	2
미화당(백화점)수퍼체인	1
동남체인	13
합 계	144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調査資料, 1981.

## V. 1980年代

1980년대 大邱의 유통시장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즉, 도매업에서는 교통과 정보통신의 발달로 인한 도매업의 쇠퇴와 섬유도매업의 계속적인 부진현상이고, 소매업에서는 재래시장은 쇠퇴하였으나, 백화점 등 현대식 소매기구는 크게 발달하고, 대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에 따른 비합법적인 농산물 유통의 양성화 등이다.

### 1. 都賣業의 變化

1980년대에는 일반적인 경제발전과 더불어 대구지방의 도매업도 상당히 발전하였다. 즉, 도매업체수는 1979년에는 1,500개소에서 1988년에는 500만개로 약 2.3배, 판매액은 2,700억원에서 3조원으로 약 3.9배, 종업원수는 7,400명에서 2만 7천명으로 약 4.6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그 증가

율도 전국평균이나 서울, 부산에 비해서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도매업의 기반이 고속도로 개통 전에 비해서 너무나 약해졌기 때문에 절대액수는 서울에 비해서 매우 적다. 그리고 大邱市の 1987년도의 제조업출하액이 약 4조 1천억원임을 감안하면 대구지역내의 도매액(3조 원)은 73%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서울, 부산 등 타지역에서 도매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大邱의 전통적인 주업종인 섬유 및 의류도매의 경우, 업체수가 한 때(1971년) 전국에서 34%를 차지하였으나 1986년에는 업체수가 전국의 4.1%만 차지하게 되었다.

〈表 4-12〉 大邱地域의 수퍼마켓의 規模(1980년)

항 목	전 국 평 균	서울지역평균	대구지역평균
점포당 면적	—	—	92.5평
직영	—	—	7.5평
임대	—	—	57.0평
전체	93.6평	105.6평	57.0평
점포당 종업원수	12명	15명	4.8명
매출액 점포당	102,180천원 (79년 4/4반기)	120,760천원 (79년 4/4반기)	83,620천원 (80년 상반기)
1일/평당	13,019원	13,815원	9,905원
종업원1인당1일	95,307원	100,232원	93,531원
고객1인1회구매액	1,562원	1,663원	1,208원

資料：大邱商工會議所，大韓商工會議所 調査資料.

〈表 4-13〉 韓國 3大 都市의 都小賣業의 比率 變化(1982~1986년) (단위：%)

구 분	도 매 업			소 매 업		
	사업체수	종업원수	판 매 액	사업체수	종업원수	판 매 액
전국(1982)	100	100	100	100	100	100
(1986)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1982)	57	49	43	26	28	40
(1986)	51	46	40	24	28	35
부산(1982)	12	13	14	10	9	9
(1986)	11	12	16	9	9	9
대구(1982)	5	5	5	5	5	5
(1986)	6	7	9	5	6	6

資料：經濟企劃院,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86.

## 2. 小賣業의 變化

1980년대 大邱市의 소매업은 도매업에 비해서 커다란 발전을 하였다. 즉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2~1986년 사이에 소매업의 경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의 경우 사업체수는 26%에서 24%로 판매액은 40%에서 35%로 감소하였으나 大邱의 경우, 사업체수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2~1986년간에 5%로 변하지 않았고, 판매액은 5%에서 6%로 오히려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대구지방의 백화점업계의 발달은 특징적이었다. 인구로는 大邱의 2배가 되는 부산에 비해서 대구의 백화점업계는 확실히 앞서 있었다. 大邱市와 釜山市 商工會議所의 조사자료를 비교해 보면, 백화점당 평균면적은 大邱(5,600평)가 釜山(2,000평)보다 2배로 크고, 직영률도 大邱(85%)가 釜山(69%)보다 높으며, 매출액도 大邱(594억원)는 釜山(172억원)에 비해서 3배가 되었다. 백화점의 신장률은 1985년부터 연간 20%이상을 성장해 왔는데 1989년에는 36%를 기록하여 서울지역 백화점의 성장률(30%)을 초과하게 되었다. 또 이 기간에 동아백화점이 서울로 진출하여 프랭크백화점을 출점시킨 것은 大邱의 소매업계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는 재래식 시장이 계속적으로 쇠퇴하여 갔다. 1986년 12월 31일에 종전의 ‘市場法’이 폐지되고, 새로이 ‘都·小賣業振興法’이 발포됨에 따라서 상설시장과 일반시장의 구분이 없어지고, 시장개설요건도 대폭 완화되었다. 1989년에 大邱市에 88개의 일반소매시장과 1개소(칠곡시장)의 정기시장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1984년보다도 두개가 더 늘었지만, 총대지면적은 2.5% 감소하였고, 특히 상점수는 27%나 감소하였다. 이리하여 재래시장은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계속적으로 쇠퇴하였다.

재래시장이 쇠퇴하는 이유는 몇 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소비자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식생활 패턴이 변화함에 따라서 재래시장의 시설, 업종, 상품구성 및 판매방식이 변화하는 소비자의 구매방식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는, 시내중심가의 인구가 외곽에 있는 아파트 밀집지대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내중심가의 상주인구가 비교적 감소되고, 또 자가용차를 이용한 구매자가 늘어가는데 재래시장은 이러한 새로운 구매패턴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 셋째로, 이러한 이유로 도심지대에는 대형 신식 백화점이나 쇼핑센터가 발달하여 백화점 지하실이 과거의 재래식 시장을 대신해가고, 외곽의 주택지대 부근에는 새로운 형태의 슈퍼마켓이나 체인스토어가 발달하여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 3. 農水產物 都賣市場의 變化

1980년대 또 하나의 커다란 변화는 ‘대구 북부농수산물 도매시장’이 대구시 매천동에 건설되어 1988년에 개장됨에 따라서 유사도매시장을 포함 대부분의 도매시장이 새로운 시장으로 이전한 것이다. 1987년 현재, 大邱市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다음 표와 같았다.

〈表 4-14〉 1980年代의 大邱市内 農水産物 都賣市場(1987년) (단위: 평)

구 분	시 장 종 류	시 장 명	건 물 면 적
청 과 물	도매시장	중앙청과시장(주)	1,372
	농협공판장	대구중부공판장	7,594
		태평로, 대구원예조합	8,676
수 산 물	도매시장	대구종합건해산물(주)	2,846
	수협공판장	대구공판장	786
축 산 물	도매시장	신흥산업(주)	5,695
한 약 재	도매시장	대구한약재(주)	1,732

資料: 大邱市, 《통계연감》, 1988.

이상은 합법적인 도매시장이고, 경매제도를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도매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과물위탁상’들의 집결지인 소위 유사도매시장이 팔달교, 원대동 등지에 발달하고 있었는데 대구시내에서 거래되는 연간청과물총거래량(약 80만톤 추정) 중 위에서 말한 합법적 시장의 거래량은 25%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정부의 농수산물유통개선정책에 따라서 대구시 매천동의 20만평 대지 위에 새로운 도매시장을 건설하여 中央靑果(株), 농협, 및 유사상인들이 법인체(嶺南靑果(株))를 구성하여 1988년 10월에 입주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청과물의 유사도매시장이 크게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많은 유사도매상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 VI. 1990年代

한국 전체의 경제발전과 소비자의 소득수준의 향상 및 교통체증으로 인한 물류비증가, 유통개방화예의 대비 등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1990년대에 들어서 大邱의 유통업계는 물류개선, 유통시설의 대형화, 현대화, 상가의 이동 및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선 등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 1. 大邱綜合流通團地

물류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지역 유통업계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大邱綜合流通團地를 대구시 북구 검단동에 건설하게 되었다. 도매, 물류, 무역센터기능을 겸한 25만평 규모의 종합물류단지의 제1차 계획으로 12만평의 대지에 섬유, 의류, 패션의상, 산업용품, 가전제품, 전기재료, 연쇄업물류, 철강 등 2,100개 업체를 입주시키기 위하여 1993년 6월에 분양신청을

받았다. 이 제1차 계획에 따라서 1995년도에는 유통단지 기능이 부분적으로나마 시작될 것이고 2000년까지는 25만평, 3,300억원 규모의 사업이 완성될 것이라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점은 물류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물류 특히 집배송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은 미약하고 오히려 또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만 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물류의 능률화를 위한 물류단지 원래의 취지가 희석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 2. 大形百貨店の 競争的 開店

기존의 대구, 동아 양대백화점 이외에, 1990년대에 들어서 대형백화점이 경쟁적으로 개점하게 되었다. 1993년 9월에 대봉동에 대백프라자가 개점되었는데, 연면적 2만 5천평, 매장면적 1만평으로 단일건물로는 한강이남에서 제일 크다고 인정되고 있고, 연면적은 기존의 양대백화점을 합친 것보다도 크다. 연간매출액은 약 6천억 정도 될 것으로 짐작된다.

동아백화점은 수성구 지산동에 연면적 1만 6천평, 매장면적 6,500평의 ‘지산점’을 1995년에 개점할 예정이고, 새로운 부도심지구인 칠곡지구에 대규모 쇼핑센터를 개점할 예정이다. (주)롯데는 철도청과의 합의에 따라서 대구역에 1천억원 예산으로 연면적 4만평의 민자역사 겸 백화점을 1993년 11월에 착공하여 1996년 말에 준공시킬 예정이다. 민자역사가 준공되면 태평로, 중앙로의 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한편 (주)대우는 문화동의 구국세청자리에 호텔겸 대형쇼핑센터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 대형백화점의 판매신장률이 10% 전후로 둔화되는 추세에 있는 시점에 대형백화점의 경쟁적 출점은 지역유통업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 3. 便宜店(CVS), 連鎖店 등 現代의 小賣業의 發達과 在來市場의 衰退

1990년대에 전국적으로 새로운 편의품 소매점형태인 24시간 운영의 편의점(Convenience Store, 또는 CVS)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1993년 7월 현재 약 1만 5천개 점포가 개점되었는데, 그 대부분(623개 점포)은 서울에 있지만 대구에도 약 40개 점포가 출점하였다. 그 중에 ‘로손’이 26개소로 가장 많고, ‘LG-25’가 6개소 등이다. 일반적으로 CVS는 국민소득 6천불 수준에서 생기기 시작하고, 1만불 수준에서는 급팽창하며 2만불 수준에서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다는 국제적인 추세를 볼 때에 대구지역에도 CVS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그리고 생필품을 주로 하는 체인점들도 규모의 경제를 위하여 체인본부들이 연합체를 구

성하여 공동상표를 개발하고 공동으로 가맹점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반해서 대구시내 91개 재래시장에 있는 1만 2천개의 재래식 점포의 매출액은 점차 쇠퇴하고 있고, 1993년도에는 1990년의 70% 정도 수준밖에 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재래시장의 쇠퇴현상은 계속될 것으로 생각된다. 1993년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재래식 상거래방식을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재래시장의 쇠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다.

#### 4. 商圈의 變化

차량증가 및 지하철공사로 인한 도심교통의 정체, 외곽지역(동남방면)에의 대단위 아파트의 발달, 부도심의 개발 등의 이유로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구시내의 상권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 1) 東城路는 교동시장 입구에서 중앙파출소에 이르는 지역으로 1970년대의 번성기를 거쳐 계속 호황을 누렸으나, 1990년대에 와서는 주차난,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하여 식당가가 외곽지로 이전함에 따라 東城路의 상권은 크게 쇠퇴하고 있다. 단, 패션상가로서의 기능은 아직 남아 있다.
- 2) 中央通은 대구역~반월당에 이르는 중앙로 주변상가를 말하는데 1970년대 말까지 대구의 중심가로서의 번영을 누려왔으나, 1980년대에는 ‘상권의 남하’ 현상 때문에 쇠약해지고, 1990년대에는 지하철공사 관계로 더욱더 영향을 받고 있다.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마무리되고 대구역의 民資驛舍가 준공되면, 상권이 어느 정도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3) 半月堂은 1984년 동아쇼핑의 개점과 더불어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그 후에 반월당 네거리에는 20개의 금융기관이 밀집하면서 번창하게 되었는데, 지하철 1호선의 중심역이 되고, 또 9백억원 규모의 반월당 지하공간개발계획이 1990년대 중반에 완성되면, 반월당은 대구의 중심상권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 4) 범어네거리는 도심의 상권이 위축되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부근의 大邱銀行本店을 비롯하여 50여개의 금융기관이 밀집하여 ‘大邱의 월스트리트’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 5) 7호광장 네거리는 20여개의 금융기관 이외에 특히 유명브랜드 의류와 스포츠용품업체가 밀집하고 있어서, 넓은 7호광장 네거리는 새로운 대구의 패션 거리로 변하고 있다.
- 6) 大鳳洞은 1993년 9월 연건평 2만 5천평의 대형백화점인 대백프라자의 개점을 계기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1993년 초 신천대로의 개통에 힘입어 칠곡 등 부도심권의

구매력도 흡수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구의 새로운 상권으로 부상되고 있다.

- 7) 西部停留場 부근은 동남권처럼 응집력은 없지만 부근에 아파트 밀집지대가 많고, 1996년에 지하철이 개통되면 서부지역 최대의 상권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 8) 八達市場은 80년대까지 대구 최대의 채소시장이었으나, 1988년에 채소시장이 매천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다. 1986년에 개점한 하나백화점(팔달쇼핑)이 하나의 응집력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교통난 때문에 크게 발달하지 못하고 있다.
- 9) 西門市場은 전국 섬유거래의 70%를 차지하던 60년대의 성황은 없어도 아직도 1·2·4·5지구 및 동산상가, 건어물점을 합쳐 6천여 점포가 있고, 여기에 5천여의 노점상까지 합치면 한강이남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라고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주차시설의 추가적인 확보가 없으면 상권의 발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10) 七星市場은 대구 청과물의 큰 장이었으나, 1988년 매천동 도매시장의 개장과 신천대로의 개통으로 농산물의 많은 양이 매천동시장으로 빠지게 되어 청과물 시장으로서는 퇴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대구 시내 사과거래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또 부근 신천변에 생긴 600대분의 주차장이 개장됨으로써 상권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5. 農水產物 都賣市場의 發達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대구시 매천동의 7만 7천평방미터의 대지에 약 70억을 투자하여 건평 2만평방미터, 처리능력 1일 1,300톤의 大邱北部農水產物都賣市場이 1988년에 개설되었는데, 이어서 그 2만 9천평방미터 규모의 수산물시장도 1990년대 중반에 추가될 예정이다. 또 대구 동부에 새로운 농수산물도매장이 2000년에 건설될 예정이다.

## 第2節 都·小賣業의 發達

### I. 都·小賣業 一般

대구지역은 전통적으로 영남경제권의 중심지 역할을 해 오므로써 일찍부터 3차산업이 발달되어 왔으며, 특히 大邱는 유통산업의 비중이 높은 도시로 성장해 왔다. 대구경제에서 차지하는 유통산업의 위치는 절대적이다. 취업구조면에서 차지하는 도소매업의 비중 하나만



보더라도 1991년 현재 20.8%를 나타내고 있다.<sup>1)</sup>

비교적 정확한 통계수치를 얻을 수 있었던 1968년부터 1971년까지 대구 시내 도소매업체수는 18% 증가했으나 1971년 이후 1976년까지의 숫자는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대구상권내의 도·소매업체수의 1976년 이후 추이를 보면, 1976년의 2만 2천여개에서 1988년에 약 4만개로 90%나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중 전국의 총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3%에서 5.2%로 약간 낮아졌다. 이러한 것을 보면 대구의 상권이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말까지 영남상권의 중심지로서 서울상권에 맞서왔고, 특히 전국의 직물시장을 주름잡던 대구의 도매상권이 1970년대의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위축되었다. 그러나, 최근 90년대에 들어 그 비율이 차츰 증가추세에 있다.

〈表 4-15〉 年度別·商權別 都・小賣業體數 推移 (단위: 개소, %)

연도별 상권별	1976		1982		1988		1991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업체수	비율
전 국	413,911	100.0	588,026	100.0	753,235	100.0	830,045	100.0
대 구	22,068	5.3	32,072	5.4	41,882	5.2	46,413	5.6

資料: 經濟企劃院, 調査統計國, 《都小賣統計調査報告書》, 1988 및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편, 1992.

대구시 유통산업체수의 증가율은 극히 저조한 실적이며,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70년대 상반기(1971~1976년)에 특히 심한 감퇴현상을 보였으나, 1976년 이후 전국 비율에 비해 조금 상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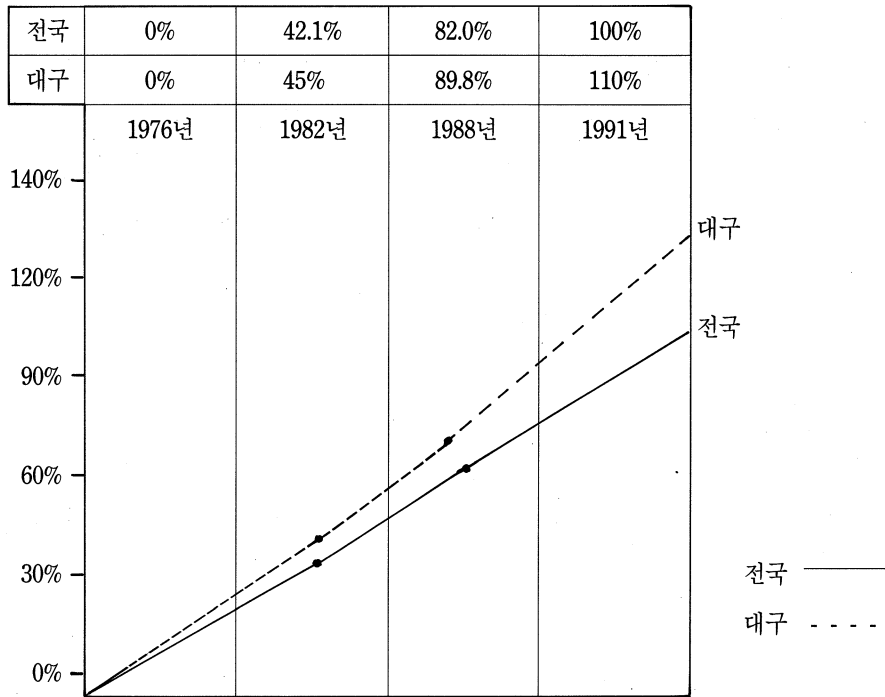
대邱는 대규모 소매기구인 백화점 등이 9개<sup>2)</sup>가 있는데,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은 1986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화성산업(동아백화점 경영)이 1988년 서울에 프렌드백화점을 개점한 것은 대구상업자본의 역외진출이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sup>3)</sup>

대구직할시의 도소매업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면 질적, 양적면에서 많은 성장을 가져왔다. 대규모 유통업체가 급성장한 반면, 영세상업집단인 재래시장의 상권이 점차 쇠퇴하여 일부시장에서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같은 산업에도 이중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그 대책이 절실히

1) 대구직할시, 《대구경제백서》, 1991, p. 103.

2) 위의 책, p. 345.

3) 위의 책, p. 104.



〈圖 4-1〉大邱市都小賣業體數의 年度別 推移(1976年 基準 增加率)

요청된다.<sup>4)</sup>

국내 도소매업은 업체수가 1991년 현재 83만개, 종업원수는 194만 6천명으로 총사업체 중 39.2%, 전체 취업자 중 10.5%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도소매업의 성장률은 지난 20여년 동안 GNP 성장률과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제조업에 비해 계속 낮은 성장세를 보였으며 그 결과 제조업은 부가가치의 대 GNP 비중이 계속 상승한 반면 도소매업은 부가가치의 대 GNP 비중이 1982년 11.4%에서 1992년 11.1%로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였다.

업체별로는 소매업보다 도매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즉 1972~1991년 중 소매업의 사업체수는 연평균 4.1% 늘어났고 매출액은 24.9% 증가한 데 비하여 도매업은 각각 10.2%, 27.3% 증가하였다. 따라서 1971년 도매업의 매출액이 전체 도소매 매출액의 40.7%였으나 91년에는 50.2%로 높아졌다.

대구지역 유통산업은 1991년 현재 도소매업의 업체수가 4만 6,413개, 종업원수는 11만 3, 432명으로 전산업의 38.2%, 20.8%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유통

4) 앞의 책, p. 104.

업체의 평균매장은 54.7평방미터로 나타나 전국의 평균 매장면적(58.7평방미터)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도매업은 87.7평방미터로 전국(72.4평방미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4명 미만의 업체가 전체의 92.3%를 차지하고 있었고,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는 2.4명으로 나타났다. 종업원 구성을 보면 자영업주 및 무급가족종사자가 54.6%, 상용종사자가 40.5%, 임시 및 일일종사자가 3.8%, 무급종사자가 1.1%로 각각 나타났다.

대도시 도소매업체 가운데 도매업체가 15%인 6,960개소, 소매업체가 85.0%인 3만 9,453개소이다. 도소매업 전체의 총판매액은 7,448억여원에 이르고 있다. 도매업체수는 15%에 불과하지만, 종업원수는 30.6%가 되며, 판매액 비중은 60.2%나 됨으로써 상대적인 경영규모의 차이를 짐작할 수 있다.

〈表 4-16〉 大邱市 都小賣業의 基本現況(1991년 말 기준)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판 매 액
계	46,413	113,432	7,448,003
도 매 업	6,960	34,733	4,484,890
소 매 업	39,453	78,699	2,963,113

資料: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업편 1992.

대구지역 도·소매업 행정구역별 분포를 보면 〈表 4-17〉에 나타나 있는 것같이 도매업 51%가 중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소매업소도 28.7%가 되는 전체적으로도 31.1%가 도심지에 입지하고 있다.

〈表 4-17〉 大邱 都·小賣業 區別 分布現況(1991년) (단위: 개, 명)

구 분	도 매 업		소 매 업	
	사업체수	종업원수	사업체수	종업원수
중 구	3,109	12,673	10,115	24,058
동 구	499	5,002	4,780	8,825
서 구	953	5,116	5,838	10,649
남 구	313	2,170	4,705	9,047
북 구	1,402	5,983	5,242	9,686
수 성 구	453	2,856	3,968	7,494
달 서 구	716	3,252	4,805	8,940
계	7,445	37,052	39,453	78,699

資料: 統計廳,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2권)》 지역편, 1991.

이와같이 도·소매점 수는 중구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 1. 都賣業 一般

대구지역 도매업체수는 1968년 1,310개소에서 1971년 2,104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1976년에는 1차 석유파동 이후 불황의 여파와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으로 도·소매점이 서울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오히려 1,309개 업체로 감소한 바 있다. 이후 1980년대에 들어와 1982년에 겨우 1971년 수준에 가까운 2,090개 업체로 회복되었으며 지속적인 호경기를 맞이하여 1986년에는 4,219개 업체로 급증하였고, 1991년에 6,960개소로 늘어났다.

〈表 4-18〉 대구市 都賣業體數의 變化 (단위: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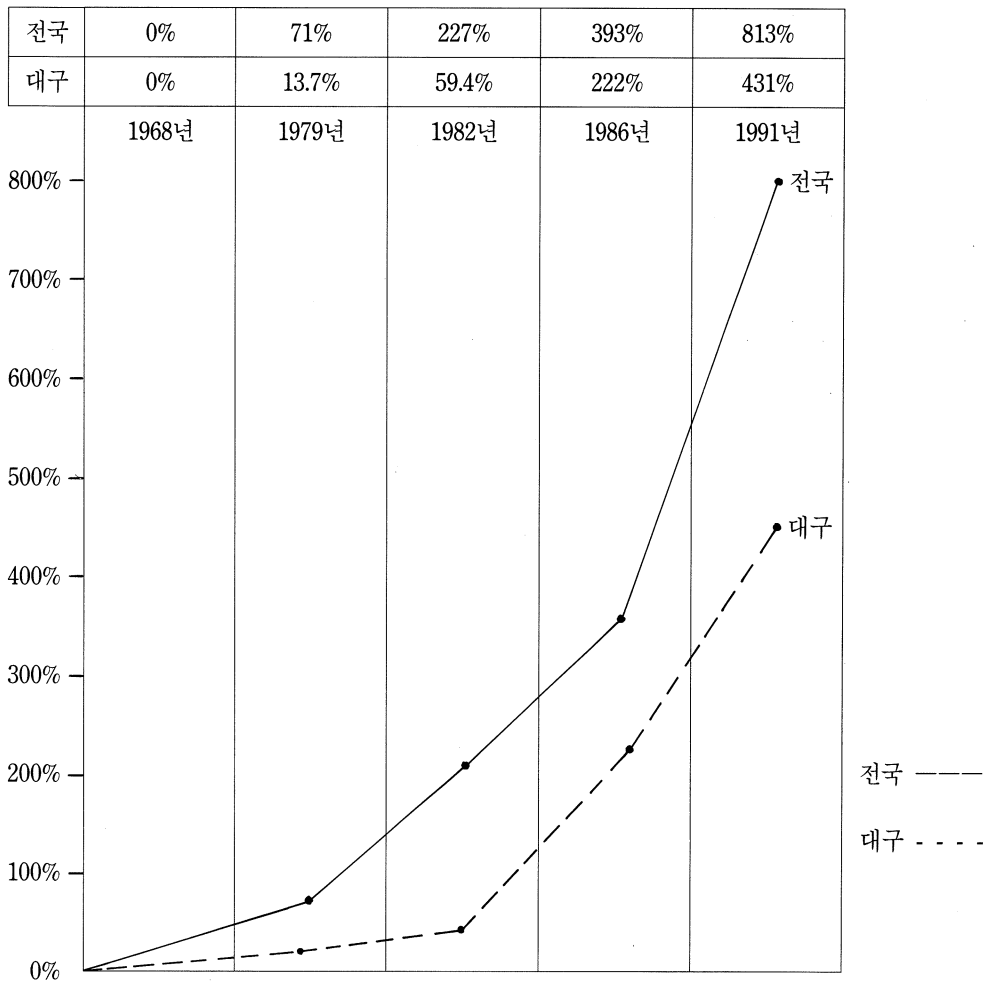
연 도 별	1968	1979	1982	1986	1991
전국평균	13,939	23,835	45,568	68,760	113,255
대 구	1,310	1,490	4,219	4,219	6,960

資料: 經濟企劃院, 《都小賣業센서스報告書》, 각 연도.

대구시의 유통산업은 상대적으로 지위가 하락하고 있다. 그 결정적 요인은 도매업의 저조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유통기관별로 분석해 보면 대구시의 도매업체수는 1968년~1979년 사이에 13.7%의 극히 저조한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국평균(71%)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진 셈이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차츰 그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에 비해서는 그 발달이 미약한 편이다.

세분업종별로 대구市の 도매업 경우 농산물 및 음식료품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섬유 및 의류점이 14%(973개소)로 나타났다. 단위당 판매액에 있어서는 업체수에서 10.5%를 차지하고 있는 의약품 및 화학제품상이 전체적으로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도 8명으로 가장 많다.

도매업은 중구지역 중에서도 기계공구 및 철물금속상 집중지인 서성로와 북성로, 동성로, 남성로 일대의 중심상권을 비롯한 서문시장의 대신1동에 무려 78.1%가 몰려있어 대구시 전체로도 39.8%의 각종 도매상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圖 4-2〉 大邱市 都賣業體數의 年度別 推移(1968년 기준 증가율)

### 1) 纖維·衣類都賣業의 發達

1910년대에 들어와 日本의 巨大製絲業體들이 大邱로 대거 진출, 제사공장들을 세움으로써 大邱를 전국적인 제사공업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일제시대에 흔히 大邱를 蠶都라고 일컫는 것도 바로 이에 연유하는 것인 바 이는 곧 섬유도시 大邱를 낳은 모태로까지 아직도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表 4-19〉 大邱市 都賣業의 業種構造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판매액
농산물 및 음식료	1,534	8,804	1,197,127
섬유 및 의류	973	2,989	415,507
의약품 화학	732	5,909	868,306
기계장비	1,077	4,668	395,184
철물 및 건축재료	673	3,013	291,197
금속 및 광물	327	1,534	222,144
운수장비	261	1,660	688,391
달리 분류되지 않는 일반도매	951	4,247	223,942
계	6,960	34,733	4,484,890

資料 :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都小賣篇, 1992.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시까지 제반의 혼란기를 벗어남과 때를 같이 해 대구섬유는 급속한 발전을 보게 된다. 1940년 일본인에 의해 세워졌던 일본군시방적 대구공장이 1949년에 이르러 朝鮮紡織 대구공장으로 개명된 데 이어 지역자본에 의한 최초의 방직공장인 삼호방직공장이 세워지는 등 大邱에는 제사 및 직물공장들이 나날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듬해 발생한 6.25 한국전쟁은 大邱를 국방상 병참기지화로 변모케 했을 뿐 아니라, 京仁地域의 방직공장들이 크게 파괴됨에 따라 대구지역 직물공장의 자연적인 변성의 전기를 마련해 주게 된다. 남북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 산업시설의 대부분인 70% 정도가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大邱는 다행히도 戰禍를 면할 수가 있었으며, 이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어 대구 직물업계에다 소위 벼락경기를 안겨주게 되었다. 당시의 경기는 ‘도요다작기 5대만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시중의 풍문으로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다. 너나없이 앞다투어 직물공장을 세운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렇게 6.25로부터 비롯된 특수경기는 大邱를 일약 한국 제일의 직물도시로 부상케했고, 이러한 계기는 大邱의 商業史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하고 있다. 피난민의 급증으로 인한 소비인구의 급팽창, 전쟁으로 인한 활발한 물자거래와 직물공업의 발달, 생존을 위한 상업인구의 증대 등으로 大邱의 상업은 그야말로 도·소매 양기능면에 있어 황금기를 맞게 된 것이다.<sup>5)</sup>

5) 대한백화점협회, 《유통도시 대구의 어제와 오늘》, 1993, pp. 8~10.

1960년대 경제개발기에 들면서 大邱의 상업부문은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전에 따라 상당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당시 섬유도매상의 전국 비중을 살펴보면 업체수가 1968년 24.4%에서 1971년 33.75%로 크게 높아졌으며, 연간 매출액비중 또한 같은 기간 중 21.2%에서 52.6%로 엄청나게 높아졌다. 서울지방의 도매업은 업체수만 많았지 거래규모면에 있어서는 大邱의 위세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을 정도였다.

이와같은 大邱의 도매기능은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차 위축되기 시작한다.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과 심화되는 경제력의 서울 집중현상은 전통적인 大邱의 상업기능을 크게 침체케 했다.<sup>6)</sup> 大邱에서 만들어진 직물제품조차도 서울의 도매시장을 통해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1970년 초만 하더라도 전국섬유제품 의류거래액의 53%를 점유해 오던 大邱地方이 1982년에 이르러서는 고작 4%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섬유 및 의류도매업의 업체수 증감추이를 보면 <表 4-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8년의 256개 업체로 전국의 24.4%를 차지하였으나, 京釜高速道路가 개통된 1971년 이후로 계속 감소하여 1991년 현재 973개 업체로 전국의 4.3%를 점유한 데 그치고 있다. 반면 서울은 1968년 345개 업체로 32.8%를 차지하였으나 1991년 현재 1만 8,413개 업체로 81.5%를 차지하여 전국의 섬유 및 의류도매를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表 4-20> 纖維 및 衣類都賣業體數의 推移 (단위: 개소, %)

구 분		1968	1971	1979	1986	1991
전 국	업 체 수	1,051	1,360	5,114	14,748	22,600
	전국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업 체 수	345	564	4,071	11,884	18,413
	전국비중	32.8	41.5	79.6	87.8	81.5
大 邱	업 체 수	256	458	302	605	973
	전국비중	24.4	33.7	5.9	4.1	4.3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대구유통서서비스산업현황》, 1988.

大韓商工會議所, 《한국의 상권》, 1991, p. 903.

大韓統計協會,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편, 1992.

한편 섬유 및 의류 도매업의 연간판매액 추이 역시 大邱는 1968년의 21.2%, 1971년의 52.6%에서 계속 감소하여 1991년 현재 9.3%의 전국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서울은

6)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경영논집》, 85-4, 1981.

1968년의 32.8%, 1971년의 41.5%에서 계속 비중이 증가하여 1993년 현재 전국의 78.4%를 차지하고 있다.

〈表 4-21〉 纖維 및 衣類都賣業 賣出額 推移 (단위: 개소, %)

구	분	1968	1971	1979	1986	1991
전 국	업 체 수	14,793	49,898	403,032	1,810,969	4,481,032
	전국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서 울	업 체 수	6,904	15,856	282,756	1,407,989	3,513,335
	전국비중	32.8	41.5	79.6	77.7	78.4
대 구	업 체 수	3,173	26,232	30,863	169,984	415,507
	전국비중	21.2	52.6	7.7	9.4	9.3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대구유통서서비스 산업현황》, 1988.

大韓商工會議所, 《한국의 상권》, 1991, p. 903.

大韓統計協會, 《중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도소매편, 1992.

## 2) 農水産物 都賣業의 發達

농수산물의 도매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경매하도록 되어 있어서 합법적 인가를 받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도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청과의 경우, 農協이 대구시와 업무계약으로 도매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래액은 1960년에 청과물 2,300만원에서 1969년 8억 4천만원(40배)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사상인을 통한 거래량이 합법적 도매시장 거래량보다도 5배나 액수가 많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大邱直轄市는 농민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안심하고 팔 수 있고, 소매자들도 신선한 농수산물을 싼 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1988년에 大邱直轄市 북구 매천동 527-3번지 일대에 농산물도매시장을 건립하였다. 공영 도매시장 개발초기에는 새로운 유통구조에 적응하지 못한 유사도매업자의 입주거부와 주변상권 미개발로 시장활성화가 되지 않았으나, 인구의 증가로 유통물량이 확대되고 도심지에 위치한 유사도매시장이 교통번잡유발로 외곽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의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확장하게 되었다.

북부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大邱와 慶北 일부지방의 농수산물 도매의 중심시장으로서 지방에서는 최초로 1986년에 사업을 착수, 총 63억원(국비 10억원, 시비 53억원)을 투입하여 부지 7만 5,900평방미터, 건물 6,500평방미터 규모의 농산물 도매시장 A동을 건립하여 1988년 10월 7일 개장하였다. 개장 당시 농산물 수급업체로는 大邱中央靑果(株), 嶺南靑果(株), 農協北部 大邱共販場 등 3개 업체가 입주하였으며, 1992년 10월 嶺南靑果(株)가 지정도매인으로 신설



되었다.

수산물 수급업체로는 大邱乾海産物都賣市場(株)가 있으며, 기타 업체로는 관련상가(주)를 입주시켜 대구지역에서 처음 공영도매시장을 출범시킨 바 있다.

〈表 4-22〉 農水産物都賣市場 擴張 (단위: 평, 백만원)

구 분		계	1차 단지 (농산 A동)	2차 단지 (농산 B동)	3차 단지 (수산동)	4차 단지 (주차공간)	관리동 및 부대시설
규 모	부 지	45,000	23,000	13,000	8,000	2,000	
	건 물	22,500	5,000	9,000	7,000	—	1,500
사 업 비		55,800	6,300	24,600	12,900	4,000	8,000
사업기간		1994~1995	1984~1988	1990~1994	1990~1994	1992~1995	1993~1994

資料: 大邱市, 《대구시정백서》, 1993, p. 350.

개장시 7만 5,900평방미터 규모로 출발하였으나, 증가하는 물량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2차 사업으로 연접한 위치에 5만 2,800평방미터를 매입하였으며, 3차 사업으로 2만 6,400평방미터의 부지를 매입, 교통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국고보조금과 농안기금을 확보하여 5만 2,800평방미터 규모의 농산물 B동 및 수산물과 관련상가동을 건립하여 공영도매시장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할 계획이며, 2,000년대를 대비하여 동부지역에도 1개소를 증설할 계획이다.<sup>7)</sup>

대구북부도매시장이 개설되기 전인 1986년에 대구 시내에는 법정청과물 도매시장인 大邱靑果株式會社와 農協共販場 및 委託商이 모여있는 유사도매시장이 있었는데, 도매거래량 점유율은 大邱靑果 3%, 農協 15%, 유사도매시장의 위탁상들이 점유율의 82%를 점하고 있었다.<sup>8)</sup>

이들 도매시장들은 모두 도심지에서 3km내에 있어서 규모도 협소하고 교통혼잡 때문에 원활한 도매기능수행에 지장이 많았다. 또 개인위탁상이 모여 자연발생적으로 이룩된 비법정 도매시장에서 약 80% 이상이 거래되어 시장질서와 제도면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제도적 문제와 능률문제, 교통문제, 향후의 발전전망 등을 고려하여 농수산부의 6대 도시 농수산물개발계획에 따라 大邱北部都賣市場을 大邱市 북부외곽의 매천동에 신설하여 1988년 10월에 개장하였다. 실제 약 6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된

7) 대구직할시, 《대구시정백서》, 1993, pp. 349~350.

8) 이종영, 〈청과물도매시장개발계획의 이론과 실제—대구북부청과물도매시장의 경우〉, 《경상논집》 20-2 경북대학교 경제경영연구소, 1992, p. 2.

〈表 4-23〉 大邱市 果菜都賣機關去來量(1986년)

구 분	시 장	거 래 량(천톤)			중 매 인	
		청 과 (%)	채 소 (%)	계 (%)	인 원 (명)	1인당 평균 취급량(톤)
법 정	대구청과	6(4)	19(3)	25(3)	20	1,250
농 협	대구공판장	11	11	22	17	—
	중앙공판장	7	10	17	17	—
	태평로공판장	22	8	30	18	—
	원예협동조합	6	50	56	14	—
	소 계	46(35)	79(12)	125(15)	56	2,200
위 탁 상	칠성시장	74	92	166	119	—
	원대시장	7	131	138	57	—
	팔달시장	—	354	354	56	—
	소 계	81(61)	577(85)	658(82)	236	2,800
총 계		133(100)	675(100)	808(100)	312	2,600

資料：한국산업경제연구원, 《대구북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방안연구》, 1987.

이 시장은 연간 약 45만톤의 청과물과 3만 4천톤의 수산물을 취급한다.

이 시장에는 법정도매시장회사인 大邱靑果株式會社, 원대와 팔달시장에 있는 위탁상들이 설립한 嶺南靑果株式會社, 農協共販場, 乾魚物都賣市場이 입주하고 있다.

개장 초기 입주업체 및 이용자의 인식부족과 한적한 매천동 들녘에 시장이 입주하여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도매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미흡하였으나 도심지의 교통체증과 유통물량 증가로 1990년 중반부터 서서히 상권이 형성되고 시민생활향상에 따른 신선한 고급식품 선호로 앞으로 동시장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表 4-24〉 北部農水產物都賣市場 靑果物 上場去來實績 (단위: 톤)

회 사 명	계	대구중앙청과(주)	영남청과(주)	농협북대구공판
1989	74,278	14,137	46,698	13,343
1990	103,368	25,271	69,438	13,960
1991	128,603	33,316	75,547	19,077

資料：대구시, 대구시정일보, 1992년

이종영, 〈청과물도매시장 개발계획 이론과 실제〉, 1992

〈表 4-24〉 北部農水産物都賣市場 青果物 上場去來實績 (단위: 톤)

회 사 명	계	대구중앙청과(주)	영남청과(주)	농협북대구공판
1989	74,278	14,137	46,698	13,343
1990	103,368	25,271	69,438	13,960
1991	128,603	33,316	75,547	19,077

資料: 대구시, 대구시정일보, 1992년

이종영, 〈청과물도매시장 개발계획 이론과 실제〉, 1992

1992 매천동 도매시장은 1989년 7만 5천톤(200억원)에 불과했던 반입량이 1991년에는 22만 2천톤(6백23억)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났다. 규모는 서울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이어 전국 2위를 차지할 정도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청과업체들이 크게 늘고 있다.<sup>9)</sup> 기타 칠성시장, 원대시장, 팔달신시장에 유사도매시장이 있다.

대구지역에는 1개의 법정수산물도매시장과 1개의 수협공판장이 있다. 법정도매시장인 大邱乾海物都賣市場은 1986년 9월 12일 大邱綜合乾海産物都賣市場(株)으로 설립하여 1988년 6월 大邱乾海産物都賣市場(株)로 바뀌어, 1988년 9월 1일 매천동 도매시장으로 옮겼다.

〈表 4-25〉 大邱乾海物都賣市場 品目別 去來實績 (단위: 톤, 백만원)

연도 품목	1 9 9 0		1 9 9 1		1 9 9 2	
	거래량	거래액	거래량	거래액	거래량	거래액
김	47	530	65	698	70	446
건오징어	20	202	29	308	77	604
멸치	162	452	222	654	284	800
명태	208	754	93	594	41	335
기타	262	1,242	254	1,533	522	2,455
계	699	3,180	663	3,787	994	4,640

資料: 업계실태조사

大邱乾海物都賣市場의 실적은 1990년대비 1992년도 현재 거래액면에서 42%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大邱乾海産物都賣市場에서 건어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고등어, 갈치, 생대구 등의 선어류는 水産業協同組合 中央會 大邱共販場에서 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의 거래실적은 1990년(거래량 1만 5,757톤, 거래액 79억 3,422만 5천원)에 비해 1992년(2만 9,618톤, 243억 5,212만 6천원) 90% 정도 증가했다.<sup>10)</sup> 유사도매시장으로는

9) 〈매일경제신문〉, 1993. 5. 18.

10) 업계자료

성시장, 서문시장 등에서 선어류가 거래되고 있고, 서문시장 등에서 건어류가 거래되고 있다.

### 3) 畜産物都賣市場

大邱市에 법정 축산물도매시장은 1970년 내당동에 개설된 新興産業(株) 1개소이다.

〈表 4-26〉 畜産物都賣市場 擴張移轉計劃 (단위: m<sup>2</sup>, 억원)

사업장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부지	건물		
축산물도매시장	15,639	6,115	79	1991~1994

資料: 大邱市, 《대구경제백서》, 1991, p. 401.

〈表 4-27〉 肉類都賣商現況 (단위: 개소, 백만원, %)

	도매상수	매출액
전국	1,645	389,678
전국비중	100	100
서울	878	243,731
전국비중	53	63
대구	52	10,068
전국비중	3.7	2.6

資料: 大韓統計協會,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

大邱直轄市 서부지역에 축산물도매시장을 건설하여 육류수급의 적정 및 유통에 원활을 기하고 있으나, 축산물도매시장 주변이 주택지화 됨으로 인하여 악취공해 및 교통혼란이 발생되어, 현재의 도매시장을 대구직할시 달서구 유천동 245번지 일원으로 확장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sup>11)</sup>

1991년 말 기준 大邱地域 육류도매상은 52개소이고 연간 매출액은 100억 6,800만원이다.

## 2. 小賣業 一般

〈表 4-28〉 大邱市 小賣業 成長 推移 (단위: 개소, 명, 백만원, %)

	1986년			1991년		
	사업체수	종사자	연간판매액	사업체수	종사자	연간판매액
전국	637,762	1,221,289	21,673,830	716,790	1,424,435	52,177,600
전국비중	100	100	100	100	100	100
서울	164,650	341,625	7,561,494	172,541	389,117	17,182,072
전국비중	26	28	35	24	27	33
대구	34,672	68,637	1,235,416	39,453	78,699	2,963,113
전국비중	5.4	5.6	5.7	5.5	5.5	5.6

資料: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 1992.

11) 대구직할시, 《대구경제백서》, 1991, pp. 400~401.

경제기획원, 도소매업센서스보고서, 각 연도 대구지역 소매점의 경우 서문시장의 대신1동에 3,708개소, 변화가인 동성로에 2,018개소가 밀집하고 있어 중구 전체의 57.6%가 2개동에 집중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大邱지역 소매점의 경우 꾸준히 증가하여 1968년의 1만 7,386개소에서 1986년에는 3만 4,672개소로, 1992년에는 3만 9,453개소로 늘어났다. 대구지역 소매업체를 그 업종별로 보면, 1991년 말 현재, 음식료품 및 담배업이 1만 4,045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섬유, 의복업이다. 그러나 업체별 평균적인 경영규모면에서는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업의 종업원수당 판매액이 다른 업종의 소매업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합소매업은 백화점, 슈퍼마켓을 포함하여 전체 소매업의 1.2%에 불과한 497개소이나 전국적인 경영규모를 자랑하는 일부 대형백화점이 포함됨으로써 평균판매액은 3,715억 4,300백만원으로 나타났다.

〈表 4-29〉 大邱市 小賣業의 業種構造 (단위: 개, 명, 백만원, m<sup>2</sup>)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업 원 수	판 매 액	사업장면적
음식료품 및 담배	14,045	22,238	545,874	291,152
섬유, 의복, 신발 및 악세사리	8,396	14,011	420,167	181,421
가구, 철물 및 가정용품	3,711	8,921	379,235	189,262
약, 화장품 및 화공약품	2,950	4,867	157,072	92,548
장신구 및 시계	1,067	1,800	62,797	25,341
종이, 인쇄물 및 문구류	2,602	7,523	106,584	76,926
개인운수장비 및 주유소	903	3,513	375,748	80,411
가정용연료	533	2,103	200,829	26,400
달리 분류되지 않는 소매업	4,749	9,249	343,259	187,826
종합소매업	497	4,474	371,543	106,090
계	39,453	78,699	2,963,584	1,257,382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조사부, 《소매업경영동태조사》, 1993.

## 1) 百貨店の 發達

선진국에서는 이미 18세기 중엽에 자본주의 최초의 대량판매기관인 백화점의 개화기를 맞이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30년에 일본의 미쓰코시(三越)가 現 신세계백화점자리에 위치한 것이 최초이며 大邱 최초의 백화점은 서성로에 위치한 미나카이(三井)백화점이었으나 해방 후 없어졌다.

현재 대구시내에 있는 백화점은 大邱百貨店이 1970년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東亞百貨店(1972)을 비롯하여 대체로 1970년 이후에 건립된 것이다. 그런데 백화점의 이점은 광범위한 여러 품목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규모 소매상으로서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대규모 판매가 가능하여 상품의 회전율이 빠르므로 대량 구매로 일반시장보다 싼 가격으로 고객에게 봉사할 수 있고, 애프터 서어비스 등을 실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현재 대구시내에 있는 3~4개 백화점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전문적인 경험과 실력을 쌓은 경영인의 부족, 자본의 취약, 과다한 시설운영비와 직영제가 아니 임대제로 인해 대량구매의 이점을 살리지 못해 원가가 비싸게 먹혀 일반시장보다 비싼 상품가격, 소비자의 인식부족 등을 들 수 있다.

대구지역의 백화점은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역의 주요상권을 체인망의 구축과 모든 점포와 POS시스템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준비, 직원해외연수를 통한 고급인력의 확보 등으로 향후 외국업체들의 진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경쟁력 확보에 대한 대응에 부심하고 있다.<sup>12)</sup>

백화점과 쇼핑센터는 대중소비시대의 현대적인 대형소매기관으로 유통업계의 각광을 받아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大邱는 대구·동아 양대 백화점이 선의의 경쟁으로 점포를 증설·확대 하면서 서울에까지 진출할 정도로 지방의 백화점 시대를 선도하고 있다.

〈表 4-30〉 大邱地域 大規模百貨店の 變化 (단위: 개)

연 도	계	백 화 점	쇼핑센터	대 형 점
1981	7	7	—	—
1993	9	4	1	4

資料: 대구직할시, 《대구시정백서》, 1993. 8.

대구지역의 백화점은 그동안 업체 의 수적 변동은 없었으나, 大邱百貨店과 東亞百貨店の 점포확장과 문화 공간이 완비된 동아쇼핑의 개점으로 중심상권이 동성로에서 반월당으로 이어지는 중심상권 남진현상이 일어

났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 출점한 미도, 대보, 무궁화, 코리아 백화점 등 도심의 4개 백화점은

12) 대구상공회의소, 《유통시장개방과 지역유통산업의 대응》, 1993, p. 13.

법인의 운영부실로 1980년대 초 모두 해체되었다. 대백프라자가 1993년 9월에 출점하였고, 신세계백화점이 출점을 위해 건축공사를 서두르고 있는 한편, (株)롯데는 대구민자역사점 백화점을 1993년 11월 착공, 1996년 준공할 예정이고, (株)대우는 문화동의 구 국세청자리에 호텔점 대형쇼핑센터를 구상 중이라고 한다.<sup>13)</sup>

〈表 4-31〉 大邱地域 大規模百貨店 現況 (단위: 백만원, m<sup>2</sup>, 명)

분 류	명 칭	개 설 자	개 설 일	자 본 금	매장면적	점 포 수	종업원수
백 화 점	대 구	(주)대백	1970. 3. 16	10,300	18,300	754	973
	동 아	화성(주)	1970. 10. 18	15,700	9,775	462	353
	하 나	(주)하나	1993. 3. 1	950	3,784	250	93
대 형 점	광장코아	삼양코아	1988. 4. 8	—	2,050	69	95
	그린코아	삼양코아	1988. 4. 8	—	2,624	86	86
	대백농협	(주)대백	1989. 3. 29	—	3,795	65	42
	선프라자	(주)선영	1989. 9. 7	—	2,038	11	120
쇼핑센터	동아쇼핑	화성(주)	1984. 12. 15	—	15,982	500	649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대구지역유통서버비스산업현황》, 1993.

대구지역 백화점과 쇼핑센터의 시설규모와 점포수는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釜山을 앞질러 서울의 유명백화점과도 겨룰만하다.

〈表 4-32〉 百貨店의 地域間 差異 現況

항 목	단 위	전 국	서 울	부 산	대 구
1. 총매출액	%	100.0	64.0	5.9	14.2
2. 자본금(백화점평균)	억원	63	148	41	90
3. 자기자본비율	%	17.1	18.6	22.6	5.6
4. 총매장면적(평균)	평	4,973	10,731	2,234	6,160
5. 직영매장면적(평균)	평	4,175	8,822	1,770	5,892
6. 직영율	%	83.9	82.2	79.2	95.6
7. 종업원	명	724	1,556	440	1,142
8. 매출액	억원	984	2,284	339	1,346
9. 매출액총이익	%	24.1	24.8	23.5	21.2

資料: 한국백화점 협회, 《백화점 통계연보》, 1991.

동아, 대구 양대백화점은 지역백화점의 대명사처럼 大邱를 백화점 유통도시로 이미지업 하

13) 대구시 상정과.

다시피 독주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다른 백화점은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들 두 백화점은 대기업의 규모의 경제로 대중소비성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고 급수요를 창출해가고 있으며, 여러 곳에 지점과 슈퍼체인을 거느리고 유통계열화를 형성하고 있다.<sup>14)</sup>

〈表 4-33〉 大邱地域 百貨店の 他地域 進出(1991년 9월)

백 화 점	진 출 지 역
대구동아백화점	서울쁘랭땅, 분당, 일산점, 대구지산점, 범물점 포항점, 칠곡점(GMS)
대 구 백 화 점	서울중계동점, 대구대봉동점, 포항점, 구미(GMS)

資料 : 업계자료.

## 2) 슈퍼마켓, 連鎖店의 發達

슈퍼마켓은 1930년대의 대공황의 타개책으로 美國에서 등장한 것이며 우리나라에서는 1964년에 외국인 상대의 한국슈퍼마켓이 개설되어 서울, 대구, 부산 등지에 슈퍼체인을 이루고 있으며, 1968년 뉴서울 슈퍼마켓이 개설되었다. 大邱에서는 1972년 9월에 영산슈퍼마켓과 동아슈퍼마켓이 개점되었으며, 특히 동아슈퍼마켓은 그 모기업인 화성산업이 ‘슈퍼체인’ 지정업체(전국 6개)의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대구시내만도 10여개 이상의 점포를 가졌으며, 사세를 경남북 일원으로 확대해 가고 있다.

동아슈퍼체인 외에도 서대구, 중앙, 영선, 효목, 동대구역전, 동남, 팔달, 침산, 칠성, 서문상가 등이 정부의 육성책에 힘입어 우후죽순처럼 개점되었다. 슈퍼마켓은 소매기구의 소형화를 통하여 유통근대화를 기함으로써 생필품을 보다 싼값으로 신선하고 신속하게 배달하고 불합리한 유통마진을 시정하여 최종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81년 239개였던 대구지역 슈퍼마켓은 1993년 현재 2개의 회사형 연쇄화 회사가 슈퍼마켓 72개소를 두고 있으며, 가맹점형 연쇄화회사는 6개의 회사가 2,192개의 슈퍼마켓 점포를 거느리고 있다.

대구지역내 3,500여개 슈퍼마켓업계는 일부 업체에 POS를 도입하였거나 도입단계로 체계적인 매장관리, 고객서비스의 강화 등이 가능하나 대부분의 슈퍼업계는 규모나 종업원수, 자금력 등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sup>15)</sup>

14) 이종영, 《유통개방과 지방유통업체의 대응전략》, 대구매일신문사, 1992. p. 21.

15) 대구상공회의소, 《유통시장개방과 지역유통산업의 대응》, 1993, p. 13.



〈表 4-34〉 大邱地域 수퍼連鎖店 現況(1993년) (단위: 개소)

구 분		점포수	비 고
회 사 형 연 쇠 화 사 업 체	대 백 수 퍼	60	직영 9, 가맹 51
	화 성 산 업 수 퍼	12	직영 10, 가맹 2
가맹점형 연 쇠 화 사 업 체	대 한 수 퍼 체 인	500	직영 2, 가맹 498
	경 북 체 인	352	직영 2, 가맹 350
	영 남 유 통	200	가맹 200
	현 대 체 인	350	가맹 350
	태 원 체 인	150	가맹 150
	대 구 생 필 체 인	320	직영 2, 가맹 318
지 점 형 연 쇠 화 사 업 체	한 남 체 인	230	가맹 230
	농 심 가	324	직영 6, 가맹 318
	신 우 체 인	554	직영 4, 가맹 550
대구중서부수퍼마켓협동조합		276	회원 및 준회원
대구동북부수퍼마켓협동조합		79	회원
계		3,407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 《대구지역 유통서비스산업현황》, 1993.

### 3) 現代式 便宜店(CVS)의 導入

신산업 형태로 그 개점이 급증하는 편의점은 1989년 5월 국내에 세븐일레븐이 최초로 개점한 이래로 외국과 기술제휴형태 및 국내 독자 개발된 편의점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외국의 편의점은 직접 진출하기보다 기술제휴 형태의 간접진출로 현재까지 5개 업체가 제휴를 맺고 있다.

지역에서도 1992년 3월 남구 봉덕동 LA마트 개점을 시초로 1993년 7월 현재 약 43개 이상의 점포가 개점되어 그 수의 증가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에 개점한 편의점은 외국과 기술제휴 형태로 진출한 업체는 로손(미·태인유통)과 훼미리마트(일·보광) 2개 업체이며 여타업체는 서울에 본점을 둔 업체이다. 따라서 유통시장 개방으로 지역에 외국 편의점이 직접진출은 기대하기 어려우나 기술제휴 또는 합작형태로 지방출점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적 추세를 볼 때, 대구지역 편의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表 4-35〉 便宜店 業體別 現況(全國分布) (단위: 개소)

업 체	상 호	점 포 수
(주) LG유통	LG 25	
(주) 보광	훼미리마트	235
(주) 태인유통	로손	226
(주) 미원통상	미니스톱	205
서클K	서클K	178
(주) 삼은	세븐일레븐	139
(주) 동양마트	바이더웨이	77
(주) 유공	AM.PM	61
계		1,145

資料: 〈한국경제신문〉, 1993. 9. 18.

〈表 4-36〉 大邱地域 現代式 便宜店 現況 (단위: 개소)

업 체	상 호	점 포 수
(주) LG유통	LG 25시	9
(주) 보광	훼미리마트	8
(주) 태인유통	로손	25
기타(해태 등)	아리랑, LA마트 등	60
계		102

資料: 업체 실사결과

## 第3節 大邱藥令市の 發達

### I. 大邱藥令市の 歴史

지금까지 연구 및 검토되어 온 논고들을 중심으로 볼 때 大邱藥令市の 창설 및 역사에 대한 정통적인 학설을 어느 한편에서 단정짓기란 매우 어려울 듯 쉽다. 다만, 기존의 연구에서 大邱의 藥令市の 명명은 ‘朝鮮王朝가 中國(淸)에 바칠 조공용 약재를 모으기 위하여 孝宗 9년(1658)에 국왕의 명령으로 창시되었다’는 설과 1640년 전후 ‘日本 德川幕府의 요청에 의해 淸으로 개설되었다’는 설 등이 통설이다. 그렇지만, 嶺南大 권병탁 교수는 그의 논문

“大邱藥令市の 보건경제사적 고찰”에서 藥令市가 對淸 조공용 약제조달을 위하여 국방의 명령에 의해서 창시되었다는 이른바 명령성을 부정하고, 藥令市는 춘추계절시가 아니었던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아무튼 大邱의 藥令市の 역사는 약 300여년의 긴 세월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음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藥令市の 연대별 발전 추이는 1894년(고종 35년) 甲午改革 이후 날로 번창하여, 1900년 전후의 大邱藥令市는 ‘매년 2월과 10월에 개최되었으며 기간은 1개월씩 각 도에서 모이는 상인의 수가 약 1만여명, 거래액은 거의 100만원에 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910년 이후 日本의 총독정치 이후 朝鮮總督府의 藥令市에 대한 직·간접 통제에 의해 藥令市の 발전은 나날이 쇠퇴하여 한때 거래량이 10만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이들은 藥草採取規制를 만들어 약초의 채취와 판매를 사실상 금지시켰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폐



〈사진 4-3〉

1930年代初의 藥令市

시되다시피한 藥令市는 1923년부터 大邱漢藥商組合을 중심으로 ‘大邱藥令市振興同盟會’를 설치 藥令市 진흥을 위한 운동 - ① 藥令市 운동에 관한 일본경찰과의 유대강화 ② 한약업자에 대한 금융편의제공 ③ 약재료의 철도운임 경감 등을 전개해 나갔다. 이러한 성과는 날로 거듭 발전하여 1925년 이후에는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즉 1925

년의 총매상고는 77만 5천원으로 1924년의 36만 2천원 보다 2배가 넘었다. 그로부터 藥令市는 활기를 되찾아 거래도 증가하였으며, 한약재의 출시자도 계속 늘어났다. 그 결과 국내 각지에서 생산되는 약재는 말할 것도 없고 日本, 中國, 獨逸, 英國 등 각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와 양약재의 종류는 약 300종에 달했다. 또한 이 곳의 발전과 더불어 전국에서 모인 한의사 및 한약업자들은 학술을 논의하고 처방을 토론하기도 하는 등 藥令市の 발전은 여러 면에서 큰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일제는 2차대전 발발과 때를 같이 하여 ‘市場規制’ 등의 법령을 만들어 藥令市 개시를 정지시켰고, 1942년 ‘의약품 및 위생재료 생산배급통제규제’를 적용 藥令市를 폐쇄시켰다.

이후 1947년 1월 15일 46년도 추령시가 개최되었으나 ‘大邱藥令市 개시준비위원회’의 능력 부족으로 48년 추령시를 끝으로 사실상 藥令市는 그 막을 내렸다.

광복후 20여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藥令市 내 한약업사 수는 자연감소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까지 이르게 되자, 1961년 大韓漢藥協會 慶尙北道 지부를 중심으로 ‘약령시 부흥대책위원회’는 행정당국에 건의 경상북도와 대구시내에 시험을 치러 藥令市 내에만도 40여명의 회원이 증원되기도 했다. 그리고 1978년 大邱市 주최 시민축제의 일환으로 민족고유의 문화유산인 藥令市를 옛 모습으로 재현하고자 약전골목내에서 한약방을 경영하는 한약업자 50여명을 회원으로 한 ‘藥令市復活推進委員會’를 결성하여 藥令市를 개설하였다.



〈사진 4-4〉

市民祝祭, 藥令市 開設

藥令市 활성화 방안으로 1982년 현재 太平路 3가에 ‘大邱直轄市 漢藥材都賣市場’이 우리나라 최초로 설립 자본금 4억의 규모로 급성장하였으며, 매년 30%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85년 제8회 藥令市 개시행사 때 남성로에 한약재 상설전시관을 개관하였다. 건평 80여평에 한약 350여종과 선조들이 쓰던 한약기구, 동물의 박재 등을 전시하여 藥令市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藥令市와 漢藥의 홍보를 아끼지 않았다. 1987년까지 藥令市 발전에 초석이 될 ‘漢藥材都賣市場’의 약전골목내 이전문제와 도매시장 건물 내에 ‘약령시 수출입조합’, ‘한약전시관’

등을 이전하는 문제 등이 해결되자 ‘약령시부활추진위원회’는 발전적으로 ‘약령시보존위원회’로 그 명칭을 바꾸면서 거시적인 계획을 설계하기도 했다.

그리고 同위원회는 1987년 9월 29일 藥令市 내 약업인을 중심으로 한 주주 86명 자본금 1억 2,500만원으로 발전하여 1990년 현재 2억 6천만원으로 자산이 증가되고 연평균 20%의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1989년부터 중국과 직거래를 추진하여 조합이사들이 중국을 방문하여 교섭한 결과 1990년대 하반기 이후에는 그 교역량이 증가하였다. 이처럼 藥令市는 지속적인 한약재 수요의 확대에 따른 부응과 발전 및 관련 단체의 노력으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 II. 藥令市の 現況과 運營方法

### 1. 藥令市の 現況

한약재의 연도별 전국 수출입 동향과 대구지역 수출입 동향을 상호 비교해 보면 <表 4-37>과 같다. 대구의 한약재 수출의 전국 비중을 보면 1990년 5.27%, 1991년 4.35%, 1992년 7.78%로 약간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명실공히 지난날 그 명성에 비해 大邱藥令市の 전체 점유 비율은 매우 낮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리고 수입면에서도 수입실적의 증가세는 수출실적의 증가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규모의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는 단적으로 표현하여 지역 내에서 생산 및 출하되고 있는 한약재의 공급량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과 재배농가의 재배 기피에서 비롯된 것으로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大邱藥令市の 향후 발전에 커다란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염려된다.

<表 4-37> 年度別 全國·大邱 輸出入 動向 (단위: 천달러, %)

연도	구분	수 출			수 입		
		전 국	대 구	전국비중	전 국	대 구	전국비중
1990		18,147	957	5.27	82,466	1,833	2.22
1991		19,173	834	4.35	109,171	2,415	2.21
1992		22,384	1,742	7.78	128,995	3,819	2.96
1993		6,434	264	—	58,359	1,899	—

資料: 대한무역진흥공사《수출입통계》 및 한국무역협회대구지부《수출입통계》를 정리한 것이며, 1993년도 자료는 전국(1993.5.), 대구(1993.6.)로 현재를 기준함.

나아가 국가별 전국 수출동향을 살펴보면 아래 <表 4-38>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일본(4.98% 증가), 홍콩(806.85% 증가), 이탈리아(15.48% 증가)같은 경우 연도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대만(3.57% 감소)과 미국(34.01% 감소)같은 경우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表 4-38> 國家別 全國 輸出動向 (단위: 천달러)

국가	연도	1990	1991	1992	1993	증가율(1991~1992)
일 본		13,170	14,742	15,476	5,457	△ 4.98
대 만		661	589	568	236	▼ 3.57
홍 콩		208	73	662	49	△ 806.85
싱 가 폴		99	—	—	—	
프 랑 스		690	82	276	—	△ 236.59
이탈리아		230	717	828	535	△ 15.48
독 일		102	—	—	—	
네델란드		102	—	—	—	
벨 기 에		1,373	109	—	—	
스 위 스		26	243	—	76	
아일랜드		1,080	1,883	4,170	—	△ 121.46
미 국		398	588	388	76	▼ 34.01
합 계		18,147	19,173	22,384	6,434	△ 16.75

또한 싱가포르, 독일, 네델란드, 벨기에 그리고 스위스 등과 같은 국가와의 최근 한약재 수출 거래의 전무함은 현재 우리의 한약재 수출활동과 관련 수출계획 및 적극적인 홍보 등의 해외 마케팅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大邱藥令市의 한약재 관련 활동과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1990년대 이후에 들어와 한약재도매시장을 통한 주요 품목은 대략 100여종을 비롯하여 주요 품목의 거래액은 아래 <表 4-39>에 제시된 1992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볼 때 당귀, 두충만원, 백출, 오미자, (일)천궁 등이 주요 거래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약재도매시장을 통과하는 총매출액은 1991년도 약 59억원, 92년도에는 57억 5천만원 정도로 매년 총매출액은 감소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表 4-39〉 大邱漢藥材 都賣市場의 主要品目 流通 現況 (단위: 만원)

연도 품목		1990		1991		1992		1993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4월)
갈	근	26,835	32,123	8,043	8,054	10,760	4,124	9,390
강	활	47,669	50,886	40,043	196,178	220,408	118,024	148,096
건	강	21,498	16,672	69,359	55,426	19,962	29,271	50,653
계	내 금	13,112	4,371	6,727	2,190	766	2,781	1,163
구	기 자	80,953	90,395	34,372	60,453	70,733	83,751	32,649
길	경	71,995	96,455	77,818	103,125	76,362	96,043	183,499
남	성	10,042	17,696	6,112	5,368	7,023	10,410	3,271
당	귀	171,212	205,263	167,123	44,2024	647,363	553,246	433,928
독	활	75,335	115,837	91,686	110,651	44,587	34,695	139,139
두	충	101,002	69,892	118,817	84,042	85,141	54,767	46,316
맥	문 동	46,788	55,176	117,925	53,515	63,058	33,899	27,231
목	단 피	37,933	23,769	18,477	17,909	16,913	17,805	19,414
목	통	15,809	4,801	10,958	4,185	31,956	3,745	4,353
반	하	26,747	14,455	22,624	16,731	8,629	11,955	3,290
방	풍 (원)	16,060	32,607	6,056	24,827	41,532	13,135	1,837
백	지	37,767	31,297	68,639	48,498	68,319	78,946	32,003
백	봉 령	26,100	38,181	44,190	48,579	31,926	22,615	25,447
백	출	122,184	210,912	101,961	85,249	60,844	53,027	23,895
백	작 약	54,148	69,568	64,154	121,820	18,613	86,936	13,853
사	삼	44,007	27,734	77,267	50,952	71,905	37,868	52,669
생	산 약	84,444	118,123	210,752	102,678	92,704	47,075	50,250
산	수 유	36,251	39,822	66,888	62,159	27,809	21,333	13,373
시	호	22,043	16,879	39,113	55,459	16,849	12,594	31,396
오	미 자	276,440	18,0421	2,591	70,227	67,807	14,554	30,298
우	슬	70,787	58,036	79,612	72,909	25,924	38,867	26,083
의	인	14,933	36,456	35,026	33,268	7,300	1,564	3,826
전	호	19,317	13,581	16,142	6,122	11,075	3,605	5,058
지	모	35,996	15,891	38,383	49,313	39,544	27,118	19,223
창	출	16,122	10,744	17,366	15,221	14,835	7,605	4,739
(일)	천 궁	139,907	113,582	178,965	88,446	49,110	210,390	50,754
치	자	24,087	29,460	39,005	39,740	18,110	47,522	72,841
택	사	57,846	45,761	92,005	58,094	93,305	33,990	10,579
패	모	21,459	10,243	9,552	11,396	12,443	7,476	3,935
하	수 오	39,479	45,139	32,524	55,282	61,661	133,042	45,630

연도 품목	1990		1991		1992		1993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4월)
해 동 피	15,964	6,435	6,563	18,571	14,873	13,181	10,001
향 부 자	57,351	104,652	91,986	59,235	104,377	61,136	46,868
현 호 색	23,875	7,530	13,153	6,411	66,109	20,168	5,132
황 금	43,917	88,897	57,612	132,721	66,324	94,351	15,943
황 기	29,686	31,707	27,588	63,418	25,927	30,298	68,657
황 백	14,158	9,534	10,968	4,955	5,349	1,449	946
후 박	113,320	40,424	83,134	67,432	72,662	24,258	23,862

資料：대구약령시 한약재도매시장.

나아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지금까지의 藥令市의 주요 품목의 대부분을 지역생산품에 의존하여 왔던 것들이 농촌지역의 임금인상 및 일손부족 등으로 재배자체를 기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요즈음에 들어와서는 국내생산이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품목들이 해가 갈수록 더하고 있다. 한약재가 일차적인 농산품이고 경제적 이점을 갖지 못한다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농업 및 한약재의 경쟁력 측면에서 정부의 미래지향적이며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1993년 8월 현재 大邱市 南城路(약전골목) 일대에 개업중개인(한약업사)의 수는 33명, 한약방 수가 65개, 한의원이 40곳, 약업사가 50명 그리고 제탕집이 약 30여개로 조사되었다. 특히 한약업사의 수는 지난날 160여명에 달했던 때와 비교해 보면 얼마나 그 수가 줄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2. 藥令市의 運營方法

기존 藥令市의 활성화를 위하여 大邱藥令市는 ‘(株)漢藥材都賣市場’, ‘藥令市保存委員會’, ‘藥令市輸出入組合’ 등을 구성하여 각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 있다.

### 1) 藥令市 運營과 關聯機關

#### (1) (株)漢藥材都賣市場

‘(株)漢藥材都賣市場’의 기능과 역할은 중간상인들의 한약재 재배농가를 통하여 구입한 한약재를 경매 등을 통한 방법으로 생산자 → 중간상인 → 도매시장 → 소매상(한약방 및 한의원) → 소비자 등으로 유통시키는 기본적인 유통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된 약용작물의 위탁판매를 실시하고 또한 약용작물생산자 및 출하자에 대한 융자 등을 알선해 주고 있다.

## (2) 藥令市保存委員會

‘藥令市保存委員會’는 전통 藥令市の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유적지를 보존하며 나아가 명소의 거리 관광자원화를 위한 한약재 상설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근래에 들어와 사단법인 ‘약령제 보존위원회’에서는 매년 10월 정기적으로 달구벌 축제행사와 병행 약령제를 개최하고 있다.

同 위원회의 구체적인 사업을 살펴보면, ① 달구벌 축제행사와 병행 약령제 개최, ② 藥令市 전승문화를 발굴 및 보존하기 위한 한약박물관 운영, ③ 향토사 발굴 및 보존사업, ④ 허준 및 이제마 선생 등 선현 유업선양 사업, ⑤ 청소년 정서함양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藥令市の 발전을 위해 자체적으로는 ① 상설시장의 개설, ② 문화행사(경로잔치), ③ 특별강연회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本草研究委員會’에서는 매월 넷째주 일요일에 자연보호, 생약분포도 및 굴락지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藥令市の 발전을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 (3) 藥令市輸出入組合

‘藥令市輸出入組合’은 국내 한약재 수출 및 국외 한약재 등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운영을 펴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수출활동과 관련되는 업무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일반소비자, 한약방, 한의원 그리고 중간상인들의 요구 및 국내품귀품목을 중심으로 주로 값싼 중국산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편이다.

특히 약용식물에 대한 수요가 상승 추세에 있는 이 때 장기적인 안목에서 세계각국의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품종을 개발, 생산, 가공하여 수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2) 藥令市 運營에 따른 問題點

### (1) 流通段階의 複雜化

현재 藥令市 운영은 중간상인이 생산자와 도매시장간의 유통과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유통단계의 복잡화와 농간 등으로 가격 등이 폭등하고 있으며, 결국 유통비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여 많은 부작용과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자가 직접 도매 시장이나 소매시장 및 소비자와 거래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 (2) 무분별한 輸入量의 增加

지금의 농촌은 고임금, 일손부족 등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여파로 자연산 채취 및 재배농가의 감소 등으로 지역수요에 미치지 못하자, 무분별한 중국산 한약재를 수입함으로써 재배농가의 소득손실, 저질품목의 유통 및 약효의 감소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결국 소비자의 외면과 나아가 藥令市의 쇠퇴를 가져올 것은 기정사실인데 단기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는 관련기관의 불성실함과 藥令市 운영계획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생산품목의 가격안정과 수급균형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농림부 및 보사부의 무책임 역시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주요관련 품목에 대한 데이터의 산출과 수입과 관련 세관당국의 엄격한 품질검사 그리고 부처간 정보교류를 통한 재배면적을 파악 재배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양질의 한약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계획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 (3) 漢藥材 等級化

대부분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된 한약재의 경우 전문적인 검사기관의 검사와 등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대부분 한의원 및 한약사의 육안에 의한 식별로 시판 및 유통되어 진다. 물론 일선의 한의사 및 한약사들은 고급품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는 하나 국내외 유통되는 거래량을 살펴보고 등급에 따른 법적 기준이 없는 현재의 상태에서 일반소비자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검사기관의 검사 및 검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일반적인 농산물과 같이 포장·등급·규격 등에 상당한 미흡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 (4) 政府의 政策的 關心不足

한약조제의 과학화와 조제권에 따른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요즘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양의학이 발달한 주요 선진국 중 하나인 미국도 현재 ‘漢方研究機關’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관심이 날로 더해가고 있는 이때에 조제권을 둘러싼 문제라든가 미래 한방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안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 III. 藥令市 發展을 위한 計劃 및 展望

#### 1. 漢藥材의 輸出入 流通의 電算網 構築

한약재는 일차적인 농산물이라는 점에서 수급균형에 탄력적이지 못하다. 물론 다른 농산물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시장이 개방되고 외국산 농산물(한약재)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 현실에서 과연 관련부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무분별한 한약재의 수입을 막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각 세관을 통과하는 한약재의 품목별, 규모별, 가격별 동향을 주시하고 데이터 뱅크를 구축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차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될 공급량을 감안하여 관련 부처 및 시장과의 정보공유로 적절한 조절과 수급균형을 조절할 수 있다면, 한약재의 폭락에 따른 재배기피 등의 문제를 야기시켜 결국 저질의 외국산 한약재를 구입하는 기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가격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지역경제 및 소비자에게도 그만큼의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 2. 漢方醫學의 科學化

요즈음 약사법 중 조제권과 관련하여 한방과 양방과의 끊이지 않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제권이 어디에 있든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방의 비과학화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과 향후 국제적인 경쟁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한방의 과학화는 시급하다. 품질평가에 따른 등급화, 한방의 진료 및 조제에 따른 과학화 등에 따른 연구를 진행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구시 차원에서 漢藥材品質檢査所를 설치 및 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 3. 漢方の 醫療保險制度의 導入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경제성장과 의학의 발달은 그 국가의 국민들에 대한 醫療施設 및 의료법(의료서비스)의 강화 및 확대로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1940년대 당시 우리 국민의 평균수명은 40세에 불과하던 것이 이제는 70여세로 늘어날 정도이고 보면 양방의학의 발달 및 관련 제도가 얼마나 크게 공헌하였는가를 또한번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한방의 발달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한방과 관련된 제반 문제점들은

생략하더라도 너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고, 또한 아직 醫療保險制度의 도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원리에서 보면 가격부담으로 수요의 감소는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고, 결국 한방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밖에 간주할 수 없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한방에 대한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제반적인 제도 및 법규를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한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처럼 한약재가 국민건강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일익을 담당해 온 사실 또한 부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사실상 불투명하다. 그 이유는 중국산의 값싼 한약재의 무제한 수입에 따른 지역 한약재배농가의 소득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저질상품의 조제로 인한 약효의 감소, 한약조제권을 놓고 한의사 및 약사간의 대립과 갈등 또한 한약계의 발전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더불어 藥令市의 발전 역시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방의 신비함과 전통의학의 한부분을 차지해 온 한방의 장구한 역사를 좀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노력과 운영의 묘미를 살린다면 한방의 발달은 물론 藥令市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 第4節 在來市場

### I. 在來市場의 歷史

우리나라의 재래시장은 화폐의 기원과 함께 태동했다고 할 수 있다. 文定昌의 《朝鮮의 市場》이라는 책에 의하면 檀君朝鮮時代에 이미 시장이 성립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생성된 시대나 연원은 문헌상 추적 가능한 것이 高麗 전기로서 농경사회에서의 물물교환 형태의 자연적인 場市가 나타나고 있고, 朝鮮時代에 넘어와서 15,6세기가 되는 太宗 때부터 場市가 그 틀을 잡아왔다고 본다. 이와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의 재래시장은 단순히 상인이 물건을 매매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친목도 도모하고 각종 정보도 교환하는 등 일종의 공동체를 유지시키는 기능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시장발달을 살펴보면 바로 지역공동체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나아가서 지역주민의 생활양식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으므로 재래시장의 역사를 알아보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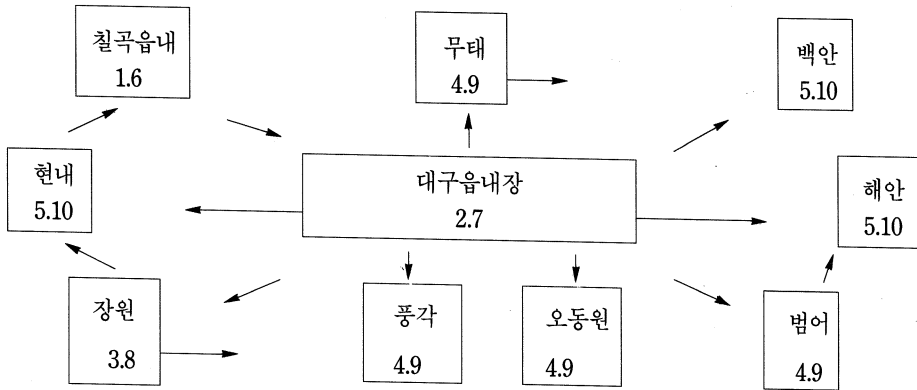
## 1. 大邱地域의 在來市場의 胎動

대구지역은 朝鮮 중기까지는 군수가 주둔하는 영남지역의 조그만 고을에 불과했다. 당시 大邱場(지금의 서문시장)은 대구군 성벽 북문 밖에 초라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던 것이 임진·정유 양난을 겪으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급자족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가까운 시장을 통하여 물자를 조달하기 시작했다.

또한 1669년(顯宗 10년)에 좌우도로 분리되어 있던 경상도가 통합되어 慶尙監營이 오늘날의 大邱中央公園에 설치된 것이 대구 시장발달의 한 계기가 되었다. 낙동강을 경계로 좌우도로 나뉘어 있던 것이 하나의 행정권을 형성함으로써 낙동강을 이용한 수로교통과 그것을 타지와 연결하는 육로교통이 발달하자 많은 왕래가 이루어졌고, 그로 인하여 大邱의 경제적 위치가 크게 부각되었다.

1677년의 大同法실시와 大邱藥令市의 개설은 大邱의 경제적 발달을 가속시켜 주었다. 종래까지 일반백성들이 정부에 바치던 현물공납을 포와 쌀로 대체함으로써 토지의 생산물 중에서 일정량의 미포만 바치고 나머지 각종 농산물은 모두 시장으로 모여들어 거래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藥令市가 활성화됨에 따라 大邱는 영남의 중심상권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거래량이 급격히 늘어나자 大邱場은 종래의 북문밖(현재의 北城路에서 太平路로 통하는 미창골목 언저리인 것으로 추정된다)에서 서문밖, 즉 오늘날의 동산파출소 언저리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매월 2일, 7일에 개최되던 도매업 중심의 大邱場과 4일, 9일에 개장되던 大邱新場(동문시장)은 도내 각지의 5일장을 연결시키는 중심지가 되었다. 그밖에 해안장(해서부면, 5.10일설), 화원장(화원현내면, 3.8일설), 하빈장(하북면, 5.10일설), 백안장(해북촌면, 3.8일설), 풍각장(각현내면, 1.6일설)이 있었으며, 단어장(수북면), 오동원장(하수남), 무태장(동하면) 등은 한때 개시되었다가 폐장되었다고 한다. 《東國文獻備考》에서 보면 이 당시의 大邱의 시장들은 인접한 고을의 장시와 부분 통합을 이루어서 하나의 시장망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1770년경의 大邱에는 9개소에서 5일장이 개설되고 있었으나, 1일과 6일에 열리는 장이 없어서 20리 이내에 인접해 있는 칠곡읍내장과 합하여 大邱邑內場(서문시장)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의 완전하고도 커다란 시장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 숫자는 개시일  
→ 상인과 상품의 이동방향

〈圖 4-3〉

1770年 大邱地方 定期市場 分布網  
資料:《韓國의 場市》

이와 같이 19세기 중엽에 이르기까지도 기간적인 상업조직은 정기시였으며, 상설점포의 생성 시기는 17세기 말경으로 추측되나 1705년도 東上面帳簿와 1708년도 西上面帳簿에서 경상인으로 직역이 기재된 5호의 家戶 기록이 있을 뿐이다.

## 2. 日帝時代의 在來市場

예로부터 조선의 3대 시장이던 大邱는 1905년 경부선이 大邱를 관통해 지나감에 따라 상권이 더욱 확대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후, 朝鮮總督府는 1914년 9월 ‘시장규칙’을 발표하여 시장의 신설, 운영변경은 각 道知事에 의한 허가제로 하고 동시에 시장은 그 형태에 따라 4종으로 구분하였다.

〈表 4-40〉 日帝下의 市場 種類와 特徵

시장종류별	특 징
제 1호 시장	정기시장(장시), 가축시장, 약령시장 포함
제 2호 시장	공설시장(일용품 시장)
제 3호 시장	도매시장(경매방법, 수산, 청과물 전문시장)
제 4호 시장	현물 곡물 거래시장(쌀 등 주요작물)

資料: 1914年 9月, 朝鮮總督府令 第136號 市場規則 制定公布.

〈表 4-40〉의 분류에 따라 大邱에는 제 1호 시장(재래시장) 4개소, 제 2호 시장(공설시장) 1개소, 제 3호 시장(어약시장) 1개소 등 6개 시장과 大邱藥令市와 미곡거래소가 있었고 그 외에 상설점포가 있었다. 당시 서문 시장은 매 2일, 7일에 개시되어 총면적

4,555평, 건평 500평의 규모를 가지고 연간 약 60여일의 개시에 2백만원 정도의 거래액을 올렸다. 그 당시(1922년) 大邱場에는 약 1,400명(동문시장 660명, 서문시장 750명)의 상인이 있었다.

〈表 4-41〉 大邱 主要市場의 去來現況(1937年)<sup>16)</sup> (단위: 일, 원)

시 장 명	개시일수	매 매 고					
		농 산 물	수 산 물	직 물	축 류	기타잡품	계
서문시장	59	484,499	314,904	339,966	491,471	608,209	2,239,049
동문시장	54	238,237	112,348	98,920	8,478	297,483	755,466
남문시장	75	357,355	168,522	140,880	12,717	447,372	1,126,846

資料: 大邱府, 《大邱府史》, 1943, pp. 163~165.

그러나 일제하의 이러한 시장의 재정비는 근대화라는 이름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한편으로는 조선의 문물과 경제력을 일본자본에 예속시키려는 시도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다. 즉, 1호 시장인 재래시장은 원시적이고 야만적인 시장형태로 규정하고 2,3,4호 시장을 발달시킴으로써 시장의 상거래 형태를 왜곡시키고 있었다. 재래시장과 이들 신식시장과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表 4-42〉 舊式市場과 新式市場의 差異点

구 분	구식시장(1호 시장)	신식시장(2,3,4호 시장)
시장의 성격	한국민의 토착시장	일본의 침탈 및 자기보호수단
설치지역	도시변두리나 지방의 노변	주로 도시에 소재
주거래품목	농산물	생필품, 생선, 채소류
시장의 형태	정기사설시장	공설시장(사용료 징수)

總督府는 재래시장을 공설화하여 사용료를 징수케 하려고 노력하였고 일본인 상권의 보호정책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시장운영을 허가하여 재래시장을 질 좋은 농산물과 특산물의 수탈수단으로 삼고 있었다. 더우기 시장내에 판매회사를 조직하고 다시 제3호 시장으로 허가를 하여 종래부터 자유로이 거래되어 오던 신선한 야채류의 판매를 자사의 도매시장의 경매에 부치도록 강제화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한 1道

16) 동문시장의 경우는 1936년의 자료임.

1市場 原則을 창안해 낸 동기이다.

그 결과 대도읍의 재래시장에서 조선인이 취급해 오던 생선과 채소류의 도산매기능은 불법화되어 단순히 경매시장에 부속된 소매시장으로 전락하거나 경찰에 이리저리 쫓겨다니며 행상하는 유랑상인으로 변모되었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 재래시장의 영세상인은 생선, 야채 상권마저도 상실하는 최후의 수탈정책을 당하게 된다.

### 3. 解放以後의 市場의 發達

일제로부터 해방을 맞이하였지만 남한은 이른바 미군 정치하에 다시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제가 철수하면서 고의로 발행한 엄청난 화폐로 통화량이 급증했었고 일본 자본에 의해 경영되던 생산공장의 거의 대부분은 조업을 중단하게 되었으며, 또한 일부 한국인의 공장마저도 원료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는 등 엄청난 물가고와 생필품 부족상태에 직면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군정 당국은 일제 때에 제한하였던 자유거래와 시장개설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폐지하고 시장자유화의 조치를 단행하기도 하였으나 해방 직후의 상업과 시장 경제는 여전히 침체되어 있었다. 더욱이 1948년에는 남북분단으로 당시의 경제활동력이 분할되었으며 이렇게 취약한 경제환경 속에서 6.25사변이 발발하여 우리의 유통경제는 거의 마비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다. 이와 같은 혼란한 정치와 경제는 일제말에 남한에만 900여개소에 달하였던 정기시장을 1950년에는 668개소로 줄어들게끔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시장의 거래기능도 크게 약화시켜 놓았던 것이다.

해방 후 대구지역에서는 1946년에 북문시장, 1947년에 삼덕시장이 형성되었으며, 1952년에는 전문도매시장으로 발전한 서문가축시장, 수산시장, 청과시장 등이 등장하였다. 외국 상품의 암거래로 유명한 속칭 양키시장(교동시장)과 봉덕, 동부시장 등도 6.25사변 이후에 생긴 시장이다.

1957년 7개의 공설시장(총점포수 4,467개)으로 구성되었던 大邱 재래시장은 1960년에 와서는 공설시장 10개(점포수 4,338개), 무허가사설시장 5개(점포수 197개)로 늘어났다. 이 당시는 중구가 시장수의 60%, 점포수의 78.9%를 차지하였고, 특히 서문시장이 점유한 점포비중이 59.8%로서 大邱 전역이 서문시장을 생활시장으로 하였다.

정부는 1961년 8월 시장의 난립과 무질서에서 오는 폐해를 막기 위해 시장법을 비로소 제정, 공포함에 따라 당시 대부분의 공설시장이 市場繁榮會로 불화되었고 이 때부터 사설시장이 대거 신설되었다. 1960년대 이후 시장은 많은 변천이 있었다. 1960년대 초반 해도 정기시장이



〈表 4-43〉 大邱의 市場變化<sup>17)</sup> (단위: 개소)

구분	연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1
합 계		15	24	43	74	92	126	92
중 구		9	11	16	25	29	34	16
동 구		1	3	4	9	11	16	10
서 구		1	3	6	7	10	25	13
남 구		1	3	8	14	17	18	14
북 구		3	4	8	12	16	17	11
수 성 구				1	7	9	16	14
달 서 구								13
점포수 계		4,535	5,967	9,668	13,301	16,130	19,320	14,413

資料: 大邱市《大邱統計年報》, 1961, 1966, 《市場實態調查報告》, 1971, 《市場現況》, 1985, 《全國都小賣業體總覽》, 1992, 商政課.

많이 존재했으나, 1960년대 말까지 대부분 공설시장화되었고 1970년대 초에는 대구시내 32개 시장 중 공설이 12개소, 사설이 20개소로 사설의 비중이 높아졌다. 특히 종전에는 시내 중심부에만 시장이 집중했던 것이 점차 변두리 지역이 시가지화함에 따라 시장분포가 광역화되었다.

경제의 고도성장기인 1970년대에는 10년 동안에 무려 40여개의 시장이 증설되어 1979년 말 72개로 증가되었으며, 1983년 말까지 93개(대형유통업체 포함)에 이르고 있으나 정기시장은 반야월과 칠곡의 2개 공설시장을 제외하고 모두 사설의 상설시장으로서, 공설시장의 사설시장화, 정기시장의 상설시장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 II. 在來市場의 施設과 運營現況

1986년 종래의 시장법이 폐기되고 도소매업진흥법이 새로 제정됨으로써 시장에 대한 정의가 현실적으로 바뀌는 동시에 시장의 종류 구분이 없어지고 허가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준요건에 미달된 시장은 거의 없어졌다. 오늘날 大邱의 재래시장은 도로와 교통의 발달로 점차 소비성향을 유발하는 대형백화점 및 슈퍼마켓 등의 현대적 유통기관의 급신장에 밀려 한때 전국 상권을 주름잡았던 서문시장이나 칠성시장 등도 상경기가 점차 침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0년대 이후의 大邱의 시장분포를 살펴보면, 거의 사설시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정

17) 1985년까지는 무허가시장,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수치임.

기 공설시장이 북구 칠곡에 한군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인 시장수는 1985년의 88개에서 1991년 92개로 약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表 4-44〉 大邱地域 市場의 現況 (단위: 개소, m<sup>2</sup>, 명)

구 분	연 도	시장수	매장면적		점 포 수		종업원수	
			합 계	평 균	합 계	평 균	합 계	평 균
일반시장	1987	86	190,874	2,219.5	11,055	128.5	7,031	81.8
	1988	88	190,874	2,169.0	11,321	128.6	7,198	80.7
	1991	91	201,385	2,213.0	14,402	158.2	8,439	92.7
정기시장	1987	1	584	584.0	11	11.0	—	—
	1988	1	584	584.0	11	11.0	—	—
	1991	1	584	584.0	11	11.0	—	—

資料: 大韓商工會議所, 《全國都小賣業體總覽》, 1992.

오늘날의 재래시장은 大邱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쇠퇴하고 있으며, 야채, 청과, 어류, 건어물 등의 농수산물 거래로 현상유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시장을 찾는 고객층도 점점 노화되어 가고 있다. 시설환경면에서도 大邱市의 92개 재래시장은 기본시설인 유통물시설, 소비자보호시설, 점포기본시설, 위생시설, 지원·복지시설 등이 극히 부족하거나 미비한 실정이며, 전기시설, 급·배수시설 등의 유통물시설을 갖춘 시장은 80여곳으로 비교적 많은데 비해, 소비자휴게소, 소비자고발센터, 공중전화 등의 소비자보호시설을 갖춘 시장은 절반 이하인 실정이며, 안내판, 홍보판, 안내방송 등도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1992년 현재 대구지역 시장의 점포의 소유형태는 대부분이 임대(70.6%)이며 주로 소매(69.2%)와 도·소매혼합(24.6%)의 거래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의 구성면에서는 완전자기자본이 59.2%로 타인자본(37.8%)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면에서는 본인단독경영(40.7%)과 가족경영(41.0%)이 전체의 81.7%를 점하는 등 거의 종업원을 두지 않고 있다. 점포경영주 중에서 점포경영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전체의 81.2%에 달하고 있으며, 점포운영동기는 생계유지가 53.8%에 달하고 전업을 고려하는 사람도 31.6%에 달하며 자녀에게 점포를 물려주기 싫다는 사람이 절반을 넘는 등 전반적으로 대구지역 시장점포들은 영세하고 낙후된 업종이 되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거래에 관해서 살펴보면 價格表示制의 실시여부에 대해서는 63.6%가 전혀 價格表示制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심한 가격변동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재래시장에서 구매되는 상품은 채소류(61.6%)와 해산물/건어물(13.8%)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4-4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재래시장은 식료품과 일상잡화 이외에 전기, 전자는 거의 구매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식료품과 일상잡화에서는 슈퍼마켓과 경쟁관계에 있고, 의류에 있어서는 백화점, 쇼핑센터, 도매시장과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表 4-45> 主要品目別 購買處 (단위: %)

구 매 장 소	식료품	의 류	전기·전자	가 구	일상잡화
백화점, 쇼핑센터	3.3	33.9	3.7	3.9	5.8
대리점, 전문점	1.0	7.6	90.0	74.9	1.0
슈퍼마켓	54.0	1.4	0.9	2.4	38.8
도매시장	7.8	40.4	3.2	7.5	7.2
재래시장	28.2	15.8	1.5	8.3	26.8
구멍가게 및 기타	5.7	0.9	0.8	2.8	20.3
무응답	0.1	0.1	0.1	0.3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消費者購買性向 調査 報告》, 1983.

시설면에서 살펴보면, 재래시장에서 가장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춘 시장은 30%에 불과하다. 위생시설로서 수세식 화장실, 오물수거장 및 공동작업장을 설치하고 있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그 밖에 조정, 냉난방, 가스시설을 갖춘 시장은 2~3개 시장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상인들의 복지시설로서 회의실은 40개 시장이 설치하고 있으며, 휴게실, 교환대, 식당 등을 갖춘 시장은 드물다. 재래시장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물적유통시설로서 공동창고, 공동하역장, 공동운반차량, 공동계량기 등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장의 관리운영을 법적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는 市場繁榮會가 맡고 있기 때문에 시장활성화의 의지가 더욱 약하게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내 92개<sup>18)</sup> 재래시장의 대부분이 시장의 개설자는 개설 후 각 점포를 분양하고 시장에 관여하지 않거나 또한 남아서 시장의 관리운영에 참여한다 해도 관리운영능력이 부족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심점을 잃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시장의 기본현황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시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장개설자는 합리적인 매장, 시설배치나 체계적인 관리운영방식을 도입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점차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18) 1993년 9월 현재 대구지역에는 91개의 일반시장과 1개의 정기시장이 있다.

타지역과 대구지역의 재래시장을 비교해 보면, 시장당 점포수에 있어서는 서문시장 등 전국적 규모의 대형시장이 있기 때문에 시장당 158.2개로 서울 다음으로 비교적 대형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구에서 5배에 불과한 서울에 비해 매장면적에서 불과 1/8밖에 되지 않으며 점포당 평균 종업원수에서는 6대 도시 중 인천을 제외하고는 최하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表 4-46〉 6大 都市의 一般市場 現況 (단위: 개소, m<sup>2</sup>, 명)

지 역	시장수 또는 업체수	매장면적		점 포 수		종업원수	
		합 계	평 균	합 계	평 균	합 계	평 균
서 울	370	1,620,106	4,378.7	67,608	182.7	53,875	0.8
부 산	149	304,388	2,042.9	22,176	148.8	19,943	0.9
대 구	91	201,385	2,213.0	14,402	158.2	8,439	0.6
인 천	66	159,553	2,417.0	6,218	94.2	1,469	0.2
광 주	32	69,410	2,169.0	2,712	84.7	3,337	1.2
대 전	58	134,542	2,319.7	4,199	72.4	4,795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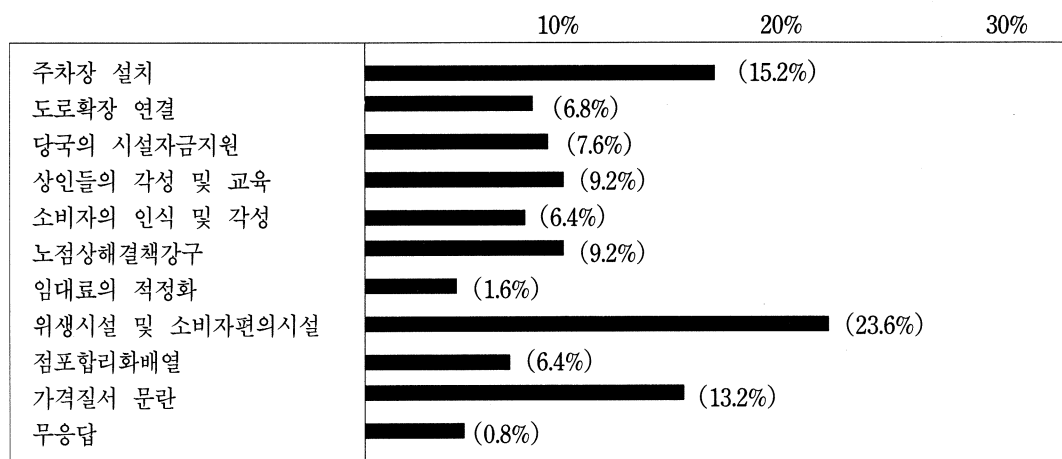
資料: 大韓商工會議所, 《全國都小賣業體 總覽》, 1992.

이와 같이 大邱市의 92개 시장 중 최근 건립한 몇몇 시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노후, 불량시설로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상권활성화의 주요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大邱市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유통근대화 재정자금 68억원을 지원하였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에서 1991년 1월 15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大統領令 13252號)을 제정하여 기존시장에 한하여 복합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차 5개년 유통부문 계획에 재래시장을 복합건축물 및 쇼핑센터로 개발하도록 포함하였다. 大邱市에서는 재래시장의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여 시장현대화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III. 在來市場의 活性化 方案

재래시장은 우리민족의 고유한 정서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아직도 지역소비자에게 생활필수품의 70% 이상을 공급·판매하고 있다. 따라서 재래시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막중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고유한 기능적 측면으로 볼 때도 반드시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 대구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資料：大邱直轄市·大邱慶北開發研究院，《在來市場活性化 對策》，1993.

〈圖 4-4〉

在來市場活性化 對策

소비자들이 지정한 활성화방안으로는 재래시장 개설자와 시장상인의 의식구조 및 경영체질 개선에 관한 사항과 시설의 근대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意識構造 및 經營體質 改善

현재 대구지역의 시장은 개설자는 단지 장소제공자에 불과하고 운영은 市場繁榮會에서 담당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市場繁榮會는 강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경영능력면에서도 매우 뒤떨어지는 형편이다. 또한 다수의 개별상인은 전혀 공동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형소매기구에 항상 종속되는 형태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영상, 의식구조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은 것이 제기될 수 있다.

- 1) 연수교육의 제도화: 정부의 지정을 받은 상설 연수기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관련단체를 통한 위탁교육을 실시하여 의식개혁과 관리능력을 배양하도록 한다.
- 2) 市場協議會의 창설: 市場繁榮會를 중심으로 하여 단순한 친목단체의 수준이 아닌 시장운영에 관해 상인간 협의와 정보교환, 교육,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결과 단체행동을 이끌 수 있는 강제성있는 단체를 조직한다.
- 3) 상거래질서의 정착: 가격표시를 이행하고 불량상품 추방, 계량·품질의 정확성 향상 등으로 믿을 수 있는 거래풍토를 조성한다.

- 4) 소비자만족 우선 : 재래시장의 근대화는 소비자보호라는 명제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소비자상담실을 운영하여 소비자의 불만족에 대하여 항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품의 구색면에서도 단순히 갖다놓고 호객행위를 해서 오는 손님에게만 판다는 판매지향적 관점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최선의 제품을 제공하겠다는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 5) 운영관리체계의 개선 : 시장의 개설자가 적극적인 경영주체가 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 개설자는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배양하여 개별점포의 전문화라든지 전체 시장의 상품력과 경쟁력을 분석하여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적극 대처하여야 한다.

## 2. 施設의 近代化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시장에 대해 가지고 있는 관념은 ‘시장은 낡고 오래된 것’이라는 점이라 할 것이다. 大邱慶北開發研究院과 大邱市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에서도 소비자들이 재래시장에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으로 환경청결(30.0%), 통로 및 교통원활(12%)이 가장 우선적으로 꼽힌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개선은 시장근대화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중 시설에 관한 항목으로는 위생시설 및 소비자 편의시설(23.6%), 주차장 설치(15.2%), 노점상 해결책 강구(9.2%), 도로확장 연결(6.8%) 등이 있다. 개선이 필요한 재래시장의 시설에는, 화장실, 배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환기시설, 식품보관시설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개선은 시장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 형성과 개선에 기여하며 쇼핑분위기의 향상에 기여하고, 접근용이성과 쇼핑시간을 단축시켜 준다. 또한 지역사회의 생활 및 휴식 공간을 제공해주며 상거래 활동의 효율성 제고, 위생관리와 안전관리에 기여하며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이룬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근대화에 대해서는 상인들도 모두 수긍하고 있지만 환경과 시설문제는 상인들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당국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의 바탕 하에 전 상인이 결집된 역량을 과시해야만 시장활성화의 희망이 보일 것 같다.

## 第5節 物流活動

### I. 物流活動의 發達

우리나라에서 물적유통이라는 것이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의 일로서, 그 때까지만 해도 유통문제라는 것이 단순히 상거래상의 문제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경제개발 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수출이 급신장하면서 수송비의 절감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과 더불어 물적유통이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하나의 중요한 정책과제로 그 기반시설의 확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되었다.

대구지역에 있어서 1970년대 이전의 물량이동은 일제시대 경부선이 개통된 이래 주로 철도수송에 의존하여 왔으나, 1960년대 이후 국도 및 지방도의 포장에 급진전되면서 공로수송의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하였고 경부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고속도로를 이용한 수송의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 현재에는 거의 대부분의 화물수송이 공로를 통한 차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도 수송면에서 도로여건상 외부순환선이 없는데다가 서문시장을 비롯한 도심밀집형 유통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수송능률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송수단의 측면에서도 전근대적인 수송수단의 비중이 높았다.

물적유통의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인 저장 및 보관시설의 변화를 살펴보면, 일제시대부터 ‘마루보시’ 또는 米倉으로 불리어지는 大韓通運倉庫를 중심으로 대구역 부근의 태평로, 수창동 등지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 창고업체의 수는 1974년 15개 업체에서 1991년 12개 업체로 줄어들었다. 대부분의 창고는 단순 저장기능의 적층식 창고이며 영세한 업체들이다. 그러나 각 기업에서 물류활동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창고를 단순한 보관 및 저장기능에서 벗어나 유통창고라는 입출하의 흐름을 조정하는 수·배송의 기능으로 인식이 확산되면서 1982년 太平洋化學이 大邱流通센터라는 현대식 유통센터의 설립과 더불어 1983년 東亞百貨店 유통센터가 건립되고, 1990년대 이후 럭키금성 및 삼성전자에서 반야월 등지에 현대식 유통센터가 건립하였다.

大邱市는 1981년 7월 1일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행정구역 및 인구 등의 도시규모가 크게 확대되면서 행정·재정·경제적으로 그 기능이 강화되고 국가경제에 대한 지위도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력을 중심으로 한 경제지표를 살펴보았을 때 그 내용이 부실할 뿐만 아니라 비교가능한 여타 대도시에 비해서도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면은

대구지역의 물류활동에 있어서 현재까지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기업에 있어서 물류활동의 관리에 대한 인식이 점진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러한 이유는 물류활동 전분야에 걸쳐 물류량 및 물류비의 증가 그리고 물류환경의 변화로 물류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류환경면에서 국제무역의 개방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가 생겼으며 또한 인건비의 상승으로 기계화 및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었고, 그리고 소비의 다양화와 고급화의 추세에 맞추어 다품종 소량생산과 다품종 소량판매에 따른 상품종류의 급증과 화물수송량의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공해문제의 증대 등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점차 물류활동에 있어서 기계화와 온라인화가 가속화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역업체에서 과거에 비해 물류활동에 대한 관심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인식수준에 비해 물류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어 수행하기보다는 여러 관련부서에서 일부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류업무를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효율적인 물류활동의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II. 物流施設의 現況

大邱直轄市는 수도권에 상응하는 고도의 中樞管理機能을 수행할 수 있는 영남지방 유일의 성장 거점도시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경부, 구마, 88고속도로 및 중앙(공사중)과 김해고속도로(계획중) 및 철도, 산업도로(대구~영천, 대구~포항간)의 이용이 전국 어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편리하며 전국이 교통거리 3시간대에 입지함으로써 유통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물류활동의 기반시설이 되는 사회간접투자가 미비하여 물류활동의 효율적인 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1. 輸送現況

#### 1) 公路部門

대구의 도로망은 3개의 순환선과 8개의 방사형 도로로 구성되어 있어 모든 교통량이 도심에 집중되어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지하철공사의 실시로 인해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러나 1992년 완공된 新川大路와 더불어 대량교통시설로 구상중인 都



市高速道路와 地下鐵建設計劃이 완공되면 교통난이 어느 정도 완화될 전망이다.

〈表 4-47〉 大邱直轄市 道路現況(1991년 12월 현재) (단위: km, %)

연 도	합 계			일반국도		특별시도		포장율
	계	포 장	미포장	포 장	미포장	포 장	미포장	
1986	1,086	765	321	72	—	975	655	70
1990	1,191	1,051	140	72	—	1,080	940	88
1991	1,274	1,141	134	71	—	1,165	1,032	89

資料: 建設部道路課, 《建設部統計》 및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도.

대구시 도로의 총연장은 1986년 1,086km에서 1991년 현재 총연장 1,275km로 약 17% 증가하였으며, 또한 도로 포장율은 1986년 약 70%에서 1991년 89%로 약 20% 이상 증가하여 1,141km에 달하고 있다.

운송부문에 있어서 1993년 5월 현재 대구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33만 8,186대로 대구시가 직할시로 승격된 81년의 3만 8,708대 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중 승용차가 1981년에 비해 13배 증가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하여 전체 68%인 23만 472대이며, 버스는 8%인 2만 8,520대, 화물차는 23%인 7만 8,635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급격한 증대는 교통체증을 가속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동시에 기업의 물류비 중 수송비의 비중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表 4-48〉 大邱市 自動車 登録 現況 (단위: 대)

연 도	총 계	승 용 차	버 스	화 물	특 수
1981	38,708	17,643	2,937	17,993	135
1985	69,672	32,442	7,642	29,368	220
1990	216,964	133,428	23,997	59,281	258
1992	315,216	212,385	27,746	74,524	561
1993. 5	338,186	230,472	28,520	78,635	559

資料: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도.

도로운수업의 현황을 보면 다음의 〈表 4-49〉와 같다. 도로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사업체의 수는 1991년 말 현재 전체 302개의 사업체이며, 종사자는 3,860명이고 사업장 면적은 3만 4, 171㎡으로 전국대비 약 5%에 지나지 않아 대구지역의 화물운송업에 있어서 열세를 여실히

보여준다.

〈表 4-49〉 道路貨物運送業 (단위: 개, 명, m<sup>2</sup>)

연 도		사업체수	종 사 자	사업장면적
1991	대 구 전 국	302 5,721	3,860 60,340	34,171 623,238

資料: 統計廳,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1991.

구체적으로 구역화물수송에 있어서 화물자동차의 보유대수는 1980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5,725대이며, 수송연톤수는 1992년 1,808만 1천M/T으로 1980년에 비해 약 8.3배 증가하였다. 대당 수송연톤수에 있어서

도 1980년의 약 1.00M/T에서 1992년 약 3.15M/T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화물수송량의 증가와 더불어 화물자동차가 대형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表 4-50〉 貨物自動車 運輸業의 現況(年度別 區域貨物輸送實績 推移) (단위: 대)

연 도	보 유 대 수	수송연 M/T	대당수송연 M/T
1980	2,147	2,161	1.00
1985	2,728	3,690	1.35
1990	5,113	9,659	1.88
1992	5,725	18,081	3.15

資料: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도

그러나 구역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대구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1년 현재 전국대비 4%로 서울 및 부산에 비해 각 28% 및 29%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직할시인 광주에 비해서도 좀 낮은 편이다.

## 2) 鐵道部門

철도부문을 살펴보면, 화물수송량의 비중이 1988년 이후 자동차보급의 급속한 증가와 더불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자동차보급의 증가와 더불어 화물수송에 있어서 철도에 의존하는 경향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여객은 동대구역과 대구역을 이용하고 있으나, 화물에 있어서는 동촌 및 반야월역이 전체 발송 및 도착량 각 약 78% 및 94%를 차지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것은 대구지역에서 타지역으로의 화물발송량보다 타지역에서 대구지역으로 유입되는 화물도착량이 약 27배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表 4-51〉 鐵道輸送 實績 (단위: 천M/T)

연 도	총 계		동대구역		대구역		동촌역		반야월역		고모역	
	발송	도 착	발송	도착	발송	도착	발송	도착	발송	도착	발송	도착
1985	242	2,397	26	128	—	—	126	247	82	2,003	7	19
1990	114	2,012	9	95	—	—	11	117	77	1,782	5	20
1992	73	1,984	9	91	—	—	10	167	47	1,712	7	15

資料: 大邱直轄市, 《大邱統計年報》, 各 年度.

### 3) 航空部門

항공운수업체는 1991년 말 현재 5개로 종사자는 총 47명이며,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에는 8개 업체에 83명이 종사하고 있다. 사업장 면적은 항공운수업이 541㎡,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이 5,164㎡로 전국대비 항공운수사업체는 5%,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체는 7%이다, 사업장면적에 있어서는 단지 2%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그 기반이 취약하고 영세하다고 볼 수 있다.

〈表 4-52〉 航空運輸業의 現況(1991년 12월 말 현재) (단위: 개, 명,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사업장면적
대 구	항공운수업	5	47	541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8	83	5,164
전 국	항공운수업	100	1,650	159,894
	항공운수보조서비스업	115	6,015	103,339

資料: 統計廳,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1992. 12.

## 2. 倉庫現況

과거에는 창고가 단순히 비축적인 저장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물류관리의 측면에서 배송센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물류시스템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

1991년 말 현재 대구지역의 창고업 현황을 살펴보면 〈表 4-53〉과 같이 업체수에 있어서 1급 창고에 속하는 기업체 12개에 8,543㎡에 지나지 않는다. 野積, 저장, 위험물 및 냉장창고를 제공하는 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러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창고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반하여 대구지역의 地價가 너무 높아서 시외곽에 창고시설이 위치하기 때문

이라고 볼 수 있다.

〈表 4-53〉 倉庫業體 現況(1991년 말 현재) (면적단위: 천 m<sup>2</sup>)

구 분	전 국		대 구		경 북	
	업 체 수	면 적	업 체 수	면 적	업 체 수	면 적
1급창고	1,463	999	12	9	530	256
2급창고	177	121	—	—	32	17
3급창고	21	18	—	—	2	0.5
야 적	39	476	—	—	2	4
저 장	20	177	—	—	1	0.2
위 험 물	8	52	—	—	—	—
냉 장	108	532	—	—	7	7
계	1,836	2,216	12	9	574	284

資料: 交通部, 《韓國交通年報》, 1992.

### III. 企業體의 物流管理 實態

#### 1. 地域 企業體의 物流管理 實態

현재 대구 지역업체에 있어서 전반적인 물류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19)</sup>

##### 1) 物流의 一般管理 및 組織部門

현재 지역기업에서의 물류활동에 대한 관심은 큰 데 비해 수송, 보관, 포장, 하역, 정보 등의 물류활동 각 부문에 있어서 구체적인 실행이 없어 물류비의 절감 등을 비롯한 물류합리화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물류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물류업무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물류비의 측정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기업이 물류관리활동의 일부분만을 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 2) 包裝部門

현재 지역업체에서 포장의 기능에 대해 주로 제품의 파손방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으로 포장부문에 있어서도 비효율적인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19) 대구상공회의소 조사부, 〈대구지역기업의 물류관리실태조사〉, 1993.

포장의 인식에 비중을 두고 상대적으로 하역, 적재, 운반기능을 소홀히 함으로써 外포장한 상태로 수송, 하역, 보관시 발생하는 제품의 파손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포장의 표준화에 대해서도 많은 기업체에서 일정한 규격없이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서는 포장작업의 기계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다.

### 3) 保管部門

지역업체에서 창고에 대한 기능은 단순히 창고의 기능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유통창고에서는 입출하의 흐름을 조정하는 수·배송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업체 대부분은 아직도 재래식 창고나 적층식 창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창고의 규모도 각 기업의 활동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형편이다.

### 4) 荷役 및 팰리트 使用

하역의 의미는 수송, 보관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지원역할의 의미가 있다. 이를 위해서 하역시설의 기계화가 필요한데, 지역업체에서 하역작업의 기계화는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주로 지게차, 벨트컨베이어, 핸드카를 주종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스택어나 트럭로드 등의 최신장비는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지역업체 중 많은 기업이 화물형태의 다종다양으로 인해서 팰리트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 5) 輸送部門

지역업체의 주된 수송수단은 화물트럭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의 이용비중은 상당히 낮은 편이다. 많은 기업에서 자사의 트럭을 보유하여 자사 및 운수업체의 트럭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사차량을 이용할 경우 귀로시에 공차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6) 物流情報部門

지역 기업체 중 수주~출하 일관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는 기업체의 비중은 상당히 낮았으며, 많은 기업체에서 수작업에 의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동일 업종 또는 타업종과의 공동집배송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도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또한 물류정보를 전산화한 업체에서도 물류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인 정보활용은 미미한 실정이다.

## 2. 物流管理의 實例

### 1) 太平洋化學 大邱流通센터

太平洋化學은 1982년 창고시설 및 물류거점확보계획에 의해 대구시 비산동에 2,000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대구유통센터를 건립하였다. 이 유통센터의 설비현황은 다음과 같다.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
- 내부설비: 자동창고(Traveser식 대 transfer CAR식)
- 보관능력: 2,330 Locations(Drive-in Rack포함)
- 보관창고의 면적: 1,155평
- 독크시설의 높이: 1.1m~1.2m 미만

太平洋化學 대구유통센터의 작업은 보관, 저장이라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집하, 집하한 것의 배분, 배분한 것의 모음, 다시 배송선별의 상품을 가지런히 하는 것이다. 유통센터에서 취급하고 있는 상품은 다품종이나 주문은 소량인 관계로 입출고 및 오더픽킹이 대단히 복잡하므로 입출고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수송에 있어서는 Unit Road System을 이용하여 보관 및 운송방법을 전면적으로 펠리트화하고 있다. 또한 배송에 있어서는도 공차의 운행을 지양하기 위하여 계획배송 및 편도배차를 지향하고 있다.

### 2) 東亞百貨店 流通센터

東亞百貨店은 1983년 9월 “유통혁신을 통한 새로운 식품문화의 창조”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농수산물의 산지 직거래를 통한 유통경로의 단축 및 저장, 가공, 포장 및 배송 등을 일관적인 콜드·체인시스템 하에 컴퓨터를 통한 정보흐름을 시스템화하여 위생적이고 선도 높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구시 반야월에 가공집배센터를 설립하였다.

유통센터의 시설현황은 다음과 같다.

- 대지면적: 3,443평(11,362㎡)
- 건물규모: 2,155평(7,110㎡) 철근콘크리트
- 시설규모: 저온보관시설(369평), 가공처리실(351평), 부대시설(1,435평)

유통센터에서의 작업은 온라인시스템에 의해 주문 및 배송이 이루어진다. 현재 시스템 내에서 가장 큰 애로는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는 과정에서 검수 및 운반이 자동화되지 않아 대부분 인력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향후 동아백화점에서는 종합유통단지의 건립과 더불어

2차 공산품부문의 이전을 계획하고 있다.

## Ⅳ. 物流 改善方向

### 1. 大邱地域의 物流活動 改善方向

기업의 물류활동에 따른 문제점 및 기업의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물류활동의 원활화는 개별기업 단위에서만 노력한다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기업이 물류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의 내적 부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물류활동의 추진경험의 부족 및 이에 대한 정보의 부족,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조정 of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 외부적으로는 도로 등과 같은 사회간접시설의 미비로 물류비능률의 심화 및 사회전반적인 표준화, 규격화 등의 미비가 물류활동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측에서는 물류활동을 전사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물류전담조직의 구축이 요구되며 이와 아울러 물류의 전문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물류합리화의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는 정확한 물류비의 산정이 요구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물류비 산정보다는 우선적으로 기업특성에 맞게끔 물류 각 부문별로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해 나감으로써 물류비 절감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물류활동의 표준화 및 기계화의 축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포장의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기계화, 자동화가 가능하고 또한 컨테이너 및 팰리트에 의한 Unit Road System이 가능하게 되는 바 자사실정에 맞는 표준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건축자재의 규격화 및 공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제품이 수송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도 요구된다. 그리고, 하역의 기계화 축진을 위해서 컨테이너 및 팰리트의 이용을 확대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적인 배려도 요구된다.

地域企業에서의 창고기능에 대한 기능을 유통창고로써 입출하의 흐름을 조정하는 수·배송의 기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창고시설의 현대화가 요구되며, 창고시설의 투자를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요구된다.

수송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로, 주차시설 등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한다. 기업측에서도 효율적인 수송 및 배송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수송 차량의 회전율을 높이고 공차주행의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物流情報의 효율적인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주~출하 일관시스템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기업측면에서는 물류정보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책적으로는 POS체제의 확산을 위해서 바코드 등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綜合流通團地의 建設<sup>20)</sup>

수송업체들이 대부분 용지확보난에 따른 주차시설의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기존의 도소매 업자들 역시 물류보관시설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리고 높은 지가와 임대료 및 교통난 등으로 물류활동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유통단지의 건설이 시급히 요청된다.

지금까지의 종합유통단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종합유통단지의 입지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의 단지조성 기본계획을 1990년 11월부터 1992년 4월까지 수립한 후, 1992년 6월에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하여 1992년 8월에 기본 및 실시계획의 용역을 발주하였다.

사업개요를 보면, 1992년부터 2000년 기간동안 북구 산격동과 검단동 일대의 부지 25만 2

〈表 4-54〉 土地利用 計劃案 (단위: m<sup>2</sup>, %)

구 분	면 적	비 율
합 계	841,327	100.0
무 역 센 터	38,700	4.6
개 별 기 업 관	123,300	14.7
도 매 단 지	182,200	21.6
물 류 단 지	147,600	17.5
업 무 편 익	34,200	4.1
소 계	526,000	62.5
도 로	236,427	28.1
공 용 의 청 사	10,600	1.3
공 원 녹 지	47,900	5.7
주 차 장	20,400	2.4
소 계	315,327	37.5

資料: 大邱直轄市, 《綜合流通團地造成基本計劃 檢討報告》, 1993.

천평에 건평 45만 1천평 규모에 총 사업비 1조 101억원을 투자하여 무역센터, 물류단지 및 지원시설 등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종합유통단지 내 시설물 유치계획을 살펴보면 〈表 4-54〉와 같다.

대구지역에서 종합유통단지가 건설되면 공동집배송 및 공동보관, 공동전시 등에 의하여 고객의 흡인력을 높일 수 있으며, 또한 수송비절감 및 운송효율을 높일 수 있다. 또한 각 유통업체가 집단적으로 위치함으로써 하역기계의 도입, 물적유통시설의 공

20) 대구은행, 《대구지역 경제분석》, 21-6, 1992. 11~12, pp. 44~53.



공이용 등 물적유통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

종합유통단지의 건설은 공산품 물류단지의 집단화로 유통체계의 혁신을 도모하고, 무역, 금융 등 관련시설의 집단화로 유통기능의 혁신을 진전시키며, 대구를 21세기 국제 섬유패션 전문 도시로 구축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第6節 飲食·宿泊業

### I. 一般飲食業·宿泊業

#### 1. 發達과 現況

음식, 숙박업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으로서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소득중대가 가속화 될수록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져가는 성장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飲食, 宿泊業의 종류는 지역별, 국가별, 문화적 특수성에 따라 매우 상이하며 각기 다른 개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리고 음식, 숙박업 분야의 각종 시설은 同産業이 성립되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으로 간주될 뿐만 아니라 전체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음식, 숙박업이 발전하게 되는 이유로는 첫째, 음식, 숙박업의 수요가 질적, 양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둘째, 同業界와 관련되어 있는 여타 상업의 발달에 따라 음식, 숙박업도 기술혁신과 노동혁신 등을 추구하고 있으며 셋째, 同業界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창의적인 연구로 경영합리화를 이루기 위한 새로운 경영관리기법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大邱地域은 일제시대 말기에 섬유공업 특화도시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시작하면서 상설점포 출현과 교통망의 발달로 상권이 확대되었으나, 당시 음식, 숙박업이 크게 부족하고 숙박할 경제적인 여유도 거의 없었으므로 이용자들은 도로변 객사 혹은 민가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다. 숙박업의 경우 일본행정관서(朝鮮總督府, 철도국 및 교통국)의 간섭과 감독하에 있었기 때문에 서비스 내용 및 수준이 만족스러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여관형태도 한식 여관과 일본식 여관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해방 직후 부진하던 생산활동이 1948년에 이르러 직물업계를 중심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면서 6.25 한국전쟁의 특수경기가 大邱地域을 한국 제일의 직물도시로 부상케 했으며, 중

전에서 1960년대 초까지 제조업 뿐 아니라 상업과 서비스부문의 취업인구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섬유공업의 발전과 함께 전후 부흥기에 소비인구의 급증과 기초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수요증대에 힘입어 상업부문도 황금기를 맞았다. 당시 大邱地域의 음식, 숙박업의 현황(1962년)을 보면 총 1,985개 업체로 대중음식점이 1,706개, 호텔(5개), 여관(274개) 등 숙박업이 279개로 대부분 종로와 중구에 밀집해 있었다.

정부에 의한 본격적인 經濟開發計劃이 추진되기 시작한 1960년대에 전체산업구조가 개선됨으로써 지역경제의 총량적인 규모도 증대하게 되었고,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르게 진전됨으로써 상업부문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었다. 1960년대를 통하여 도·소매 음식, 숙박업이 전체 취업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었고, 이어 同比重이 大邱市 地域總生産(GR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0%를 넘었다. 이러한 상업부문의 확대는 도시화의 급진전에 따라 농촌에서 유입된 인구의 상당수가 공업부문 인력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상업부문으로 대거 취업함에 따라 빚어진 현상이라 하겠다. 음식업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1964년부터 하숙과 여인숙 등의 숙박업은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우리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구도를 달리기 시작한 1970년대에 들어 2차례의 石油波動으로 한때 극심한 불황에 빠지기도 했지만, 3차 산업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남으로써 지역경제의 서비스화 경향을 나타내기 시작하였으며, 이 산업이 지역경제권의 중추관리기능을 확충시키는 서비스 기능보다 享樂 위주의 소비성 업종(여흥음식점이 1971년 107개로 급격히 생성되기 시작하여 매년 꾸준한 성장을 보여 1980년에 259개로 증가)으로 비대해지는 바람직하지 못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는 지역자본의 투자효율저하와 지역산업의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타 지역에 비해 열위에 놓이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大邱市가 1981년 7월 1일을 기해 直轄市로 승격됨으로써 절대적인 열세를 보이고 있던 대구경제가 비약적인 발전과 고용증대 및 생활수준향상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1980년대로 접어들어 전국적으로 동업종이 전반적인 불황의 여파에 따른 소비심리위축, 오일쇼크의 재발, 육류를 비롯한 농산물식품가의 앙등으로 수익성이 크게 감퇴되고 고용규모도 감소현상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음식업은 꾸준한 신장세를 보인 반면, 불황의 절정기를 이룬 1980년에 전국 숙박업 중 호텔업체는 50%의 격감추세(1979년 282개, 1980년 140개)를 보이다가 1981년, 1982년에 접어들어 31.4%(184개), 45.1%(267개)라는 높은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형의 신축과 증·개수로 인한 호텔승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크게 구별이 되는 것은 1970년대 중반에 비해 두드러진 신장세 없이 거의 정체상태에 머물러 있던 여인숙으로, 1983년(대구)과 1984년(전국)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점차 큰 폭으로 감소되었는데, 이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숙박업소에 대한 기호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985년부터 외식산업과 레저, 스포츠의 보편화에 부응하여 음식업은 매년 평균 5~6% 이상 증가하였고, 大邱地域에서도 1987년 9.0%라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1981년부터 전국의 숙박업은 호텔의 급신장과 여관업의 꾸준한 증가를 보여왔지만, 大邱地域은 1987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재래식 여관(丙)과 여인숙의 감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에 들어 大邱地域의 전체산업에서 음식, 숙박업(17.1%)이 차지하는 비중이 도·소매업(40%), 서비스업(20.2%)과 더불어 사업체수로 地域 서비스산업에서 매우 높은 편이었다. 1991년 말 현재 大邱地域 음식·숙박업의 사업체수는 모두 21,072개 업체로 전국(36만 7,472개)의 5.7%, 종사자수는 5만 2,841명으로 전국(102만 660명)의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식당, 주점, 다과점 등 음식업 비중이 각각 4.7%, 4.4% 내외의 비중을 점하고 있다.

〈表 4-55〉 大邱地域 飲食・宿泊業의 年度別 伸張(1991년 말 현재)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판 매 액		
	전 국	대 구	비 중	전 국	대 구	비 중	전 국	대 구	비 중
1982	233,834	14,187	6.1	600,411	33,056	5.5	3,091,056	170,054	5.5
1986	288,833	17,321	6.0	809,984	44,493	5.5	5,556,093	270,622	4.9
1988	310,052	18,484	6.0	902,040	47,107	5.2	8,203,877	341,639	4.2
1990	330,602	19,640	5.9	996,924	51,996	5.2	12,721,910	507,265	4.0
1991	367,472	*21,072	5.7	1,020,660	52,841	5.2	14,759,861	672,293	4.6

註: 1993년 5월 현재 22,489개 사업체임, 《대구통계월보》, 1993. 5.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統計調查報告書》, 1992.

경제기획원·통계청, 《도·소매업 통계조사보고서》 각 연호.

이처럼 大邱地域의 음식, 숙박업은 사업체수나 종사자수의 전국비중이 비교적 높은 데 반해 판매액은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6%에 불과하며, 업체당 종사자수도 평균 2.5명으로 6개 주요도시 중 가장 적을 뿐만 아니라 업체당 판매액과 종사자 1인당 판매액이 각각 3,200만원(전국 4,200만원), 1,280만원(전국 1,400만원)으로 大田直轄市(3,400만원, 1,210만원)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영세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업체당 판매액 규모도 서울의 절반수준(59%)에 머물렀으며, 1인당 판매액은 서울의 7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表 4-56〉 大邱地域 飲食·宿泊業의 産業小分類別 現況(1991년 말 현재) (단위: 개, 명, 백만원, m<sup>2</sup>)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판매액	구입액	사업경비	재고액	사업장면적
음식 및 숙 박 업	21,072	52,841	672,293	237,966	190,758	609,349	1,825,309
음식점업	19,664	47,178	584,761	223,501	149,119	586,268	1,213,238
식 당 업	12,791	30,402	378,678	154,899	87,427	378,040	754,614
주 점 업	4,120	9,752	131,524	48,917	32,705	99,442	215,282
다과점업	2,753	7,024	74,557	19,683	28,986	108,786	243,342
숙 박 업	1,408	5,663	87,532	14,465	41,638	23,081	612,071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統計調查報告書》 제3권, 도소매업편, 1992. 12. p. 28.

이처럼 지역 음식, 숙박업의 생산성이 낮은 것은 규모가 영세하고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식당업이 음식, 숙박업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60%, 58% 등으로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는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表 4-56〉에서처럼 구입액, 사업경비, 사업장면적 등도 1,200만원, 900만원, 87m<sup>2</sup>으로 전국(1,400만원, 1,200만원, 98m<sup>2</sup>)에 비해 각각 86%, 75%, 88%에 지나지 않았으며, 재고액이 전국평균과 동일한 2,900만원으로 나타나 모든 부문이 전국평균보다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大邱地域의 區別 음식, 숙박업의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현황을 살펴보면, 1986년 대비 중구와 서구가 각각 8%, 4% 감소했으며, 수성구가 57%의 증가를 보여 大邱地域에서 가장 큰 신장세를 보인 구역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구 및 서구의 기존 밀집상권이 점차로 대단위 아파트단지와 주거지역인 수성구 등 외곽지역의 신흥상업지로 확대 및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表 4-57〉 大邱地域 區別 飲食·宿泊業의 事業體數, 從事者數 現況(1991년말 7월 1일 현재) (단위: 개, 명)

구 분	계	중 구	동 구	서 구	남 구	북 구	수성구	달서구
사업체수	21,072	4,090	3,139	3,475	2,871	2,898	2,111	2,488
종사자수	52,841	12,841	7,170	7,930	7,137	6,262	6,111	5,417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地域流通서비스産業現況》, 1993. 7. p. 49.

## 2. 課題와 展望

전반적으로 大邱地域 음식, 숙박업은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규모의 영세성, 자금자족적인 경영활동, 요금자율화의 규제, 그리고 위축된 경제활동 상황에서 원가상승요인의 압박이 가중됨으로써 동업종의 경영환경은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규모의 영세성과 더불어 낮은 고용임금, 그리고 종업원의 친절의식과 위생시설 미비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많으며, 업계 및 관계자들의 시장개척 및 관광객 유치활동의 소극적 자세와 전근대적 경영관리방식 등 안일한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다. 아울러 大邱地域 음식, 숙박업은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써 향락산업화되어 소비성 산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大邱地域 음식, 숙박업이 건전한 발전을 해 나가기 위한 개선방안으로서, 행정당국은 영세업소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지원, 퇴폐행위업소에 대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환경위생시설 개선, 개선사항별 기간설정과 정기적인 확인·점검, 개선업체 및 우수업체에 대한 세제지원, 용자알선, 등급의 상향조정 등의 조치를 취해 개선의욕을 고취토록 유도하고, 업주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年 1회 衛生關聯法規 및 接客態度를 내용으로 한 위생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아울러 신규허가업소의 시설강화 등도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관련업계에서도 명확한 발전방향 설정, 개선사항별 기간설정과 주기적인 확인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임금수준 개선,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등으로 대국민 봉사정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수축적이고 소극적인 경쟁관계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자율적으로 질적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도모할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격자율화를 통한 경쟁원리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大邱地域의 음식, 숙박업은 국민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외식인구의 증가 및 국민관광수요의 급증 등으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향락산업이라는 이름하에 퇴폐풍조와 불건전한 소비풍조를 조장한다는 사회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동부분의 건전한 발전은 고용흡수력이 높은 3차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 국민의 고용증대 효과는 물론 외국관광객 유치를 통한 외화획득에도 큰 기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을 위해 필수적인 산업분야이면서도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大邱地域의 음식, 숙박업은 행정당국과 관련업계, 시민 모두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대내·외적인 지위의 향상과 개방화의 물결, 빈번한 국제화의 개최 등을 통해 그 발전이 크게 기대된다.

## II. 現代式 飲食業・觀光호텔

### 1. 發達과 現況

#### 1) 現代式 飲食業

우리나라의 일반음식업(대중음식점업, 유흥음식점업, 과자영업, 다방업, 휴게실)은 생업이 일반적이었으나 점차 현대식 음식업(패스트푸드점, 웨밀리레스토랑, 커피숍)으로 변모해 가는 추세인데 이러한 배경에는 외식의 확충을 촉구하는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요인이 있다. 소득증대와 생활수준의 향상, 소비의식과 소비행동 및 내용의 변화, 여성의 직장진출과 사회참여 증가, 주부의 시간가치 상승, 사회의 레저지향화, 식품 및 식생활을 둘러싸고 있는 諸관계산업의 기술혁신과 도시화 등을 들 수 있다. 즉, 급속한 경제발전을 토대로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처럼 의·식·주생활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식생활에서도 경제, 사회, 문화적 여건의 변화로 일상적이든 비일상적이든 점점 더 밖에서 식사를 하는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고, 식사도 복잡하고 번거로운 것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처리하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이와 같은 변화에 따라 사회, 경제적인 관점에서 착안된 것이 현대식 음식업 등 팔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패스트푸드(Fast food)업이다. 원재료사용, 업소별 품질의 불균일, 분위기 중시, 경험중시, 대상권주의 등 일반음식점의 특징과 달리 패스트푸드업은 1차 가공한 재료의 사용, 균일한 품질, 3S주의(Speed, Service, Standard), 효율중시, 소상권주의 등의 특징을 지니며,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고 조직적 경영기법이 도입된 햄버거, 피자, 도너츠, 후라이드치킨, 면류체인 등을 지칭하고, 가격, 시간, 거리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태를 뜻한다.<sup>21)</sup>

그러나 현대식 음식업이 내포하고 있는 다양성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관계산업으로 인하여 외식산업 전체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외식산업에 대한 개념의 정리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1970년대 말까지 우리나라의 외식산업은 분식점을 포함한 대중음식점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오다가 1979년 말 기업형 프랜차이즈로서 등장한 ‘롯데리아’의 출현을 시발로 하여 1985년까지 도입기를 거쳐,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많은 신규사업체의 진출, 3低의 경제적, 사회적인 여건을 맞아 큰 신장세를 가졌고, 1990년대에

21) 신한종합연구소, 《우리나라의 식문화와 외식 산업의 전개방향》, 1988, p. 22.

들어서면서 6대 도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경쟁기로 돌입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패스트푸드업을 중심으로 한 외식시장의 매출규모는 1991년 기준으로 12조 5천억원정도이며, 1995년에는 약 2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으로 보인다.

〈表 4-58〉 年度別 外食市場規模 (단위: 10억, %)

구 분	1979	1982	1986	1987	1988	1990	1991
매출액	1,676	2,616	4,644	5,108	8,204	11,250	12,500
증감률	—	56.05	77.52	9.99	60.05	37.12	11.11

資料: 農水畜産新聞社, 《韓國食品年鑑》, 1992. 9, p. 609.

이처럼 매출이 급성장하면서 신규참여가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패스트푸드업 전체시장 중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부문으로 햄버거시장은 국내 브랜드인 롯데리아가 아직까지도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미국의 빅3(BIG 3)라고 하는 외국브랜드들이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후라이드치킨 시장은 1983년 두산식품이 미국의 ‘후버라인 켄터키후라이드 치킨’과 계약을 체결, 서울의 종로 2가에 1호점을 개설함에 따라 치킨시장도 기업화의 형태를 갖추고 시작하였고, 향후 3~5년 이내에 패스트푸드시장에서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근의 성장세로 미루어보아 달성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表 4-59〉 패스트푸드業의 現況(1991년 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1990	1991	증 감 률	비 고
총외식시장	106,678	125,000	21.9	* 90년도 신장률 25.9%
FF프랜차이즈	2,500	3,500	40.0	(89년 8조5천억원 추정)
햄버거	1,050	1,500	42.9	롯데리아, 맥도날드, 웬디스, 하디스 등
치킨	205	290	41.5	켄터키후라이드치킨
피자	85	125	47.1	피자헛, 피자인 등
도너츠	90	115	27.8	던킨도너츠, 원첼도너츠 등
국수	450	600	33.3	장터국수, 다전국수, 짬구짬구 등
기타	620	870	40.3	아이스크림, 패밀리레스토랑 등
일반 식당업	104,178	121,500	21.4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양념치킨 등

資料: 農水畜産新聞社, 《韓國食品年鑑》, 1992. p. 610.

1980년대 말경에 종래에는 고급레스토랑에서나 선보이던 피자가 세계গুল지의 펍시 계열이 피자헛의 상륙을 계기로 패스트푸드로 등장함에 따라 피자시장도 괄목할 만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기타 도너츠(던킨, 원첼, 미스터), 국수(장터, 장날, 짬구, 가마, 털보네우동, 국시리아, 다림방, 국수잔치, 민속마당, 참새방앗간 등), 커피전문점(헤트젠, 나이스데이, 자텔, 브레머, 트렌디, 미스타커피) 등이 영역을 계속 넓혀 가고 있다.

大邱地域에서도 이러한 급신장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1년부터 도심에서 학교와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외곽쪽으로 뻗어 나가면서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햄버거전문점은 선두주자인 ‘롯데리아’가 1980년대 초반에 중앙공원 옆에 1호점을 개설했으며 1993년 현재 모두 6개 점포가 영업을 하고 있다. 경쟁사인 ‘아메리카나’는 4개 점포가 있고 현재 2개점의 개설을 모색중에 있다. 피자전문점도 大邱地域에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피자헛’의 경우 1991년 9월 동아쇼핑에 1호점이 들어선 이후 4개 점포가 성업중이며, 1993년 하반기에 대백프라자에도 직영점이 들어설 예정이다. 대표적인 후라이드치킨점인 켄터키프라이드치킨은 1990년 7월 동아쇼핑에 1호점이 개설되었다가 철수했고, 지금은 3곳에서 영업중인데 이 중 ‘황금점’의 경우 180평의 넓은 매장에 어린이 놀이터시설과 차안에서 제품을 주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 2) 觀光호텔業

觀光振興法 제3조에 따라 관광산업은 觀光宿泊業, 觀光客利用施設業, 觀光便宜施設業, 觀光旅行業, 國際會議用役業 등 5가지로 구별되며, 이 중 관광호텔업은 觀光宿泊業의 대표적인 업종이다. 觀光産業體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관광호텔은 1987년 7월 1일 觀光事業法 施行令의 개정으로 종전에 없던 최소객실수의 제한규정을 두어 서울은 50실, 부산은 40실 이상, 기타지역은 30실 이상으로 하고, 등급구분에 있어서도 4단계에서 특급을 특1,2급으로 세분하여 5등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관광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관광호텔업은 업체수와 규모면에서 해마다 크게 신장하여, 觀光産業振興法이 제정, 시행된 1962년에는 전국에 불과 22개 호텔에 객실수가 907실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에는 62개 호텔에 4,766실, 1980년에는 123개 호텔(1979년 141개)에 1만 8,547실, 1985년 165개 호텔에 2만 3,771실, 1992년 12월 말 현재 435개 업체의 4만 3,739실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1962년부터 1991년 말까지 호텔수는 20배, 객실수는 48배가 늘어났다. 이 기간 동안 객실수의 증가추세는 1960년대에 연평균 25%, 1970년대에 20%씩 증가하다가 1980년대 전반기에 장기불황으로 연평균 5% 정도가 증가한 호텔당 평균객실이



41실이었으나, 1970년에는 76실, 1985년에 145실로, 그리고 1992년에는 101실로 점차 대형화되어 왔다. 이처럼 관광호텔의 대형화추세는 객실이용률(1992년) 기준으로 볼 때 특급이용률(특1급 70.35%, 특2급 66.34%)이 1급(59.94%), 2급(61.16%), 3급(52%)보다 훨씬 높으며, 전국 객실이용률 평균(62.58%)보다 높아<sup>22)</sup> 고급호텔일수록 이용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른 이용자들의 기호변화에 부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大邱地域의 관광호텔 객실규모는 업체당 61실로 주요 6개 도시와 비교할 때, 서울의 173실, 부산의 79실보다 규모면에서 훨씬 뒤떨어져 대전(61실), 광주(64실)와 함께 가장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大邱地域의 관광호텔업체는 1992년 현재 특1급 호텔이 없고, 특2급 호텔 3개, 1급이 12개, 2급이 9개, 3급이 4개, 등급미정이 1개로 모두 29개 업체에 객실수는 1,820실이다.

〈表 4-60〉 大邱地域 觀光호텔 登錄 現況(1993년 1월 말 현재) (단위: 개소, 실)

구 분	합 계		특1, 2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 미정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업체	객실
전 국	435	43,739	59	18,573	125	11,491	145	8,452	104	5,089	2	134
대 구	29	1,820	3	384	12	728	9	438	4	166	1	104

資料: 交通部·韓國觀光公社, 《韓國觀光統計》, 1993. pp. 98~99.

이는 전국 관광호텔에 비해 호텔수로는 6.7%, 객실수는 4.2%에 불과한 실정으로 최하위의 인천, 광주, 대전보다는 다소 높지만, 서울(23.2%, 39.5%), 부산(13.6%, 10.8%), 경북(8.3%, 8.2%), 제주(8.1%, 9.8%)에 비하면 과소할 뿐 아니라 특급호텔의 경우, 서울 25개, 부산 5개, 경북 6개, 제주 9개와 비교할 때 大邱地域의 관광호텔의 경영규모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입증되고 있다.

관광호텔의 등급결정은 종전의 시설기준에서 1980년 4월 18일 법개정(觀光振興法施行規則 제15조)으로 등급별 시설기준에 서비스 및 경영실태 조사평가결과에 따라 구분되기 때문에 등록과 개업초기에는 등급 미정상태가 된다.<sup>23)</sup> 따라서 관광호텔의 수입실적이 등급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수입실적을 보면 1992년 총 1조 3,549억 5,300만원으로 특1,2급이 8,471억 4,600만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大邱地域은 3.4%(465억 5,420만원)로 서울(54%), 부산(10.1%), 제주(8.2%) 보다 크게 뒤지며, 경북, 경남을 제외한 기타지역보다는

22) 한국관광협회, 《1992년도 관광호텔운영실적》, 1993. p. 21.

23) 백산출판사, 《관광관련법규》, 1986, p. 31.

높게 나타났다. 관광호텔 객실이용 인원도 전국(1,950만 7,802명)의 3.6%(70만 6,798명)를 차지하였고, 1991년 대비 전국이 평균 6.3% 감소한 반면 보다 많은 7.16%의 감소를 보였다.

또한 전국의 관광호텔 객실이용률은 평균 62.58%로, 외국관광객이 이용한 객실이용률은 26.44%에 불과하고 대부분 내국인이 36.14%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어 내국인의 높은 관광호텔 이용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大邱地域은 7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이 관광호텔의 주 대상이었으나 사회여건 변화, 국민소득 향상 등 상대적으로 내국인 이용률(55.05%)과 소비액(565억 4,200만원)이 높아져 역전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관광호텔의 수입구조를 보면 전국의 객실과 부대시설의 비중이 1992년 기준으로 객실수입이 40%(5,352억 4,600만원), 부대시설 수입이 60%(8,197억 6백만원)를 차지하고, 大邱地域이 객실수입 24.7%(140억 4백만원), 부대시설수입 75.3%(325억 3,700만원)를 차지함으로써 객실보다 골프장업, 유흥음식점업, 종합휴양업 등 관광호텔의 부대시설 운영수입이 훨씬 높은 비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입의 등급별 분포에서도 大邱地域은 특등급 19%, 1등급 41%로 절대적인 집중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고급호텔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관광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고객에 대한 인적 서비스가 주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습득한 관광종사자의 확보가 중요하며, 관광호텔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자격증을 요하는 관광숙박업 종사자에는 호텔경영을 담당하는 지배인(총지배인, 1급, 2급)과 관광호텔의 현관, 객실, 식당부문의 호텔종사원, 관광통역 안내원, 국내여행 안내원 등이 있다. 관광종사자(유자격자)의 취업현황은 1992년 12월 말 현재 2만 4,736명이며, 大邱地域은 4.7%(1,164명)로 서울(44.5%), 부산(11.5%), 제주(7.1%) 지역보다 관광종사자의 보유가 적은 편이다.<sup>24)</sup> 이는 관광산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원의 확충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 2. 課題와 展望

### 1) 現代式 飲食業

우리나라의 현대식 음식업은 패스트푸드업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10여년 동안 외식시장이나 규모면에서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시설, 경영 규모면에서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기능적 중심의 생업을 주로 하는 경영방식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24) 한국관광개발연구원, 《한국관광연감》, 1993. 7, pp. 286~287.

그러므로 기능적 중심에서 탈피하여 표준화되고 기계화된 가공방법과 중앙공급방식의 프랜차이즈 시스템화 함으로써 외식산업화할 수 있으며 이런 방향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大邱地域의 대부분은 직영점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한 원가상승과 임금상승, 법적, 행정상의 규제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의 어려움에 놓이게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현행의 대중음식점업이나 제과점업으로서의 허가업종에서 수요에 맞는 현대식 음식업으로서의 업종, 시설, 규모, 허가 등 법적·제도적 개선과 아울러 우리 실정에 맞는 외식에 대한 개발이나 전통음식의 패스트푸드 체인화 방안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음식을 위생적이며 조리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과학화, 현대화해서 한국고유의 음식맛을 계속 살리는 방안과 전통음식을 외식기업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편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패스트푸드업은 보건, 위생차원에서 규제가 많은데 성장유망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장적인 행정이 적극 검토되어야 하고, 외식산업계도 우리의 식생활에 적합한 한국형 외식문화의 창조를 위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종전의 대중음식점이 불결한 객석을 방치하고 위생에 대한 종사자의 인식이 부족하여 접객태도나 서비스정신이 결여되었으나 패스트푸드점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 신속한 음식제공, 깨끗한 점포분위기 조성 등이 소비자의 식생활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와 생활의 레저화 및 관능화 경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기대가 한층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다수의 대기업도 이 업종에 신규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大邱地域도 과거 외식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1982~1984년에는 연간 20~30%의 신장률을 기록했으며, 1985년 전반적인 침체상태에서 벗어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외식시장은 패스트푸드업 뿐만 아니라 음식을 주체로 하는 모든 업종이 외식산업화 되어질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와 같은 배경은 사회환경적 변화와 식생활의 변화 양상에서 가속적으로 급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조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다 가공학적인 측면에서 제품의 표준화, 기계화, 자동화가 뒷받침되어야 하고 제도적인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2) 觀光호텔業

관광사업의 주요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호텔업은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하여 활성화되었다가 1990년 이후 성장률의 둔화 및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시설의 과다확장 및 시설의 개보수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가,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의 압박 등의 어려운 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975년 이후 觀光産業을 國家戰略産業으로 육성시켜 왔으나 최근 법인세법 및 동 시행령의 개정으로 호텔 등 觀光宿泊業을 법인세상의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편입하고(1991년 1월), 접대비 손비 인정한도와 광고선전비가 0.1%에서 0.05%, 무제한에서 1.55%의 범위로 각각 제한되어 법인세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1990년 12월)으로 관광숙박업에 적용되어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1991년 7월 1일부터 제외하였으며, 1990년 3월 1일부터 관광호텔 부대시설(오락실, 나이트클럽 등) 및 관광업소에 대해서도 여타 식품접객업과 같이 심야단속(종전 17:00~02:00, 개정 17:00~24:00) 등 정부의 과소비 억제 정책에 따라 각종 지원의 단절 및 규제강화, 외국인 관광객의 감소추세(大邱地域은 1990년 전년도 대비 4.1% 감소) 등에 기인하여 觀光호텔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련업계의 자구책 모색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어 자체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행정이 다수의 법규정(觀光基本法, 國土建設綜合計劃法, 觀光振興法, 自然公園法, 都市公園法, 文化財保護法)과 담당부서 등 법체계와 행정조직의 다원화로 인하여 관광행정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관광행정체계의 일원화를 우선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8대 觀光利用圈 중 嶺南圈에 속하는 大邱地域은 보다 적극적으로 觀光資源開發小圈으로 관광자원의 개발, 교통망의 확충과 정비 및 국민관광객을 위한 관광시설의 확충, 관광활동상의 시간과 경비를 줄여줄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위한 綜合觀光情報센터의 설립 추진 등 보다 거시적인 차원과 업계의 관광객유치(94년 한국방문의 해 기간중 纖維大祝祭, 달구벌祝祭 등과 연계한 大邱觀光週刊을 지정)와 서비스개선 등 자율적인 노력을 통한 미시적인 차원 등을 통하여 大邱地域의 觀光宿泊業 및 관광호텔의 발전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觀光業界, 觀光宿泊業界 및 地方自治團體, 大邱市民 모두가 공동의 노력으로 觀光業界의 문제점을 깊이 파악하고,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 현황에서 나타난 것처럼 내·외국인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객실 및 부대시설의 고급화 및 대형화, 유자격 관광종사원의 확보 외에도 우리 지역에 맞는 향토음식 및 토산품개발과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大邱國際空港設立을 위한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적극적인 자세와 사고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은 지금까지 주로 외화획득 산업으로서 중요시되어 왔으나 최근 생활수준

향상, 의식구조의 변화 등으로 국민관광이 활발해지면서 국민복지차원에서의 중요성이 인식되어, 제6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중에는 국민복지증진, 지역개발 등과 연계하는 관광산업의 필요한 분야도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광산업이 국가적 및 지역적 입장에서 볼 때 국제수지개선, 국민경제발전 및 지역발전에 절대적으로 이바지하는 경제적 이점과 더불어 소득이 증대하는 고도 선진 산업사회에 있어서 국민의 휴식과 여가생활의 질적 수준보호라는 차원에서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성장해 나갈 전망이다.

## 第7節 · 서비스業

### I. 概 況

1991년 7월 1일 현재 大邱地域의 서비스업체수는 2만 7,337개로 전국(179만 6,984명)의 5.5%, 수입액은 1조 5,872억원으로 전국(32조 1,318억 1,800만원)의 4.9%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업체수와 종업원수가 감소세로 반전되었다. 한편 1986년을 기준으로 1991년 7월 1일 현재 전국의 사업체수, 종업원수, 판매액을 비교하여 보면 전국이 각각 22.4%, 26.4%, 129.9%의 증가율을 보였고, 大邱地域은 각각 37.5%, 32.2%, 136.5%로 나타났다.

〈表 4-61〉 大邱地域 서비스業의 年度別 伸張 推移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종업원수			수 입 액		
	전국	대구	전국 비중	전국	대구	전국 비중	전국	대구	전국 비중
1986	338,717 —	19,875 —	5.9	1,421,646 —	74,799 —	5.3	13,975,940 —	671,128 —	4.8
1989	452,034 (33.5)	27,029 (36.0)	6.0	1,874,148 (31.8)	100,209 (34.0)	5.3	24,807,541 (77.5)	1,093,205 (62.9)	4.4
1990	488,548 (44.2)	28,874 (45.3)	5.9	2,042,732 (43.7)	109,275 (46.1)	5.3	25,593,662 (83.1)	1,284,423 (91.4)	5.0
1991	414,619 (22.4)	27,337 (37.5)	6.6	1,796,784 (26.4)	98,879 (32.2)	5.5	32,131,818 (129.9)	1,587,200 (136.5)	4.9

註: ( )안은 1986년 기준성장률, 1991년은 부동산업 제외.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1991.

서비스업의 산업분류별 구성을 보면 娛樂 및 文化藝術서비스업과 개인 및 家事서비스업과 같은 소비성 서비스업이 59.8%로 전년(61.0%)에 이어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인데 반해 생산적이고 고부가가치 업종인 정보, 자료조사·처리, 광고, 건축·공학, 법무, 회계 등의 事業서비스업과 교육, 의료·보건, 학술연구기관, 사회복지 등 社會서비스업은 각각 4.9%, 26.0%로 나타났다.

〈表 4-62〉 大邱地域 서비스業 産業分類別 構成比(1971년 7월 1일 기준)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구성비	종업원수	구성비	수 입 액	구성비
계	27,337	100.0	98,879	100.0	1,587,200	100.0
부 동 산 업	2,474	9.1	6,947	7.0	—	—
사업 서비스업	1,349	4.9	8,737	8.8	244,954	15.4
위 생 및 유 사 서비스업	57	0.2	1,561	1.6	27,667	1.7
사회 서비스업	7,106	26.0	48,868	49.4	889,666	56.1
오락 및 문화 예술 서비스업	5,207	19.0	9,853	10.0	141,303	8.9
개 인 및 가 사 서비스업	11,144	40.8	22,913	23.2	283,609	17.9

註: 1991년은 부동산업 제외.

資料: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서비스업편, 1991.

## II. 不動産業

不動産業은 不動產賃貸業, 不動產開發業, 不動產仲介業 및 不動產鑑定業 그리고 其他 不動産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991년 7월 1일 현재 大邱地域의 총 부동산업체수는 2,474개소로 전국(5만 2,644개)의 4.7%를 점하고 있고, 이 중 不動產賃貸業體가 25개소, 不動產開發業體가 17개소 그리고 不動產仲介業, 不動產鑑定業, 기타 부동산업을 모두 합한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부동산업체수는 2,432개소로 나타났다. 大邱地域 부동산업의 종사자수는 6,947명으로 전국(15만 4,020명)의 4.5%, 사업장 면적은 11만 9,387㎡로 전국(516만 2,299㎡)의 2.3%를 겨우 점하고 있다.

不動產賃貸業의 경우 전국적인 현상이기는 하지만 土地超過利得稅를 회피하기 위한 나대지의 건축붐으로 인해 大邱地域의 不動產賃貸業은 많은 시련을 겪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와 맞물린

시점에서의 신규건축 붐에 따라 많은 건물들이 상당한 공간을 임대하지 못하고 비워둔 채로 있다. 또 한가지 특기할 만한 것은 1992년부터 대구지하철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중앙로 주변의 부동산임대가 상당히 타격을 받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하철공사가 완공 되기까지 이 지역의 상권 위축을 우려한 상당수 업자들이 그들의 사업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임대료 및 권리금의 상당한 하락을 수반하였다.

〈表 4-63〉 大邱地域 不動產業의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m<sup>2</sup>,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사업장면적
전 국	부동산 임대업	1,389	16,037	1,303,045
	부동산 개발업	636	10,435	229,452
	부동산 감정업	193	3,137	62,512
	부동산 중개업	47,282	80,729	1,214,783
	기타 부동산업	3,144	43,682	2,352,507
	계	52,644	154,020	5,162,299
대 구	부동산 임대업	25	212	27,279
	부동산 개발업	17	540	4,788
	부동산 감정업			
	부동산 중개업	2,432	6,947	119,387
	기타 부동산업			
	계	2,474	7,699	151,454
	전국비중	4.7	4.5	2.3

資料: 대한통계협회, 《중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제1, 2권, 1991.

不動産仲介業에 있어서 최근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부동산 관계법령의 제정에 따라 점차 전문화된 지식이 요구되고 부동산 거래시 분쟁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의 관심제고 등에 따라 점차 법인화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不動産仲介業도 不動産경기의 장기침체와 김영삼정부의 등장 이래 사정하락에 따라 상당히 위축되었다. 즉, 1991년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거래가 극히 부진한데다 업계의 전문화 추세로 자진 폐업업소가 늘어난 때문이며 특히 공직자 재산공개를 추진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하려는 사람이 자취를 감추고 있고 “벼룩시장” 등 지역정보지를 통한 거래증가로 중개업소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어 이같은 현상은 당분간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93년 6월 말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는 2,100여개소로 1993년 상반기 중 大邱地域에서 영업부진 등으로 자진폐업하거나 허가취소된 업소만도 전체의 10% 선인 240개소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기간 중 신규로 중개허가를 받은 업소는 15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 III. 事業서비스業

事業서비스업은 法務業, 會計業, 調査 및 情報業, 廣告業 그리고 機械 및 裝備貸與業으로 분류된다. 法務業은 다시 辯護士業, 特許事務業, 사법서사업 및 기타 법무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지는데 1991년 7월 1일 현재 大邱地域의 법무관련 서비스업체수는 총 241개로 전국(5,130개)의 4.7%를 점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1,013명으로 전국(2만 2,514명)의 4.5%, 수입액은 130억 6천만원으로 전국(3,551억 9,100만원)의 3.7%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비 업체수와 종사자수에 비해 수입액의 비율이 낮은 것은 비중있는 기업의 법률문제가 서울에 집중되고 지역내의 법률문제는 비교적 비중이 약한 개인적 차원의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방도시와 동일한 현상이지만 특히 최근에 들어 수출입에 따른 무역분쟁이 더욱 심해짐에 따라 국제간 상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요구되는데 지역실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하나 大邱地域의 법무업에 있어 특기할 만한 것은 특허사무업의 비중이다. 특허사무업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 내지는 경제활동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지적 소유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내의 특허사무업의 취약성은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會計業은 公認會計事業과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어지는데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은 세무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大邱地域의 公認會計事業과 기타 회계관련 서비스업체 수는 1991년 7월 1일 현재 각각 10개와 134개로 나타난 총 144개로 전국(2,391개)의 6.0%를 점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1,456명으로 전국(2만 1,768명)의 6.7%, 수입액은 243억 9,200만원으로 전국(3,209억 6,400만원)의 7.6%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업체당 종사자수와 수입규모의 평균치는 전국 평균치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1993년 상반기에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범위를 상당히 축소시켜 회계업계의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다행히 구미지역 전자업계의 수출호황으로 그 영향이 상쇄될 것으로 기대된다.

調査 및 情報業은 컴퓨터관련 서비스업과 기타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으로 대별된다. 그런데 大邱地域의 서비스업 중 특히 이 조사 및 정보업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및 정보관련 서비스업체수는 총 95개로 전국(1,738개)의 5.5%를 점하고 있으나 종사자수는 618명, 수입액은 200억 4,000만원으로 전국(2만 4,381명, 7,107억 2천만원) 대비 각각 2.5%, 2.8%를



〈表 4-64〉 大邱地域 法務業의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입액
전 국	변 호 사 업	1,438	8,394	179,925
	특 허 사 무 업	150	1,796	30,714
	사 법 서 사 업	1,211	6,558	79,758
	기 타 법 무 업	2,311	5,766	64,793
	계	5,130	22,514	355,191
대 구	변 호 사 업	80	421	7,440
	특 허 사 무 업	5	28	369
	사 법 서 사 업	72	369	3,264
	기 타 법 무 업	84	195	1,986
	계	241	1,013	13,060
전 국 비 중		4.7	4.5	3.7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제4권 서비스업편, 1991.

수 없을 만큼 경제환경에 민감한 산업이다. 우리경제의 비약적인 성장과 더불어 국내 광고산업도 급격한 성장을 실현하였다. 지난 1980년 2,752억원이던 광고비가 1991년 2조 3,297억원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GNP에서 광고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980년 0.76%에서 1991년 1.13%로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경제의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더불어 광고산업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980년 이후 매년 20~30% 가량 급성장세를 보였던 광고비가 1991년에는 16.5%의 증가에 머물러 절반 수준으로 둔화된 것이다. 반면 광고대행사들은 그동안 광고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방송광고의 경우 1980년대초 4개사에 불과하던 것이 1992년중 총 95개사로 늘어났다. 이 중 계열이 32개사로 전체의 33.7%이며, 지방소재 광고회사는 13개사이다.

〈表 4-65〉 大邱地域 會計業의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입액
전	국	2,391	21,768( 9.1)	320,964(134.2)
대	구	144	1,456(10.1)	24,392(169.4)
전국비중		6.0	6.7	7.6

註: ( )안은 업체당 평균치임.

資料: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통계조사보고서》제4권 서비스업편, 1991.

거우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업체규모가 영세하고 따라서 업체당 수입도 상당히 낮음을 나타낸다. 특히 인력면에서 종업원수가 50명을 넘는 업체는 한군데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들어 온연구소, 영남리서치 등의 전문적인 조사 및 정보업체가 설립되어 지역의 조사 및 정보업을 선도하고는 있으나 인력이나 자금력 등에서 서울의 우수한 조사 및 정보업체와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廣告業은 경제를 떠나서는 얘기할

결국 성장은 둔화되고 장래는 매우 불분명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1981년부터 방송광고대행 광고회사의 인정이 시작된 이래 대구의 광고업체로서는 서진기획이 1989년에 최초로 인정된 이후 거송기획이 역시 1989년에, 1991년 1월에는 백운프로

〈表 4-66〉 大邱地域 調査 및 情報業의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수 입 액
전 국	1,738	24,381(14)	710,710(408.9)
대 구	95	618(6.5)	20,040(210.9)
전국비중	5.5	2.5	2.8

註: ( )안은 업체당 평균치임.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査報告書》 제4권, 1991년

덕선 그리고 1991년 7월에 대구백화점 계열사로서 대백기획이 방송광고대행 광고회사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韓國廣告團體聯合會의 “91년도 放送 廣告代行認定 廣告會社 取扱” 조사에 응한 60개 회사 중 大邱地域의 업체로서는 서진기획, 대백기획 그리고 백운프로덕션이 각각 35위, 48위 그리고

56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방송광고대행 광고회사를 포함한 大邱地域의 광고업체수는 1991년 7월 1일 현재 113개소로서 전국(1,871개)의 6.0%를 점하고 있는 실정이며, 종사자수는 539명으로 전국(2만 939명)의 2.6%, 수입액은 69억 5,500만원으로 전국(6,424억 7백만원)의 1.1%를 겨우 차지하고 있다.

업체당 종사자 수와 수입액의 평균치는 각각 4.8명과 6,200만원으로 전국(11.2명, 3억 4,300만원)에 비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대구 광공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 광고업계 전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공통적인 면과 大邱地域 고유의 문제로 나눌 수 있겠다. 먼저 광공업계 전반의 문제로서 경기침체와 광고업계의 난립을 들 수 있겠다. 다행히 제조업이 중심인 광고주들은 불황기에 오히려 호황을 대비, 광고예산을 줄이지 않았기에 경기침체의 영향이 광고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외국인에 대한 광고시장개방을 대비하기 위해 광고사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한 이래 한꺼번에 늘어난 광고업체들의 난립으로 광고업계 전반에 큰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91년 하반기를 고비로 군소광고회사들의 위축과 신규광고회사들의 등록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미 조정국면에 접어든 상황으로 분석된다.

또한 국내유수 광고주들의 자체 광고사 확보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대구의 경우에도 대구백화점이 이미 계열사로서 대백기획을 설립하여 자체 광고제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House Agency 중심의 국내 광고시장 구조를 더욱 심화시켜 독립광고대행사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광고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大邱地域 광고업계 고유의 문제로서는 역내 다른 업종과 대동소이한 현상이지만 인력과 자본의 취약성을 들 수 있겠다. 이런 취약성으로 인해 지역내 유수광고주들의 광고제작 의뢰가 점차 서울로 바뀌고 있어 지역의 광고회사는 그 성장에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권의 중요한 광고주로는 청구, 우방, 보성 등 큰 주택회사와 대구, 동아 등 양대백화점, 그리고 금복주와 일부 금융회사 등인데 이들은 연간 광고예산을 짜서 집행하고 있고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단발적이고 즉흥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주택회사의 경우 대구만큼 광고를 많이 활용하는 곳이 드문만큼 역내서 차지하는 광고비중은 매우 높다. 근래 들어 미분양 사태가 날 만큼 부동산 경기가 침체기로 접어들자 기업이미지 광고보다는 상품광고의 횟수가 크게 늘면서 광고비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한가지 대구 광고업계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광고매체인 屋外電光板廣告가 전부 서울의 광고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屋外電光板廣告에 대한 광고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역내 광고업계의 대책이 빨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리스산업은 기계, 설비 등을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게 하고 리스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물적 금융을 담당하며 국내 설비투자, 통화금융정책 등에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다. 국내 리스업계는 1993년 1월 현재 리스업을 전문적으로 영위하는 25개 전업사와 리스영업을 타금융업무와 함께 영위하는 6개 종합금융회사 및 3개 신기술금융회사 등 총 34개사로 구성되어 있다. 大邱地域은 1993년 1월 현재 4개 리스회사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에 기반을 둔 대구리스(주)와 대동리스(주)가 있으며 나머지는 산업리스 대구지점과 개발리스 대구지점이다. 이들 회사의 大邱地域에 대한 최근 리스실적을 살펴보면 앞의 표와 같다.

〈表 4-67〉 大邱地域 리스會社別, 年度別 리스 契約實績 (단위: 백만원, %)

회사 \ 연도	1990	1991	1992	1993. 4, 5월
대구리스	69,024(38.5)	96,107(33.6)	146,891(36.0)	39,965(48.5)
산업대구	41,727(23.3)	52,534(18.4)	70,064(17.2)	7,451( 9.1)
개발대구	68,638(38.2)	88,171(30.8)	98,892(24.2)	15,700(19.1)
대동리스	—	49,030(17.2)	92,151(22.6)	19,195(23.3)
합 계	179,389	285,842	407,998	82,3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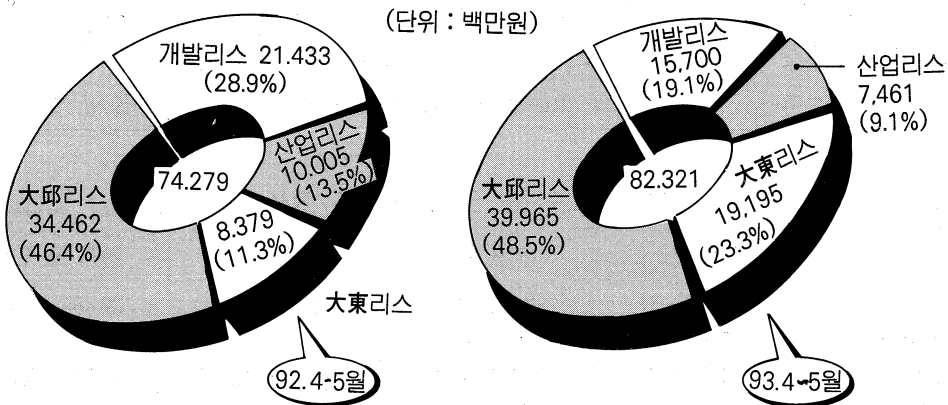
註: ( )안은 지역내 점유율임.

資料: 大邱리스 營業分析 內部資料.

앞에 제시된 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大邱地域의 리스계약실적은 지속적이고 급속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 또, 한가지 주목할 만한 것은 1993회계년도에 들어서 大邱地域 리스업체들의

계약실적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이다. 1993년 4, 5월 2개월간 리스업체들의 계약실적은 823억 2,100만원으로 이 중 대구리스가 48.5%인 399억 6,500만원, 대동리스가 23.3%인 191억 9,500만원, 개발리스 대구지점이 19.1%인 157억원, 산업리스 대구지점이 9.1%인 74억 6,100원에 이르고 있다. 이같은 실적은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92년의 동기간과 비교해 보면 후발업체인 대동리스의 계약점유비가 11.3%에서 23.3%로 크게 늘어난 반면 선발업체인 개발리스와 산업리스의 점유비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大邱地域 리스업체의 문제점은 1991년 대동리스의 설립으로 리스공급이 조금 늘어나고 특히 최근들어 설비투자가 다소 위축되고 있지만, 기업의 리스수요가 리스공급을 초과하는 만성적인 수요위험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자금조달능력이 영업활동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리스회사의 자금조달방법으로는 증자, 외부차입 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증자를 통한 자금조달은 1989년 4월 이후 국내 주식시장이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업공개를 통한 공모증자는 증권당국에 의해 억제되고 있으며 특히 대구리스와 대동리스의 경우 주주 중 대구은행과 대동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이 자금력이 취약한 지방 상공인이어서 현 상태에서는 증자는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따른 리스공급의 여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圖 4-5〉

大邱·慶北地域 리스業體 契約實績

## Ⅳ. 社會서비스業

社會서비스業은 教育서비스業, 醫療保健 및 獸醫서비스業, 社會福祉機構 그리고 기업, 전문 및 노동단체로 분류된다.

教育서비스業은 일반적으로 공공교육기관과 학원으로 불리워지는 강습소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중 1991년 7월 1일 현재 大邱地域의 강습소는 총 4,518개소이므로 大邱地域이 업체수 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5%에 달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만 1,005명으로 전국(15만 7,715명)의 7.0%, 수입액은 956억 8,900만원으로 전국(1조 6,667억 6,200만원)의 5.7%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8〉 大邱地域 講習所의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 입 액
전 국	60,330	157,715(2.6)	1,666,762(27.6)
대 구	4,518	11,005(2.4)	95,689(21.2)
전국비중	7.5	7.0	5.7

註: ( )안은 업체당 평균치임.

資料: 대한통계협회, 《총사업체 통계조사보고서》 제4권 서비스업 편, 1991.

社會 서비스業 중 國民保健과 직결되는 醫療 및 保健서비스業은 그 업체수가 1991년 7월 1일 현재 1,534개소로 이를 세분화하여 보면 병원급이 23개소, 의원이 696개소, 치과병원 및 의원이 370개소, 한의원이 364개소이며 그리고 기타 醫療 및 保健서비스業이 81개소에 이른다. 한편 전국의

醫療 및 保健서비스業체수는 2만 3,603개소로 大邱地域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업체수 비중은 6.5%이다. 이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전국의 醫療 및 保健 서비스업체 중 한의원(4,697개)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임에 비하여 大邱地域의 경우 한의원 수가 전체 醫療 및 保健서비스業의 23.7%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는 대구의 藥令市場 발달과 상당히 관련이 있는 듯하다. 醫療 및 保健서비스業의 종사자수는 1만 2,399명으로 전국(20만 3,648명)의 6.1%, 수입액은 3,067억 3,000만원으로 전국(4조 7,738억 2,500만원)의 6.4%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社會福祉機構는 수용복지시설, 비수용복지기구 그리고 재활원 등으로 나누어 지는데 大邱地域의 사회복지기구는 총 113개소로 이 중 수용복지시설(37개소)과 비수용복지기구(70개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국(2,744개)의 4.1%를 점하고 있다. 종사자수는 1,108명으로 전국(2만 2,690명)의 4.9%, 수입액은 128억 3,900만원으로 전국(1,971억 2,700만원)의 6.5%를 각각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4-69〉 大邱地域 醫療 및 保健서비스業의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사 업 장 면 적
전 국	병 원	949	110,121	2,618,145
	의 원	11,036	59,404	1,379,683
	치 의, 벼 원	5,455	16,911	353,448
	한 의 원	4,697	12,412	279,488
	기 타	1,466	4,800	143,061
	계	23,603	203,648	4,773,825
대 구	병 원	23	6,514	190,136
	의 원	696	3,377	68,826
	치 의, 병 원	370	1,154	22,881
	한 의 원	364	1,011	16,996
	기 타	81	343	7,881
	계	1,534	12,399	306,730
	전 국 비 중	6.5	6.1	6.4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제4권 서비스업편, 1991.

〈表 4-70〉 大邱地域 社會福祉機構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수 입 액
전 국		2,744	22,690(8.3)	197,127( 71.8)
대 구		113	1,108(9.8)	12,839(113.6)
전 국 비 중		4.1	4.9	6.5

註: ( )안은 업체당 평균치임.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第4卷 서비스업편, 1991

## V. 娛樂·文化藝術서비스業

大邱地域의 娛樂, 文化藝術서비스업은 1991년 7월 1일 현재 그 업체수가 5,207개소로 전국(8만 4,897개)의 6.1%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수 및 수입액은 각각 9,853명, 1,413억 300만원으로 업계의 전국수치(19만 3,854명, 4조 1,193억 3,700만원)와 비교해 보면 그 점유율이 각각 5.1%, 3.4%를 차지하고 있다.

이 업종을 다시 분류하여 보면 영화 및 기타 예술서비스업,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表 4-71〉 大邱地域 娯樂, 文化藝術 서비스業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 입 액
전 국	84,897	193,854(2.3)	4,119,337(48.5)
대 구	5,207	9,853(1.9)	141,303(27.1)
전국비중	6.1	5.1	3.4

註: ( )안은 업체당 평균치임.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제4권 서비스업편 1991.

및 기타 문화서비스업 그리고 그 나머지가 오락서비스업으로 업체수에 있어서 大邱地域 오락, 문화예술서비스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그 비중을 보면 업체수, 종사자수 그리고 수입액에 있어서 大邱地域 전체 오락 및 문화예술서비스업의 81.5%, 72.7% 그리고 56.2%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4-72〉 大邱地域 娯樂, 文化藝術서비스業 細細分類別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 입 액
영화 및 기타 예술 서비스업	88( 1.7)	1,140(11.6)	48,514(34.3)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876(16.8)	1,550(15.7)	13,426( 9.5)
및 기타 문화서비스업			
오락 서비스업	4,243(81.5)	7,163(72.7)	79,362(56.2)
합 계	5,207	9,853	141,303

註: ( )안은 업종별 비중임.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第4卷 서비스업편, 1991.

이 업종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지방도시의 공통된 문제점이 상존하는 바 특히 이 업종에서는 서울의 집중현상이 심각하다. 大邱地域의 영화제작업체수는 단 1개밖에 없으며 음반녹음업체도 2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즉 大邱地域 娯樂, 文化藝術서비스업의 절대다수가 소비성 오락 산업에 불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제작업체는 거의 전무한 실정인 것이다.

## Ⅵ. 個人 및 家事서비스業

個人 및 家事서비스업은 修繕業, 洗濯 및 染色業 그리고 기타 개인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데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비교적 비중이 높은 것은 이·미용업과 사진촬영 및 현상업 그리고 욕탕업을 들 수 있겠다. 1991년 7월 1일 현재 個人 및 家事서비스업의 총 업체수는 1만 1,144개소로 전국(183,686개)의 6.1%를 점하고 있고, 종사자수는 2만 2,913명으로 전국(374,204명)의 6.1%, 수입액은 2,836억 9백만원으로 전국(4조 7,208억 2,700만원)의 6.0%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실

(表 4-73) 大邱地域 個人 및 家事서비스業 全國對比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업체수	종사자수	수 입 액
전 국	183,686	374,204(2.0)	4,720,827(25.7)
대 구 전국비중	11,144 6.1	22,913(2.1) 6.1	283,609(25.4) 6.0

註: ( )안은 업체당 평균임.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제4권 서비스업 편, 1991.

정이다.

1991년 7월 1일 현재 大邱地域의 個人 및 家事서비스업에서 각 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表 4-74>에서 살펴보면 大邱地域 個人 및 家事서비스업 중 업체수에 있어서는 이·미용업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2.5%를 점하고 있다.

한편 근래들어 점점 빠르고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현대인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즉석사진 현상업이 등장한 이래 재래의 사진처리업을 완전히 대체하게 되었으며 일반적 의미에서의 사진관은 인물사진이나 행사위주의 사진촬영을 주업으로 하고 있다. 또한 세탁업에 있어서는 90년대에 들어서 대학가를 주변으로 빨래방이라는 이름의 셀프세탁소가 등장하여 대학생 등 독신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表 4-74) 大邱地域 個人 및 家事서비스業 主要業種의 比重 (단위: 개, 명, 백만원, %)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수 입 액
전 기 수 선 업	534( 4.8)	1,132( 4.9)	32,949(11.6)
자 동 차 종 합 수 선 업	79( 0.7)	2,829(12.3)	57,478(20.3)
세 차 장	296( 2.7)	1,075( 4.7)	11,998( 4.2)
세 탁 및 염 색 업	2,036(18.3)	3,060(13.4)	24,427( 8.6)
이 발 소	1,270(11.4)	2,308(10.1)	19,582( 6.9)
미 장 원	3,469(31.1)	4,746(20.7)	45,568(16.1)
사 진 촬 영 및 현 상 업	583( 5.2)	1,258( 5.5)	15,636( 5.5)
욕 탕 업	390( 3.5)	1,782( 7.8)	20,854( 7.4)
기 타	2,487(22.3)	4,723(20.6)	55,117(19.4)
합 계	11,144	22,913	283,609

註: ( )안은 업종비중임.

資料: 大韓統計協會, 《總事業體 統計調查報告書》 第4卷 서비스업편, 1991.



## 第8節 大邱地域 流通産業의 課題와 展望

이상에서 대구지역의 유통산업의 발달과 변화를 점검해 보았는데, 본절에서는 대구의 유통산업 환경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전망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 I. 1990年代 流通環境의 變化

1990년대에는 대구지역의 유통업에 커다란 환경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유통환경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대구지방의 유통업계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1. 流通開放化

한국경제의 국제화 추세에 따라서 1988년 10월에 유통개방화계획이 발표되어 1989년에 제1단계 조치(유통기술도입 확대, 도매업 투자 확대, 외국지사 규제완화)가 실시되고, 1991년 7월에 제2단계 조치(소매업의 선별적 개방, 점포당 1,000평방미터 이하, 10개 점포 미만)가 실시되었으며, 1993년 7월에 제3단계 조치(자유화의 전단계, 점포당 3,000 평방미터 이하, 20개 점포 이하)가 벌써 실시되었다. 1996년에는 점포수 및 매장면적 제한을 완전 철폐한 전면 개방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유통개방화는 수입자유화와 달라서 외국의 유통업종이 자유로이 한국에서 상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국의 능률적인 신종 유통업체가 들어오면, 그 압력을 피하기 위하여 서울 지역의 유통업체가 대구지역으로 들어올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역 유통업체는 외국업체의 진입과 서울업체의 ‘南進’이란 두가지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 2. 高速電鐵의 開通

1990년대에는 시속 300km의 고속전철이 개통되어 서울~대구는 1시간, 대구~부산은 30분대에 갈 수 있게 될 것이다. 1970년대의 경부고속도로의 개통이 대구지역의 섬유도매업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시킨 것을 상기하면, 이 고속철도의 개통은 대구지역의 산업에 더욱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즉, 교통시간의 단축은 정보교환의 신속, 거래상담을 위한 장소 선정, 심리적인 거리감의 해소 등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따라서 대구지방의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현재의 유통관행 하에서는 고속 전철의 개통이 대구 구매력의 서울에의 이탈을 조장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통업체에는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 3. 金融實名制

1993년 8월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대구지방의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들의 유통관행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에 보고되지 않는 무차료 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교동시장의 전자, 가전제품시장과 매출액 중의 상당부분이 신고 안되는 거래관행에 의해서 상업을 하고 있는 서문시장을 위시한 재래시장의 경우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일시적으로 유통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데 공개적인 거래제도에 빨리 적응하지 않는 한 대구지역 재래시장의 장래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 4. 流通情報의 迅速化

컴퓨터의 발달로 인하여 서울 본사와 지방 지사 또는 대리점과의 정보교환이 쉬워졌고, 또 지방정보의 중앙통제 및 조작이 가능해졌다. 유통업체의 서울 본사가 각 지방에 있는 지사 또는 유통센터의 재고정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방의 대리점은 팩시밀리나 컴퓨터 단말기로 서울본사에 직접 주문하면, 각 지방의 유통창고의 재고정보를 갖고 있는 서울 본사는 해당지방의 유통창고에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하여 출고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본사 컴퓨터의 재고수치에서 그만큼 감소시킨다. 출고지시를 받은 대구지방의 유통창고는 지시받은 상품을 창고에서 출고하여 고객별로 분류하여 주문한 대리점으로 배달해 준다. 따라서 각 지방창고의 재고통제도 서울에서 할 수 있게 되어서, 이러한 정보화체계는 정보면에서 서울과 지방의 거리를 없애주고 이것이 정보의 중앙집중화, 지방유통의 중앙예속화를 가속시키고 있다.

### 5. 大邱地方 消費者의 購買慣習의 變化

현재 대구지역 소비자들의 구매관습과 구매행동이 유통개선의 중요한 기준요인이 된다. 1989년 말 大韓商工會議所의 대구지역 200가구의 조사결과는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表 4-75〉 小賣形態에 대한 大邱消費者의 滿足度와 不滿足 理由 두가지 (단위: %)

소매형태	만족도*	이용하는 이유 두가지		불만족 이유 두가지	
		첫째이유	둘째이유	첫째이유	둘째이유
백화점/쇼핑	50.2	상품구색(42)	서비스/품질(20)	가 격(67)	거 리(22)
수퍼마켓	52.7	거 리(38)	가 격(24)	상품구색(29)	시 설(29)
재래시장	38.2	가 격(43)	거 리(30)	시 설(33)	서비스(21)
일반상점가	28.6	거 리(39)	가 격(22)	상품구색(32)	가 격(28)
전문점	49.7	품 질(33)	상 품 구 색(25)	가 격(39)	거 리(35)
구멍가게	17.7	거 리(51)	가 격(28)	상품구색(33)	시 설(29)
노점/행상인	19.6	가 격(43)	거 리(38)	시 설(35)	품 질(24)

註: \* “매우 만족하다”, “약간 만족하다”의 합계.

資料: 大韓商工會議所, 《韓國의 商圖》, 1990년, pp. 912~918.

먼저 소매형태별 선호도는 백화점, 쇼핑센터, 수퍼마켓, 전문점을 비교적 더 좋아한다(응답자의 50% 정도)고 하였다. 이들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상품구색이 풍부하고, 가격이 적절하고, 거리가 가까워서 등의 이유이고, 한편 이들을 싫어하는 주된 이유로는 백화점, 쇼핑센터, 전문점은 가격이 비싸고, 수퍼마켓, 재래시장, 구멍가게는 상품구색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평가에 맞추려면, “상품구색이 적절하고, 가격이 적절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가까운 거리에서 살 수 있는 상점”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 II. 大邱地方 流通業界의 課題

대구지역 유통업계의 발전방향을 논하려면 먼저 대구지방 유통업계의 강점과 약점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서울이나 외국업체에 비해서 지방유통업체가 가진 장점은 ① 지역문화를 타지방 업체보다 더 잘 이해하고 있으며, ② 지역정보를 잘 알고 있으며, ③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이 기대되고 그래서 판매량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지방업체의 약점은 ① 대체적으로 자본력이 부족하고, ② 경영기술이 부족하고, ③ 전국적 조직력이 약하고, ④ 우수한 인재확보가 어렵다. 이러한 대구지역 유통업계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약점을 보완하는 대책이 커다란 과제이다.

이러한 1990년대의 유통환경의 변화 속에서 대구지역 유통업체가 직면하는 과제들은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과제의 해결이 대구지역 유통업의 장래를 좌우할 것이다.

## 1. 새로운 流通業種의 개발

첫째로, 유통업자체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 먼저 소형 슈퍼나 구멍가게의 경우, 대구지역 소비자가 이들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① 상품구색이 빈약하고, ② 시설과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③ 서비스가 불량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경제수준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수요에 대응하도록 상품구색을 갖추고 또 수요의 변화를 계속 모니터하면서 그 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또 향상된 소비자의 쇼핑환경에 관한 요구를 고려하여 시설과 분위기가 현대화되어야 하고, 상점의 서비스자와 관리방식이 현대화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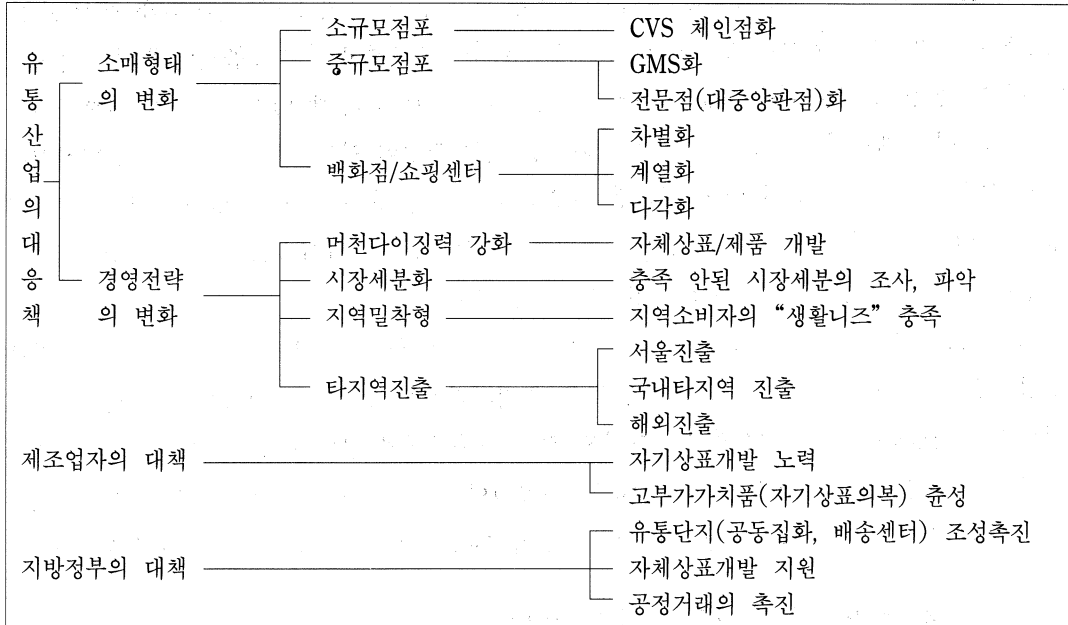
이러한 원칙에 따라서 지방의 연쇄사업자(연쇄점 본부)는 CVS식 편의점의 체인사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여야 한다. 대구지방 소비자의 구매특성으로 보아서 지방이라고 해도 대구같은 대도시의 경우 CVS식 편의점의 체인이 성공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슈퍼나 잡화점은 이것을 대형화하여 GMS로 확대전환시키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GMS는 대구의 경우 300~600평 정도의 매장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품구성은 식품 50 : 비식품 50 정도가 적합할 것이다. 비식품 품목으로는 중간 가격대의 생활용품, 내의, 잠바 등 간편한 외의, 운동화, 생활도구, 문방구 등 편의품이나 준선매품에 속하는 품목이 적절하다. 복잡한 교통사정으로 보아서 주택가 부근의 현대식 쇼핑환경에서 생활용품과 잡화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表 4-76>에서 보듯이 대구시 소비자가 이 옷가게를 가까운 거리관계로 좋아하지만 상품구색과 쇼핑환경에 불만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면 그러한 니즈(needs)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위와 같은 GMS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GMS의 입지는 최근에 급속히 발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나 기타 주택밀집지역이 매우 유리할 것이다.

또 대형전문점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것은 주차난 등 어려운 도시교통 속에서 선매품 또는 준선매품적인 전문품이라도 풍부한 상품구색을 갖춘 편리한 곳(편의점)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현대인의 쇼핑 관습의 변화에 비추어 당연한 추세이다. 이에 따라서 어린이용품 전문점, 장난감 전문점, 문방구 전문점, 가전제품 전문점 등 대형화된 전문점의 개발이 크게 환영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소매형태는 외국업체가 진출하거나 또는 서울업체가 체인화하여 지방으로 진출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방업체에서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한편 가전제품대리점과 같이 제조업자대리점도 지금까지의 전속대리점에서 벗어나서 가전제품 양판점(일본형)으로 개발시켜야 한다.

〈表 4-76〉

流通開放化에 대한 地方流通業界의 對應方案



資料：이종영, 〈流通開放과 地方流通業의 對應戰略〉 신부 전달출회장 회갑기념논문집, 1991.

## 2. 商品企劃力の 強化

둘째로, 經濟戰略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 중에서 시급한 것이 소비자의 니즈(needs)에 맞는 상품의 개발과 계획구매를 위한 머천다이징력의 강화이다. 머천다이징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먼저 구입상품의 판매성과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백화점이 팔다가 남으면 반품한다는 조건으로 제조업자로부터 상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주적인 전략정책과 기타 마케팅 활동을 할 수가 없다.

또 적절한 상품이 없으면 자체상표를 개발하여 생산을 계열화시켜야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제품계획과 상표개발을 위하여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또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손쉬운 것이 외국(특히 일본)에서 잘 팔리는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수입유통업자를 외국상표에 예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백화점의 자주적인 마케팅활동과 발전에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고, 지방유통업자의 서울 또는 외국유통업에의 종속화를 촉진할 뿐이다.

### 3. 差別化, 系列化, 多角化

백화점의 경우는 차별화, 계열화, 다각화 정책을 써야 한다. 〈表 4-75〉, 〈表 4-76〉에서 보면, 대구지역 소비자가 백화점을 찾는 큰 이유는 상품구색이 풍부하고 서비스/품질이 좋기 때문이고 백화점이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값이 비싸고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그래도 상품구색과 품질 때문에 선대품의 구매를 위해서는 백화점을 찾는 경향이 있고, 전문품의 경우도 백화점이 크게 선호되고 있다. 현재 이들 백화점은 모두가 동일한 상품구색과 동일한 목표고객을 겨냥하고 있다. 설사 백화점 측에서는 차별화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 차별화의 정도가 분명치 않으며 고객에는 그 차이가 인식이 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모두가 다 최고급상품, 최일류상품, 최신 유행상품만 취급한다고 하면서 힘겨운 정면경쟁을 할 필요가 없다. 충족되지 않은 소비자의 니즈를 발견하여 그것에 상응하는 소매형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상품판매의 범위를 벗어나서 소비자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 활동영역을 다각화하여 종합적인 이윤증대의 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동아백화점의 광고업 진출, 대구백화점의 관광업 진출 등도 적절한 다각화방향이라고 본다.

### 4. 地域密着形 經營方式의 開發

한편 지방기업의 특징을 살려서 ‘지역밀착형’ 경영방식을 취함으로써 지방관객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백화점은 ‘상품의 소매’에서 지역소비자의 ‘생활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사업’으로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한다. 부가가치면에서는 상품판매보다 오히려 서비스면이 더 높고 따라서 그 방면의 성장가능성은 크다. 그 예로서는 소비자의 생활에 관계되는 결혼 서비스, 식당, 문화, 스포츠 및 레저서비스업 등을 들 수 있다.

### 5. 他地域에의 進出

대구지방 유통업체도 타지방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東亞百貨店의 서울진출은 이미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이어서 大邱百貨店도 서울에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서울 이외의 타도시나 경상북도 내의 다른 중소도시에도 진출할 수 있다. 大邱百貨店과 東亞百貨店의 浦項 진출은 그 좋은 예이다. 백화점 뿐만 아니라 연쇄점망의 확장은 지방기업으로서도 가능한 분야이다.

국내 뿐만 아니라 유통업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서울의 롯데와 현대 백화점은 소련과 중국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외국진출은 판매 뿐만 아니고 개발수입을

통한 머천다이징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고속전철의 개통에 따라 전국이 만나질 생활권이 되면 전국이 거의 경제적으로 통합될 수 있고, 따라서 서울의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지방의 유통업체도 이러한 해외진출은 적극적으로 계획해 볼만한 일이다.

## 6. 大邱地方 製造業界의 努力

대구지방에서는 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제조업체가 없고, 구미에 있어서도 공장일 뿐이고 마케팅은 서울 본사에서 취급하는 형편이지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제조업자들도 다른 지방업자에 비해서 그 지방문화와 시장을 더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장점이다.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유통업체와 공동으로 지방소비자의 니즈에 맞는 제품개발과 상표개발에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섬유업도시인 대구에서 섬유류 생산은 전국의 60% 정도를 차지하면서 고부가가치품인 의류제조는 전국시장의 2~3% 정도 밖에 안된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자체상표 개발노력은 의류에 가장 적합하다. 이러한 개발노력은 시초투자가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치있는 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7. 大邱地方政府의 支援

지방유통업이 성장하면, 이것은 바로 지방경제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로 연결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유통업자들의 이러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먼저 물류활동개선을 위한 부지확보나 각종 시설투자를 하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의 발전촉진 차원에서 협조해야 한다. 단 이러한 유통단지가 입주자 각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창고집합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유통단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공동집배센터’ 기능이라야 하고 다른 기능과 시설은 이것에 수반하여 지원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입주업체의 창고건설을 위한 토지분양이 주된 내용이 된다면 입주업체는 물류능률향상보다도 부동산 가격상승에 더 치중하게 될 것이다.

한편 지방의 유통업자나 제조업자가 자체상표개발에 노력하도록 세제혜택이나 기타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 불공정거래행위는 지방유통업 발전에 큰 장애가 되므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第5章 對外貿易

### 第1節 概 觀

오늘날 정치적·경제적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하나의 강력한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은 이른바 ‘國境없는 經濟’(borderless economy)의 급속한 진전에 따른 經濟의 國際化(internationalization of economy)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의 국제화는 오늘날 불가역적인 하나의 보편적 추세로서 간주되고 있으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화추세와 더불어 최근에 이르러 地方의 國際化가 널리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제발전의 문제에 있어서도 地方化와 國際化의 두 축을 결합시킨 ‘地方經濟의 國際化’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그런데 經濟의 國際化를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나누면 국제무역과 국제투자로 대별할 수 있는데, 이 양자를 상호 비교한다면 최근에 이르러 國際投資의 의의가 더욱 커지고는 있지만 전통적으로 여전히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國際貿易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地方經濟의 國際化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으로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하나의 연구과제는 지역무역이 어떠한 역사적 추이와 구조를 유지하여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 내재하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통일적으로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일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大邱의 貿易을 보면 통계가 가능한 근대적 형태의 대외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의 무역일반이 그러하듯이, 한일합방 이후 일본과의 교역이 개시된 1910년대 이후이다. 이렇게 본다면 대구의 근대적인 무역은 대체로 8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간 동안 서로 상이한 환경 위에서 이루어진 지역의 대외무역을 동일선상에서 또한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무역을 역사적으로 논의함에 있어서는 일정한 時代區分이 필요하고 이렇게 대구무역을 역사적 단계로 나눔에 있어서는, ① 解放以前の 대구무역(1910~45), ② 解放以後 戰後再建期까지의 대구무역(1946~1961), ③ 經濟開發初期의 대구무역(1962~71), ④ 輸出主導成長期の 대구무역(1972~80), ⑤ 直轄市昇格 이후의 대구무역(1981~91)으로 구분하여 그 추이와 구조의 변화를 논의함이



마땅할 것이다.

대구의 대외무역을 이같은 시대구분에 따라 논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하나의 체계 위에서 논의함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問題點이 대두된다. 우선 한마디로 ‘大邱貿易’이라고 하지만 大邱의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부득이 大邱市만으로 국한할 수 밖에 없지만 그렇더라도 그 동안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변화가 없을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대외무역에 관한 한, 여타의 지역경제통계가 지니는 일반적 난점 이상의 다음과 같은 統計的 難點들이 개재되고 있다.

먼저 해방 이전 일제 식민지하에 있어서는 1939년까지 대외국통계가 존재하고 있고, 대구의 경우 《大邱府史》의 자료가 있어 그 당시의 현황파악이 가능하지만 1940년 이후에는 이러한 기록이 제대로 남아 있지 못하다.<sup>1)</sup> 또한 해방 이후 한국전쟁기(1945~53) 및 전후 재건기(1954~61)의 통계자료는 부분적으로나마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의 전체적 추이와 구조를 파악하기에는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계속적이고 가치있는 統計資料가 가능한 것은 大邱市의 《大邱統計年報》가 기록되기 시작한 1962년부터이고 또 실제로 대구지역의 대외무역이 제대로의 틀을 갖추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제1차 경제개발계획을 시작하여 수출주도성장을 표방한 1962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大邱輸出의 경우 대구시가 집계하여 발표한 자료가 1962년 이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그 규모와 추이를 파악함에 별로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大邱輸入의 경우 또는 이를 바탕으로 한 地域貿易收支의 경우는 세관통관실적을 통하여 파악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通關實績統計에는 몇가지의 문제점이 존재한다.

우선 대구세관이 부산세관 출장소로 존재하다가 1970년 8월 포항출장소를 흡수하여 大邱稅關으로 승격하였고, 1972년 대구세관 관할 하에 구미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 8월 대구세관이 다시 본부세관으로 승격되는 등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러한 대구세관의 위상변화에 따라 그 통관실적의 의미가 달라진다.

이러한 경우 대구·경북지역의 대외무역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전체통관실적이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겠지만, 大邱市만의 대외무역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게

1) 일본이 진주만공격과 제2차 대전도발의 결의를 본격화하던 1940년 이후의 통계는 부분적으로만 찾아볼 수 있을 뿐이고, 특히 패색이 짙어지던 1943~45년간의 무역통계자료는 군사기밀로 취급되어 전혀 공표된 바 없다. 이는 패전의 연장만을 위한 물자의 흐름이 계속되었던 시기로서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는 없으며 일본은 전쟁수행능력의 노출을 기피하기 위하여 이러한 통계를 기밀로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된다. 따라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大邱本部稅關만의 통계가 필요해지는데 대구본부세관만의 통계가 별도로 발표된 후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은 1985년 이후부터이다. 따라서 대구시의 대외무역을 논의함에 있어 가치있는 통관통계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기에, 대구무역의 역사적 추이를 하나의 체계 속에서 분석하는데 한계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통계적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稅關統計를 통하여 地域貿易을 논의함에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점이 제기된다. 먼저 輸出統計의 경우, 대구시의 수출이라고 하더라도 역외세관을 통하여 통관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대구시외의 지역수출도 대구본부세관을 통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러한 양자의 행태가 변동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제환경변화에 의하여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地域輸入의 경우, 이러한 성격의 난점 이외에도 일반 소비재의 경우 대체로 서울이나 부산지역으로 수입된 제품이 국내유통경로를 통하여 대구 시민에 의해 소비되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대구수입을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계상의 난점과 지역무역이 가지는 고유의 특성 때문에 이하에서 大邱貿易을 역사적으로 기술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체계와 방법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 시대적 구분을, ① 解放 이전(1910~1945), ② 經濟開發 初期(1962~1971), ③ 輸出主導 成長期(1972~1980), ④ 直轄市昇格 이후(1981~1991)로 나누어 논의하고, 해방 이후 전쟁기 및 전후 재건기까지의 역사는 상술한 이유 때문에 생략한다.

대외무역이란 본래 일국민경제를 기본단위로 하는 만큼 國民經濟의 일부분인 地域經濟의 대외무역은, 국가전체의 대외무역규모 및 추이와 대외무역정책의 기조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그 지역경제의 고유한 무역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각 시대에 있어서 地域貿易의 環境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를 ① 국가전체의 경제 및 무역개황, ② 대외무역정책의 기조, ③ 지역무역환경의 변화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한편 地域貿易의 歷史的 推移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는, ① 수출의 규모와 추이, ② 수입 및 지역무역수지의 규모와 추이, ③ 수출입의 품목별 구조, ④ 수출입의 지역별 구조 등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이때 특히 수출의 규모와 추이를 논의함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규모와 추이·지역경제의 대전국비중 추이 등과 관련하여 논의한다. 또한 수출입규모·무역수지·품목구조·지역구조를 논의함에 있어 일차적으로 大邱市統計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차적으로는 大邱本部稅關統計를 이용하며, 부득이한 경우 大邱稅關全體統計를 이용한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대구세관 전체통계에 의존할 때는 大邱地域, 때로는 대구는 大邱慶北地域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같이 대구무역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기술함에 따르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第5章을 통하여, 실제로 본격적인 무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가 가용한 1962년 이후 1991년까지의 30년간의 總括的推移變化를 고찰하고 아울러 대구지역 수출의 國際競爭力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가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개관하며, 끝으로 대구지역 무역이 안고 있는 構造的 問題點이 무엇인가를 언급해 두고자한다.

## 第 2 節 解放以前(1910~1945)의 大邱貿易

### I. 對外貿易의 一般的 環境

#### 1. 우리나라 貿易의 基本的 性格과 展開

##### 1) 對外貿易의 基本的 性格

開港 이전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은 국제분업의 이익추구나 국민경제적 목표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정치적 주종관계에서 비롯된 강제교류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1876년 2월 일본이 조선정부와 강압적으로 체결한 江華條約에 따라 개항이 시작되었고 이후 대외무역은 그 이전의 무역과는 상이한 성격을 띠게 되었다.

우선, 이러한 일본과의 강화조약체결은 비록 타율적으로 맺어진 것이기는 하였으나 朝鮮의 近代化를 촉진시키는 역사적 계기가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또한 1876년 제1차 개항 이후 일단 쇄국의 문을 개방하여야 했던 조선은 이어서 미국과 영국(1882), 영국과 독일(1883), 러시아(1884), 이태리(1885), 프랑스(1886) 등과의 통상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그들의 商館이 우리나라에 설치되었고, 그것을 통한 그들의 진출이 이루어짐으로써 外來資本主義의 물결이 이 땅에 들어 오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대외무역의 측면에서 본다면 종래의 전통적인 강제교류적 성격의 무역이 近代的 貿易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은 개항과정에서 세계열강들은 대조선무역을 둘러싸고 한반도에서 심한 경쟁을 전개하였는데 특히 淸日 양국의 경쟁이 더욱 치열하였다. 그러나 그 후 1893년의 淸日戰爭과 1904년의 露日戰爭에서 일본이 승리함으로써 이후 일본은 대조선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드디어 1910년 韓日合邦을 성취함으로써 조선무역에 대한 배타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이 철저히 日本의 植民地로 전락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동시에 일본자본주의는 이 때를 전환점으로 하여 크게 발전을 보게 되었다. 이처럼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적 지배는 그들의 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하였거니와, 이것은 동시에 이후 우리나라의 貿易史를 日本과의 交易史로 성격지우게 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우리나라는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日本帝國主義의 植民地가 되었고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우리의 主權을 상실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일본의 식량 및 공업원료의 供給地인 동시에 일본자본주의의 商品市場으로 전락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제통치기간인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식민지시대, 우리의 무역은 互惠平等적인 雙務貿易일 수 없었고 일제의 일방적인 이익에만 영합하는 植民地貿易일 수 밖에 없었다.

## 2) 對外貿易政策의 基調

日帝下의 무역이 어떠한 政策基調하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기간동안 일제의 무역정책기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朝鮮이 일본식민지로 전락된 이후 조선 경제는 일본경제라는 유기적 조직권 속의 한 부분으로서만 존재하였을 뿐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음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 日本의 貿易政策基調를 대외통상면과 외환관리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병당시 세계여론을 의식한 일제는 關稅政策에 관한 한 합방 이전의 최혜국대우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즉 대외제국과 체결한 조선정부의 통상조약을 무효로 선언하면서도 관세만은 향후 10년간 종전대로 시행할 것을 선언하였으며, 한일 간에 있어서도 종전의 輸出入을 移出入으로 개칭하여 조선이 그들의 통치영역임을 합리화한 것을 제외하면 관세제도상의 변화는 없었다.

이같은 정책은 일견 일본이 그들의 關稅主權을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당시 조선과 통상관계를 맺고 있던 대외제국에 대하여 합방 즉시 불리한 조치를 취할 경우, 한일합방 그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까지 국제적 간섭을 받게 될지도 모를 것을 우려한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關稅制度는 1920년 구관세거치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만 계속되다가 1920년 8월부터는 일본의 新關稅法 및 關稅定率法을 비롯한 모든 관세법이 조선에 그대로 적용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후 관세정책은 日帝의 貿易政策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둘째, 일본은 1931년 12월 金輸出禁止措置를 전후하여 이른바 賣圓買弗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32년 7월에 제정한 資本逃避防止法을 발효하였다. 이 법은 자본의 해외도피를 철저히 방지하고 환시세 등귀요인을 배제하기 위하여 외환의 매매, 금의 수출, 외화표시 유가증권의 매매, 외국송금, 신용장 발행, 무환수출 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이 법은 그 후 1941년 본격적인 전시체제를 갖추기 위하여 대폭 개정되었고 그 특징은 外換統制를 보다 엄격히 강화한 것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외환관리법의 시행 외에도 1931년 1월 外國換管理法에 의한 臨時措置令을 제정하였는데 이는 수입허가제를 통하여 환가치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었다. 일본은 그 후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 12월에 이른바 新換政策을 발표하여 파운드화와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시세 결정을 정부가 직접 담당토록 하였다. 동시에 조선에서는 동년 12월 총독 부령으로 外國換時勢決定規則을 공포하여 외환시세의 결정은 오직 총독부만이 전담하도록 하였다.

셋째, 일본은 1920년 신관세법을 실시한 이후, 제1차대전 이후 세계의 일반적 조류가 되었던 保護貿易政策을 기본으로 하는 한편, 대륙진출의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戰爭物資의 생산과 확보에 전력을 경주함으로써 일제하의 무역정책은 이러한 틀 속에서 유지되었다.

우선 1937년 中日戰爭으로 인한 막대한 군수품의 수요증대로 국제수지가 극도로 악화되자 1937년 9월 輸出入品에 대한 臨時措置法을 제정하고, 동년 10월 이 법에 의한 臨時輸出入許可規則을 공포하여 무역통제를 행하였다. 또한 1939년 9월에는 圓域輸出調整令을 발표하여 商工大臣의 승인 없이는 중국·만주·관동지역으로의 수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1942년 8월에는 제3국무역에 대해서는 1941년 8월에 공포된 貿易統制令實行規則을 별도로 적용키로 하였다.

사실 1940년까지의 일본의 무역정책은 제3국에 대한 수출을 증대시켜 외화를 획득하려는 것이었으나, 유럽전쟁의 확대로 세계적인 무역통제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독일·이태리의 3국동맹으로 군수물자의 비축이 절실히 요구되자, 외화획득을 위한 제3국수출을 포기하고 貿易統制를 강화함으로써 필수물자수입에 상응되는 수출만을 허용하여 상품의 해외유출을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 3) 對外貿易의 展開過程과 特徵

한일합방 이후 해방까지의 일본의 식민지통치시대를 그들의 식민지정책의 변천과정에 따라 구분하여 보면 대체로 4段階로 구분되는데, 對外貿易 역시 이러한 단계에 따라 그 특징을 달리하여 왔다.<sup>2)</sup>

첫째, 第1期는 1910~1920년 까지의 기간으로서, 이 시기는 조선전역에 관료적 통치기구가 침투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폐정리·토지조사사업·회사령 및 광업령의 공포·관세를 제외한 외국인의 특권배제 등 경제 및 사회제도의 개혁에 의하여 朝鮮植民地化의 整地作業이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구관세거치기간으로서 관세제도상으로는 열강과의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여건이 전제되었다. 그러나 제1차대전의 발발로 세계열강과의 무역이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이후 일본자본주의는 배타적인 방법에 의한 植民地貿易에 열을 올리게 되었다.

둘째, 第2期는 1921년~1930년에 이르는 기간으로서, 산미증산계획에 따른 증산, 회사령 철폐에 따른 일본중소자본의 진출, 일본의 적극적인 광산개발에 의한 광업진흥, 면화 및 산견증산정책, 통일관세제도에 의한 역내무역의 증진 등과 같은 여러가지 시책이 시행됨으로써, 조선을 일본의 原料供給地 및 商品販賣市場으로 활용하기 위한 植民地經營이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한편 이 시기는 제1차대전 이후의 심각한 경제공황과 동경의 대지진(1923)으로 일본경제는 유례없는 격심한 不況에 빠지게 되었고, 朝鮮經濟 역시 이러한 일본의 영향으로 침체기에 빠졌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우리나라 대외무역은 1920년 9월 이후 전술한 신관세법이 조선에도 통일 실시됨으로써 대외무역의 對日本從屬性이 더욱 현저해지게 되었다.

셋째, 第3期는 일본이 만주에 대한 대륙침략을 시작한 1931년부터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까지의 기간으로, 1930년대초의 세계적 대공황의 심화와 일본의 본격적인 대륙침략으로 대외무역의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었다. 즉, 1931년 일본이 만주침략을 감행함으로써 조선은 일본의 大陸侵略을 위한 兵站基地로서의 역할을 강요당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준전시적 수요충족을 위해 일본산업자본이 조선에 진출함으로써 광공업개발이 이루어져 이른바 농공병진정책이 전개됨과 동시에 조선의 對滿洲貿易이 크게 확대되게 되었다.

2) 李相球, 《韓國國際經濟論》, 高麗大 亞細亞研究所, 1970, pp. 32~33.

넷째, 第4期는 中日戰爭이 일어난 1937년부터 해방이 이루어진 1945년까지의 기간으로, 이 단계는 세계경제가 이른바 블록(bloc)화경향과 민족주의적인 아우타르키(autarky)의 풍조를 강하게 나타내면서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던 시기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무역체제가 戰時貿易體制로 개편되었던 시기였다.

우선, 1937년 7월에 발발한 中日戰爭이 장기화 내지 확대될 전망을 보이자 일본은 무역을 전시무역체제로 개편하여 강력한 통제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조선의 공업화는 일제의 군수품 생산중심의 공업화가 되면서 조선의 경제는 일제의 大陸進出兵站基地로서의 성격을 더욱 뚜렷이 나타내게 되었다. 또한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쟁의 세계화에 따라 내려진 국민총동원령에 의한 적극적인 전시체제는 여타의 정치적 경제적 변혁과 더불어 무역정책에 있어서의 변혁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일본은 종래의 輸出至上主義를 지양하고 군수물자의 생산과 수입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對圓域貿易도 종래의 수출초과에 의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인 가격통제를 행하는 국가관리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상에서 살펴 본 日帝의 植民地政策의 단계를 日本資本의 대조선진출이라는 관점에서 그 성격을 보면, 제1기와 제2기는 조선에 있어서의 낡은 농업제도의 재편성과 사회간접자본의 형성을 통한 일본자본의 대조선진출의 準備作業期였다고 할 수 있고, 제3기와 제4기는 이러한 토대 위에서 중화학공업 및 군수산업진출을 통한 積極的 進出期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일련의 역사적 과정 속에서의 朝鮮貿易의 성격을 보면, 일제의 대륙진출을 위한 中繼地로서의 교량적 성격을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조선민족의 생산력 증대 및 이를 통한 후생 증대 등과는 무관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료공급지 및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에만 충실함으로써 植民地貿易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 大邱地域의 貿易環境

전술한 바와 같이, 1910년의 한일합방으로 인하여 일제의 완전한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경제는 그 후 日本經濟에 예속되어 일본자본주의의 한 구성부분으로만 기능을 하였을 뿐이어서, 식민지하 36년간의 우리나라 경제의 발자취는 전형적인 植民地的 從屬經濟로의 변화과정을 걸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식민지경제체제하의 大邱經濟 역시 일본경제의 이해관계에 따라 그 발전과 내용이 결정될 수 밖에 없었다. 즉 36년간 大邱府에는 인구의 급격한 증가(2만 8천명→20만명)와 획기적인 식량증산이 이루어졌고 근대적인 공업이 이식되는 등 도시의 외형적인

변모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는 하나, 이 모두가 일본제국주의의 논리와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때문에 당시의 大邱經濟 및 貿易 역시 이러한 전제 위에서 파악되고 평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러한 대전제를 기본으로 해두고 일제하의 大邱地域의 對外貿易環境을 논의할 경우 하나의 특기한 사실은 交通網의 擴大 및 이에 따른 商圈의 擴大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일국 또는 일지역의 대외무역은 그 나라 또는 그 지역의 상업의 발전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항이전 大邱의 商業은 교통 및 수송의 미발달로 전국적 규모로 개설되었던 藥令市를 제외하고는 영남지역에 국한된 상권을 유지하고 있었다. 한국근대화의 계기가 되었던 江華條約 이후 외국상품이 유입되었다고하나 내륙에 위치한 대구지역의 상업발전에 변혁을 가져올 계기가 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한반도를 에워싼 노일간의 격돌이 있게 되자 1904년 일본은 京釜鐵道の 부설을 서두르게 되었고, 그 결과 대구는 경부선의 주요역으로 위치하게 되었다. 이어서 1907년경에는 부산역과 부산항을 잇는 궤도부설로 철도운송과 해상운송과의 접속이 이루어지자 각종 화물의 경제적 수송이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종전과 같은 부산의 중계를 거치지 않고도 直接 對日貿易을 하려는 움직임이 일본인들 간에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12년경까지는 대구가 독자적인 상권을 확립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 후 수년간 대구를 왕래하는 일본상인의 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상거래액의 증가도 이루어짐으로써, 마침내 大邱는 부산의 상권을 벗어나 일본이나 외국과 직거래를 하게 되었고 이로써 대구는 그 商圈을 멀리 타지역까지 확대하게 되었다.

이처럼 경부선의 개통과 한일연대운수의 개시는 그것만으로도 대구의 상권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 이후의 잇달은 교통망의 확장은 대구의 상권을 더욱 확대하는 힘이 되었다. 즉, 1918년 대구~포항을 잇는 경편철도의 개통 및 1925년 포항~서북일본과의 항로개설로 연안각지 및 일본과의 상거래가 격증하였으며, 1936년 영천~경주간의 광궤개수 완료로 영천에서 京慶線과 접속됨으로써 이를 통한 교통망의 확충이 이루어져, 일찍부터 발달되어 온 육상교통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게 되어 物資集散地로서의 대구의 지위를 높이게 되었다.<sup>3)</sup>

식민지시대의 이러한 교통망의 확충은 대구지역 상권의 확대 및 대외무역의 증가를 가져온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제에 의한 이러한 교통망의 확장은 그 자체가 오늘날의 사회간접자본의 확장과는 달리 일본이 보다 많은 공물, 원료품, 노예적 임금노동자, 상품과

3) 大邱市, 《大邱市史》2, 1973, p. 299.



군대의 수송 등을 확보하기 위한 手段의 擴張을 의미하는 것이었던 만큼 한국인 일반대중의 생활을 오히려 더욱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상술한 바와 같이 당시의 한일무역이 자유와 평등의 기초 위에서 행해지는 호혜무역이 아니었던 만큼 오히려 이것이 대구무역의 對日隸屬化 및 植民地貿易의 性格을 더욱 강하게 하였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sup>4)</sup>

## II. 對外貿易의 規模 및 構造

### 1. 全體規模 및 貿易收支의 推移

#### 1) 貿易의 全體規模 推移

식민지시대 大邱貿易의 一般的 推移를 보면, 1910년대에 급격한 증대를 이룩하여 특히 1919~1922년까지의 4년 동안 최고의 호조를 보이다가 그 이후 급격한 정체를 보여 좀처럼 발전되지 못하다가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일반적 추이의 변화는 결국 대구경제의 자주적·내재적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당시 한국무역의 일반적 성격이 그러하듯, 도리어 日本經濟의 상황과 그들의 내재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1910년대에 있어서는 일본의 植民地貿易의 整地作業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교통망의 확장이 대구무역이 급증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제1차대전 말기의 1919년 이후에는 일본관세법의 실시로 무역의 對日本從屬性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이 식량문제해결을 위해 한국을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함으로써 대일본무역의 증대가 이루어졌다. 그 후 1920년대 후반이후 1930년대 중반까지는 제1차대전 후의 世界的 恐慌과 일본의 대지진으로 인한 日本經濟의 격심한 不況이 우리나라 무역의 정체를 가져왔으며, 1930년대 후반 이후에는 일본의 대륙침략으로 우리나라가 그들의 兵站基地로서의 역할을 행함에 따른 무역의 증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表 5-1〉은 식민지하 전국 및 대구지역의 전체 수출입규모, 연평균증가율, 지역무역의 대 전국비중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1939년까지만 기록된 것은, 외국관계 무역통계가 1940년 10월까지만 발표되어 이후의 대일본무역통계(이출입통계)는 존재하지만 전체대외무역에 대한 통계 및 지역의 통계가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의 실질무역량의 변화를

4) 앞의 책, p. 296.

분석하기 위해서는 物價指數에 의한 디플레이트가 요구되지만, 그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로 수출입 정상가격에 의한 통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1930년대 후반 이른바 군수인프레가 크게 성행하였던 기간 동안 특히 문제가 되리라 보여진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전제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의 大邱貿易의 推移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대구지역의 輸出은 1912년 12만 3천원을 시작으로 하여 1910년대에 연평균 64.9%를 기록하여 1922년에는 572만 4천원의 규모에서 최고를 보였다. 1910년대의 이러한 수출증대는 상술한 환경적 요인 이외에 1918~1919년의 호황기에 설립된 전국 제 1의 생사산업을 비롯하여 1925년대까지에 이르는 이른 바 대구의 新工業移植期에 있어서의 지역산업발전과도 관련되어진다. 그 후 1923년 이후부터 대구의 수출은 계속 감소되어 1920년대 연평균증가율이 -18.9%를 보였고 이러한 현상은 193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1930년대 후반 이후 다시 급속히 증대되어 1939년 493만 4천원의 수준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전기간에 있어서의 연평균 증가율은 48.8%로서 이는 동기간 전국의 16.1%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1910년초의 수출액과 1939년의 수출액을 단순비교할 경우 전국의 수출이 약 52.5배 증대하였음에 비하여 지역의 수출은 약 40.1배 증대에 그치고 있어 이는 지역수출의 기복이 심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대구지역의 輸入을 보면 1911년 105만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대되어 1919년 1,040만 3천원을 기록한 이후 1920년대 계속 정체를 보이다가 1930년대 후반이후 다시 증대되는 추세를 보여 대체로 수출의 추이와 유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로써 대구지역의 전체무역의 추이 역시 1922년 1,249만 9천원을 정점으로 하여 정체되었다가 1939년에 1,304만 7천원 수준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대구지역 전체무역의 연평균증가율을 보면, 34.2%(1910년대), -8.2%(1920년대), 19.6%(1930년대)로 전기간 평균증가율이 17.0%로서 동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무역의 평균증가율 15.0%를 약간 상회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의 무역이 전국의 무역에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수출의 경우 1922년 7.7%, 수입의 경우 1917년 4.6%, 전체무역의 경우 1920년대 전후 2.7%를 정점으로 하여 계속 저하됨으로써, 전기간동안 수출의 0.3%, 수입의 1.2%, 전체무역의 0.8%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무역이 전국의 1%내외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大邱經濟의 국내적 위상에 미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20년대 이후 지역의 대외무역위상이 계속적으로 저하되었음을 의미하며,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수출의 경우가 더욱 크게 나타나 地域產業의 競爭力이

저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주요도시별 무역액비중을 보여 주고 있는 <表 5-2>에도 잘 나타나 있다.

<表 5-1> 植民地時代 大邱貿易의 全體規模 및 推移 (단위: 千圓, %)

年度	全 國			大 邱 地 域			對 全 國 比 重		
	輸 出	輸 入	計	輸 出	輸 入	計	輸 出	輸 入	計
1910	19,194	39,783	59,697	—	—	—	—	—	—
1911	18,857	54,087	72,944	—	1,050	1,050	—	1.9	1.4
1912	20,986	67,115	88,101	123	1,260	1,383	0.6	1.9	1.6
1913	31,236	72,047	103,283	218	1,533	1,751	0.7	3.5	1.7
1914	35,035	63,675	98,730	318	1,439	1,857	0.9	2.3	1.8
1915	50,221	59,694	109,915	391	1,651	2,032	0.8	2.8	1.9
1916	57,819	75,134	132,953	227	2,536	2,763	0.4	3.4	2.1
1917	84,957	104,012	189,051	401	4,757	5,158	0.5	4.6	2.7
1918	155,903	160,425	316,328	1,119	5,450	6,569	0.7	3.4	2.1
1919	221,948	283,077	505,025	3,064	10,403	13,467	1.4	3.7	2.7
1920	197,020	249,287	446,025	2,784	7,775	10,559	1.4	3.1	2.4
(小計)	893,158 (28.2)	1,228,337 (24.0)	2,121,495 (24.6)	8,645 (64.9)	37,854 (30.2)	46,469 (34.2)	1.0	3.1	2.2
1921	218,278	232,382	450,660	3,904	8,403	12,307	1.8	3.6	2.7
1922	215,406	258,045	471,450	5,724	6,775	12,499	7.7	2.6	7.7
1923	261,665	265,790	527,455	974	4,775	5,749	0.4	1.8	1.1
1924	329,039	309,593	638,632	156	5,133	5,289	0.05	1.7	0.8
1925	341,631	340,012	681,643	187	5,492	5,679	0.1	1.6	0.8
1926	362,955	372,170	735,125	100	5,198	5,298	0.03	1.4	0.7
1927	338,925	383,417	742,342	107	5,864	5,471	0.03	1.4	1.5
1928	365,978	413,991	779,969	96	4,570	4,666	0.03	1.1	0.6
1929	345,564	423,094	768,758	76	3,857	3,933	0.03	0.9	0.5
1930	266,547	367,049	633,596	32	2,903	2,935	0.01	0.8	0.5
(小計)	3,066,042 (3.9)	3,365,543 (2.7)	6,431,585 (4.1)	11,356 (-18.9)	2,903 (-9.9)	63,926 (-8.2)	0.4	1.6	1.0
1931	261,799	270,466	532,265	29	2,046	2,075	0.01	0.8	0.4
1932	311,353	320,355	631,710	107	2,470	2,557	0.03	0.8	0.4
1933	368,628	404,185	772,813	218	3,093	3,317	0.1	0.8	0.4
1934	465,367	519,149	984,517	519	3,765	4,284	0.1	0.7	0.4
1935	550,796	659,403	1,210,199	625	4,005	4,630	0.1	0.6	0.4
1936	593,313	762,417	1,355,730	689	4,364	5,053	0.1	0.6	0.4

年度	全 國			大 邱 地 域			對 全 國 比 重		
	輸 出	輸 入	計	輸 出	輸 入	計	輸 出	輸 入	計
1937	685,543	863,553	1,549,730	1,108	4,506	5,614	0.2	0.5	0.4
1938	879,606	1,055,928	1,935,536	2,096	6,512	8,608	0.2	0.6	0.4
1939	1,006,794	1,388,448	2,395,242	4,934	8,113	13,047	0.5	0.6	0.5
(小計)	5,123,199 (16.3)	6,243,904 (17.4)	11,367,103 (16.6)	10,325 (17.0)	49,189 (17.0)	49,189 (19.6)	0.2	0.6	0.4
總計	5,123,199 (16.1)	10,837,784 (14.6)	19,870,183 (15.0)	30,256 (48.8)	129,198 (38.9)	159,454 (17.0)	0.3	1.2	0.8

註：(1) 輸出·輸入에는 일본과의 교역인 移出入이 포함되어 있음 (2) ( )속은 平均增加率임

資料：(1) 전국 무역의 통계는 朝鮮貿易協會, 《朝鮮貿易史》, 細川嘉大《植民史》, 理論社, 1942, pp. 66~9 및 朝鮮銀行, 《朝鮮經濟年報》, 1940에 의하여 작성함. (2) 대구지역무역의 통계는 《大邱府史》, 1943, 行政府 pp. 170~2 및 《大邱市史》 제2권, 1973 및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工會議70年史》, 1977, pp. 383~573 및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鑑》, 1985, p. 44에 의하여 작성함.

〈表 5-2〉 主要都市別 對全國 貿易의 比重推移 (단위: %)

	1910년	1915년	1920년	1925년	1930년	1935년	1939년
인 천	2.9	19.2	17.5	19.0	17.7	16.8	15.3
서 울	10.9	11.4	11.6	2.9	3.0	2.5	5.1
부 산	26.6	29.6	30.0	33.2	30.0	26.8	30.5
대 구	—	1.9	2.4	0.8	0.5	0.4	0.5
평 양	4.3	2.7	3.0	2.1	2.7	1.6	1.1

資料：朝鮮貿易協會編, 《朝鮮貿易史》, 1943.

## 2) 貿易收支의 推移

식민지시대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貿易收支推移를 보면, 1924년 및 1925년을 제외하고는 계속적인 적자를 기록하여 1910~1939년까지의 누적적자액이 1,895,295千圓 규모에 달하였다. 특히 무역역조가 심화된 것은 193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러한 무역수지의 추이는 대외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對日貿易의 영향때문이다.

즉, 1910년대에는 대일본수출의 적자폭이 그렇게 크지 아니하였고, 1920년대에는 대일무역의 흑자로 인해 전체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아니하였지만, 1930년대 후반 이후 대일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됨으로써 전체무역수지 역시 크게 악화되었다. 이러한 대일본무역수지의 추이변화는 후술하는 바대로 대일본무역의 品目構造와 밀접히 관련되어짐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한편

大邱地域貿易의 貿易收支推移를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추이와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表 5-1〉 참조).

첫째,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 추이와는 달리 어느 한해도 出超를 기록한 해가 없이 계속적인 入超를 보여 지나친 수입초과무역으로서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對日貿易收支에 있어서도, 전체무역이 1910년대의 경우 그 적자폭이 별로 크지 않았고 1920년대에는 오히려 흑자를 보여준 것과는 달리, 대구지역무역의 경우 계속적인 적자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무역적자에 대한 대일무역적자의 비중이 89.9% 정도에 이르러 地域貿易의 對日依存性이 무역수지에 있어서도 매우 큰 것이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우리나라 전체무역적자에 대한 지역무역적자의 비중을 보면, 전기간동안 5.5% 수준으로서 이것은 전체무역에 대한 지역무역의 비중 0.8%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것은 대구지역의 무역이 전국평균의 무역보다 훨씬 赤字比率이 큰 불건전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表 5-3〉 植民地時代 貿易收支의 推移 (단위: 千圓, %)

		1910~1920	1921~1929	1930~1939	1910~1939
全 國	무역수지 (A)	-335,189	-349,401	-1,120,705	-1,805,295
	대일무역수지(B)	-38,617	476,208	-1,070,261	-929,242
大 邱	무역수지 (C)	-29,209	-41,114	-28,549	-98,872
	대일무역수지(D)	-28,381	-31,831	-28,660	-88,872
比	C/A 비중 (%)	8.7	10.4	2.5	5.5
	C/D 비중 (%)	92.2	77.4	100.4	89.9
率	대전국무역비중(%)	2.2	1.0	0.4	0.8

資料: 〈表 5-1〉의 자료에 의거 작성함.

## 2. 貿易構造의 推移

### 1) 地域別 構造

한편 식민지시대 대외무역의 地域別 構造를 보면 (〈表 5-4〉 참조), 조선무역의 거의 대부분이 대일무역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對日從屬性을 유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외국무역이라 하더라도 그들 중 90% 이상이 대만주 및 중국무역으로서 지나치게 편중된 무역구조를 나타내었다(〈表 5-8〉 참조). 더우기 실제로 朝鮮의 對圓域貿易은 일본이 대륙을

침략하기 위한 군사정책의 일환으로 강행되었던 것인만큼 그 내용은 사실상 對日貿易과 다름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대구지역무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나 전기간 중 대일무역비중은 수출이 89.3%, 수입이 89.7%, 전체무역이 89.6%로서 거의 대부분의 무역이 대일본무역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이러한 구성비는 우리나라 전체무역의 대일본의존도를 상회하는 것이어서 대구지역무역의 對日本從屬性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보다 더욱 큰 것이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전체적 상황을 전제로 하여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5-4〉 植民地時代 對日貿易의 比重推移 (단위: %)

		1911	1915	1920	1925	1931	1935	1939	1910~39
全 國	수출	70.7	81.4	90.4	92.9	95.1	88.2	73.2	83.7
	수입	63.0	696.6	67.3	69.0	80.5	84.7	88.5	85.1
	계	70.0	75.0	70.0	81.0	87.7	86.3	82.1	84.5
大 邱	수출	—	97.9	99.7	62.6	62.1	90.1	75.2	89.3
	수입	95.3	96.46	98.9	77.6	94.9	97.3	95.7	89.7
	계	95.3	96.7	99.2	77.6	94.5	96.3	87.9	89.6

資料: 〈表 5-1〉과 동일한 자료 의거 작성

〈表 5-5〉 對圓區域圈(연화블럭) 對外貿易의 比重 (단위: 천원, %)

	全 國		大 邱 地 域	
	1938년	1939년	1938년	1939년
수 출	162,897(96.4)	211,668(96.9)	258(100.0)	1,222(100.0)
수 입	80,426(59.8)	98,975(52.2)	232 (95.9)	340 (97.7)
계	243,323(80.1)	360,543(84.1)	490 (98.0)	1,562 (99.5)

註: (1) 대원역권은 관동주 만주국 지나를 포함함, (2) ( )속은 일본을 제외한 대외국무역에 대한 비중임.

資料: 전국통계는 조선은행조사부, 《朝鮮經濟年鑑》, 1940, p. 381,

지역통계는 《大邱府史》, 1943, pp. 172~173에 의함.

1910년대 대구지역무역의 對日依存도는 거의 95% 수준으로 전국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가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까워 일본과의 무역이 편리하였다는 지리적 조건 및 물자집산지로서의 식민지적 성격과, 후술하는 바와 같이 수출상품 역시 미곡·생사 등 일본의 정책적 수입품을 주종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 원인으로 설명되어진다.

1920년대 대구지역무역의 경우 역시 수출지역은 거의 일본시장 일변도로서 만주와 중국이

약간을 차지하였고, 수입지역은 일본·만주·중국 이외에 프랑스·영국·미국·스위스 등으로 수출에 비해서는 약간의 다양성을 보여 주었다.

1930年代에 들어와서도 대일의존도는 전국평균을 훨씬 앞질러 일본을 제외한 대외무역은 거의 없는 상태로서 그나마도 만주와 중국 등 일제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이 아니면 무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상황은 대구지역 무역의 경우가 전국평균 보다 더욱 심하였다(〈表 5-4〉 참조).

이상의 자료들은 주로 《大邱府史》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이 자료에는 지역의 주종 대일수출품인 미국·생사 등과 주종수입품인 면직물·유류 등이 계상되어 있지 않거나 과소평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 실제의 대일의존도는 거의 절대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구상공회의소가 작성한 통계연보는 1933~39년까지의 5년간 對日貿易의 平均依存度를 98.9%로 나타내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sup>5)</sup>

## 2) 品目別 構造

식민지시대의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商品別 構造를 보면, 이 역시 식민지무역으로서의 성격을 뚜렷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表 5-6〉 참조). 우선, 우리 나라 輸出의 商品構造를 보면 원료품·원료용제품·식료조제품의 비중이 높고 완제품의 비중이 낮아 대일본 原料供給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물론 합방초기보다 식료조제품의 비중은 낮아지고 원료제품 및 완제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전히 합방초기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 중 食料粗製品의 비중이 낮아진 것은 합방초기에는 조선의 식량이 주로 일본본토로 이출되었지만, 후기에는 대륙진출병력의 군량조달을 현지인 한반도에서 직접 담당하였기 때문이며, 原料用製品의 비중이 증대한 것은 일본의 공업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을 커버하기 위해 주로 노동집약적인 계열공장을 조선에 하청한 결과이며, 또한 完製品의 비중이 증대된 것 역시 일제말기에는 일본공업제품의 본격적인 대륙수출의 중계역할을 한반도가 담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식민지시대에 있어 조선의 수출이 증대되고 수출상품의 구조가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일본의 植民地政策에 의한 결과였으며 또한 그 중 상당한 부분은 일본인 무역업자에 의한 일제상품의 중계에 의한 것이었을 뿐 조선의 생활수준 향상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5)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商工會議所 70年史》, 1977, p. 572.

〈表 5-6〉 日帝下 우리나라 輸(移)出入의 品目別 推移 (단위: %)

구 분 \ 년 도		1910	1919	1929	1933	1937	1939
輸 出	원 재 품	19.3	13.2	11.7	13.7	14.7	17.4
	원 료 용 제 품	0.6	9.1	14.4	13.6	21.7	24.7
	식 료 조 제 품	66.3	67.8	56.5	54.5	42.1	26.1
	식 료 정 제 품	1.8	1.8	3.5	3.4	3.0	3.7
	완 제 품	0.4	0.9	6.5	8.7	14.1	22.5
	잡 품	9.3	6.6	6.6	5.5	4.1	5.2
	재 수 출 품	1.7	0.6	0.8	0.2	0.8	0.3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輸 入	원 재 품	10.4	13.2	13.2	10.7	16.5	12.7
	원 료 용 제 품	10.2	8.3	12.0	13.5	14.1	13.8
	식 료 조 제 품	3.3	8.2	13.5	7.1	8.3	8.4
	식 료 정 제 품	11.1	6.2	7.3	6.4	5.1	4.6
	완 제 품	56.3	51.6	49.3	55.5	51.6	56.1
	잡 품	8.5	12.3	4.2	4.6	3.5	4.1
	재 수 출 품	—	—	0.3	0.5	0.4	0.3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貿易協會, 《韓國貿易史》 pp. 184~193.

식민지하 大邱貿易의 品目別 構造 역시 이상과 같은 우리나라 전체무역에 있어서와 동일한 성격을 그대로 나타내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 이를 통일적으로 정확히 분석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가용한 몇개의 자료만으로도 지역무역의 품목구조를 파악함에는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1919년의 대구지역무역의 품목별 구조를 보면, 輸出品의 경우 쌀(38.5%), 대두(12.1%), 면화(11.6%), 잎담배(8.2%), 쇠가죽(5.9%), 누에고치(1.1%), 어류(0.4%), 비료(0.3%), 중석(0.5%), 기타(21.9%)로 구성되어 있으며, 輸入品の 경우 직물류(52%), 제지·신발·문구·소포우편물·잡품 등의 생필품(24.1%), 설탕·밀가루·연초·주류 등 음식료품(9.1%), 시멘트·석유·화약·기계류 등의 산업재(8.6%), 석탄·목재·쌀·조 등 원료품(6.0%)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무역품목의 구조는 1차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이와 교환으로 2차산품을 수입하는 원시적인 垂直貿易의 構造로서 전형적인 식민지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특기할 것은 품질 좋은 조선미를 수출하는 대신 대용곡으로 외미나 조를 수입한 것이었다.



1920년대에 있어서도 대구지역은, 쌀·생사·누에고치·건어물·사과·잎담배·면모직물·인견직물·한지·한약재·모피 등을 輸出하였는데 이들 중 생사와 누에고치가 전체수출의 75%를 차지하고 쌀이 18%를 차지하였으며, 조·대두·한약재(감초)·원면·사탕·주정·주류·음료·직물 등을 輸入하였는데 이들 중 만주산 조가 수입액의 60%를 차지하고 직물류·휘발유·석탄·석유·인견직물의 5개품목이 전체의 23%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1920년대 대구지역의 무역 역시 단순히 일본경제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희생을 강요당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大邱府史》는 이 시기의 무역을 두고 “조선이 수출진흥시대를 이룩하였으며, 일본의 식량문제와 더불어 조선은 보급적 지위를 확보한 시대”라고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1920년대 대구무역은 일본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약탈적인 쌀수출과 일본의 공산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수입이 강요된 植民地的 貿易構造가 심화되었던 시기였다.

전술한 대로, 1930년대 특히 1930년대 후반의 경우는 일본의 대륙침략으로 한반도가 그들의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조선의 무역 역시 이러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대구지역의 무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우선 <表 5-7>는 1937년 대구의 對日貿易의 主要商品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 輸出의 경우, 미곡류(30.1%), 생사견(46.4%), 사과(6.5%)가 주요 수출품으로서 이들이 전체 대일수출의 83.1%를 차지하여 일제하 대구지역의 수출이 미곡과 양잠제품 및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반적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경북의 낙동강유역인 대구지역이 산미지·양잠지·사과산지였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일본자본주의가 이러한 입지적 조건을 활용하기 위하여 대구에 정미공장과 제사공장을 건설하는 한편, 여기서 가공된 반제품을 일본으로 가져갔음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輸入의 경우, 사 및 직물류(22.7%), 철물 및 금속류(17.1%) 잡제품(12.9%), 유류(10.0%)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것 역시 일본공업품의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sup>6)</sup>

특기할 것은 대구가 한국에서 으뜸가는 생사생산지였고 면화의 주생산지인 영남지역을 그 배후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織物類의 수입이 이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직물류수입의 상당한 부분을 인조견이 차지하고 있었으므로 마치 식량에 있어 조선미를 빼앗기고 만주조를 수입하였던 것과 유사하였다고 할 수 있다.

6)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覽》, 1985, p. 45.

〈表 5-7〉 大邱地域 對日本貿易의 品目構造 (1937년) (단위: 千圓, %)

主 要 輸 出 品		主 要 輸 入 品	
品 目	金 額 (比重)	品 目	金 額 (比重)
미 곡 류	2,619(30.1)	곡 물 및 분	402 (2.3)
자 라	16	당 밀 류	655 (3.8)
사 과	569 (6.5)	주 류	160 (0.9)
대 두	54 (0.6)	소 채 및 과 물 류	698 (4.0)
약 품	187 (2.2)	식 료 품	578 (3.3)
현 겉(마,면)	109 (1.2)	피 혁 류	99 (0.6)
인 모	59 (0.6)	유 류	1,738(10.0)
설 건	121 (1.4)	약 품	805 (4.6)
생 사	4,032(46.4)	염 료 및 도 료	73 (0.4)
생 피 저	295 (3.4)	사 및 직 물 류	3,953(22.7)
가 느 리 목 면	68 (0.6)	의 료 및 신 발	1,244 (7.1)
의 류 품	36 (0.4)	지 물	822 (4.7)
금 속 제 품	140 (1.6)	연 료	443 (2.5)
강 비 료	58 (0.6)	철 물 및 금 속 류	2,978(17.1)
고 무 설	23 (0.3)	목 족 류	546 (3.1)
완 초 슬 리 퍼	209 (2.4)	잡 품	2,256(12.9)
잡 품	101 (1.1)		
계	8,697(100)	계	17,449(100)

註: ( )속은 전체 輸出入 中の 品目別 比重임.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商議統計年報》, 1939 및 《大邱商工會議所70年史》, 1977, p. 575.

한편 〈表 5-8〉은 1930년대 말 日本을 제외한 外國에 대한 대구지역무역의 品目構造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교역이 만주와의 거래이고 그외의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에 그치고 있는 데, 이것은 단적으로 한반도가 일제의 대륙침략에 대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써 대구 역시 예외가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즉, 대구의 대외국무역이 오직 滿洲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輸出品目이 잡품·신발류·

기계류·미국·사과·염연초 등으로 이루어졌음은 그들이 강제점령한 만주 일본군의 군사적 수요 및 기호품을 조달하기 위한 공출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고, 또한 그 主要輸入品目이 해결하려 함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곡물류의 교역과 관련하여 특기할 것은 <表 5-9>가 보여주듯이 수출되는 朝鮮米의 가격과 수입되는 滿洲조의 가격변화가 서로 차이가 있어, 양자간의 교역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하도록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만주조의 수입이 급증하자 稅收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1930년대에 이르러 만주조에 대한 輸入關稅를 수차에 걸쳐 인상시킨 일본총독부의 수탈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表 5-8> 1930년대 말 大邱地域 對外國貿易(일본제외)의 品目構造 (단위: 圓, %)

輸 出 額				輸 入 額			
品 目	1938년	1939년	主輸出先	品 目	1938년	1939년	主輸入先
미 곡	6,206(2.3)	75,816(6.2)	만주국	조	113,340(46.7)	23,340(6.7)	만 주
수 산 물	795(0.3)	6,041(0.5)	〃	교 맥	—	8,092(2.3)	〃
사 과	10,425(4.0)	49,415(4.0)	〃	대 두	6,446(2.7)	99,397(28.6)	〃
기타과일	647(0.3)	5,178(0.4)	〃	기타두류	10,952(4.5)	57,325(16.5)	〃
염 연 초	—	59,376(4.9)	〃	호 마 자	72,734(30.0)	66,126(19.0)	〃
한약재및약	—	35,438(2.9)	〃	자 라	58,22(2.4)	9,955(2.9)	〃
면 직 물	121(0.05)	28(0.0)	〃	기타종자	—	455(0.1)	〃
기타직물	520(0.2)	45,479(3.7)	〃	포 도 주	2,170(0.9)	—	프 랑 스
신 발 류	27,939(10.8)	58,449(4.8)	〃	감 초	5,363(2.2)	50,201(14.4)	만 주
의 료 품	667(0.3)	23,456(1.9)	〃	약 재	1,118(0.5)	—	만주미국
한 지	5,073(2.2)	26,963(2.2)	〃	모 직 물	1,288(0.5)	—	영 국
기 타 지 물	150(0.06)	5,801(0.5)	〃	양 조 류	2,892(1.2)	11,952(3.4)	만 주
기 계 류	11,161(4.3)	124,281(10.2)	〃	원 목 류	5,887(2.4)	—	〃
잡 품	194,328(0.02)	704,921(57.7)	〃	잡 품	5,787(2.4)	10,233(2.9)	〃
재수출품	45(0.02)	1,258(0.1)	〃	소포우편	3,842(1.6)	8,941(0.5)	〃
				재수입품	4,860(2.0)	1,660(100)	〃
계	258,077(100)	1,221,900(100)			242,210(100)	347,916(100)	

註: ( )속은 전체수출입중의 품목별 비중임.

資料: 《大邱府史》, 1943, pp. 173~176에 의거 발췌정리

### 3. 對外貿易의 全體的 性格評價

이상과 같은 일제식민지시대 대구지역 무역의 전체규모 및 추이, 지역별·품목별 추이, 무역수지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일제식민지하 大邱地域 貿易의 全體的 性格은 다음과

〈表 5-9〉 日帝下 朝鮮米 및 滿洲 조의 價格推移 (단위: 圓)

	1926년	1928년	1931년
朝鮮米	35.59(100)	28.09(78.9)	13.00(36.7)
만주조	15.00(100)	13.00(86.7)	11.00(73.3)
交易條件	237.3	216.1	118.2

註: (1) ( )속은 1926년가격을 100으로 한 價格指數임.

(2) 交易條件은 조선미가격/만주조가격 × 100을 나타냄.

資料: 近藤康男,《農業經濟論》, 1934 및 《大邱市史》, 1973, p. 305.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대구무역은 당시 한국무역의 일반적 성격이 그러하듯, 대구경제자체의 自主的·內在的 變化에 의해서라기보다 일본경제의 상황과 그들의 내재적 요구에 의해 조건지워짐으로써 식민지로서의 예속관계에 의한 非自主的 性格의 交易이었다.

둘째, 대구지역의 무역은 또한 地域構造상 지나치게 높은 對日依存性으로 對日從屬的 性格을 나타내고 있는 交易이었다. 이것 역시 당시 한국무역의 일반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지만 대구지역 무역의 경우 수출의 89.3%, 수입의 89.6%, 전체무역의 89.6%가 대일본 무역으로서, 그 의존성이 우리나라 전체무역의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었고 이러한 상황은 무역수지 적자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여 대일종속적 성격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구지역 무역의 品目構造 역시, 미곡·생사·사과 등의 1차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직물류·금속류·잡제품·유류 등 2차산품을 주로 수입하는 구조를 가져, 대구무역이 일본의 원료공급지로서 또한 일본공업제품의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일본자본에 봉사하는 전형적인 植民地型 垂直的 貿易構造를 견지하였다.

넷째, 대구지역의 무역은 1919~1922년까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이후 계속 정체됨으로써 전국무역에 대한 비중이 계속 정체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수출의 경우가 더욱 그러하여 지역경제의 국제적 위상 및 지역산업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는 停滯的 性格을 보여 주었다. 또한 무역수지적자 역시 우리나라 전체의 평균보다 악화되어 지나친 輸入超過的 性格을 보여 주었다.

### 第3節 經濟開發初期(1962~1971)의 大邱貿易

#### I. 對外貿易의 一般的 環境

##### 1. 우리나라의 全體經濟 및 貿易概況

1960年代는 우리나라 전체의 경제가 만성적인 沈滯로부터 탈피하여 자립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전기를 마련한 연대였으며, 또한 대외지향적 개발전략과 각종 제도 및 경제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한 개발의 연대이기도하다. 이같이 제 1, 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62년부터 1971년까지 우리나라가 이룩한 經濟 및 對外貿易의 변화를 몇가지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평균 9.9%의 경제성장률(1965년 불변가격기준)을 기록하여 동 기간중 세계경제의 평균성장률 5%를 훨씬 초과하였고, 국민 총생산의 9.5배 성장과 1인당 GNP의 3.3배 증가를 이룩하였다.

둘째, 또한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농림어업부문(37.0%→26.8%)의 비중은 낮아진 반면 광공업부문(16.4%→22.2%) 및 제조업부문(14.3%→20.9%)의 비중이 증대되는 동시에 공업 내에서도 경공업비중(71.4%→62.5%)이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28.6%→37.5%)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실현되었다.

셋째, 이러한 제변화에 따라 5,480만달러에 불과하던 輸出이 10억 6,760만달러로 19.5배 증가되어 연평균 38.8%라는 경이적인 수출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러한 급격한 수출증대와 더불어 1차산품의 수출비중이 72.3%로부터 19.1%(1971)로 급격히 감소된 반면 2차산품의 수출비중이 27.7%로 부터 80.9%로 크게 신장되어 무역구조의 고도화도 달성되었다.

넷째, 한편 동기간 중 輸入增加率을 보면, 연평균 24.8%로서 수출증가율보다는 낮았으나, 이러한 증가율은 그 당시 자본축적이 미약했던 한국으로서는 매우 높은 것이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원자재와 자본재의 수입을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이러한 무역규모의 급격한 증대로 인하여 동기간 중 세계무역에 대한 한국무역의 비중이 수출의 경우 0.04%에서 0.33%, 수입의 경우 0.31%에서 0.71%, 전체무역의 경우 0.18%에서 0.52%로 높아졌다.

다섯째,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① 제1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16.7%, 제2차 경제개발계획기간 동안 7.8%라는 높은 物價上昇率을 기록하였고, ② 동 기간 중 輸入 역시 연평균

24.8%의 증가를 나타내 무역수지(-3억 3000만달러 → -10억 5000만달러)와 경상수지(-2억 9000만달러 → -8억 5000만달러) 등 國際收支의 赤字가 심화되었다.

고도성장의 이면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점이 수반되었지만 60년대의 한국경제는 도약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전기와 기반을 마련한 시대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 2. 對外貿易政策의 基調

1960년대에 들어와 1961년 5·16이후의 군사정부는 1962년 經濟開發5個年計劃의 추진과 함께 종전까지의 輸入代替의 工業化로부터 이른바 輸出主導의 工業化로의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수출중심의 경제정책이 수행되었다. 이것은 종전까지의 無償援助가 중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경제개발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본재 및 원자재의 구입에 소요되는 外貨의 획득을 위해서는 수출의 지속적인 증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당시의 우리 경제가 지니고 있던 협소한 국내시장, 빈약한 부존자원, 부족한 축적자원, 낮은 기술수준 등 후진국 특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 하였다.

이같은 수출주도적 성장의 추진에 힘입어 우리 경제는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노동집약적인 工產品의 輸出을 급속히 신장시켰다. 이와 같은 수출의 급속한 신장은 당시의 世界交易環境이 매우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輸出産業保護 및 支援政策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당시의 貿易政策基調를 평가하면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개선과 이를 위한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외무역정책의 기본적 내용을 그 내용에 따라 크게 분류한다면, ① 대외무역관리제도 및 환경의 정비, ② 수출지원제도의 확장, ③ 통상협력의 확대, ④ 수입관리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對外貿易管理 및 環境면에서의 制度的 整備」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시기는 무역관리제도가 정비된 시기로서 우선 무엇보다도 貿易關係法令의 整備가 이루어졌다. 즉 1961년 이후 수출조합법(1962), 수출진흥법(1962), 수출검사법(1962)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이후 그 동안의 제무역관계법령을 통합·정비한 무역거래법(1967)이 제정되었으며, 이후 수출보험법(1968) 등 일련의 무역관련법이 제정·공포되어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수출진흥을 위한 法的 體制가 마련되었다.

1961년과 1964년에 대폭적인 대미달러환율인상을 단행함과 동시에 1965년에는 그동안 유보되었던 單一變動換率制度를 채택함으로써, 원화의 과대평가 경감을 통한 우리 수출품의

價格競爭力提高를 시도하였을 뿐만아니라 대외거래가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換率制度를 마련하였다.

1950년대까지의 원조에 의존하던 수입이 1960년대 이후 불가능해지게 되자 1960년 外資導入促進法을 제정한 후 상업차관 및 일본자본의 도입이 이루어졌으며, 1966년에는 외자도입촉진법과 자본재 및 차관도입관련특별법 등을 통합·정비한 외자도입법을 제정함으로써 외자의 원활한 도입과 효율적관리를 위한 制度的 裝置가 갖추어졌다.

한편 輸出支援方式에 있어 1960년대 중기에는 직접보조방식을 주로 채택하였으나 중반부터는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이행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60년까지의 수출지원금융은 수출업체의 결손보조를 위해 실시된 수출장려보조금 제도가 근간을 이루었으나 이후 수출금리인하, 수출금융, 선수출금융, 수출용원자재수입금융(1961), 수출산업진흥금융(1964~69), 중소기업의 수출산업전환기금(1964), 수출보험(1969) 등 輸出支援을 위한 다양한 金融制度的 導入이 이루어졌다. 이로써 각종 수출지원금융은 1962년 17억 7,200만원에서 1970년 1,080억 8,300만원으로 61배 증대되었으며 수출지원금융이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15.3%로 또한 총수출액대비 지원 금융비율이 24.9%에서 40.9%로 커졌다.

또한, 수출기업의 영업세면제(1962), 수출소득에 대한 법인세 50% 감면(1961), 수출품제조용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1961), 수출용원자재 및 자본재수입에 대한 관세면제(1964) 등 租稅 및 關稅部門에서의 유인을 통해 수출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병행되었다.

이로써 수출지원을 위한 내국세 및 관세의 감면실적이 1965년 55억 3천만원에서 1971년 961억 8,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하였고 수출 1달러당 조세감면액이 동기간 중 31.6원에서 55.0원으로 증가하였다.

둘째, 외화의 부족으로 필요한 원자재 및 자본재의 수입이 힘든 상황에서 수출업자로 하여금 수출소득외화를 제한품목수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輸出入링크制度和 물물교환형식의 求償貿易制度를 1964년 전후하여 도입함으로써 수출인센티브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이러한 조치는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셋째, 이러한 제수출진흥책의 추진과 함께 정부는, ① 수출진흥을 위한 해외시장조사, 시장개척, 거래알선 등을 담당기 위한 大韓貿易振興公社를 1962년에 설립하였고, ② 1962년부터 輸出目標를 설정하여 이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동시에 1964년 이후 부터 「輸出의 날」을 제정하여 매년 기념행사를 행함으로써 수출마인드의 구성에 힘썼고, ③ 1963년 수

출산업의 단지화를 통하여 기업상호간의 파급효과는 물론 외부경제의 효과에 의한 원가절감을 실현시키기 위한 輸出産業工團을 조성하였으며, ④ 1964년 이후 상공부는 매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輸出綜合施策을 수립 발표하여 수출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을 채택함으로써 수출 제일주의정책의 축을 형성하였다.<sup>7)</sup>

또한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많은 「通商外交 및 國際經濟協定」 역시 행함으로써 보다 국제화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同 期間 중 우리나라는 對日貿易協定(1966)을 비롯하여 필리핀, 대만, 태국, 월남, 브라질, 말레이시아, 인도, 버마, 캄보디아, 이태리, 오스트레일리아, 서독, 멕시코, 캐나다, 뉴질랜드 등 18개국과의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결된 무역협정에는 대체로 ① 최혜국대우의 부여, ② 무역장벽완화를 통한 교역확대, ③ 경제협력강화, ④ 과학기술정보교환 등을 규정하였다.

둘째, 동 기간 중 우리나라는 1967년 GATT에 가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다 자유로운 국제무역환경조성을 위해 ① GATT총회 및 GATT주관하의 다자간 무역협상, ② UNCTAD총회 및 각 위원회, ③ ESCAP, IMF, IBRD, ADB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통상관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교역상대국과의 통상장관회의 역시 활발히 추진하였다.

셋째, 이러한 공식적, 정부적 차원의 통상활동전개와 더불어 국제박람회나 국제상품전시회의 적극적인 참가는 물론 민간업체로 구성된 통상사절단의 파견 등 해외시장개척의 확대를 위한 民間通商外交 역시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상과 같은 수출촉진 노력과 함께 수입억제를 위한 輸入管理와 함께 輸入自由化도 추진되었으나 상대적으로 그 폭은 별로 크지 않았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의 외환부족, 국내산업보호, 국제수지개선, 수출용원자재수입에 대한 특혜조치의 강화를 위한 輸入抑制 및 管理政策이 시행되었다.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특정외래품판 매금지법(1961), 연지급수입허가제(1962), 덤핑방지관세 및 보복관세의 신설(1963), 수입대금 사전예치제, 수출입링크제, 수입허가제(1964) 등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수입제한정책의 기본구조는 장기경제개발계획의 사업추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자와 외화획득에 필요한 물자 및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물자의 수입은 장려되는 대신 국내생산가능품목, 불요불급품목

7) 이 기간동안 시행된 종합시책의 주요한 내용은, ① 수출목표달성을 위한 수출환경의 조성 및 체계확립, ② 수출산업기반의 확립, ③ 무역구조의 개선, ④ 외화기득물의 제고, ⑤ 무역행정의 근대화, ⑥ 무역업체의 체질 개선, ⑦ 수출상품의 품질향상, ⑧ 해외시장의 개척, ⑨ 통상외교의 강화, ⑩ 수출지원시책의 개선 등이다. 申鉉種, 《한국무역론》, 博英社, 1992, pp. 102~103.



등의 수입은 허용되지 않거나 억제되는 것이었다.

둘째, 1967년 GATT에 가입하였을 뿐 아니라 종래의 수입제한을 통한 국내산업보호를 지양하고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1967년 7월 輸出入期別公告의 체제를, 원칙적으로 금지이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시스템」(negative list system)으로 부터 원칙적으로 허용이고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이른바 「포지티브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으로의 전환을 이룩하였다.

셋째, 이러한 수입자유화와 더불어 수입규제방식에 종전까지의 비관세 규제방식으로부터 關稅를 통한 輸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즉 1967년 12월 후진국경제의 비교열위를 보완하기 위하여 關稅法을 전면개편하여,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하여 약 20%의 균등관세율을 부과하는 한편, 긴급관세, 관세할당제, 상계, 편익관세 등을 내용으로 하는 탄력관세제도를 도입하여 신속적인 關稅變動을 통한 국내산업보호효과를 제고시켰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건대, 1967년 처음으로 輸入自由化가 표방되어 수입이 제한적으로 개방되었으나, 1960년대 후반 수출소득액의 급증 및 정부공표자유화계획 등에 비추어 볼 때 量的制限措置들의 제거가 미흡한 수준이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 이후 수출이 급격히 증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국내산업구조가 저급하여 여전히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이 미약하였고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 및 외채부담으로 수입자유화의 확대가 어려웠기 때문에 발생한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 3. 大邱地域의 貿易環境

1950년대에 있어서 대구지역의 무역환경은,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환경이 그러하듯, 전화로 인한 일부산업시설의 피해복구와 해외원조에 의한 생필품 등 내수용 물자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만 급급하였을 뿐 수출여력을 갖지 못하여 지역 나름대로의 대외무역은 거의 불모에 가까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처럼 50년대에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세관을 비롯하여 民間貿易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輸出關聯機構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하는 등 地域貿易環境이 조성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때문에 화장품이나 의류 등 일부 사치성소비재가 密貿易을 통해 대량 반입되어 유통됨에 따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지역무역은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sup>8)</sup> 따라서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8) 慶尙北道, 《慶北道史》下, 1983, p. 385.

지역무역환경이 제도적, 금융적으로 틀을 잡기 시작한 것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수출주도성장을 표방하게 된 1962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經濟開發初期에 있어서의 大邱地域의 貿易環境의 주요한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產業構造가 제1차산업으로부터 제2차산업 및 제3차산업으로의 構造高度化를 이룩함으로써 수출을 증대시킬 산업적 기반을 이룩하기 시작하였다.(〈表 5-10〉 참조)

둘째, 1960년대에는 정부가 기간산업육성책과 공업단지정책의 법제화로 인하여 大單位 工業團地의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데 대구지역 역시 대규모 공업단지의 건설로 수출신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즉 당시 대구지역의 경우 일제시대(1941)에 조성된 침산동일대의 제1공업단지(18만평규모)밖에 존재하지 않았으나 섬유·기계·화학업종을 중심으로 한 第3工業團地(104만평규모)가 1966년 3월에 착공되어 1968년 완공됨으로써 대구지역 공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대구에 인접하고 있는 포항지역 및 구미지역의 공업단지 조성 및 그 연관단지의 조성사업은 대구의 공업 및 수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토대를 형성하였다.

셋째, 1962년 7월 대구·경북지역의 유일한 대외문호라 할 수 있는 浦項港이 국제개항항으로 지정되었고, 부산세관의 大邱出張所외에 浦項出張所가 설립됨으로써 지역내 수출산업의 보호육성 및 원활한 수출입업무지원을 위한 1차적 기반조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이후 1965년에는 포항출장소가 울산세관관서로 이관되었으나 1970년 8월에는 부산세관 대구출장소가 포항출장소를 흡수하여 大邱稅關으로 승격하였다.

넷째, 정부에 의한 금융·세제면에서의 輸出支援措置의 確立과 더불어 지방행정당국의 수출증대에 대한 의욕도 크게 증대되었다. 따라서 내수업체의 수출업체로의 전환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유망수출업종의 지역특화산업개발(완구·기술 및 경영제도), 가내공업센터의 운영, 기술 및 경영제도, 전문화 및 계열화의 추진 등 지역나름대로의 輸出支援行政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1960년대 초 20여개 업체에 불과하던 지역내 輸出業體數가 급속히 증가하여 1965년에 97업체, 1971년에 195개업체로 증가하였다(〈表 5-11〉 참조).

〈表 5-10〉 大邱의 產業構造變化 (단위: %)

年度	附 加 價 值 別			產 業 人 口 別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962	3.6	43.2	53.2	9.8	17.6	51.8
1967	3.2	44.8	52.0	5.6	34.2	59.5
1971	3.1	26.9	70.0	4.9	27.0	68.1

資料: 大邱市, 《大邱市統計年報》, 1968 및 1972.

## II. 對外貿易의 規模와 構造

### 1. 全體規模 및 貿易收支의 推移

#### 1) 輸出의 規模 및 推移

상술한 대로 대구에서 무역활동이 본격화된 것은 정부가 수출주도전략을 표방한 제1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 이후부터이다. 우선 제1·2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經濟開發初期에 있어서 大邱의 輸出規模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表 5-11〉 참조).

1962년 불과 124만 7천달러에 불과하였던 대구의 수출은 1966년 1,544만달러에 도달한 후 1971년 8,762만5천달러에 이르러 동 기간 중 70.3배라는 급증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동 기간 중 전국수출의 증가 23.8배의 2.95배에 해당되는 경이적인 것이었다. 물론 이러한 실적 속에는 내국수출과 UN군납도 일부 포함되었다.

輸出增加率을 보면 60년대 초반의 경우 100%를 넘는 수출증가율을 보이기도 하였지만 수출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출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제1차 경제개발5개년기간 87.6%, 제 2차 경제개발5개년기간 41.5%를 기록하여 전기간 60.4%의 年平均成長率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연평균성장률은 전국수출의 연평균증가율 38.9%를 크게 초과하는 것이었다.

이같이 동 기간 중 대구의 수출이 전국의 수출보다 급속히 증대된 것에 힘입어 大邱輸出의 對全國比重 역시 1962년 2.3%로부터 계속 높아져 1969년 9.2%에 이르렀다가 1972년 8.2% 수준에 머물렀고, 동 기간 중 전체수출총액의 개념으로 볼 때 7.9%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대구수출의 대전국비중은 당시 대구의 총생산 및 공업생산의 대전국비중을 훨씬 초과하고 있어 대구의 수출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음을 말해주고 있다(〈表 5-12〉 참조).

이러한 수출추이와 관련하여 한가지 특기할 것은,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대구의 수출 규모가 다소 정체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1960년대 이후 지역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던 纖維産業이 1969년 이후 수출부진으로 인한 심한 不景氣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1969년 섬유류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가 단행되었고 이와 아울러 선진국의 신보호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함으로써 1966년 이래 호황을 보여왔던 地域纖維業界가 1969년 이래 1972년까지 不況의 늪에 빠졌다. 이러한 섬유산업의 불황은 섬유산업에 편중된 산업 구조를 지니고 있는 지역경제 및 지역수출에 막대한 타격을 줌으로써 지역의 수출증가율이 1970년과 71년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의 수출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점은 품목별구조와 관련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섬유산업의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表 5-11〉 經濟開發初期의 大邱의 輸出推移(1962~1971) (단위: 천달러, %, 개)

연 도	全 國	大 邱	比重	輸出業體
1962	54,813(34.1)	1,247 (—)	2.3	—
1963	86,812(58.4)	2,575(106.6)	3.0	19
1964	119,058(37.2)	4,361(120.2)	5.5	34
1965	175,082(47.1)	9,603(120.2)	5.5	97
1966	255,450(43.0)	15,440(60.8)	6.2	119
1967	320,229(40.2)	26,394(70.9)	8.2	120
1968	455,401(42.2)	38,553(46.1)	8.5	138
1969	622,516(36.7)	57,016(47.9)	9.2	168
1970	835,185(34.2)	70,454(23.6)	8.4	191
1971	1,067,607(27.8)	87,625(24.4)	8.2	195
1962~66	686,098(43.9)	33,226(87.6)	4.8	—
1967~71	3,290,938(33.8)	280,042(41.5)	8.5	—
1962~71	3,977,027(38.9)	313,268(60.4)	7.9	—

註: ( )속은 수출증가율임.

資料: 經濟企劃院 《韓國經濟年鑑》 및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도.

〈表 5-12〉 經濟開發初期 大邱地域經濟 및 輸出의 對全國比重 (단위: %)

區 分	1963	1967	1969	1970	1971
總 生 産	—	3.9	3.2	3.3	—
工 業(중업원)	10.5		8.7	7.8	6.3
(생산액)	6.1		6.4		4.2
(부가가치)	—	4.2	6.6	6.3	3.4
輸 出	3.0	8.2	9.2	8.4	8.2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센서스報告書》, 각 연도.

한편 〈表 5-13〉은 통계가 가능한 1967년 이후 대구의 輸出入通關實績을 나타내고 있다. 1967년 이후부터 통계가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전술한 대로 1962년 7월 부산세관 대구출장소가 개설되었고 1970년 8월 포항출장소를 흡수하여 大邱稅關으로 승격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大邱出張所는 주로 섬유류의 수출과 내수 및 수출용 원자재인 나일론사와 내수용

소맥을 취급한 반면 浦項出張所는 수산물수출과 선박·원목 등의 수입을 주로 취급하였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 두고 1967년 이후 1971년 까지의 통관실적의 수출을 보면, <表 5-11>의 지역수출실적에 비하여 49%내외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이것은 ① 대구시의 통계에는 내국수출 및 UN군에 대한 군납이 포함되어 있으며, ② 당시 대외수출품의 상당량이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출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기간 중 통관실적 수출의 성장률을 보면 연평균 31.5% 정도로서 실제의 수출 41.5%에 미달하고 있어 대구세관을 거치지 않는 수출물동량의 증가가 더욱 높았음을 알 수 있다.

## 2) 輸入 및 貿易收支 推移

전술한 대로, 지역의 輸入 및 貿易收支統計는 그 성격상 정확한 통계의 어려움 때문에 따로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만큼 稅關의 通關實績을 통하여 그 일단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통계치에 의한 분석 역시 그 설명력상의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수입 및 무역수지의 분석은 그 절대규모보다는 평균증가율이나 대 전국비중의 추세가 어떻게 변동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 두고, 대구지역의 輸入 및 貿易收支推移를 몇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5-13> 經濟開發初期 (1967~1971) 大邱의 輸入 및 貿易收支推移 (단위: 천달러, %)

年度	輸 出	輸 入	地域貿易收支	對 全 國 比 重			
				輸 出	輸 入	貿易規模	貿易收支
1967	15,513	21,384	△ 5,871	4.8	2.15	2.97	1.02
1968	16,366	37,249	△ 20,883	3.6	2.55	2.96	3.64
1969	23,370	44,206	△ 20,836	3.8	2.42	2.92	2.10
1970	33,819	60,580	△ 26,761	4.0	3.05	3.51	2.90
1971	45,000	71,271	△ 26,271	4.2	2.98	3.51	2.51
계	137,343(31.5)	234,690	△100,622	4.1	2.71	3.25	2.06

註: (1) 地域統計는 대구세관(포항출장소제외)의 通關實績임.

(2) 地域의 貿易規模 및 貿易收支 역시 通關實績을 바탕으로 하였음.

(3) ( )속은 평균증가율임.

資料: 經濟企劃院 <韓國統計年報>, 韓國銀行 <地域統計年報> 및 大邱稅關資料에 의거 작성함.

1967년 輸入規模가 2,138만 4천달러수준에서 1971년 7,127만 1천달러로 증가하여 3.3배정도 증가하였고 연평균증가율 41.7%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입증대는 대구지역 전체수출(비통관

기준)과 비교해보면 대구지역의 수출이 절대액에서 3.3배, 연평균 41.5%증대한 것과 거의 유사하여 동기간 중 지역의 수출입이 거의 동일한 비율로 증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전국의 수입증대와 비교하여 보면 전국의 수입규모가 절대액에서 3.2배, 연평균증가율 29.1%로 증가하고 있어 절대규모면에서 유사한 반면 연평균증가율에서는 지역의 경우가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동 기간 중 지역의 수입규모가 全國輸入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보면, 1967년 2.15%에서 1971년 2.98%로 높아졌으나, 전기간 평균 2.71%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비중을 동 기간 중 전국 수출에 대한 지역수출의 평균비중 8.5%(비통관기준)및 3.5%(통관기준)에 비하여서는 낮은 수치이지만 지역수출의 비중은 동 기간 중 거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지역수입의 비중은 67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대조되고 있다.

地域의 貿易收支를 통관실적으로 살펴 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가 그러하듯, 전기간 동안 적자를 보였고 그 규모를 보면 1967년 587만 1천달러 수준에서 1971년 2,627만 1천달러 수준으로 증대하여 연평균 70.4%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무역수지 적자규모의 증대는 전국의 무역적자규모 1.8배 및 연평균 20.9%를 훨씬 능가하는 것으로서 지역의 무역수지가 전국 평균보다 더 큰폭으로 악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전국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지역 무역수지 적자의 비중이 1967년 1.02%에서 1971년 2.51%로 증대하였고 동 기간 평균 2.06%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지역무역의 대전국비중보다는 지역 무역수지 적자의 대전국비중이 여전히 적음을 볼 때 전국무역 보다는 지역무역이 보다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변화율을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 지역무역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 2. 貿易構造의 推移

### 1) 品目別 構造

통계분석이 가능한 1964년부터 1971년까지 大邱地域 輸出의 品目別 構造를 보면 섬유수출이 90.3%, 기계 및 금속제품수출이 2.9%, 화학제품수출이 1.1%, 공예품·완구류·양송이·어망 등으로 구성되는 기타제품이 5.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같이 섬유수출이 지역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섬유수출에 있어서의 명암이 전체 지역수출의 명암을 좌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5-14〉와 〈表 5-15〉 참조).

1964년 지역수출 중 纖維輸出의 比重이 77.7%였으나 이후 계속 증대되어 1967년 93.1%에 이르렀다가 이후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동기간 중 전체수출액의 90.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구지역 섬유수출의 우리나라 전체 섬유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1964년 12.9%에서 1960년대 중반 20%를 상회하여 전기간 동안 수출총액의 20.1%를 차지하였다.

동 기간 중 지역섬유수출의 年平均增加率は 61.3%로 이는 동기간 지역전체수출의 평균 증가율 40.5%를 크게 초과하는 것으로서 섬유수출이 대구지역수출 및 전국섬유수출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섬유수출의 증가율이 지역전체의 수출증가율을 사실상 결정하는 결과가 되어 양자의 증가율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변동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대구지역의 높은 수출증가가 섬유수출의 높은 증가에 힘입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이후 대구지역수출의 構造高度化의 저해요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수출신장을 제약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동 기간 중 섬유수출의 주요품목으로서는 대일 홀치기수출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나일론직물, 견직물, 트리코트지, 모직지, 견직물의 수출비중이 높았으며 양말, 스웨터, 타올, 메리야스 등과 같은 편직물을 비롯하여 자수직물이나 봉제품 등도 다소의 기록은 있었으나 수출신장에 중요한 일익을 담당하였다.

大邱市の 輸入實績에 대한 통계는 미비하므로 대구세관 통관실적을 통하여 그 일단을 측정할 수 밖에 없음을 전술하였다. 하지만 이것마저도 제대로의 통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사용한 통계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대구경북지역의 통관실적을 나타내고 있어 대구시만의 통계라고 할 수 없지만 당시 경북전체의 무역에서 차지하는 대구시의 비중이 상당히 컸고, 또한 대구세관을 통한 수입의 경우 대부분이 대구시의 수입에 의해 충당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미흡하나마 당시의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대구·경북지역의 品目別 輸入構造를 보면, 대체로 1960년대 초반까지는 지역산업이 공업화이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수입상품도 대부분 완제품형태의 內需消費財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1960년대 이후 工業化의 진행과 더불어 지역의 섬유공업이 보다 급속한 성장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섬유원료를 비롯한 工業原料의 수입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다.

실제로 1960년대 부산세관 대구출장소의 경우 수입품목을 보면 1962년 부산세관대구감시소가 대구출장소로 승격된 이후 수입물량도 크게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수입품목 역시 점차 다양해졌다. 그러나 대구출장소의 수입은 내수용 및 수출용섬유제품의 원자재인 나일론사와

내수용의 소매이 주류를 이루었다.<sup>9)</sup>

〈表 5-14〉 經濟開發初期 大邱輸出의 品目構造 (단위: 천달러, %)

年度	纖維工業		機械工業		化學工業		其 他		全體輸出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金額	比重
1964	3,389	77.7	491	11.3	105	2.4	376	8.6	4,361	100
1965	8,634	89.9	369	3.8	120	1.2	480	5.0	9,603	100
1966	14,146	91.6	416	2.7	280	1.8	597	3.9	15,440	100
1967	24,568	93.1	380	1.4	285	1.1	1,162	4.4	26,394	100
1968	35,719	92.6	618	1.6	395	1.0	1,821	4.7	38,553	100
1969	50,366	88.3	2,951	5.2	531	0.9	3,169	5.6	57,016	100
1970	63,558	90.2	1,951	2.8	794	1.1	4,136	5.9	70,450	100
1971	79,002	90.2	1,726	2.0	888	1.0	6,009	6.9	87,625	100
계	279,382	90.3	8,917	2.9	3,398	1.1	17,777	5.7	309,446	100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65~19720에 의거 작성

〈表 5-15〉 經濟開發初期 地域主要輸出의 對全國比較 (단위: %)

年度	纖 維 產 業			機 械 產 業			化 學 產 業			全 體 輸 出		
	수출증가율		대전국 비중	수출증가율		대전국 비중	수출증가율		대전국 비중	수출증가율		대전국 비중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1964	—	—	12.9	—	—		—	—	11.5	37.2	69.4	3.7
1965	79.3	154.8	18.4	130.7	-24.8	5.8	-55.5	14.3	29.6	47.1	12.2	5.5
1966	44.2	63.8	20.4	-11.0	12.7	1.9	87.9	133.3	36.7	43.0	60.8	6.2
1967	59.5	73.7	22.7	-19.7	-8.7	2.4	214.7	1.8	11.9	27.9	70.9	8.2
1968	60.2	45.4	20.6	15.1	62.6	2.7	33.7	38.6	12.3	42.2	64.1	8.5
1969	30.6	41.0	22.2	67.8	377.5	3.8	272.9	34.4	4.4	36.7	47.9	9.2
1970	31.8	26.2	21.3	39.2	-33.4	1.9	65.4	49.5	4.0	34.2	23.6	8.4
1971	48.1	24.2	17.9	35.5	-12.2	5.2	14.9	11.8	3.9	27.8	24.4	8.2
계	50.5	61.3	20.1	36.8	53.4	4.6	90.5	5.5	5.5	37.0	40.5	7.2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및 《韓國經濟年報》에 의거 작성

## 2) 地域別 構造

지역수출이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함에 따라 지역의 輸出對象地域도 점차 확대되었다. 즉,

9) 慶尙北道, 《慶北道史》下, 1983, p. 404.



1960년대 초에는 수출대상국이 일본, 홍콩, 미국 등 일부국가에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중 급속한 공업화의 진전으로 수출상품이 다양해지고 업계와 재외공관의 신시장 개척노력에 힘입어 수출시장의 다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수출의 대상지역은 여전히 美國과 日本에 편중되어 있어 이들 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계속 60%이상을 상회함으로써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表 5-16>이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1970년 수출의 대일본비중이 38.7%, 대미국비중이 32.9%를 차지하여 양국의 비중이 71.6%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통관실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비록 대일비중이 더 높지만, 전체수출 중 양국의 비중이 77.2%를 차지하여 輸出地域의 多邊化가 하나의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輸入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지역별 편중성이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1971년 대구세관 통관실적상 地域別 輸入構造를 보면 전체수입 1억 1,063만달러 중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3,803만달러로 34.4%,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726만달러로 6.6%, 유럽으로부터의 수입이 5,898만 5천달러로 53.3%,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635만 5천달러로 5.7%를 차지하고 있다.

<表 5-16>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1970) (단위: 천달러, %)

구 분	일 본	미 국	동남아	유 럽	캐나다	기 타	총 계
대구시 통계	27,266 (38.7)	23,179 (32.9)	13,182 (18.7)	2,468 (3.5)	2,465 (3.5)	1,896 (6.2)	70,456 (100)
대구세관 통계	21,955 (61.5)	5,603 (15.7)	4,278 (12.0)	2,323 (6.5)	571 (1.6)	977 (2.7)	35,707 (100)

註: ( )속은 전체수출액에 대한 비중임.

資料: 大邱市 商工課 및 大邱稅關

## 第4節 輸出主導成長期(1972~1980)의 大邱貿易

### I. 對外貿易의 一般的 環境

#### 1. 우리나라의 全體經濟 및 貿易概況

1972년 第3次 經濟開發計劃(1972~1976)은, 1·2차 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도약의 발판을 구축한 한국경제를 안정된 기반 위에서 고도성장케하는 동시에 개발초기의 단계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여러가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번영의 1970년대를 맞이하려는 의욕으로부터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基本的인 目標은, ① 농어촌개발의 혁신적 개발, ② 수출의 획기적 증대, ③ 중화학공업의 건설이었고 그 기본전략은 여전히 輸出主導型 高度成長의 지속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 중 대외적으로 많은 여건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즉, 1971년 이른바 닉슨조치에 의한 브레튼우즈체제의 붕괴로 인한 國際通貨體制의 혼란과 1973년 10월 중동전쟁을 계기로 한 제 1차 석유파동 및 그에 따른 資源民族主義는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대외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 많은 충격과 시련을 안겨 주었다.

제1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혼란을 겪은 후에 출발된 第4次 經濟開發計劃(1977~1981)은,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면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동시에 외채부담을 경감해가면서 장기적으로 조화된 경제발전을 이룩한다는 自立成長構造의 確立을 중점목표로 하여 사회개발의 촉진, 능률의 향상, 기술의 혁신 등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동 기간 중 고도성장에 뒤이은 급격한 경기의 후퇴,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 과도한 중화학공업정책의 전개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 국제수지적자의 확대, 외채의 누증, 성장의 둔화 때문에 당초의 목표들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 채 많은 課題들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1979년 10.26사태로 인한 정치·사회적 불안정이 가세됨으로써 심지어는 1980년 마이너스 성장까지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같이 1970년대 우리경제는 많은 대외적 여건의 악화로 인한 시련을 극복하고 큰 경제적 성과를 이룩하였지만 1970년대 말 이후 급격한 성장의 둔화를 가져왔으며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파생된 많은 과제들을 남긴 시대였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 두고 제3·4차 경제개발계획이 추진된 1972년부터 1981년까지의 기간 중 이룩된 우리나라의 經濟的 成果 및 對外問題의 概況을 몇가지 관점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3차기간 중 많은 대외경제적 시련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78년까지 계속되었으나 1979년 이후의 급격한 성장둔화와 1980년의 마이너스성장으로 인하여 제4차기간 중 연평균 5.5%의 성장률을 보여 전체 기간 중 8.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같은기간 중 국민총생산의 4.86배 성장과 일인당 GNP의 5.48배(293달러 → 1,607달러)의 성장을 보였다.

둘째, 동 기간 중 産業構造의 變化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을 통하여 살펴보면, 농림수산업의 비중(26.1% → 16.9%)은 계속 낮아진 반면 광공업부문의 비중(26.3% → 31.3%)은 계속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특히 중화학공업의 집중적인 육성으로 경공업비중(63.6% → 47.1%)은 급격히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비중(36.4% → 52.9%)은 급격히 높아짐으로써 産業構造의 高度化가 급격히 이루어졌다.

셋째, 동 기간 중 輸出이 1972년 16억2400만달러에서 1977년 100억달러를 달성한 후 1981년 212억 5400만달러로 증가하여 13.1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 연평균 36.8%의 증가율을 보여 60년대의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또한 輸出構造 역시 전체수출 중 공업제품의 비중이 87.7%로부터 계속 높아져 92.9%에 이르렀고, 특히 공산품수출 중 경공업제품의 비중은 75.8%에서 51.3%로 떨어진 반면 중화학공업 제품들의 비중은 24.2%에서 48.7%로 높아져 급속한 輸出構造의 高度化가 이룩되었다.

넷째, 한편 동 기간 중 輸入增加率을 보면 연평균 31.4%로서, 60년대와 70년대의 수출 증가율은 상호유사한 수준을 보인 반면, 수입증가율은 70년대의 경우가 훨씬 높아졌다. 이같이 수입증가율이 높아 진것은 ① 1·2차 석유과동으로 인한 원유 및 기타 원자재가격 상승에 의한 부담증가, ② 1978년의 輸入自由化, ③ 경제개발에 따른 수요증대 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다섯째, 이러한 수출입규모의 계속적인 증대로 인하여 동 기간 중 세계무역에 대한 韓國貿易의 比重을 보면, 輸出의 경우 0.42%에서 1.14%, 輸入의 경우 0.63%에서 1.35%, 전체적인 경우 0.53%에서 1.25%로 높아져 1978년을 계기로 세계무역 비중의 1%를 초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1970년대 우리 경제는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수출주도적 경제성장의 계속 추진을 통하여 여러가지 대내외적 여건의 불리함을 극복하면서 量的 成長을 이룩하였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① 경제의 부문간 불균형 및 이에 따른 소득분배의 불균형, ② 높은 물가 상승, ③ 외채의 누증, ④ 국제수지의 악화, ⑤ 국제경쟁력의 급격한 악화 등과 같은 構造的 問題點을 나타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의 經濟不況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 2. 對外貿易政策의 基調

이상과 같은 1970년대 우리나라의 經濟政策의 目標에 따라 70년대의 貿易政策의 基調는, ①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출제일주의정책의 지속적 추진, ② 중화학공업육성을 통한 輸出産業의 高度化와 고부가가치화, ③ 기술개발 등을 통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④ 수출진흥체제의 다양화를 통한 양적인 수출정책으로부터 질적인 수출정책으로의 전환, ⑤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위한 제도의 정비 등과 같은 輸出政策과, ① 석유파동, 세계경제의 보호주의화 경향 등에 적절히 대처하면서 원자재의 확보 및 불안정을 제거하기 위한 수입규제의 완화, ② 국제수지적자를 방어하기 위한 계속적인 수입관리로 특징지워지는 輸入政策으로 대표되어진다.

이러한 기조 위에서 구체적으로 실시된 1970년대의 무역정책 역시 ① 대외무역관리제도 및 환경개선, ② 수출지원제도, ③ 통상협력의 확대, ④ 수입관리제도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貿易管理制度 및 貿易環境의 改善이라는 측면에서의 제도적 정착이 이루어진 시기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역규모의 확대에 따라 1970년대에 들어와 1970년, 1972년, 1975년 세차례에 걸친 貿易去來法의 개정을 통하여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이룩하는 동시에 수출업질서교란행위의 금지범위 확대, 수출입허가 결격사유와 취소사유의 조정, 벌칙강화 등을 이룩함으로써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행하였다.

한편, 輸出産業基盤의 확충을 위하여 종래까지 수출산업, 수출특화산업, 수출전략산업으로 유형 분류하던 것을 중점개발산업, 안정산업, 원료산업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형별 정책을 수립하였다. 또한 수출산업의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투자 확대조치로서 國民投資基金(1974)을 설립하여 특정전략산업육성에 박차를 가하였고, 輸出團地造成을 통해 수출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수출자유지역(1974) 및 수출입은행(1976)의 설치를 통하여 수출산업기반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행하였다. 또한 기계류·산업설비 등 자본재의 생산촉진 및 수출기반 확충을 뒷받침하기 위한 産業設備輸出促進法(1978)의 제정을 통하여 중공업 제품의 수출산업화를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를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1971~199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長期輸出計劃을 수립하여 이러한 중장기 계획에 의한 수출의 증대를 꾀하였다. 또한 무역진흥종합시책의 지속적인 실시를 통하여 수출진흥체제의 확충을 이룩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경우, 규모가 영세한데다 상사상호간의 과당경쟁이 격심하였고 해외조직망의 부족으로 해외시장개척 및 확대가 어려웠으며 무역의 전문성 미비로 해외시장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미약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綜合貿易商社의 指定要領(1975. 4)이 공고되어 종합무역상사제도가 도입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무역상사가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되어 업체의 영세성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수출업체의 대형화노력과 함께 소액·소량수출을 전담하는 한국수출진흥회사(1969)를 설립하였고 이는 이후 고려무역(1973)으로 개칭되어 사업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또한, 1970년대에는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무역업무의 효율화가 요구되어 輸出節次簡素化作業이 획기적으로 추진되었는데 수출입절차의 간소화 조치는 복잡한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거래비용과 시간을 절약함으로써 무역거래를 촉진시키고 무역거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또한 수출상의 제반애로사항을 협의하고 수출입업무의 능률화를 도모하기 위한 수출입절차간소화위원회가 설치 운영되었다.

1971년 6월 대미환율을 326원에서 370원으로 인상한 후 다시 1972년 400원으로 인상시켜 수출의 價格競爭力을 강화시켰다. 1974년 12월에는 다시 480원으로 인상하였고 1980년 1월 換率現實化와 2월의 복수통화 바스켓제도의 채택에 의한 환율유동화를 시행하여 수출업체의 국제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개선시키려고 하였다.

한편 1970년대에는 산업구조와 무역구조의 고도화를 위한 中長期輸出支援制度가 도입되어 자본재의 국산화추진, 산업설비의 생산확대, 국제기술경쟁력의 강화, 기초소재공업의 육성 등을 위한 지원제도가 시행되었다. 이같이 중장기 수출지원제도가 강화된 것은 당시 노동집약적 경공업제품의 수출이 국제경쟁력의 약화 및 선진국의 수입규제조치로 그 한계를 드러내자 수출시장의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불가피했던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동기간 중 실시된 輸出支援制度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역거래상 위험 가운데 일반보험으로 담보될 수 없는 위험, 즉 대금미결제, 지급불능 등의 신용위험과 전쟁, 내란 등의 비상위험 및 기업위험 등으로부터 수출업자, 생산업자, 금융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한 輸出保險法(1968)의 제정이 이루어졌다. 이후 대한재보험공사가 이 업무를 대행, 운영하다가 1976년 수출보험법의 개정 이후 한국수출입은행이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둘째, 1970년대 들어와서도 수출촉진을 위한 각종 輸出支援金融이 계속 실시되었는데,

전반에는 단기수출지원금융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후반부터는 중장기수출지원금융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우선 1972년 2월 정부는 그동안 단기화되어 있던 수출지원금융제도를 ‘輸出金融’으로 단순, 통합화하여 제도금융의 실효를 높였다. 또한 1967년 제정된 「외화대출취급규정」에 의거한 대외대출제도를 1970년대에 들어와 용자대상과 용자한도 등의 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였으며 1978년에는 이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였다. 또한 1971년부터 연불수출지원금융이 설치되었으며, 1976년 2월부터 수출금융상품별 한도거래제도가 도입되어 일정한 조건을 갖춘 수출상사에 대해 신용장과 관계없이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라 소요생산 집하자금이 용자되었다. 또한 상술한 한국수출입은행(1976)의 발족을 통해 중장기연불수출지원체제를 확립시켰고, 이와 함께 수출보험을 수출입은행의 수출지원금융과 연계시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정부는 1973년 종래의 외화획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그 대신 해외시장개척준비금융제도를 보완하였고, 수출손실준비금융제도와 해외투자손실준비금융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종래의 직접감면제도로부터 間接的인 租稅負擔減免制度로의 전환을 이룩하였다. 또한 종래까지의 관세사전감면제도를 1975년부터 關稅還給制度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른 관세의 납부와 환급사이에 생기는 자금압박을 덜어주기 위한 관세징수유예제도를 설정하였다.

또한, 1970년대에 있어서의 ‘對外通商活動’의 기본방향은, ①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외교의 적극적 추진, ②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무역협정의 체결, ③ 수출품목의 확대 및 관세율인하를 위한 무역협정의 체결, ④ 박람회 및 전시회의 참가와 개최로 60년대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그 회수와 대상국가가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보다 조직화되고 적극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또한 동 기간 중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제7차 다자간무역협상인 동경라운드(1973~79)에 참여하여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동 기간 중 輸入政策을 보면, 1970년대 역시 1977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경상수지적자가 계속되었으므로 수출원자재와 시설재의 수입촉진 및 사치성품목에 대한 수입금지라는 기본방침이 지켜졌다. 따라서 1969년 수입자유화가 표방되어 그 준비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이후의 수입자유화는 세계적인 석유파동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수출입기별 공고상의 품목의 확대가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경제의 세계적 지위격상에 따른 시장개방압력의 증대와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배양을 위한 輸入自由化 擴大가 1978년 4월, 9월, 1979년 1월의 세차례에

결쳐 이루어졌다. 이로써 1960년대 말 60%를 넘지 못하던 輸入自由化率이 1970년대 말 67.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석유파동, 보호무역주의의 추세, 중화학공업의 육성 등과 같은 대내외적 여건들이 우리나라 수입자유화시책의 확대를 어렵게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자유화율의 증가는 사실상 당시의 무역규모팽창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었고, 또한 정부는 국내시장개방조치의 보완책으로서 輸入先多邊化制度를 1978년 3월 도입한 데 이어 輸入監視制度도 1979년에 도입하였다.

### 3. 大邱地域의 貿易環境

1970년대 大邱經濟는 70년대 한국경제의 변화와 유사한 변화를 보이면서도 인구의 급속한 증가, 공업화의 진전에 따른 시민소득의 향상, 산업구조의 고도화, 섬유수출의 획기적 증대, 유통산업의 근대화 등과 같은 質的인 變化를 보였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에 비하여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고 공업구조에 있어 경기변동에 민감한 섬유산업에의 편중도가 심화됨으로써 1972, 1974, 1979년 세차례의 극심한 불경기를 겪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 지역경제력의 비중이 相對적으로 停滯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같은 상황을 경제의 총량추이 및 비중, 산업구조의 변화, 공업생산력의 변화 등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자료가 가능한 1970년대 후반 대구지역경제의 총규모 및 전국비중을 <表 5-17>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5-17> 1970年代 후반 大邱經濟力の 全國比重 推移(1975~1980)

구 분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GRP 總額(억원)	4,167.0	3,849.9	4,903.3	5,201.3	5,734.9	5,688.8
全國 對比(%)	4.26	3.42	3.94	3.75	3.86	4.10
1人當 GRP(\$)	657	684	955	1,187	1,522	1,443
1인당 GNP對比(%)	114.7	89.4	98.9	89.2	98.4	97.4

註：1975년 不變價格基準임.

대구 경제력의 총량적 척도가 될 수 있는 대구의 地域總生産(GRP: Gross Regional Product)의 추세를 보면 통계가 가능한 1975년부터 1980년까지 연평균 7.0%의 성장률을 나타내어 동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의 GNP성장률 7.65%에 약간 미달되는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대구 GRP가 전국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1975년 4.3%에서 1980년 4.1%로 낮아졌으며 70년대 후반 계속 4%이하의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대구시민의 生産效率性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는 1人當 GRP수준을 보면 1976년부터 국민 1인당 GNP수준을 밀돌기 시작하여 1980년까지 계속 1인당 GNP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동기간 중 연평균 18.2%의 성장률을 보였고, 이는 동기간 중 일인당 GNP평균성장률 21.9를 약간 하회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구의 1인당 GRP수준은 1970년대를 통하여 서울, 부산, 인천 등의 여타도시의 성장과 비교하여 볼 때 훨씬 뒤쳐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는 결국 大邱는 인구면에서만 제3의 도시였을 뿐 經濟力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열위에 서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의 産業構造 및 工業生産力의 관점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대구의 산업구조변화 추이를 1972년과 1980년간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면, 附加價值面에서 제 1차산업 3.1% → 0.5%, 제 2차산업 25.9% → 43.7%, 제 3차산업 70.0% → 55.8%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就業人口面에서 제 1차산업 4.9% → 2.4%, 제 2차 산업 27.0% → 36.8%, 제 3차산업 68.1% → 60.8%의 변화를 보여 주어, 제 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되고 제 2차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져 産業構造高度化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여전히 제 3차산업 비중이 높은 구조를 나타내 주고 있다.(表 5-18 참조)

둘째, 동기간 중 대구의 工業構造變化를 보면, 부가가치면에서 경공업의 비중이 80.6%에서 77.8%로 다소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19.4%에서 22.2%로 다소 높아져 이러한 측면에서 構造高度化가 실현되었다.(表 5-19 참조)

셋째, 또한 대구공업의 전국비중을 1972년과 1980년을 대비해 보면, 업체수면에서 9%~10% 수준을 유지하고 종업원수면에서는 동기간 중 6%~7%수준을 유지한 반면 부가가치면에서는 4.1%에서 5.6%로 다소 증가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表 5-20 참조)

〈表 5-18〉 大邱의 産業構造變化(1972~1980) (단위: %)

年度	附 加 價 值 別			就 業 人 口 別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972	3.1	26.9	70.0	4.9	27.0	68.1
1975	1.2	40.2	58.6	3.7	30.1	66.2
1878	1.1	32.1	32.1	2.8	36.7	60.5
1980	0.5	43.7	43.7	2.4	36.8	60.8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76, 1983에 의거 작성



〈表 5-19〉 大邱의 工業構造變化(1972~1981) (단위: %)

年度	業 體 數		附 加 價 值		從 業 員 數	
1972	65.5(44.7)	30.5	80.6(50.0)	19.4	72.0(53.1)	(28.0)
1981	67.1(19.7)	32.9	77.8(52.0)	22.2	76.9(65.5)	23.1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1975 및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 1982에 의거 작성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보면 1970년대 大邱의 産業構造 및 工業構造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어느 정도 이룩한 동시에 전국에 대한 비중 역시 대체로 비슷한 수준 내지 약간 높아진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問題點이 내재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우선 대구의 경우 제 3차 산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經濟의 서비스化傾向을 확연히 나타내고 있다. 3차산업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은 도시화 및 산업화의 진전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이지만, 대구의 경우 그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지역경제의 생산력을 보완해 주고 지역경제의 중추 관리기능을 확충해 주는 서비스화보다는 단순 향락위주의 서비스화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지역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력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제 2차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대된 것은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의 경우 전체산업에 대한 纖維産業의 比重이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 〈表 5-19〉가 보여주는 대로 1972년과 1981년을 대비할 경우 섬유산업의 비중은, 업체수면에서 44.7% → 49.7%로, 부가가치면에서 50.0% → 52.0%로, 종업원수면에서 53.1% → 65.5%로 높아져 그 절대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뿐만 아니라 동기간 중 그 비중이 모두 증가되고 있다. 지금까지 섬유산업이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지역경제가 경기변동에 민감한 섬유산업에 의존함으로써 섬유산업의 호불황이 地域經濟의 사활을 좌우하게 되는 構造的 脆弱性을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섬유산업이 노동집약적이며 저부가가치적인 경공업이라는 점 때문에 지역경제의 長期的 發展 및 地域産業의 高度化를 가로막는 원인으로도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상술한 대로 지역공업의 구조가 부가가치면에서 경공업 비중이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높아져 工業構造의 高度化가 이루어졌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기간 중 우리나라 전체의 공업구조변화를 부가가치면에서 살펴보면 경공업 비중이 65.1%에서 44.7%로 크게 높아져 오히려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역전되고 있다. 따라서 대구의 공업구조를

우리나라 전체의 공업구조화와 대비하면 상대적으로 輕工業構造를 면치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表 5-20>이 보여주는 대로 대구지역의 경우 업체수와 종업원수면에서는 오히려 경공업의 비중이 높아져 동 기간 중 勞動集約의 工業의 新規立地가 더욱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동 기간 중 우리나라 경제가 중화학공업의 육성에 노력을 기울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구의 공업구조는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輕工業構造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表 5-20> 大邱工業의 全國比重推移(1972~1980) (단위: %)

구 분	1972	1975	1978	1980
사업체수	9.6	10.4	9.6	9.1
종업원수	6.6	5.8	6.6	7.0
부가가치	4.1	5.0	5.3	5.6

資料: 經濟企劃院, 《鑛工業統計調查報告》 및 大邱市, 《統計年報》에 의거 작성

넷째, 이러한 현상은 대구공업의 대전국비중에서 뿐만 아니라 당시 대구의 대경북지역비중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 무르익기 시작한 工業團地造成計劃이 70년대 본격화됨으로써, 대구의 경우 1972~73년 사이에 第3工團의 본격적인 가동이 이루어졌고 이어서 西大邱工團, 檢團工團, 飛山染色工團이 조성된 반면, 경북지역의 경우 전자공업전문기지인 龜尾工團과 철강공업의 본산인 浦鐵 및 鐵鋼關聯團地가 설립되었는데, 대구의 경우 대부분의 입주업체들이 섬유를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체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공업의 전국비중은 70년대의 경우만 비교하면 상술한 대로 업체수 및 종업원수면에서 보험세를 유지한 반면 부가가치면에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1960년대 말 대구공업의 비중이 부가가치면에서 6.6% 수준에 이르렀던 것과 비교할 경우 오히려 대전국비중이 70년대에 있어 더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970년대에 있어 대구의 공업 및 경제는 그 자체가 절대적인 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질적인 고도화도 수반된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적인 면에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經濟環境이 후술하려는 70년대 大邱貿易의 성격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배경이 되었음을 물론이다. 이같은 근본적인 환경 이외에 70년대 대구지역의 對外貿易과 관련되는 環境變化를 몇가지 측면에서 예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부산세관대구출장소가 포항출장소를 흡수하여 大邱稅關으로 승격되는데 이어 1972년 대구세관 관할하에 구미출장소가 설치되었으며 1980년 8월 다시 대구세관이 본부

세관으로 승격되어 대구, 마산, 울산, 장승포세관 등 4개세관과 기존의 구미, 포항출장소 외에 창원, 진주, 충무출장소 등 5개 출장소를 관할하게 되었다. 대구세관의 이러한 지위격상 및 기능강화는 대구지역의 수출입의 통관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되어 무역의 촉진에 이바지하였다.

둘째, 경상북도의 유일한 對外貿易港인 浦項港이 70년대 들어 크게 확장되어 1966년도에 하역능력이 36만 톤에 불과하던 것이 1978년도에는 2,216만 톤으로 62배정도 늘어났으며 13척이 동시에 정박할 수 있는 접안능력도 갖추게 되어 수출입물량의 소통이 더욱 용이해졌다.

셋째, 1970년대에 고도성장을 위한 정부의 수출드라이브정책의 지속적 추진에 따라 지역별 輸出支援行政도 보다 적극성을 띠어 수출업체에 대한 자금지원과 경영 및 기술지도는 물론 10대전략상품의 개발 수출진흥회의 개최 수출책임제 등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따라 慶尙北道에 輸出振興課가 설치되었고 이를 통한 수출행정의 일원화가 이루어졌다.

넷째, 1974년 4월 大韓貿易振興公社(KOTRA) 大邱事務所가 설치되어 지역수출업체에서도 해외시장정보의 입수가 보다 용이해졌으며, 1971년 4월에는 貿易協會慶北支部가 설치되어 상공회의소 등 기존의 수출유관기관과 함께 지역수출진흥을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활동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제반노력이 이루어짐에 따라 1972년도에 214개업체에 불과하던 輸出業體數가 1979년 276개업체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는 불황의 여파로 205개로 오히려 줄어들기도 하였다.

## II. 對外貿易의 規模 및 構造

### 1. 全體規模 및 貿易收支의 推移

#### 1) 輸出의 規模 및 推移

1972년 이후 1980년까지 대구의 수출은 1억 2,720만달러에서 6억 8,220만달러로 5.4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26.8%의 신장률을 보여 여전히 높은 增加率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대구의 수출이 연평균 60.4%를 기록하였던 것에 비하면 수출의 신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의 경우 대구의 수출증가율이 전국의 그것을 크게 상회하였음에 비하여 1970년대의 경우 대구의 이러한 수출증가율은 전국의 평균증가율 38.4%를 크게 하회하는 것이어서 대구의 수출이 相對적으로 크게 鈍化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의 수출이 전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2년 7.8%에서 1980년 3.9%로

저하되었고, 동기간 중 全體 輸出의 對全國比重이 60년대의 경우 평균 7.9%였음에 비하여 1970년대의 경우 평균 4.8%에 머물게 되었다. 이러한 수출의 대전국비중은 전국 GNP에 대한 대구지역의 GRP 비중이 4%내외의 수준이었음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이지만, 地域 經濟力의 대전국 비중은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음에 비하여 수출의 對전국 비중은 계속 저하되고 있으며, 더욱이 전술한 대로 大邱工業의 대전국비중에 비해서 수출의 對전국비중이 낮고 있어 대구의 수출력이 경제력에 비하여 낮을 뿐만 아니라 보다 크게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있다.

이같이 1970년대에 이르러 대구수출의 신장세가 상대적으로 둔화되고 따라서 對전국비중이 저하된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經濟的 要因들이 작용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表 5-21〉 輸出主導成長期(1972~1980) 大邱의 輸出推移 (단위: 백만달러, %)

年度	全國	大邱	比重	輸出業體
1972	1,624(52.1)	127.2(45.2)	7.8	214
1973	3,225(98.6)	214.5(68.6)	6.6	230
1974	4,460(38.3)	238.3(11.1)	5.3	254
1975	5,081(13.9)	273.5(14.7)	5.4	265
1976	7,715(51.8)	361.1(32.0)	4.7	273
1977	10,046(30.2)	464.8(28.7)	4.6	280
1978	12,711(26.5)	575.0(23.7)	4.5	278
1979	15,056(18.4)	647.9(12.7)	4.3	276
1980	17,505(16.3)	682.2(5.3)	3.9	205
1972~1976	22,105(50.9)	1214.6(34.3)	5.5	—
1977~1980	55,818(22.9)	2369.9(17.6)	4.3	—
1972~1980	77,923(38.4)	3584.5(26.8)	4.8	—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및 經濟企劃院 《經濟統計年報》 각 연호에 의거 작성

첫째, 전술한대로 70년대 이후 大邱의 工業化가 타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것은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중화학공업의 투자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수도권 및 임해공업지역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활발히 추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대구지역의 공업이 위축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업단지조성계획에 따라 상당수의 공장이 시외곽지로 이전되었음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大邱地域工業의 相對的 萎縮이 지역수출의 상대적 둔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

둘째, 産業構造의 문제와 관련하여, 타지역의 공업이 급속한 중화학공업화로 인하여 고도화

되었음에 비하여 대구의 공업이 여전히 輕工業構造에 머물러 있었으며, 또한 지나친 纖維一邊倒의 産業構造는 섬유 이외의 근대적인 산업육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시키고 지역경제구조 및 수출구조의 취약성을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경기에 민감한 섬유산업의 속성 때문에 경기의 변화가 지역경제 및 지역수출의 사황을 쥐게 되었고, 地域産業의 構造高度化를 가로막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1960년대 대구수출의 급격한 증대가 섬유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수요와 이에 따른 시설확대에 기초하였던 것처럼 1970년대 대구수출의 상대적 부진 역시 纖維輸出의 부진에 기인된 것이었으며, 또한 이러한 산업구조 때문에 석유과동과 같은 충격이 타지역보다 특히 심하여 1974년과 1980년의 수출증가율이 전국 평균이상으로 크게 저하되었던 데서 확인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섬유위주의 산업구조는, 이후 80년대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역의 수출증대가 보장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셋째, 지역 섬유생산의 비중이 내수 30%, 수출 70%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 섬유수출의 70~80%를 대구에서 생산하고 있어 地域經濟의 對外依存度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國際化에 대한 對應力이 매우 미약하여 정보의 입수체제 유통체제, 제품의 개발력 등이 국제수준에 크게 미달되고 있는 것 역시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었다.

## 2) 輸入 및 貿易收支 推移

전술한 대로 輸入에 관한 한 대구시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대구세관 통계만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구세관의 통계마저도 1970년대에 있어서는 포항출장소 및 구미출장소 등을 제외한 본부세관만의 통관실적이 남아 있지 않았다.

본래 지역의 수입통계 및 무역수지통계는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없고 다만 하나의 추정자료로서의 가치만을 가지는 것이지만, 상기와 같은 이유로 1970년대의 경우에는 大邱市の 輸入 및 貿易收支는 그같은 추정자료로서의 가치마저도 없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1960년대의 경우 대구경제력의 경북지역전체에 대한 비중이 매우 크고 제2차산업에 관한 한 대구의 공업구조와 경북의 공업구조간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 대로 대구경제력의 대경북지역비중이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공업구조 역시 결정적인 격차를 보여 왔으므로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해두고 70년대 대구경북지역의 輸入 및 地域貿易收支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表 5-22〉 참조).

대구·경북지역의 연평균 輸入增加率は 63.3%(1967~71), 34.2%(1972~76), 35.8%(1977

~1980)로 감소되어 1960년대에는 수출의 연평균증가율을 상회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그것을 하회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수입에 대한 지역수입의 평균비중은 2.8%, 6.9%, 8.1%로 계속 높아졌다.

따라서 전국의 무역수지가 동기간 동안 계속 赤字였음에 대하여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1969년, 1975년 작으나마 흑자를 보였고 특히 1979년 이후 흑자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전체의 무역수지에 대한 지역무역수지의 비중이 1.9%(1960년대 후반), 6.3%(1970년대 초반)로서 전체무역규모의 대전국비중 2.8%, 6.9%에 미달하여 지역의 무역이 전국의 경우보다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더욱이 70년대 후반의 경우는 지역무역수지의 합계가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

〈表 5-22〉 大邱慶北地域의 輸入 및 貿易收支推移 (단위: 千달러, %)

年度	輸出	輸入	地域貿易收支	對 全 國 比 重			
				輸出	輸入	貿易規模	貿易收支
1966	10,781( - )	12,669( - )	△ 1,888	4.2	1.8	2.5	0.4
1967	17,721(58.8)	21,147(66.9)	△ 3,426	5.5	2.1	3.1	0.6
1968	20,190(13.9)	30,708(45.2)	△ 10,518	4.4	2.1	2.8	1.3
1969	24,670(22.2)	44,699(45.6)	△ 20,029	4.0	2.5	3.0	2.0
1970	35,707(44.7)	34,209(-23.5)	1,498	4.3	1.7	2.6	+0.2
1971	49,279(38.1)	110,630(223.4)	△ 61,351	4.6	4.6	4.8	5.9
1972	77,603(57.5)	209,850(89.7)	△ 132,247	4.8	9.3	7.3	23.0
1973	211,606(172.7)	287,169(36.8)	△ 132,247	6.6	6.8	7.0	13.3
1974	325,930(54.0)	386,468(34.6)	△ 75,163	7.3	5.6	6.5	3.1
1975	362,108(11.1)	479,506(24.1)	△ 117,398	7.1	6.6	7.2	7.0
1976	593,758(64.0)	545,794(13.8)	47,964	7.7	6.2	7.0	+8.1
1977	676,437(13.9)	1,019,089(86.7)	△ 342,652	6.7	9.4	8.2	71.9
1978	1,103,473(63.1)	1,211,194(18.6)	△ 96,767	8.7	8.1	8.5	5.4
1979	1,611,058(46.0)	1,575,463(30.1)	35,595	10.7	7.7	9.4	+0.8
1980	2,235,456(38.8)	1,694,708(7.1)	540,748	12.8	7.6	10.1	+12.3
67~71	147,567(35.5)	241,393(63.3)	△ 93,826	4.5	2.8	3.2	1.9
72~76	1,571,005(71.8)	1,908,787(34.2)	△ 337,782	7.1	6.9	7.0	6.3
77~80	5,626,378(40.5)	5,500,723(35.8)	125,655	7.7	8.1	9.1	+1.0

註: (1) 地域統計는 대구세관(포항·구미 포함)통계임

(2) ( )속은 增加率임.

資料: 韓國銀行 및 大邱稅關 統計資料에 의거 작성함

## 2. 貿易構造의 推移

### 1) 品目別 構造

1972년 이후 1980년까지의 대구지역 輸出의 品目別 構造를 보면 여전히 섬유수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기계금속, 화학, 기타의 순위이다. 다만 이러한 70년대의 품목구조를 1960년대 후반의 경우와 비교하면 섬유의 수출비중이 다소 낮아진 반면 기계금속 및 화학산업의 수출비중은 약간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품목구조와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表 5-23〉, 〈表 5-24〉 참조).

〈表 5-23〉 輸出主導成長期 大邱輸出의 品目別 構造 (단위: 천달러, %)

年度	纖維産業		機械金屬産業		化學産業		其 他		全體輸出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금 액	비중
1972	114,296	89.8	5,209	4.1	1,202	0.9	6,504	5.1	127,211	100
1973	197,538	92.1	9,950	4.6	1,794	0.8	5,240	2.4	214,522	100
1974	207,993	87.3	11,561	4.9	2,498	1.9	16,293	6.8	238,345	100
1975	245,540	89.8	11,567	4.2	3,138	1.1	13,205	4.8	273,450	100
1976	328,510	91.0	14,449	4.0	7,606	2.1	10,508	2.9	361,073	100
1977	409,878	88.2	20,449	4.4	10,681	2.3	23,742	5.1	464,750	100
1978	494,487	86.0	20,602	3.6	54,403	9.5	5,478	1.0	574,970	100
1979	546,709	84.4	39,408	6.1	53,518	8.3	8,278	1.3	647,913	100
1980	564,320	82.7	66,986	9.8	36,685	5.4	14,159	2.1	682,150	100
72~80	3,109,271	86.7	200,181	5.6	171,525	4.8	103,407	2.9	3,584,384	100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도

첫째, 纖維輸出의 지역수출에 대한 비중을 보면 70년대 중반까지는 90%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계속 낮아져 1980년의 경우 82.7%로까지 떨어졌다. 반면 기계금속 및 화학산업의 경우 다소 부진은 있었으나 계속 그 비중이 높아져 기계금속의 경우 4.1%에서 9.8%로, 화학산업의 경우 0.9%에서 5.4%로 그 비중이 높아졌다.

둘째, 이로써 지역전체 수출에 대한 産業別 輸出比重은 동 기간 중 평균치로 보면 섬유수출이 86.7%, 기계금속 수출이 5.6%, 화학 수출이 4.8%, 기타 수출이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비중은 1960년대 후반의 경우와 비교하면, 섬유의 경우 90.3%에서 86.7%로 다소 낮아진 반면 기계금속 및 화학산업의 경우 2.9%에서 5.6%, 1.1%에서 4.6%로 높아져 일단 지역수출의 품목구조가 다소 다양화·고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수출의 全國輸出에 대한 比重을 산업별로 나누어 1960년대 후반과 비교해 보면, 섬유산업의 경우 20.1%에서 13.5%로,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4.6%에서 2.4%로, 화학산업의 경우 5.5%에서 4.6%로 모두 낮아지고 있어 대구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수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면서 수출구조의 고도화도 특별히 이룩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구지역 경제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듯이 1970년대 우리나라 경제가 중화학공업으로의 산업구조고도화가 전반적으로 이룩되었음에 비하여 대구의 산업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다.

셋째, 동 기간 중 地域輸出의 産業別 增加率을 보면, 섬유산업의 경우 제1차 석유파동 및 제2차 석유파동과 동시에 급격한 침체를 맞이하여 수출증가율이 크게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증가율이 계속 둔화되고 있고, 기계금속 및 화학산업의 경우 수출의 절대액이 별로 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진이 심하여서 평균증가율이 별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表 5-24〉 輸出主導成長期 大邱主要産業輸出의 對全國比較 (단위: %)

	纖維産業			機械金屬産業			化學産業			全體輸出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1972	54.1	44.7	16.8	190.0	210.8	3.5	133.0	35.4	2.3	52.1	45.2	7.8
1973	73.9	72.8	16.7	113.1	91.0	3.1	53.3	49.3	2.2	98.6	68.6	6.6
1974	22.3	5.3	14.3	78.9	16.2	1.8	143.6	39.2	1.3	38.3	11.1	5.3
1975	24.0	18.1	13.7	-33.2	13.7	2.6	-13.0	25.6	1.8	13.9	14.7	5.4
1976	55.9	33.8	11.7	65.3	11.7	2.0	52.2	142.4	2.9	51.8	32.0	4.7
1977	12.3	24.8	13.0	54.2	13.0	1.8	27.8	40.4	3.2	30.2	28.7	4.6
1978	29.7	20.0	12.1	-22.4	12.1	2.4	13.8	409.3	14.3	26.5	23.7	4.5
1979	14.4	10.6	11.7	135.2	11.7	1.9	62.0	-1.6	8.9	18.4	12.7	4.3
1980	7.5	3.2	11.3	—	11.3	—	—	+31.5	—	16.3	5.3	3.9
평균	32.7	26.0	13.5	72.6	59.7	2.4	59.1	78.7	4.6	38.4	26.8	4.8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도에 의거 작성.

이러한 산업별 수출증가율과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것은 1970년대에도 여전히 지역섬유수출이 지역전체수출의 명암을 좌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즉, 60년대의 경우 대구지역의 섬유수출 증가율(61.3%)이 전국 섬유수출의 증가율(50.5%)을 앞지르고 있음에 따라 대구지역 전체수출의 증가율(40.5%)이 전국의 수출증가율(37.0%)을 상회하였음에 비하여, 1970년대의 경우 대구 지역의 섬유수출 증가율(26.0%)이 전국의 섬유수출 증가율(32.7%)을 하회함으로써 대구지역



수출 증가율(26.8%) 역시 전국의 수출 증가율(38.4%)에 미달되고 있기 때문이다.

〈表 5-25〉 輸出主導成長期 大邱의 纖維類 品目別 輸出構造 (단위: 千달러, %)

年度	면직	모직	화섬직	견직	편직	자수직	絲類	봉제	기타	計
1970	3,453 (5.4)	4,596 (7.2)	13,648 (21.5)	23,457 (36.9)	10,667 (16.0)	2,670 (4.2)	3,811 (6.0)	637 (1.0)	646 (1.0)	63,558 (100)
1975	17,261 (7.0)	17,775 (7.2)	67,803 (27.6)	51,144 (20.8)	31,680 (12.9)	17,383 (7.1)	28,895 (11.8)	4,604 (1.9)	8,995 (3.7)	245,540 (100)
1978	58,731 (11.7)	43,102 (8.4)	175,082 (34.9)	155,315 (31.0)	18,860 (3.8)	48,745 (9.7)	— (0.6)	2,951 (0.6)	—	501,786 (100)
1980	49,370 (8.7)	35,145 (6.2)	328,610 (57.9)	138,260 (24.4)	14,974 (2.6)	—	— (0.2)	946 (0.2)	—	567,305 (100)

註: ( )속은 比重임.

資料: 大邱市, 《輸出促進會議資料》 및 慶尙北道, 《慶北道史》, 1983, p. 404.

이같은 수출품의 품목구조와 관련하여 동 기간 중 대구지역의 주종수출품인 ‘纖維産業의 輸出構造’를 보면 〈表 5-25〉에서와 같이 織物類가 거의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직물류 중 면직·모직물은 다소의 기록은 있었지만 대체로 비슷한 비중을 유지하였고, 홀치기가 중심이 된 견직물 및 스웨터, 타올, 메리야스가 중심이 된 편직물은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된 반면 화섬직물은 그 비중이 크게 증대되어 1970년대 중반 이후 대구섬유수출 중 1위를 차지하여 1980년에는 전체섬유수출의 58% 정도를 점하게 되었다. 이러한 화섬직물수출의 대부분은 폴리에스테르와 나일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같이 화섬직물수출이 크게 증대된 것은, ① 섬유의 소비패턴이 천연섬유에서 합성섬유로 이행되어가는 추세에 따른 화섬직물의 생산증대, ② 1970년대에 들어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시장의 문이 점차 넓어지고 나일론·나프타·조젯트 등 홍콩을 통한 제 3국수출의 급격한 증대, ③ 코오롱 등 원사공장이 지역 내에 입지함에 따른 원료의 원활한 공급 등이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表 5-26〉은 경북지역의 수출을 포함하는 大邱稅關統計에 의거한 지역섬유수출의 품목별 비중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역시 1971년 전체지역 섬유수출의 46.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홀치기직물과 의류 및 양말수출의 비중이 점차 감소한 반면 織物類의 輸出이 1971년 22.0%에서 1980년 82.9%로 크게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패턴의 변화는 상술한 대

구시만의 경우와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직물류의 수출은 직수출보다는 수출상의 하청을 받아 생산하여 수출하는 間接輸出이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품인 의류·홀치기 등의 수출비중이 줄어들고 있어 지역섬유산업의 수출구조상의 문제점이 이 시기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表 5-26〉 輸出主導成長期 大邱慶北地域 纖維輸出의 品目別 構造 (단위: %)

年度	홀 치 기	織 物	衣 類	絲 類	양 말
1971	46.3	22.0	19.5	9.8	2.4
1973	25.2	58.0	9.8	4.9	2.1
1976	33.9	56.6	6.1	2.5	0.9
1978	18.4	72.5	3.4	3.3	2.4
1980	9.1	82.9	2.0	4.5	1.5

資料: 大邱稅關輸出課 및 大邱銀行《大邱經濟分析》각 연호

한편 동 기간 중 ‘地域의 輸入構造’ 역시 따로 통계되어 있지 못하여 부득이 大邱稅關統計를 통하여 그 일단을 추정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동 기간 중 대구의 공업구조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못하였음에 비하여 구미공업단지 및 포항제철을 비롯한 철강연관단지가 경북지역에 입지함으로써 이러한 변화가 대구·경북지역의 통관수입구조에 반영되고 있어 大邱市만의 輸入構造變化를 추정함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 두고 대구·경북지역의 품목별 수입구조를 살펴보면 1970년대 지역경제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특기할 몇가지 사항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선 1970년의 경우 기계류(29.0%), 섬유(25.3%), 원면(15.0%), 원모(8.0%), 화공약품(7.4%)의 순이었으나, 수 차례에 걸친 포항제철의 확장공사로 조강생산능력이 급격히 증대되고 구미공업단지의 조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철강석, 유연탄, 전자부품 등의 수입이 증대되어, 1980년의 경우 기계류(34.0%), 유연탄(14.6%), 철광석(9.5%), 원면(7.2%), 철강재(7.0%), 화공약품(6.7%), 전자부품(5.3%), 섬유(2.4%), 원모(1.7%)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 기간 중 수입실적면에서 줄곧 수위를 차지한 것은 機械類인데 기계류의 수입비중이 이같이 높게 나타난 것은 섬유업계의 시설투자가 꾸준히 늘어난데다 포항제철확장공사 및 월성원자력발전소건설에 소요된 기자재의 도입을 주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가 완료된 1981년의 경우 기계류 수입의 비중이 크게 줄었다.

셋째, 포항제철의 확장으로 제철용 원료인 철광석과 유연탄의 수입이 크게 증대된 반면

1972년~73년 동안 총수입의 18~19% 선에 이르렀던 철강재의 경우 70년대 중반 이후 철강재의 자급도가 높아짐에 따라 그 비중이 급격히 떨어졌다. 또한 구미공업단지의 전자제품 생산증대 및 수출증대로 인하여 70년대 후반 이후 전자부품의 비중이 증대되었다.

〈表 5-27〉 1970년대 大邱慶北地域 輸入의 品目別構造 (단위: 千달러, %)

	1970	1975	1980	1981
섬 유	8,638(25.3)	18,538 (3.9)	40,614 (2.4)	59,873 (3.2)
원 면	5,132(15.0)	15,022 (3.1)	122,651 (7.2)	128,916 (6.8)
원 모	2,718 (8.0)	10,598 (2.2)	28,223 (1.7)	23,983 (1.5)
화 공 약 품	2,538 (7.4)	43,508 (9.1)	114,077 (6.7)	261,106(13.8)
기 계 류	9,907(29.0)	231,818(43.3)	574,644(34.0)	252,365(13.3)
철 강 재	— (—)	24,785 (5.2)	118,839 (7.0)	86,186 (4.5)
전 자 부 품	— (—)	— (—)	98,763 (5.3)	142,568 (7.5)
옥 수 수	586 (1.7)	9,184 (1.9)	— (—)	— (—)
유 연 탄	— (—)	— (—)	247,390(14.6)	409,363(21.6)
철 광 석	— (—)	— (—)	160,998 (9.4)	221,625(11.7)
기 타	4,680(13.7)	126,033(26.3)	199,799(11.0)	304,166(16.0)
計	34,209(100)	479,506(100)	1,694,708(100)	1,895,151(100)

註: ( )속은 比重임.

資料: 大邱稅關 輸入課

## 2) 地域別 構造

1970년대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를 보면, 1970년대 초반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나치게 편중된 지역구조를 보였음에 대하여, 1970년대에 들어와 이들에 대한 편중도가 점차 완화되면서 특히 유럽 및 중동에 대한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 輸出市場의 多邊化가 상당히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970년의 경우 일본과 미국에 대한 편중도가 대구시 통계상 71.6%, 대구세관 통계상 77.2%에 이르렀으나 1975년의 경우 대구시 통계상 48.9%, 대구세관통계상 52.5% 수준으로 낮아졌고 1980년의 경우 대구세관통계상 43.0%까지 낮아졌다. 반면 동남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계속 증대되었고 특히 유럽과 중동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은 급격히 증대되어 1980년 대구세관통계상 22.7%까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같이 수출지역의 다변화를 이룩하게 된 것은 일본에 대한 수출이 둔화됨과 동시에 섬유류 등이 타지역으로 輸出先을 전환시킨데도 원인이 있으나 철강·전자제품 등의 품목이 미국·

동남아시아시장으로 새로이 진출하였고 석유파동 이후 중동지역의 수요가 증대된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섬유류를 비롯한 알미늄·전자 등 경공업제품 등이 여전히 일본중심시장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보다 적극적인 해외시장개척 및 시장다변화의 노력이 요청되었고 또한 동남아·아프리카 등 개도국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이들 지역에 대한 시장확대가 절실한 과제로 부각된 시기였다.

〈表 5-28〉 1970년대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 (단위: %)

		일본	미국	캐나다	동남아	홍콩	유럽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	기타
대구시 통 계	1970	38.7	32.9	2.6	11.1	7.6	3.5	0.1	1.5	0.5	4.1
	1972	31.8	22.2	1.7	15.5	14.0	4.5	0.9	2.5	0.1	8.5
	1975	36.8	12.1	0.3	14.2	10.2	10.6	6.3	3.2	0.1	6.5
대구 세 관 통 계	1970	61.5	15.7	1.6	6.4	5.6	6.5	0.6	1.7	0.2	1.8
	1975	35.8	16.7	2.3	12.6	4.7	13.1	7.5	3.8	1.0	4.4
	1980	23.4	19.6	2.2	10.1	6.0	11.1	10.6	2.1	1.7	7.7

註: (1) 캐나다의 대구시통계는 캐나다를 포함한 미주지역의 통계임 (2) 동남아 실적에는 홍콩이 제외되어 있음  
(3) 대구세관통계는 구미 포항을 포함한 것임.

資料: 大邱市商政課, 大邱稅關

한편 1970년대 大邱地域輸入의 地域別 構造를 대구세관통관실적을 통하여 살펴보면 70년대 중반까지는 對日依存도가 두드러져 1975년의 경우 64.4%에까지 이르렀으나 70년대 중반이후 그 상대적 비중이 떨어졌으며 유럽지역의 비중도 현저히 저하되었다. 반면 미국로부터의 수입비중은 꾸준히 증대되었고 기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비중 역시 급격히 증대되었다.

지역수입의 일본의존도가 감소된 것은 1970년대 중반까지 대구를 중심으로하는 섬유직기 및 포항제철의 시설확장에 따른 시설재의 도입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다가 197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수입수요가 줄어든데다, 경북지역의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여타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대하였기 때문이다. 즉, 1970년대 후반 其他地域의 輸入比重이 늘어난 것은 포항 제철 가동 이후 호주, 인도, 페루 등으로부터의 철광석과 유연탄수입이 대폭 늘어난데다 캐나다로부터 월성원자력발전소건설에 따른 시설재의 수입증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表 5-29〉 1970년대 大邱·慶北輸入의 地域別 構造 (단위: %)

年度	일본	미국	유럽	기타
1971	34.4	6.6	53.3	5.7
1975	64.4	16.5	12.4	6.7
1978	96.3	11.4	22.8	19.5
1980	37.7	14.0	14.8	33.4
1981	29.3	16.2	5.5	49.0

資料: 大邱稅關

## 第5節 直轄市昇格以後(1981~1991)의 大邱貿易

### I. 對外貿易의 一般的 環境

#### 1. 우리나라의 全體經濟 및 貿易 概況

韓國經濟는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1970년대의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전략과 외자에 의존한 중화학공업의 육성으로 야기된 構造的 問題點들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또한 1970년대 말 이후의 제2차 석유파동, 국제금리인상, 세계교역환경 악화 등 대외경제여건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대내적으로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자 실업증대, 물가상승, 국제수지적자확대, 외채위기 등과 같은 危機狀況이 나타났다.

이에 1980년 새로이 출범한 제 5공화국 정부는 이와 같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가 궁극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巨視經濟의 安定을 바탕으로 한 성장, 經濟自律化를 통한 효율증대, 경제개방을 통한 경쟁력 제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와 같은 정책방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1982년부터 시작된 第5次 經濟社會發展計劃(1982~1986)은 명칭부터 종래의 경제개발계획과는 차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면서 ① 양적인 성장우선으로부터 안정우선으로의 전환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려는 ‘安定化’, ②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 및 민간주도를 통한 ‘能率化’, ③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의 확대와 소득계층간·지역간 균형발전을 이룩하려는 ‘均衡化’를 기본이념으로 하여 1970년대의 고도성장에서 생긴 여러가지 부작용을 극복하면서 복지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그 基本的인 目標은 ① 안정기반의 정착과 능률향상, ② 국제수지의 건전한 관리, ③ 비교우위제고를 위한 산업구조로의 전환, ④ 국토의 균형개발과 환경의 보전, ⑤ 사회개발의 확대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대외적으로는 선진 각국의 경기침체, 신보호무역주의,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이 우리의 대외지향적 경제정책에 많은 제약을 가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과거의 성장위주정책이 빚어낸 경제적 왜곡현상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83년 12월 修正計劃을 확정하여 1984년부터 이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수정계획은 기본이념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중점목표의 내용을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으로 바꾼 것이었는데 그 구체적인 목표는, ① 물가의 안정, ② 국제수지의 획기적 개선, ③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체질의 강화, ④ 국토의 균형발전, ⑤ 사회개발이었다.

어쨌든 제5차 계획기간 중 우리경제는 이러한 경제발전계획의 추진에 힘입어 계획기간 중 9.8%라는 비교적 높은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였고 특히 강력한 안정화시책에 따른 物價安定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물가안정을 기반으로 대외경쟁력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의 國際收支가 흑자로 반전되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제가 호전되는 대내적 상황 속에서 시작된 第6次 經濟社會發展計劃(1987~1991)은 지금까지의 경제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① 經濟自律化 추진, ② 衡平和 福祉의 증진, ③ 올림픽개최 등을 계기로 한 經濟의 開放化와 國際化의 적극적 추진을 주요한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제6차 계획기간 중 초기에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성장력을 상회하는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였고 대외적으로는 달러화약세·저유가·저금리에 의한 이른바 3低現象에 의한 대외 여건의 호조로 1986년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한 후 국제수지 흑자폭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적 성과가 뚜렷하였다. 그러나 民主化 自律化 開放化 과정에서 노사분규라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치루었고 민간소비, 건설투자 등에 의한 내수확대와 그동안의 높은 임금상승 등 누적된 요인으로 인하여 계획기간 후반기부터는 다소 높은 물가상승과 국제수지적자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같이 1970년대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 자력성장의 기반조성, 농어촌 개발 등이 정책기조였음에 비하여, 1980년대는 인플레이션등 1970년대에 파생된 문제점들을 치유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따라서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하는 經濟安定을 보다 중시하였고 정부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自律과 競爭을 촉진하는 동시에 그동안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국민복지 및 형평을 증진시키며 산업조직의 비효율과 독과점적 폐해를

축소하기 위한 經濟의 國際化와 開放化가 급속히 촉진되었다.

이러한 전체적 흐름을 전제로 제5·6차 발전계획이 추진된 1982년부터 1991년까지의 기간 중 우리나라의 全體經濟 및 對外貿易의 概況을 몇가지 지표를 통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5차 기간(1982~1986) 중 우리경제는 연평균 9.8%의 經濟成長率을 기록하였고 제6차 기간(1987~1991) 중 이른바 3저현상에 의해 87~88년의 경우 12.8%와 12.2%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이후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낮아지고 내수위주의 성장이 이루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낮아져 기간 중 연평균 9.9%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따라서 전체기간 중 1인당 GNP는 1982년 1,773달러에서 1990년 5,659달러로 5,000달러를 넘어 1991년 6,498달러에 이르러 약 3.7배의 성장을 보였다.

둘째, 1980년대 전반의 강력한 안정화시책으로 物價安定基調가 유지되어 종래 20~30% 수준에 달하던 인플레이가 진정되고 제5차 기간 중 소비자물가는 연평균 2.7%, 도매물가는 연평균 0.2%의 상승에 그쳤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초과수요와 임금 상승으로 제6차 기간 중에는 소비자물가 7.5%, 도매물가 3.3%수준의 다소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80년대 전반의 이러한 물가안정에 힘입어 1986년 46억달러의 흑자를 보인 國際收支(경상수지 기준)는 1987년 99억달러, 1988년 142억달러의 흑자증대로 이어졌으나 이후 이러한 흑자기조를 정착시키지 못하고 1989년 흑자규모가 50억달러 수준으로 감소된 후 적자로 반전되어 그 적자폭이 -22억달러, -88억달러 수준으로 다시 높아졌다.

셋째, 동 기간 중 產業構造의 變化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중을 통하여 살펴보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16.7%에서 8.1%로 계속 낮아진 반면 광공업의 비중은 1982년 30.0%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높아지다가 1990년 이후 다시 낮아져 1991년 27.9% 수준에 머물렀고,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산업은 53.3%에서 1991년 64% 수준까지 계속 높아져 1980년대 후반이후 經濟의 서비스化가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제조업의 경공업 비중(48.8% × 35.1%)은 계속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51.2% → 64.9%)은 계속 높아져 제조업 내의 產業構造高度化가 계속 진전되었다.

넷째, 동 기간 중 輸出은 1982년 218억 5천만달러에서 1991년 718억 7천만달러 수준에 이르러 약 3.3배 증가하였고 동기간 중 연평균 13.0%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증가율은 60년대의 증가율(19.5배, 38.8%)은 말할 것도 없고 70년대의 증가율(13.1배, 36.8%)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서 수출규모의 확대에 따라 어느 정도의 증가율 둔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수출이 크게 정체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전체수출품 중 공산품의 비중은 1982년 93.7%에서 계속 높아져 95%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공산품수출 중 경공업제품의 비중(46.5% → 40.5%)은 계속 낮아진 반면 중화학제품의 비중은 (53.5% → 59.5%)로 계속 높아져 輸出構造의 高度化는 계속되고 있다.

다섯째, 동 기간 중 輸入增加率을 보면 제 5차 계획기간의 경우 1982년 수입액이 전년보다 감소(-7.2%)한 것을 비롯하여 수입증가율이 매우 낮아 연평균 4.1%의 증가율을 보였고 제6차 계획기간의 경우 연평균 21.0%의 증가율을 보여 전기간 동안 연평균 12.6%를 기록하였다. 이같이 수입증가율이 1980년대 중반과 후반의 경우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 국제수지가 1980년대 중반 큰 흑자를 보이다가 1990년 이후 적자로 반전된 한 측면이 원인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여섯째, 이러한 수출입의 변동으로 世界貿易에 대한 韓國貿易의 比重을 보면, 輸出의 경우 1.26%에서 2.00%로, 輸入의 경우 1.34%에서 2.09%로 높아져 전체무역규모의 경우 1.30%에서 2.05%로 높아졌다.

## 2. 對外貿易政策의 基調

1970년대 후반의 대외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정부는 상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발전전략의 수립과 함께 경제정책의 안정기조로 전환하였고 이에 따라 1980년대 貿易政策基調 역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런데 1980년대 전체의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기조변화를 보면, 1980년대 중반까지는 수출의 지속적 확대와 國際收支의 均衡을 달성하기 위한 시책이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반면 1986년 이후부터는 급격히 증대된 국제수지의 흑자를 바탕으로 한 經濟의 開放化와 國際化가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 무역정책의 주요한 내용 역시 ① 대외무역관리제도의 개선, ② 수출지원제도의 변화, ③ 통상협력의 확대, ④ 수입자유화의 확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우선 對外貿易管理制度의 改善이라는 측면에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후반에는 輸出入節次簡素化措置가 매년 연례시책처럼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것은 동 기간 중 대외적으로 국제무역환경이 급격히 변동되고 대내적으로 산업구조 고도화가 급격히 추진되었으며 무역규모도 현저히 증가되는 등 貿易環境이 급격히 변동됨에 따라 절차간소화조치를 통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동시에, 국내외적인 여건변화로 더이상 직접적인 수출지원이나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가 어려웠으므로 절차의 간소화를 통하여 수출 지원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이러한 무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1980, 1981, 1982년 무역거래시행령과 무역관리 규정의 개정을 행하였지만 무역관계법이 새로이 정비된 것은 1986년 12월 제정되어 1987년 7월부터 시행된 對外貿易法의 제정이었다. 1967년 제정된 종래의 貿易去來法은 그동안 몇차례의 부분적 개정이 있기는 하였지만 근본적으로 1980년대에 들어와 나타나게 된 수출입규모의 확대, 수출입거래방식의 다양화, 국제무역환경의 변동과 같은 제변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으로 하여 새로운 법체계로서의 對外貿易法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셋째, 이러한 대외무역법의 제정에 따라 輸入物品管理制度도 종전 무역거래법 하에서 수출입기별공고와 특별법 등에 따라 시행되는 체제로부터, 輸出入公告와 統合公告의 2원체제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종전의 수입물품관리제도는 수출입기별 공고에서나 특별법마다 품목별 분류체계, 수입제한내용 등이 각각 달라서 수입제한 범위가 명확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비효율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무역관련 제도의 개선책으로서 수출검사제도와 수출보험제도가 개선되었다. 輸出檢查制度의 개선책으로는 수출검사의 차등제, 자체검사허가취소요건의 강화, 수출검사면제 품목의 확대 등이 실시되었고, 輸出保險制度의 개선책으로는 부모대상의 확대, 수출어음보험, 상사별임의포괄보험제도의 도입, 보험종목의 확대 등이 실시되었다.

한편 정부는 무역관리제도의 개선과 병행하여 外換管理면에서 1990년 3월 2일부터 종래 10여년 동안 시행되어 온 복수통화 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환율이 외환시장수급에 따라 결정되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 제한되는 市場平均換率制度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환율제도를 새로이 도입한 것은, ① 외환시장의 활성화를 이룩하여 환율이 실세를 반영케 하고, ② 이에 따라 수출업체의 장기적 체질개선을 도모하며, ③ 환율조작국이라는 오명을 불식시킴으로써 대외통상압력을 완화시키고, ④ 앞으로 있게 될 완전한 자유변동환율제도로의 이행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

1980년대의 「輸出支援制度」의 내용을 보면, 종전에 주축이 되어 왔던 직접적인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산업정책 및 기타의 간접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출지원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해 온 輸出支援金融制度를 보면, ① 수출금융 우대제도의 축소 및 폐지, ② 중장기연불수출 지원금융의 강화, ③ 지원체제의 개편 등이 이루어졌다. 우선 금리정책면에서 수출지원금융의 금리우대조치가 점차 배제되었고 그 대신 중장기연불수출지

원이 강화되어 자금과 융자한도 등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1986년 이후 3저현상과 국제수지 흑자전환으로 해외부문의 통화증발이 이루어져 인플레이압력을 가중시키자 해외부문 통화환수조치를 실시하게 됨으로써 무역금융규정이 개정되어 융자단가의 인하, 완제품구매 자금의 폐지, 융자한도의 축소 등의 조치가 계속되었다.

둘째, 수출기업에 대한 租稅支援制度는 조세감면제도, 준비금제도, 특별상각제도가 있고 관세상의 지원제도로는 관세환급제도, 관세감면제도, 관세분할납부지원제도, 탄력관세제도, 관세장수유예제도 등이 계속되었으나, 그 지원규모는 무역금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고 그마저 1980년대 이후 계속 축소되었다.

셋째, 이같이 1980년대에 들어와 직접적인 금융·세제면의 수출지원제도가 축소 내지 폐지되는 변화가 이루어진 반면 産業的인 支援政策은 더욱 확대되었다. 이러한 내용 중 전술한대로 1970년대 말 산업설비수출촉진법의 제정에 따른 중공업제품의 수출촉진이 추진되었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분업체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업구조조정이 1986년 工業發展法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사양산업 등 비교열위산업을 정리하고 첨단산업 등 비교우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넷째, 수출의 지속적인 증대에 필수불가결한 輸出基盤의 底邊擴大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중견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육성이 도모되었다. 1984년 수출신장의 잠재력이 높은 1,000개 중소기업을 발표하여 1987년까지 천만달러대의 수출업체로 육성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실천되었고, 중소수출기업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한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의 제정을 통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경영·기술상의 지도, 정보·행정상의 지원 등 제반시책이 추진되었다.

다섯째, 이러한 노력과 함께, 1980년대 이후 ① 수출산업의 國際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한 제반정책이 광범위하게 실시되었고, ② 수출산업의 공급능력확대를 통하여 국제시장에서 수출공급우위 확보를 위한 輸出供給能力擴大策이 모색되었으며, ③ 輸出品의 質的 革新을 이룩하기 위한 제정책들이 추진됨으로써 先進的인 輸出基盤의 造成을 위한 노력들이 수행되었다.

또한, 1980년대는 1970년대 말 이후 세계적으로 만연된 新保護主義, 1980년대 중반 우리나라의 흑자기조, 1980년대 후반의 세계적인 다자주의·지역주의 경향에 따른 무역환경의 변화 등에 의하여 특별히 통상마찰이 심화되고 이에 따른 통상외교적 노력이 중요하였던 시기였다.

이같은 通商外交活動의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80년대 전반의 경우 세계적으로 만연되었던 신보호주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通商外交政策이 1970년대 후반에 이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선진제국의 對韓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통상외교활동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民間經濟協力으로서 민간경제협력위원회·민간경제사절단의 파견·국제박람회 및 국제상품전시회의 참가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둘째, 1986년부터 대미흑자가 지속적으로 누적됨에 따른 對美通商摩擦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이 실시되었고 또한 이에 따른 國內市場開放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셋째, 1986년부터 우리의 국제수지가 대폭 개선되자 정부는 1988년 IMF 8條國으로, 1989년 GATT 11條國으로 각각 이행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위상에 상응하는 외환거래 및 무역자유화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의사결정을 국제사회에 천명하였다. 또한 1986년 5월에는 세계통상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우루과이라운드(UR)개최의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며 이후 1986년 9월부터 개최된 GATT의 제8차 다차간무역협상인 우루과이라운드(UR)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선진국의 신보호주의로 직접적인 수입규제조치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GATT 밖의 정책수단, 즉 수출자율규제 시장질서협정 등 차별적인 무역정책들이 확대되고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제재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주요통상국과의 통상장관회담, 통상실무회담 등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민간합동으로 구성된 통상외교 활동도 크게 확대시켰다.

넷째, 또한 1980년대 후반에는 사회주의제국의 경제개혁과 대외개방조치로 인하여 이들 국가와의 경제협력이 강화됨으로써 이른바 北方經濟交流擴大가 이루어짐으로써 통상외교활동의 다각화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이상과 같은 대외통상협력과 더불어 이러한 통상마찰을 극소화하기 위한 對外的 政策手段들이 강화되었다. 우선 그동안 통상마찰을 더욱 크게 만든 지역별 무역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수입선전환을 포함한 대미무역 흑자축소를 위한 地域別 貿易均衡化를 추진하였고, 선진제국의 수입규제조치에 적절히 대처하는 동시에 국내기업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비효율을 극소화하기 위한 公定貿易體制 및 輸出秩序維持를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강구해왔다.

한편 1978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던 輸入自由化措置는 1980년대 초반 후퇴를 면치 못하였으나 그 후 석유파동이 진정되고 국내경제가 호전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1984년에는 1988년까지의 輸入自由化計劃이 확정되었고 이러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입자유화품목예시제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수입자유화를 포함하여 經濟의 開放化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큰 규모의 국제수지 흑자가 실현된 1986년 이후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輸入自由化와 관련된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84년부터 1985년에 작성된 1986~88년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른 輸入自由化가 대폭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① 불요불급품 및 사치성품목을 제외한 전공산품의 수입자유화, ② 농산물 중 일부 품목의 조기개방, ③ 특별법에 의한 수입제한의 축소 등의 조치였다. 이후 1988년에는 외국과의 통상마찰의 요인이 되었던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수입다변화품목이 축소되었으며 수입감시제도의 폐지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입자유화의 급속한 추진으로 인하여 1981년 74.7%였던 輸入自由化率이 1986년 91.5%가 되었고 1989년 95.5%로 95%를 넘어 선 후 1991년에는 97.2%로 상승하였다.

한편 이러한 수입자유화조치에 따른 피해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수입대체를 위한 목적으로 1978년 제도화된 輸入先多邊化制度를 1987년부터는 수입대체 외에 특정지역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선전환에 중점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1987년부터는 産業被害救濟制度를 도입하였다. 이 제도는 輸入自由化조치에 의하여 특정한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한 범위내에서 수입을 조정함으로써 국내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 3. 大邱地域의 貿易環境

1980년대에 들어와 1981년 7월 1일 대구시의 법적 지위가 종전의 보통시에서 直轄市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직할시의 승격에 따라 공산·성서·월배·칠곡·안심·고산이 시역에 편입됨으로써 <表 5-30>이 보여주는 대로 인구 17만여명, 면적 277km<sup>2</sup>, 제조업체수 746개, 수출액 9,142만달러, 지방세 17억 8600만원이 추가되어짐으로써 외연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이같이 직할시의 승격이 가져오는 외연적 팽창도 큰 의미를 가지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은, 그동안 160만명이 넘는 도시인구를 가진 대도시이면서도 불합리한 법적 지위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활동에 비능률과 비효율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도시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될 수 밖에 없었던 제도적 굴레에서 벗어남으로써 산업,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자생적인 발전의 기틀을 확보했다는 점일 것이다.<sup>10)</sup>

직할시 승격 이전까지 대구시는 경북도 전체를 포괄하는 광역대구경제권에서 세입면에서는 주원천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였으나 세출면에서는 제 몫을 배당받지 못하는 누출지이어서 도시발전이 낙후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직할시 승격 이후 3년만에 나타난 市勢의

10)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覽》, 1978, p. 141.

擴張을 나타낸 〈表 5-31〉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表 5-30〉 直轄市 승격에 따른 편입지역의 현황(1988)

구 분	단 위	공산	성서	월배	칠곡	안심	고산	계
인 구	천 명	10,729	32,595	41,240	32,595	38,090	18,704	170,592
면 적	km <sup>2</sup>	92.5	24.6	32.0	47.	41.9	37.9	276.96
제조업체수	개	5	212	254	96	106	71	746
수 출 액	千달러	4,441	24,160	51,929	11,089	—	—	91,419
지 방 세	백만원	40	487	508	183	374	194	1,786

資料：大邱銀行, 《大邱地域經濟分析》(1981. 5~6), p. 58.

〈表 5-31〉 直轄市 승격 이후 大邱市勢의 成長(1981~1984)

구 분	단 위	1981	1984	變 化
인구(경제인구)	천명	1,838(582)	2,012(662)	174(40) 증가
면 적	km <sup>2</sup>	179.72	455.03	2.5배 증가
재 정	억원	1,104	2,695	2.5배 증가
기업체(중업원)	개(명)	3,151(117)	3,606(148)	455(31) 증가
수 출	백만달러	970	1,115	1.5% 증가

資料：大邱市, 《1985年度 業務計劃》 p. 5 및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鑑》, 1985, p. 142.

이같이 1981년 직할시의 승격으로 대구경제의 양적·질적 변화가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직할시 승격 이후의 大邱經濟의 變化를 전체경제력, 산업구조, 제조업의 생산력 및 구조라는 점에서 관찰해보면, 총량지표면에서 규모의 확대, 구조의 고도화, 경제의 국제화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으나 全體國民經濟에서 차지하는 대구경제의 相對的 位相이라는 관점에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 1970년대의 絶對的 成長과 相對的 萎縮이라는 특성이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면을 나타내 주고 있다. 대구경제의 이러한 측면을 地域經濟의 變化라는 측면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地域總生産의 成長率을 보면 1982~86년간 평균 14.6%, 1986~91년간 8.4%를 나타내어 직할시 승격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나타내었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다. 따라서 1986년까지는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GNP성장률을 크게 초과하였으나 1987년 이후 지역경제의 성장률이 오히려 GNP성장률에 미달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로 인하여 지역총생산의 GNP에 대한 比重을 보면, 1980년대 초반의 경우 4.5% 내외를 유지하여 1970년대 후반의 경우보다 높아졌으나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 4.2~4.3%

내외의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러한 비중저하는 대구시인구의 대전국비중이 80년대에 4.8%, 5.0%, 5.1% 수준으로 높아진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대구의 경제력이 규모면에서 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1人當 地域生産의 추이를 보면, 1981년 1,547달러에서 1991년 5,201달러 수준으로 3.36배 증대되었지만 동 기간 중 1인당 GNP의 3.57배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액도 여전히 1인당 GNP수준에 미달되고 있다.

〈表 5-32〉 直轄市 昇格이후(1981~1991)의 大邱經濟力 (단위: 10억원, 달러, %)

年度	지역 총생산	(대GNP 비중)	지역경제 성장률	(GNP) 성장률	1인당 지역생산	(1인당 GNP)	인구의 대전국비중
1981	1,937	(3.6)	—	(—)	1,547	(1,739)	4.7
1982	2,397	(4.6)	23.7	(5.4)	1,721	(1,825)	4.8
1983	2,712	(4.4)	13.2	(11.9)	1,784	(2,002)	4.9
1984	3,121	(4.5)	15.1	(8.4)	1,924	(2,199)	5.0
1985	3,484	(4.5)	11.6	(5.4)	1,971	(2,199)	5.0
1986	3,809	(4.2)	9.3	(12.5)	2,065	(2,503)	5.1
1982~86	3,104	(4.2)	14.6	(9.8)	1,894	(2,137)	5.0
1987	4,488	(4.2)	12.5	(12.8)	2,539	(3,098)	5.1
1988	5,345	(4.3)	9.3	(12.2)	3,417	(4,040)	5.1
1989	5,930	(4.2)	3.6	(6.8)	4,068	(4,994)	5.1
1990	7,008	(4.0)	11.9	(9.3)	4,498	(5,659)	5.1
1991	8,490	(4.1)	4.7	(8.4)	5,201	(6,498)	5.1
1987~91	6,236	(4.2)	8.4	(9.9)	3,944	(4,857)	5.1

註: (1) 地域總生産은 1986년 이전은 市民總生産(GRP)이고, 1987년 이후는 市内總生産임.

(2) 1982~86, 1987~91의 통계는 平均値임.

資料: 大邱銀行《大邱地域經濟分析》, 1987. 1~2, 韓國銀行《經濟統計年報》, 1986.

및 統計廳《1985~1991年度 道內總生産推計結果》, 1993. 5, p. 37 등에 의거하여 작성함.

한편 직할시 승격 이후 大邱의 産業構造 및 工業構造를 보면, 여전히 제1차산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제2차·3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공업에 있어서도 경공업의 비중이 감소하는 대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업의 대전국 비중이 계속 저하하는 등 地域生産力의 相對的 停滯를 보여주고 있다. 주요한 변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직할시 승격 이후 대구의 産業構造變化를 보면, 1981년의 경우 대구주변지역의 편

입으로 인하여 제1차산업의 비중이 1980년의 경우에 비하여 상당히 높아졌으나 이후의 도시화로 인하여 제1차산업의 비중이 계속 저하되고 제2차산업은 정체되는 반면 제3차산업은 계속 증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를 1981년과 1991년의 단순한 비교를 통하여 보면, 生産額面에서 제1차산업 1.5% → 0.6%, 제2차산업 36.1% → 33.2%, 제3차산업 62.4% → 67.2%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表 5-33> 참조) 특기할 사항은 제2차산업의 경우 취업인구면에서는 그 비중이 약간 증대되었으나 생산액면에서는 오히려 그 비중이 약간 감소하고 있어 제2차산업의 질적 고도화가 별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직할시 승격 이후 大邱工業의 構造를 보면, 경공업 비중이 업체수면에서 67.5% → 54.9%, 부가가치면에서 79.2% → 61.0%, 종업원수면에서 75.5% → 61.9%로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업체수면에서 32.5% → 45.1%, 부가가치면에서 20.8% → 39.0%, 종업원수면에서 24.5% → 38.1%로 높아져 工業構造의 高度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表 5-34> 참조) 그러나 이러한 지역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은 우리나라 전체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과 비교하면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輕工業爲主의 구조를 탈피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大邱工業의 對全國比重을 보면, 사업체수, 종업원수, 부가가치면에서 모두 그 비중이 점차 떨어지고 있어 대구지역의 공업력이 상대적으로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表 5-35> 참조)

이상과 같은 제변화를 통하여 첨언할 사항은, 대구지역의 경제구조가 여전히 높은 經濟의 서비스化 傾向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화의 내용 역시 지역경제의 효율성 및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향으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1990년대 이후 纖維産業의 比重이 70년대의 경우보다 계속 낮아져 산업구조의 다양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변화를 보면 종업원수면에서 63.7% → 51.7%로 낮아진 반면 부가가치면에서는 51.7% → 44.0%로 낮아지고 있어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도화가 진전되지 못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점이다.

〈表 5-33〉 大邱의 産業構造變化(1981~1991) (단위: %)

年度	生 産 額 別			就 業 人 口 別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981	1.5	36.1	62.4	5.1	31.9	63.0
1983				3.9	34.2	61.9
1985	1.2	35.5	63.3	4.3	32.7	63.0
1987	1.1	37.7	61.2	3.0	36.0	61.0
1989	0.9	37.9	61.2	3.3	33.7	63.0
1991	0.6	33.2	67.2	1.6	33.8	64.4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

〈表 5-34〉 大邱의 工業構造變化(1981~1991) (단위: %)

年度		業 體 數		附 加 價 值		從 業 員 數	
		경공업(섬유)	중화학공업	경공업(섬유)	중화학공업	경공업(섬유)	중화학공업
大 邱	1983	67.5(48.0)	32.5	79.2(51.7)	20.8	77.5(63.7)	24.5
	1985	65.8(47.6)	34.2	76.2(54.9)	23.8	71.7(60.8)	28.3
	1987	63.8(47.1)	36.2	71.8(52.9)	28.2	68.8(58.7)	31.2
	1989	59.7(44.1)	40.3	67.3(46.1)	21.7	66.0(54.9)	34.0
	1991	54.9(41.9)	45.1	61.0(44.0)	39.0	61.9(51.7)	38.1
全 國	1983	61.7	38.3	57.6	42.4	63.0	37.0
	1985	60.4	39.6	55.0	45.0	56.5	43.5
	1987	58.2	41.8	51.4	48.6	53.5	45.5
	1989	56.1	43.9	49.1	50.9	52.0	48.0
	1991	50.2	49.8	55.3	44.7	47.9	52.1

註: 섬유산업은 섬유·의복·피혁업을 포함한 것임.

資料: 經濟企劃院 및 統計廳, 《鎭工業統計調查報告書》, 각 연호

〈表 5-35〉 大邱工業의 對全國比重 (단위: %)

구 분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사업체수	9.4	8.8	8.1	8.0	7.1	6.9
종업원수	7.0	6.9	6.3	6.1	5.7	5.5
부가가치	4.8	4.5	4.3	4.2	4.0	3.7

資料: 〈表 5-34〉와 동일

이상에서의 논의는 80년대 이후 대구경제의 총생산, 산업구조, 공업구조의 변화 등을 논의한 것이지만, 이와 관련하여 1980년대 이후 대구의 수출환경이 어떠한가를 논의할 경우 가장 중요한 문제는



地域企業 및 地域經濟가 얼마나 국제화를 이룩하였느냐라는 문제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大邱의 貿易環境을 볼 경우, 1981년의 직할시승격과 더불어 도시규모가 확대되고 행정·재정·경제적 기능이 강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국제화의 중요한 내용이 되어야 할 地域企業内部의 國際化나 都市의 國際化機能은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우선 <表 5-36>, <表 5-37>, <表 5-38>은 지금까지 이루어진 몇개의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지역 기업의 경우 기업내부의 국제화가 타지역(부산)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무역지원기능 역시 미흡하여 대부분의 수출제조업들이 域外事務所를 통하여 무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表 5-39>는 都市의 中樞管理機能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대구의 경우 여타의 기능과 마찬가지로 國際機能이 거의 없다시피함을 보여주고 있고, <表 5-40>는 地域金融의 國際化정도를 가늠하기 위하여 域내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취급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대구·경북지역의 경우 외국은행지점이 전무한 실정이고 수출입규모에 비하여 L/C내도액이 매우 낮은 뿐만 아니라 전국비중 역시 매우 낮아 금융기능의 국제화수준도 매우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表 5-36> 大邱地域의 貿易環境實態調査 結果 (단위: %)

企業의 貿易業務機能			都市의 貿易支援機能		
輸出方式	직수출+생산	21.1(31.9)	해외시장정보 입수처	국내거래업체 조합·협회 등	25.5(23.9) 24.1(25.6)
	직수출+로칼+생산	55.9(48.9)		무역관련정부기관	7.1(11.0)
	로칼+생산	18.4(11.5)		외국바이어	24.5(23.3)
	단순대행	2.0 (5.5)		해외출장·해외기관 기타	16.7(14.4) 2.0 (1.7)
輸入業務	직접담당	63.4(79.0)	무역지원기관 이용시 애로점	서비스인력부족	35.2(28.7)
	의뢰	15.7(14.0)		정보자료미비	35.2(30.9)
	없음	19.0 (7.0)		이용상의 어려움	9.4(24.3)
직접수출의 어려움	행외거래선확보	46.3(60.5)		지연처리	16.0(16.2)
	절차·인력문제	41.3(30.2)	서울지사 설치유무	기설치	60.1(41.9)
	부대비용문제	17.4 (9.3)		설치필요	16.2(16.9)
무역전문인력	충분확보	39.3(54.8)		불필요	23.6(41.3)
	확보부족	57.3(41.9)			
	확보못함	3.3 (3.2)			

註: ( ) 속은 釜山の 경우를 표시하고 있음.

資料: 對韓商工會議所, 《地方貿易環境實態와 活用方案》, 1989. 12에 의거 작성.

〈表 5-37〉 大邱·慶北地域의 甲類貿易業體 域外事務所 現況 (단위: %)

구 분	纖維類	기계류	철강금속	광학	전자	생필품	농수산물	플라스틱	기타	계
역외사무소(A)	125	22	16	3	12	11	11	9	18	227
무역업체수(B)	223	53	36	38	29	24	37	35	72	542
A/B (%)	56.1	41.5	44.4	8.3	41.4	45.3	29.7	25.7	25.5	419

資料: 韓國貿易協會 大邱慶北支部, 1992.

〈表 5-38〉 서울所在 大邱業體에 대한 調查結果 (단위: %)

정보입수의 애로사항	기관의 부재	29.8	수출선회보의 주된 업무수행처	서울본사	17.5
	전달체제미흡	35.4		서울사무소	41.0
	정보교류부족	25.5		대구본사	33.1
	간행물입수불리	9.3		대구공장	2.4
정부입수의 주요경로	본사	22.4	수출외환업무 주된 수행처	별도수행	6.0
	정부기관	6.1		서울본사	16.9
	기관관련업체	29.1		서울사무소	8.8
	정기간행물	15.8		대구본사	62.5
	동종업체	25.5		대구공장	5.0
	매스컴	1.2		별도수행	6.9
본사서울 이전동기	무역기능강화	90.9	서울무역 사무소 설치동기	바이어접촉용이	93.5
	금융조달강화	68.2		수출입업무추진	90.7
	행정서비스강화	18.2		무역정보입수	79.6
	전문인력강화	27.3		외환거래편리	13.9
	정부구득강화	9.1		무역금융조달용이	9.3
	해외마케팅강화	54.5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서울所在 大邱緣故業體 移轉方案調查報告》, 1992.

〈表 5-39〉 中樞管理機能의 大都市間 分布(1990년) (단위: 전국=100%)

	中央行政機能	經濟機能	情報機能	國際機能
大 邱	0.0	3.0	0.9	0.4
서 울	100.0	76.1	93.6	72.7
釜 山	0.0	3.5	0.9	2.6
光 州	0.0	1.6	0.7	0.0

資料: 國土開發院, 《地方의 育成과 首都圈의 集中抑制》, 1991, p. 8.

〈表 5-40〉 大邱 慶北地域 金融機關의 外國換業務 取扱實績 推移 (단위: 백만달러, %)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輸出 (通關)	地 域	4,198 (12.1)	5,573 (11.8)	7,314 (12.1)	7,550 (12.1)	8,136 (12.5)	9,010 (12.5)
	全 國	34,715	47,281	60,696	63,377	65,016	71,870
L/C 來到	地 域	564 (2.2)	625 (1.8)	871 (2.0)	698 (1.5)	566 (1.2)	731 (1.5)
	全 國	23,359	47,281	42,787	45,534	47,520	50,005
輸入 (通過)	地 域	4,086 (12.9)	3,901 (9.5)	4,820 (9.3)	4,994 (8.1)	4,905 (7.0)	2,352 (2.9)
	全 國	31,584	41,020	51,811	61,465	69,844	81,525
I/L 發給	地 域	480 (1.7)	652 (1.7)	876 (1.8)	824 (1.5)	870 (1.3)	1,033 (1.4)
	全 國	28,197	38,055	48,200	56,479	68,781	75,257

註: ( )안은 對全國比重임.

資料: 大邱銀行調查部

## II. 對外貿易의 規模 및 構造

### 1. 全體規模 및 貿易收支의 推移

#### 1) 輸出의 規模 및 推移

직할시 승격 이후 1981년부터 1991년까지 大邱輸出은 9억 7천만달러 수준에서 24억 4천만달러 수준으로 약 2.5배 증가하였고 연평균 9.9%의 신장률을 보였다. 이러한 수출증가율은 1960년대 60.4%, 1970년대 26.8%의 연평균증가율에 비하여 크게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1970년대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전국의 수출증가율(13.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어 1980년대 大邱輸出力의 相對的 位相이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1970년대 이후 대구수출이 현저하게 둔화된 것은 1980년대 초 일련의 사채파동에 따른 금융긴축 등에도 단기적인 원인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구지역의 산업구조가 섬유편중·중소기업위주의 취약한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데다 주종산업인 섬유산업이 성장산업 및 수출주력산업으로서의 한계에 직면한 대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 발전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表 5-41〉 直轄市 昇格이후(1981~1991) 大邱의 輸出推移 (단위: 백만달러, %)

年度	全國輸出	大邱輸出	對全國比重	輸出業體數
1981	21,253.8 (—)	978.8(—)	4.6	250(7.3)
1982	21,853.4(2.8)	1,018.2(4.9)	4.7	265(6.3)
1983	24,455.1(11.9)	993.1(—2.5)	4.1	284(5.8)
1984	29,244.9(19.6)	1,128.6(13.6)	3.9	291(5.3)
1985	30,283.1(3.6)	1,117.5(—1.0)	3.7	299(4.3)
1986	34,714.5(14.6)	1,255.5(12.4)	3.6	275(2.9)
1987	47,280.9(36.2)	1,566.7(24.8)	3.3	552(3.8)
1988	60,696.4(28.4)	1,733.1(10.6)	2.9	512(3.0)
1989	62,377.2(2.8)	1,981.1(14.3)	3.2	899(4.7)
1990	65,015.7(4.2)	2,290.9(15.6)	3.5	1,052(4.1)
1991	71,870.1(10.5)	2,439.3(6.5)	3.4	1,279 (—)
1982~1986	161,794.8(10.5)	6,483.7(5.5)	4.0	—
1987~1991	370,240.3(16.4)	10,041.1(14.4)	3.3	—
1982~1991	469,035.1(13.5)	16,524.8(9.9)	3.5	—

註: (1)수출액 뒤의 ( )속은 증가율임.

(2) 수출업체수 뒤의 ( )속은 대전국수출업체수의 비중임.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 經濟企劃院, 《經濟統計年報》, 각 연호.  
大邱市, 《直轄市政 10年》, 1991, p. 596에 의거 작성.

또한 동 기간 중 輸出業體數를 보면(〈表 5-41〉, 〈表 5-42〉 참조), 1981년 250개 업체에서 1991년 1,274개 업체로 5.1배 늘어났고, 1991년의 경우 전체 1,274개 업체 중 잡류 무역업체가 529개, 을류 무역업체가 745개 업체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무역업체의 대전국비중을 보면 1981년 7.3%에서 1990년 4.1%로 오히려 저하되고 있어, 지역무역환경과 관련하여 전술하였듯이 도시의 중추적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다. 〈表 5-43〉은 1984년 이후 大邱의 10大 輸出業體의 現況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전부가 섬유업체로 나타나 섬유도시로서의 면모를 그대로 나타내 주고 있다.

〈表 5-42〉 大邱의 貿易業體 現況(1991)

형태별	업종별			
잡류 (529)	섬유 468(36.7)	철강금속 83(6.5)	전기전자 34(2.7)	
을류 (745)	기계류 176(13.6)	농수산물 163(12.8)	생활용품 71(5.6)	
계 (1274)	안경테 116(9.1)	기타 163(12.8)	계 1279(100)	

〈表 5-43〉 1980년대 大邱의 10大 輸出業體 現況 (순위임)

업 체 명	주 품 목	84	85	86	87	88	89	90	91
(주)갑	을 나 일 론	4	1	1	1	1	1	1	1
갑 을 방 적 면 직 물		—	3	3	3	3	2	2	2
성 안 섬 유 폴 리 에 스 텔		6	2	2	2	2	3	3	3
(주)쌍 용 대 구 지 점 잡		—	—	10	5	7	8	5	4
대 왕 물 산 조 겿 트		—	—	—	10	9	7	7	5
대 하 통 상 폴 리 에 스 텔		8	10	—	—	10	9	6	6
제 일 모 직 모 북 지		2	4	4	4	4	4	4	7
신 라 섬 유 폴 리 에 스 텔		—	9	—	—	—	—	10	8
협 성 농 산 식 품		—	—	—	—	8	10	9	9
(주)성 보 폴 리 에 스 텔		—	—	—	—	—	—	—	10
범 상 공 나 일 론		3	6	7	9	—	—	8	—
코 오 룡 나 일 론		5	5	5	6	6	6	—	—
남 선 물 산 건 직 화 섬		1	3	8	8	5	5	—	—
동 해 산 업 조 겿 트		—	—	9	7	—	—	—	—
한 일 합 섬 폴 리 에 스 텔		7	8	—	—	—	—	—	—
대 한 방 직 면 직 물		9	7	6	—	—	—	—	—
3대 업체수출의 대지역비중(%)		13.2	17.8	19.9	18.3	18.3	16.4	15.5	16.4
10대 업체수출의 대지역비중(%)		29.1	33.3	36.5	34.1	33.4	31.3	27.5	26.6

한편 〈表 5-44〉를 통하여 大邱輸出의 通關實績을 보면 1981년 11억4천만달러에서 1991년 38억9천8백만달러로 약 3.4배 증가하여 연평균 13.8% 증가하였다. 이러한 실적은 대구시가 집계한 輸出보다 높은 증가세일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면에서도 통관실적의 수출액이 집계된 수출액을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통관실적의 수출액이 집계된 수출액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는 대조된다. 이것은 대구의 수출이 대구세관을 통하여 통관되는 비중이 크게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대구주변 경북지역의 수출물량이 대구세관을 통하여 통관되고 있기 때문이다.

## 2) 輸入 및 貿易收支 推移

1970년대의 경우와는 달리 1981년부터는 포항·구미세관을 제외한 大邱稅關만의 統計가 가능하여 대구의 수입 및 무역수지를 추정하는 데는 다소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술한대로 본질적으로 지역의 수입통계 및 이를 바탕으로 한 무역수지통계는 그 성격상 정확한 의미를 지닐 수 없고 다만 환경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서 그 연도별 추세를 살펴보는 자료로

서의 제한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 두고 대구지역의 輸入 및 貿易收支推移를 〈表 5-44〉를 통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구지역의 통관수입실적을 보면, 1981년 5억 2,391만달러 수준에서 1991년 14억 1,969만 달러로 동 기간 중 약 2.7배 증가하여 연평균 13.1%로 통관수출의 연평균증가율 13.8%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까지는 통관수입의 증가율이 낮았으나 1980년대 후반 이후 그 증가율이 매우 높아져 수출증가율을 앞지르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것은 8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 국제수지의 흑자전환을 계기로 급속히 추진된 輸入自由化와 이와 병행된 관세율 인하조치에 편승된 수입증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지역통관수출의 對 전국비중이 동 기간 평균 5.1% 수준인데 비하여 지역통관수입의 대전국비중은 1.7% 수준에 머물러 전체 지역무역규모의 대전국비중은 3.6% 수준에 머물렀다.

이같은 추세 때문에 地域貿易收支推移를 보면 전국의 무역수지가 1986년부터 1989년까지 흑자였고 나머지 기간 동안 적자상태였음에 비하여 1980년대 이후 계속 흑자상태를 보였으며 그 규모도 급속히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1970년대 초반까지 지역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상태를 유지한 것과는 대조된다.

〈表 5-44〉 直轄市 昇格이후 (1981~1991) 大邱의 輸入 및 貿易收支 推移 (단위: 천달러, %)

年度	通關輸出	通關輸入	地域貿易收支	對 全 國 比 重		
				輸出	輸入	貿易規模
1981	1,142,195 (-)	523,909 (-)	618,286	5.5	2.0	3.7
1982	1,106,453(-3.1)	370,805(-29.2)	735,598	5.3	1.5	3.3
1983	1,222,136(10.9)	340,408(-8.2)	881,728	5.3	1.3	3.2
1984	1,235,276 (1.1)	434,059(27.5)	801,217	4.7	1.4	3.1
1985	1,256,061 (1.7)	369,789(-14.8)	886,272	4.8	1.2	3.1
1986	1,772,885(37.2)	548,620(48.4)	1,174,263	5.1	1.7	4.9
1987	2,340,955(35.9)	763,620(39.2)	1,577,335	5.1	1.9	3.7
1988	2,768,138(18.2)	851,960(11.6)	1,916,178	4.6	1.6	3.4
1989	3,066,467(10.8)	962,220(12.9)	2,104,247	5.0	1.6	3.8
1990	3,438,820(12.1)	1,102,277(14.6)	2,336,543	5.4	1.6	1.4
1991	3,898,540(13.4)	1,419,685(28.8)	2,478,855	5.4	1.7	3.5
1982~86	7,684,954(9.5)	2,587,590(4.7)	5,097,364	5.1	1.5	3.6
1987~91	15,512,920(18.1)	5,099,764(21.4)	10,413,158	5.1	1.8	3.7
1982~91	23,197,874(13.8)	7,687,352(13.1)	15,510,522	5.1	1.7	3.6

註: (1) 大邱本部稅關(포항, 구미 등 제외) 통관실적임.

(2) ( )속은 增加率임.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年報》, 1986 및 1993에 의거 작성.

## 2. 貿易構造의 推移

### 1) 品目別 構造

직할시 승격이후 大邱輸出의 品目別 構造를 보면, 공산품수출의 비중이 여전히 높을 뿐만 아니라 경공업제품 수출의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중화학공업제품 수출비중이 계속 높아져 輸出構造의 高度化가 실현되는 동시에, 전체지역 수출중에 차지하는 섬유수출의 비중이 계속 낮아지면서 기계류 등의 수출비중이 높아지고 있어 輸出構造의 多樣化도 어느정도 실현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경공업제품수출 및 섬유수출의 비중이 절대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수출구조상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지는 못하다.

우선 지역수출의 공산품비중 및 공산품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제품수출의 비중을 통하여 직할시 승격이후 大邱輸出의 基本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0년대 중반 이후 지역수출의 97~98%가 工產品으로 구성되는 기본적인 구조는 1980년대 이후에도 별로 변함이 없다. 또한 대구시라는 도시지역만의 수출이라는 성격상 전국 수출 중의 공산품비중 95%내외의 수준보다는 높은 수준에 놓여있다(〈表 5-45〉 참조).

둘째, 전체 공산품수출 중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을 보면 80년초 대체로 90 : 10의 수준에서 90년대에 들어와 대체로 80 : 20의 수준으로까지 변화되어 경공업비중은 감소한 대신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국공산품수출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1990년대초 대체로 40 : 60의 수준에 놓여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대구지역의 수출은 여전히 輕工業製品 위주의 輸出構造를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셋째, 〈表 5-45〉를 통하여 논의하였듯이 부가가치면에서 본 1991년 대구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체로 60 : 40의 비율인 점을 고려해 본다면 大邱工業의 輸出 내지 國際競爭力은 중화학공업보다는 경공업 쪽이 아직도 높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중화학공업이 가지는 속성상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국공업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대체로 35 : 65임에도 전국수출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율이 40 : 60임과 비교하면, 대구지역의 국제경쟁력이 여전히 경공업에 의존되어 있을 뿐 중화학공업은 제대로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表 5-45〉 直轄市 昇格이후 大邱輸出의 基本構造 (단위: %)

年度	全 國			大 邱		
	工產品	輕工業	重化學工業	工產品	輕工業	重化學工業
1982	92.9	45.1	53.5	98.1	89.7	10.3
1983	93.7	41.9	58.1	97.8	89.5	10.5
1984	94.9	40.2	59.8	98.2	89.4	10.6
1985	95.0	39.0	61.0	97.8	88.6	11.4
1986	95.3	44.2	55.8	97.2	87.7	12.3
1987	94.6	45.0	55.0	96.5	87.1	12.9
1988	94.4	41.5	58.5	95.1	84.9	15.1
1989	94.5	41.5	58.5	97.8	80.1	19.9
1990	94.9	40.2	59.5	97.6	80.3	18.7
1991	95.4	37.2	62.8	97.8	80.6	19.4

資料: 商工部統計 및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

다음으로 직할시 승격이후 ‘大邱輸出의 産業別 構造’를 지역수출에 대한 섬유·기계금속·화학 등의 산업별 비중과 이들 수출의 대전국비중 등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역수출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表 5-46〉 참조), 섬유산업의 경우 1980년대 초 83%내외의 수준에서 1989년 72.3%까지 떨어졌다가 1990년대 초 75%내외의 수준을 유지하여 전체적인 비중이 계속 하락한 반면,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1980년대 초 6~7% 수준에서 1990년대 초 14%내외의 수준으로까지 높아졌고, 나머지 화학산업과 기타 산업은 각각 4%, 7%내외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1980년대 이후 지역수출의 품목구조가 계속 다양화·고도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의 산업별 비중을 絶對的인 水準에서 본다면 여전히 섬유수출이 75% 수준에 머물고 있고 기계금속산업이 15%, 화학산업 6%, 기타 산업이 6% 수준에 머물러 있어 편중된 수출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는 못하다.

地域産業別 平均輸出增加率을 보면(〈表 5-47〉 참조),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섬유산업 9.1%, 기계금속산업 19.7%, 화학산업 9.4%로 섬유산업의 경우 전국섬유수출증가율(11.8)은 물론 지역전체수출증가율(9.9%)에도 미달되고 있는 반면,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지역전체수출증가율은 물론 전국기계금속산업 수출증가율(16.2%)도 초과하고 있고, 화학산업의 경우 역시 섬유와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성장률의 차이 때문에 지역산업별 수출의 對전국비중을 보면, 섬유산업의 경우 14.4% → 11.8%로 떨어졌고 화학산업의 경우 6.0% → 3.4%로 떨어진 반면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1.7% → 2.7%로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하여 대구수출의 품목별 구조를 살펴보면, 여타 산업의 수출증가가 현저하지도 못하면서 섬유수출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기계금속·화학 등의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섬유의 수출비중이 낮추어 졌다기 보다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 수출비중이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대구의 輸出構造는 여전히 섬유위주의 편중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주력수출산업인 섬유수출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대구전체의 輸出力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表 5-46〉 直轄市 昇格이후(1981~1991) 大邱輸出의 品目構造 (단위: 千달러, %)

年度	纖維産業		機械金屬産業		化學産業		其 他		全體輸出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1981	788,016	81.2	65,819	6.8	58,236	6.0	58,683	6.0	970,754	100
1982	858,324	84.3	63,526	6.2	39,052	3.8	57,300	5.6	1,018,202	100
1983	827,359	83.3	63,036	6.3	39,130	3.9	63,571	6.4	993,096	100
1984	942,987	83.6	78,513	7.0	38,343	3.4	68,785	6.1	1,128,623	100
1985	918,264	82.2	85,396	7.6	39,701	3.6	74,144	6.6	1,117,505	100
1986	999,289	80.9	94,402	7.6	58,152	4.5	85,697	6.9	1,235,540	100
1987	1,215,457	77.6	138,991	8.9	56,297	3.6	155,935	10.0	1,566,682	100
1988	1,311,937	75.7	198,819	11.5	54,250	3.1	168,047	9.7	1,733,089	100
1989	1,432,783	72.3	284,369	14.4	99,318	5.0	164,626	8.3	1,981,143	100
1990	1,721,678	75.1	316,729	14.0	99,287	4.3	150,417	6.6	2,290,913	100
1991	1,833,678	75.2	358,652	14.7	102,817	4.2	144,141	5.9	2,439,288	100
81~86	5,534,239	83.0	450,692	6.8	272,614	4.1	408,180	6.1	6,665,725	100
87~91	7,515,345	75.0	1,300,587	13.0	414,971	4.1	783,166	7.8	10,014,069	100
81~91	13,049,584	78.2	1,751,279	10.5	687,585	4.1	1,191,346	7.1	16,679,794	100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에 의거 작성.

〈表 5-47〉 直轄市 昇格이후(1981~1991) 大邱主要産業輸出의 對全國比較 (단위: %)

年度	纖維産業			機械金屬産業			化學産業			全體輸出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1982	-	8.9	14.4	-	-3.5	1.7	-	-32.6	6.0	2.8	4.8	4.7
1983	2.4	-3.6	13.5	13.0	-0.8	1.5	0.1	0.2	6.0	11.9	-2.5	4.1
1984	17.1	14.0	13.2	14.3	25.6	1.6	23.5	-2.0	4.8	19.6	13.6	3.9
1985	-1.2	-2.6	13.0	8.2	8.8	1.6	11.3	3.5	4.4	3.6	-1.0	3.7
1986	24.1	8.8	11.4	23.6	10.5	1.5	14.0	41.4	5.5	14.6	12.4	3.6

年度	纖維産業			機械金屬産業			化學産業			全體輸出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증가율		대전국 비 중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전국	대구	
1987	34.4	21.6	10.3	42.8	47.2	1.5	18.8	0.3	4.6	36.2	24.8	3.3
1988	19.3	7.9	9.3	35.3	43.0	1.6	35.1	-3.6	3.3	28.4	10.6	2.9
1989	7.3	9.2	9.5	-2.1	43.0	2.3	11.4	83.1	5.4	2.8	14.3	3.2
1990	-3.1	20.1	11.7	0.1	12.4	2.6	28.7	-0.04	4.2	4.2	15.6	3.5
1991	5.5	6.5	11.8	10.7	12.2	2.7	27.3	3.6	3.4	10.5	6.5	3.4
계	11.8	9.1	11.8	16.2	19.7	1.9	18.9	9.4	4.8	13.5	9.9	3.5

資料：大邱市,《大邱統計年報》 및 韓國貿易協會,《貿易年鑑》, 각 연호

한편 〈表 5-48〉은 대구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纖維製品輸出의 品目比重’을 대구시통계 및 대구세관통계를 통하여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나타난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현재 대구섬유수출 중 품목별 비중을 보면, 폴리에스터(58.3%), 나일론(19.5%), 견직물(8.3%), 면직물(8.2), 모직물(2.0), 경편직물(1.1%) 등 전체직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97.4%이고 양말(1.1%), 홀치기(0.9%), 봉재(0.6%)의 비중이 2.6%여서 대부분의 수출이 織物에 편중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1982년 직물 대 기타 수출의 비중이 대체로 90:10이었음과 비교하여 볼 때 오히려 직물수출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의 섬유수출은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업 스트림(up stream) 내지 미들 스트림(middle stream)부분에 치중되고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down stream)부분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

섬유수출 중 비중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 비중이 증대된 것은 폴리에스터(35.5% → 58.3%), 면직(3.7% → 8.2%), 경편직(0.3% → 1.1%), 봉재(0.4% → 0.6%)이고 그 비중이 감소된 것은 나일론(33.0% → 19.5%), 홀치기 (7.9% → 0.9%), 모직(5.5% → 2.0%)이며 그 비중이 포함 내지 약간 감소된 것은 견직(11.9% → 8.3%), 양말(1.5% → 1.1%)이다.

한편 大邱稅關의 通關實績을 통한 섬유수출의 품목별 비중을 보면, 직물의 비중이 역시 높으나 대구시 통계의 경우보다 다소 낮고 또한 그 비중이 조금씩이나마 감소되고 있는 반면 홀치기·의류·양말 등의 비중이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이 서로 상이하다. 또한 여기서 80년대 초반까지 저조하였던 絲類의 輸出이 1980년대 중반 이후 다소 활기를 띤 것이 주목되는데 이는 후발개도국의 섬유수출이 증대되면서 원자재생산능력이 미약한 이들이 의류용원사수입을

크게 확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서 이는 지역 특유의 현상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5-48〉 直轄市 昇格이후 大邱 纖維輸出의 品目構造 (단위: %)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大邱市統計	모면	직물	직물	5.5	5.6	5.0	5.8	5.7	5.3	4.8	4.7	4.2	2.0
	견	직물	직물	3.7	2.5	2.5	5.2	7.2	8.0	7.8	7.7	5.5	8.2
	나	직물	직물	11.9	14.4	13.9	10.0	7.1	6.8	11.1	11.0	9.1	8.3
	폴리	에스텔	에스텔	33.0	26.2	32.1	30.3	27.7	26.7	22.4	22.3	21.6	19.5
	편직	물	물	35.5	43.3	40.8	43.4	48.1	49.5	47.9	47.9	55.4	58.3
	양	말	말	0.3	0.4	0.5	0.5	1.0	0.9	2.3	2.5	1.6	1.1
	홀	치기	치기	1.5	1.2	1.6	1.5	1.4	1.4	1.6	2.1	1.5	1.1
	봉	제	제	7.9	5.9	1.3	1.2	1.0	0.9	1.5	1.5	0.6	0.9
	홀	치기	치기	0.4	0.4	1.9	1.8	0.7	0.5	0.4	0.5	0.5	0.6
	직물	직물	직물	—	—	—	89.0	89.4	89.4	85.7	83.8	83.8	85.9
稅關統計	의류	의류	의류	—	—	—	2.1	2.0	2.5	2.2	3.8	4.5	4.2
	사	의류	의류	—	—	—	1.6	1.7	0.9	0.9	1.0	0.5	0.9
	양	말	말	—	—	—	1.1	1.1	1.6	2.2	2.5	3.0	3.2
	기	타	타	—	—	—	4.6	5.1	1.1	6.1	5.6	5.7	3.8

註: 稅關統計는 포항 구미 제외한 대구본부세관 통계임.

資料: 大邱稅關資料 및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

또한 〈表 5-49〉는 철강·기계·금속·화학 등 대구의 ‘重化學製品輸出의 品目別 比重’을 대구시통계와 대구세관통계를 통하여 연도별로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하여 그 구조를 살펴보면, 1991년 대구수출에 있어 비중은 금속(22.8%), 석유화학(22.3%), 자동차부품(15.8%), 기계(12.8%), 전기기타(11.4%), 비철금속(10.9%), 철강(4.1%)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속·석유화학의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기계·자동차부품·전기기타의 경우 198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직할시 승격이후 大邱輸入의 品目別 構造는 대구세관통계를 통하여 추정할 수 밖에 없는데 포항·구미세관을 제외한 대구본부세관의 품목별 수입통관자료가 1985년부터 가용하여 이후의 품목별 수입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表 5-50〉이다. 이를 통하여 輸入構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表 5-49〉 直轄市 昇格이후 大邱 重化學製品 輸出의 品目構造 (단위: %)

구 분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大邱市 統計	철	강	2.9	3.5	3.1	2.3	1.5	1.3	2.7	4.7	3.8	4.1
	기	계	14.8	4.9	5.6	5.6	5.9	6.0	7.0	9.4	14.2	12.8
	금	속	27.3	31.4	35.4	33.0	28.9	27.5	25.4	19.2	17.3	22.8
	자 동 차 부 품		6.4	7.4	8.2	12.9	14.0	19.	14.3	20.0	19.8	15.8
	비 철 금 속		8.3	10.2	10.7	10.22	5.8	8.6	18.7	13.6	11.6	10.9
	석 유 화 학		38.1	38.3	32.8	31.7	37.3	28.8	21.4	25.9	23.7	22.3
	전 기 기 타		2.3	4.4	4.3	4.2	6.5	8.3	10.4	7.2	9.5	11.4
稅 關 統 計	철	강	—	—	—	25.0	17.4	19.6	15.1	13.3	18.9	26.5
	알	미	—	—	—	7.6	5.4	9.5	11.2	14.8	11.5	6.1
	전	자	—	—	—	0.9	5.4	8.8	10.2	10.3	18.9	11.8
	화	학	—	—	—	4.2	5.2	5.0	4.3	1.6	5.8	0.3
	광	학	—	—	—	17.7	15.4	20.4	20.5	13.5	16.4	17.2
	기	타	—	—	—	44.7	54.2	41.6	38.7	46.5	28.4	38.2

註: (1) 稅關統計는 포항·구미 제외한 대구본부세관 통계임.

(2) 1982~84년까지의 대구본부세관통계는 따로 없음.

資料: 大邱稅關資料 및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

1991년의 경우 기계류(27.7%), 합성섬유(22.6%)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화공약품(8.1%), 원면(5.9%), 철강재(2.4%), 전자부품(0.5%) 기타(32.8%)의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1985년 이후 1991년까지의 比重變化를 살펴보면, 機械類輸入의 비중이 17.9%에서 27.7%로 크게 높아져 1980년대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섬유수입의 비중을 초과하고 있는 점이

〈表 5-50〉 直轄市 昇格 이후 大邱地域輸入의 品目別 構造 (단위: %)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원	면		17.8	9.6	9.0	9.3	6.9	8.4	5.9
합	성	섬	25.0	23.6	25.6	22.7	20.9	23.4	22.6
화	공	약	16.6	13.5	14.7	11.8	7.8	8.5	8.1
철	강	재	10.1	5.4	1.2	1.8	1.6	1.6	2.4
기	계	류	17.9	25.5	18.3	17.6	17.4	23.5	27.7
전	자	부	—	0.04	0.5	0.003	0.1	0.2	0.5
기		타	12.6	22.5	30.6	36.9	45.3	34.3	32.8

註: 大邱本部稅關(포항·구미 제외) 통관실적임.

資料: 大邱稅關資料 및 大邱市, 《大邱統計月報》, 각 호 의거 작성.

특히 주목되는데 이는 지역제조업계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기를 띠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섬유업계의 자동화직기수입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외 원편의 수입비중은 크게 감소된 대신 합성섬유의 비중은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비중(20~25%)을 유지하고 있고, 화공약품 및 철강재의 수입비중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으며 전자부품의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 2) 地域別 構造

직할시 승격 이후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를 대구본부세관의 통관실적을 통하여 살펴보면 (〈表 5-51〉), 1991년의 경우 홍콩(20.1%), 동남아(18.1%), 중동(12.9%), 미국(11.1%), 유럽(11.1%), 일본(10.6%) 등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현황은 70년대까지 대일의존도가 매우 높고 미국, 동남아, 홍콩, 유럽 등에 대한 수출이 10%내외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던 것과 대조하여 볼 때, 일본의 경우 그 비중이 계속 감소하였고 홍콩 및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 대양주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輸出地域의 偏重度가 완화되면서 수출지역의 多邊化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表 5-51〉 直轄市 昇格以後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 (단위: %)

연도	일본	홍콩	동남아	미국	캐나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기타
1985	10.9	12.9	18.2	13.8	4.4	15.1	9.6	4.9	3.5	5.5
1986	11.3	12.8	15.9	15.2	3.9	13.4	9.6	4.5	4.0	9.4
1987	12.0	12.8	16.2	16.5	4.0	13.5	10.1	3.9	3.5	7.5
1988	12.7	13.7	15.0	15.8	4.3	13.8	9.6	4.9	3.4	6.8
1989	12.9	13.3	14.9	13.4	3.8	14.5	10.7	3.6	3.8	9.0
1990	10.5	20.0	14.3	15.2	2.9	12.1	10.5	2.8	2.4	9.3
1991	10.6	20.1	18.1	11.1	1.3	12.9	11.1	3.1	1.9	12.6

註: (1) 대구본부세관(구미 포함 제외)통관실적임.

(2) 1991년 기타 비중에 중국의 比重 0.6%가 포함되어 있음.

資料: 大邱稅關資料 및 大邱市, 《大邱統計月報》, 각 월호에 의거 작성.

한편 1985년 이후의 경우만 놓고 보면, 일본, 미국, 유럽 등 대선진국 수출의 경우 일본, 미국의 비중은 약간 감소하고 중동 유럽의 비중은 약간 높아진 점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반면, 對개도국수출의 경우 홍콩 동남아의 수출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반면 캐나다, 아프리카, 대양주의 수출비중도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홍콩, 동남아지역의 비중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인데, 이는 엔고의 영향으로 인한 수출증대, 지역기업의 대동남아진출에 따른 수출확대, 홍콩지역에 대한 화섬직물류의 중국특수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직할시 승격 이후 大邱輸入의 地域別 構造를 통계가 가용한 1988년 이후 대구본부세관의 수입통관실적을 통하여 살펴보면(〈表 5-52〉 참조), 일본의 비중이 여전히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미국의 비중이 20% 내외, 유럽의 비중이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 선진국,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5-52〉 直轄市 昇格이후 大邱輸入의 地域別 構造 (단위: %)

연도	미 국	일 본	유 럽	기 타
1988	20.4	37.0	15.1	33.7
1989	21.4	30.9	12.9	34.8
1990	18.7	38.1	14.1	29.1
1991	18.8	33.1	15.4	32.7

註: 大邱本部稅關(구미·포항 제외)의 통관실적임.

資料: 大邱稅關資料

## 第6節 大邱貿易의 總括的 推移와 評價

이상에서 우리는 한일합방 이후 1991년까지의 大邱貿易을 시대별로 나누어 각시대에서의 대외무역환경, 수출의 규모와 추이, 수입 및 지역무역추이, 품목별 무역구조, 지역별 무역구조를 고찰하였다. 이같이 시대구분에 따라 각단계에서의 특성과 역사적 변화를 기술하는 방법은 각각의 시대에 내재하고 있는 특성 및 추이를 橫的으로 고찰함으로써 당시의 종합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개별적인 각각의 측면을 縱的으로 연결하여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고찰을 바탕으로 하여, ① 각시대에 있어서 大邱貿易을 특징지우는 一般的 性格이 어떠한가, ② 大邱輸出의 規模가 어떠한 추이를 거치며 변동되어 왔으며 우리나라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어떠한가, ③ 大邱輸出의 國際競爭力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가, ④ 大邱輸出의 品目構造와 地域別 構造는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가를 요약하면서, ⑤ 여기에 내재하고 있는 問題點은 무엇이며 요구되어지는 課題는 무엇인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해 두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 이외에도 大邱輸入의 규모와 구조 및 地域貿易收支의 추이변화 등도 이미 논의하였으나, 전술한 대로 지역경제가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한 한계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치있는 일관된 통계를 갖고 있지도 못하여, 이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논의의 실익이 별로 크지 못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대외무역 중 輸入 및 地域貿易收支 문제는 논외로 하기로 하고 輸出을 중심으로 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I. 大邱貿易의 一般的 性格과 位相變化

### 1. 大邱貿易의 一般的 性格變化

概觀을 통하여 이미 전제하였듯이, 지역의 대외무역이 결국 국민경제전체의 변화와 독립적일 수 없는 반면 대구지역이 갖는 특수한 환경변화와 무관할 수도 없는 만큼 이러한 양자의 요구를 절충한 대구무역의 時代的 區分은, ① 해방 이전(1910~1945), ② 해방후 전후재건기(1946~1961), ③ 경제개발 초기(1962~1971), ④ 수출주도성장기(1972~1980), ⑤ 직할시 승격이후(1981~1991)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라 각 시대에 있어서의 對外貿易의 一般的 性格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일합방 이후 해방 이전까지(1910~1945) 日帝殖民地하의 大邱貿易은, 당시 우리나라 무역의 일반적 성격이 그러하듯, 대구경제 자체의 자주적·내재적 요구와 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본경제의 상황과 요구에 의해 조건지워짐으로써 非自主的·殖民地의 性格의 교역이었다. 따라서 대외무역의 지역구조상 지나치게 높은 對日依存的 性格을 나타내면서, 품목구조 역시 1차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2차산품을 수입하여 일본의 원료공급지인 동시에 일본 공업제품의 상품시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殖民地型의 垂直的 貿易構造를 견지하였다. 또한 무역규모가 1919~22년 최고조에 달했다가 이후 계속 정체되는 停滯的 性格을 나타내었고 지역무역수지 역시 우리나라 평균이상을 초과하는 적자를 보인 輸入超過的 性格을 나타낸 무역이었다.

둘째, 解放이후 戰後再建期까지(1946~1961)의 대구무역은, 충분한 자료의 뒷받침이 없어 논의하지 아니하였지만 당시 우리나라 전체의 대외무역이 그러하듯, 전쟁으로 인한 일부 산업시설의 피해복구와 해외원조에 의한 생필품 등 내수용물자생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에만 급급하였을 뿐 수출여력을 갖지 못하여 對外貿易은 거의 볼모에 가까웠다. 더욱이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때문에 화장품·의류 등 일부 사치성 소비재가 밀무역을 통하여 대량

반입됨으로써 공식적인 채널을 통한 무역은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經濟開發初期(1962~1971)의 대구무역은, 정부가 수출주도적 성장을 표방한 제 1차 5개년계획 이후 급격히 증대되어 수출규모의 증가면에서나 연평균증가율면에서 획기적인 확대를 가져왔고 따라서 대구수출의 대전국비중 역시 크게 높아진 시기였다. 이러한 수출의 획기적인 증대는 섬유수출의 획기적인 증대에 힘입은 것으로서 당시 지역수출의 섬유비중이 60년대 초 78%에서 60년대 후반 93%에까지 이르렀고 이후 다소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동 기간 중 전체수출액의 9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같이 대구수출의 높은 증가율이 섬유수출의 높은 증가율에 힘입은 것이지만 이것은 동시에 대구수출의 構造高度化나 長期的 成長의 障礙요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넷째, 輸出主導成長期(1972~1980)의 대구무역은, 지역경제가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성장을 이룩하였으나 상대적으로는 오히려 정체되는 성격을 반영하여, 수출 역시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률은 보여 주었지만 상대적으로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타지역의 공업이 이 기간 동안 급속한 중화학공업화로 인하여 고도화되었음에 비하여 대구의 공업은 여전히 경공업, 특히 섬유공업에 치우쳐있음으로 인하여 수출구조 역시 고도화되지 못하였다.

다섯째, 直轄市昇格 이후(1981~1991)의 대구무역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長期的·動態的 對應을 적절히 이룩하지 못한 채 정체를 가져와 80년대 이후 대구경제력의 상대적 위상이 떨어지고 있는 이상으로 대구수출력의 상대적 위상이 떨어져 70년대 이후의 상대적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무역의 품목별·지역별 구조 역시 외형적으로는 高度化 多樣化되어 가고 있는 일면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섬유위주의 편중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정작 이러한 주력수출산업인 섬유수출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어 지역전체의 수출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는 특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大邱貿易은, 그 규모면에서 1960년대에 급속한 성장과 위상강화를 보인 이후 계속 정체되어 왔고 구조면에서 최근에 이르러 다소 개선되는 일면을 보여주면서도 어떤 획기적인 구조고도화나 경쟁력강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서의 적절한 構造調整이 계속 요구되고 있다는 一般的 性格을 보여주고 있다.

## 2. 大邱의 輸出推移와 位相變化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대구의 무역은 197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오면서 그 위상이 떨어지고 있어 새로운 도약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을 ‘大邱輸出의



規模와 比重의 推移'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輸出規模면에서 1962년 124만 7천달러에서 시작하여 1971년 1억 (1억 2700만)달러를 초과한 후 1982년 10억 (10억 1800만)달러를 넘었고 1990년 20억 (20억 9300만)달러를 넘은 후 1991년 24억 3900만달러에 이르렀다. 이로서 1962년부터 1991년까지 30년간 대구의 수출은 약 1,956배 신장되었고 이는 동 기간 중 전국수출의 1,311배 신장보다 높은 것이었다.

둘째, 輸出業體面에서, 1963년 19개에 불과했으나 1972년 214개업체, 1982년 265개업체, 1991년 1,274개업체(잡류 529, 을류 745)로 늘어나 약 67배 정도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이러한 지역수출업체의 대전국 비중은 오히려 7% 수준에서 4%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수출의 年平均增加率을 보면, 1960년대 60.4% (1962~1971), 1970년대 26.8% (1972~1980), 1980년대 9.9% (1981~1991)로서 전기간평균 34.03%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같이 대구수출의 증가율은 1960년대 이후 계속 하락하였고 따라서 전국수출의 평균증가율 38.9% (60년대), 38.9% (70년대), 13.5% (80년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1960년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전국수출의 평균증가율에 미달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넷째, 大邱輸出의 對全國比重을 보면, 1962년 2.3%에서 계속 증대되어 1969년 9.2%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계속 저하되어 1970년대 중반에 4%대로 떨어졌고, 1980년대 중반에 다시

〈表 5-53〉 大邱輸出의 平均增加率 및 對全國比重 推移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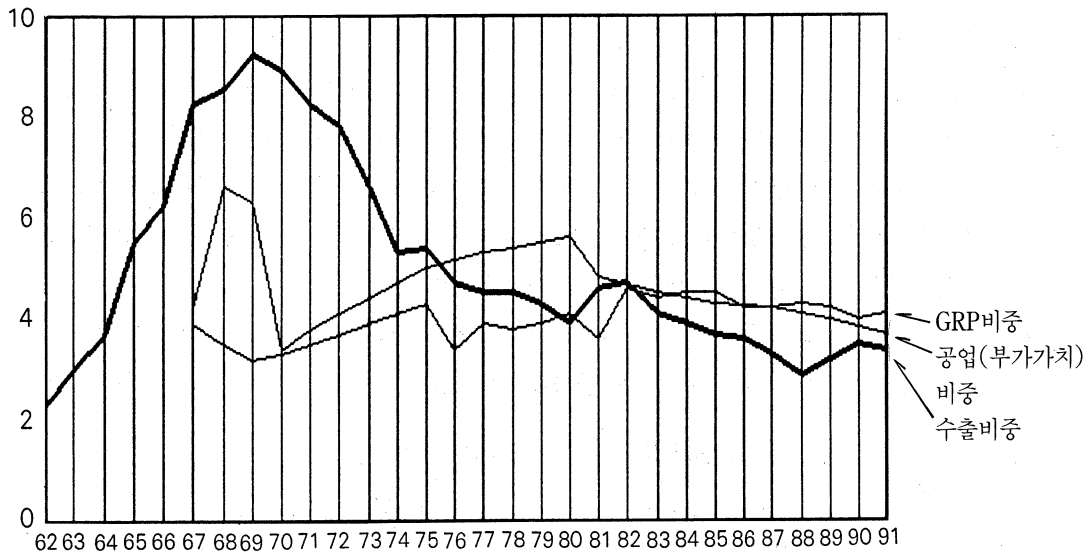
年度	平均輸出增加率		地域經濟力의 對全國比重		
	大邱	全國	輸出	總生産	工業附加價值
1962~1966	87.6	43.9	4.8	—	—
1967~1971	41.5	33.8	8.5	3.5	5.1
(1962~1971)	(60.4)	(38.9)	(7.9)	(3.5)	(5.1)
1972~1975	34.3	50.9	5.5	3.8	4.6
1976~1980	17.6	22.9	4.3	3.9	5.5
(1972~1980)	(26.8)	(38.9)	(4.8)	(3.9)	(5.1)
1981~1986	5.5	10.5	4.1	4.2	4.5
1987~1991	14.4	16.4	3.3	4.2	4.0
(1981~1991)	(9.9)	(13.5)	(3.5)	(4.2)	(4.3)

註: (1) 수치는 기간중 전체평균치임.

(2) 1967~1971년 總生産比重은 1967, 1969, 1970년의 평균치임.

(3) 1981~1986년 수출증가율의 경우 대구직할시 승격에 따른 편차를 제거하기 위하여 1982~1986년 평균치임.

3%대로 떨어져 1991년 3.4% 수준에 머물렀다. 이러한 수준은 1991년을 기준으로하여 볼 때 지역인구의 대전국비중(5.1%)에 미달됨은 물론 지역생산의 대전국비중(4.2%) 및 지역공업 부가가치생산의 대전국비중(4.0%)에도 미달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圖 5-1>이 보여주듯이 수출·총생산·공업부가가치의 대전국비중 중 지역수출의 대전국비중의 감소가 가장 현저한 추세 되고 있어, 지역의 수출력이 地域經濟力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력의 악화 이상으로 더욱 현저히 저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圖 5-1>

大邱의 輸出 및 經濟力의 對全國比重 推移

## II. 大邱輸出의 國際競爭力 變化

### 1. 國際競爭力指標의 分析

一國의 國際競爭力을 나타내는 지표의 경우 그 종류가 다양하여 각 지표가 나타내주는 의미가 일의적이지 못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각각의 지표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地域의 國際競爭力을 나타내는 지표는 지역경제가 하나의 독립된 경제주체가 아닌 만큼 그 성격상 일국의 국제경쟁력지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 그만큼 불완전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전제해두고 이하에서는 地域輸出의 國際競爭力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가를 요약해 두기로 한다.

우선 全體地域輸出의 競爭力을 나타낼 수 있는 결과적 지표로서는 ① 地域輸出의 成長率推移, ② 地域輸出의 對全國比重推移, ③ 地域貿易收支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중 地域貿易收支는 전술한 대로 이에 대한 통계가 지나는 여러가지 난점 때문에 통일된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통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지는 실제의 의미가 별로 크지 못하다. 따라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은 地域輸出의 增加率 및 對全國比重인데 대구의 경우, 지역수출의 성장률이나 대전국비중추이는 1960년대에 있어서는 지역 평균증가율이 전국평균을 상회하면서 수출의 대전국비중 역시 계속 높아졌으나 1970년대 이후 양자 모두 저하되어 상대적으로 위축과 약화를 가져왔음은 상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大邱輸出의 國際競爭力은 1960년대에 있어서는 섬유수출의 급격한 수출증대를 통한 경쟁력의 강화를 이룩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계속 저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地域輸出의 産業別 競爭力을 나타내는 결과적 지표로서는 ① 산업별 수출증가율, ② 산업별 수출의 대전국비중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하여, ③ 지역 현시비교우위지수(RRCA 지수)를 들 수 있겠다.

본래 顯示比較優位指數(RCA指數: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는 세계전체교역에 있어서는 당해국 당해산업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경쟁력지표인데 이를 응용하여 국가전체교역에 있어서는 당해지역 당해산업의 상대적 위치를 나타내는 地域顯示比較優位指數(RRCA指數: Regional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Index)를 구해보기로 한다.<sup>11)</sup> 따라서 이러한 지표는 당해지역 당해산업이 비교우위성을 갖느냐 비교열위성을 갖느냐, 지역내 여타산업의 경쟁력보다 당해산업의 경쟁력이 높은가 낮은가, 이전보다는 경쟁력이 강화되었는가 약화되었는가의 추이를 나타내 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表 5-54〉는 이상과 같은 경쟁력지표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서는 각 연도마다의 지표는 기록이 너무 심한 관계로 오히려 분석의 의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962년 이후 1991년까지 30년을 3개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의 평균치를 나타내면서 1985년 이후

11)  $RCA指數 = \frac{\text{자국의 X산업수출}}{\text{전세계 X산업수출}} \div \frac{\text{자국의 총수출}}{\text{일국의 총수출}} \times 100$  표시된다

따라서  $RRCA指數 = \frac{\text{지역의 X산업수출}}{\text{일국의 X산업수출}} \div \frac{\text{지역의 총수출}}{\text{일국의 총수출}} \times 100$ 으로서,

절국 지역 X산업수출의 대전국비중/지역총수출의 대전국비중  $\times 100$ 이라고 할 수 있다.

각년도의 변화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이를 통하여 大邱輸出의 産業別 競爭力變化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表 5-54〉 地域輸出의 産業別 競爭力 推移 (단위: %)

기간 연도	地域輸出增加率(全國增加率)				地域輸出 對全國比重(RRCA指數)			
	섬 유	기계금속	화 학	전 체	섬 유	기계금속	화 학	전 체
62~71	61.3(50.5)	53.4(36.8)	5.5(80.5)	40.5(37.0)	20.1(254)	4.6(70)	5.5(70)	7.9
72~80	26.0(32.7)	58.7(72.6)	78.7(59.1)	26.8(38.4)	13.5(281)	2.4(96)	4.6(96)	4.8
81~91	9.1(11.8)	19.7(16.2)	9.4(18.9)	9.9(13.5)	11.8(337)	1.9(54)	4.8(137)	3.5
85~91	10.2(12.3)	19.2(16.9)	18.3(20.9)	10.2(14.7)	11.0(326)	2.0(58)	4.4(130)	3.4
1985	-2.5(-1.2)	8.8(8.2)	3.5(11.3)	-1.0(14.6)	13.0(351)	1.6(43)	4.4(84)	3.7
1986	8.8(24.1)	10.5(23.6)	41.4(14.0)	12.4(14.6)	11.4(317)	1.5(42)	5.5(153)	3.6
1987	21.6(34.4)	47.2(42.8)	0.3(18.8)	24.8(36.2)	10.3(312)	1.5(45)	4.6(139)	3.3
1988	7.9(19.3)	43.0(35.3)	-3.6(35.1)	10.6(28.4)	9.3(317)	1.6(55)	3.3(114)	2.9
1989	9.2(7.3)	43.0(-2.1)	83.1(11.4)	2.8(5.4)	9.5(297)	2.3(72)	5.4(169)	3.2
1990	20.1(-3.1)	12.4(0.1)	-0.04(28.7)	15.6(4.2)	11.7(334)	2.6(74)	4.2(120)	3.5
1991	6.5(5.5)	12.2(10.7)	3.6(27.3)	6.5(10.5)	11.8(79)	2.7(79)	3.4(100)	3.4

첫째, 輸出의 平均增加率의 추이를 보면, 지역수출의 주종산업인 纖維産業의 경우 1960년대의 경우 지역내 다른 산업보다 더 큰 신장세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섬유수출의 신장세를 초과하는 평균신장률을 보여주었으나 1970년대 이후 지역내 다른 산업의 신장률은 물론 전국수출의 신장세에도 미달되는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化學産業의 경우 1970년대에, 機械金屬産業의 경우 1980년대에 지역내에서 가장 높은 수출신장세를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전국수출의 평균신장세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화학산업의 경우 년년의 기복이 너무 심하여 일의적인 패턴을 논의하기 어려우나 기계금속산업의 경우는 1987~1989년간 43~47%내외의 특히 높은 신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地域輸出의 對全國比重推移를 시대별로 보면, 纖維産業의 경우 1960년대 20% 내외의 수준에서 1970년대 13.5% 내외의 수준으로 떨어졌고, 1980년대 이후 10% 이하로까지 떨어졌으나 1990년 이후의 수출증가로 1991년 12%에 약간 미달되는 수준에 머물게 되었다. 機械金屬의 경우 그 비중이 크게 떨어진 반면 化學産業의 경우 약간 떨어졌다. 따라서 지역내 주요산업수출의 對전국비중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저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지역전체수출의 대전국비중이 1960년대 8~9% 수준에서, 80년대 3~4%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다만 1980년대 후반 이후 1991년까지의 각년도의 변화를 보면

섬유의 경우 1990년 이후의 섬유수출증대에 힘입어 대전국비중이 다시 높아졌고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역시 1988년 이후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화학산업의 경우 매년 기복이 있으나 약간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80년대 후반 이후 최근의 추세에서는 섬유산업 및 기계금속산업수출의 경쟁력이 다소 회복되거나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地域顯示比較優位指數의 시대별 추이를 보면, 纖維產業의 경우 254 → 281 → 337로 변화하고 있어 여전히 비교우위산업일 뿐만 아니라 지역내 타산업에 비하여 상대적 비교우위성이 강화되고 있다. 機械金屬產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출신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교열위산업에 머물고 있고, 화학산업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비교우위산업으로 변화되었고 그 상대적 비교우위성도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역시 1980년대 후반 이후 각 연도의 추이변화를 보면 섬유산업의 경우 1980년대 후반 이후 계속 그 비교우위성이 저하되다가 1991년 이후 비교우위성이 다시 강화되고 있고,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여전히 비교열위산업이지만 꾸준한 경쟁력의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학산업의 경우 기복이 심하여 일의적인 논의를 하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비교우위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몇가지의 결과들을 통하여 지역주요산업의 경쟁력변화를 종합해 보면, 우선 纖維產業의 경우 1960년대에서 수출의 신장률이나 수출의 대전국비중면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여주었으나 1970년대 이후 그 상대적 위상이 계속 약화되어 왔다. 그러나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하여 지역내 타산업과 비교하여 본다면 섬유산업은 여전히 지역의 비교우위산업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적 비교우위성이 저하되다가 199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機械金屬產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상대적으로 높은 수출신장세를 보임으로써 수출의 대전국비중이나 지역현시비교우위지수 모두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 꾸준히 경쟁력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그 비교우위성이 확립되고 있지는 못하다. 化學產業의 경우, 수출실적상 기복이 심하여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려우나 시대별로 보면 1980년대 이후 비교우위산업으로서의 성격을 확보하였으나 85년 이후 최근의 추이를 보면 오히려 경쟁력이 저하되거나 정체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大邱의 主要産業別 競爭力은 여전히 섬유를 위주로 하는 편중된 비교우위구조 속에서 정작 섬유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체되는 추세를 보여준 반면, 화학산업의 경우 시대적으로는 그 경쟁력이 어느 정도 향상되어 왔지만 최근에 이르러 오히려 다소 정체를 보이고 있고,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최근의 수출증대에 힘입어 그 경쟁력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비교우위성을 확보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수출의 구조는, 傳統的인 主力産業인 섬유산업은 점진적인 경쟁력 약화를 보여온 반면 새로운 高度化産業으로서 성장해야 할 기계·금속·화학산업의 경우 여전히 확고한 경쟁력 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地域全體輸出의 競爭力이 정체되고 있다고 결론 지을 수 있겠다.

## 2. 國際競爭力 決定要因의 分析

한편 지금까지 살펴본 국제경쟁력의 논의는 結果 내지 成果로서의 지표였음에 대하여 국제경쟁력의 논의는 그것을 구성하는 決定要因으로서의 지표라는 관점에서도 논의될 수 있다. 이같은 國際競爭力 決定要因은 다시 관점에 따라 내생적이나 외생적이나, 기업내적 요인이나 기업외적요인이나 등으로 구분될 수 있지만 구성내용이 무엇이냐는 관점에서 보면 ①價格的 要因, ②非價格的 要因, ③技術的 要因으로 구분할 수 있다.<sup>12)</sup>

그런데 이러한 요인들을 지역의 경우에 적용하여 지역수출의 경쟁력요인이 어떻게 변동되었느냐를 논의하려고 할 경우 이에 관한 가치있는 객관적 가용자료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대구지역의 경우 그동안 大邱商工會議所가 몇차례 실시한 「地域競爭力 要因에 대한 設問調査結果」가 발표되어 있다. 물론 이들 자료 역시 분석자와 분석목표, 응답업체의 규모와 성격, 설문내용과 방법 등이 일치하지 않아 통일적으로 이들의 결과를 요약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대구지역수출업체들이 응답한 결과를 통해 가능한 범위내에서 가격적·비가가격적·기술적 요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느냐를 간략히 요약할 수 있는데 이들 중 몇개의 대표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지역수출의 경쟁력 상태 및 변화를 나타낸 것이 <表 5-55>, <表 5-56>, <表 5-57>이다.

<表 5-55> 地域輸出競爭力의 強點 및 弱點 調査結果(1984~1986) (단위: %)

구 분	強 點		弱 點	
	1984(대구상의)	1986(대구상의)	1984(대구상의)	1986(대구상의)
품 질	64.3	65.1	23.8	9.3
가 격	29.9	16.3	49.7	67.4
디자인	3.2	18.6	17.7	9.3
A/S	0.6	—	7.7	14.0
브랜드	0.6	—	5.6	—
기 타	1.4	—	5.5	—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大邱經濟總覽》, 1985, p. 660 및 《大邱地域 輸出商品 競爭力向上 沮害要因 調査報告》, 1986. 6.

12) 이들 중 技術的 要因은 非價格的 要因에 당연히 포함되지만 최근에 이르러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짐에 따라 기타의 비가격적 요인과 구분하여 논의하기도 한다.

〈表 5-56〉 地域輸出의 競爭力 調査結果(1986~1992) (단위: %)

구 분	價格競爭力		品質競爭力		디자인	A/S	信用
	1986	1992	1986	1992	1992	1992	1992
높 다	34.8	32.1(28.3)	51.2	54.7(50.0)	36.6(13.6)	24.5(34.8)	34.9
비슷하다	32.6	27.6(28.3)	30.2	25.5(30.4)	44.2(40.9)	34.3(32.6)	36.8
낮 다	32.6	45.3(43.4)	18.2	19.8(19.6)	19.2(45.5)	41.2(32.6)	28.3

註: ( )속은 섬유산업의 경우를 나타내고 있음.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地域 輸出商品 競爭力向上沮害要因 調査報告》, 1986. 6) 및  
《大邱地域 製造業의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1992, pp. 194~206.

〈表 5-57〉 大邱地域 製造業體의 技術水準調査結果(1992) (단위: %)

技 術 水 準		技 術 段 階		製 品 段 階	
저급기술	1.2	외부도입단계	6.6	최퇴기	17.4
중급기술	61.6	흡수제량단계	47.5	성숙기	45.7
고급기술	33.6	자체개발단계	42.7	성장기	33.8
첨단기술	3.6	외부이전단계	3.2	도입기	3.2

資料: 大邱商工會議所, 《大邱地域 製造業의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1992, pp. 52~58.

한편 〈表 5-58〉와 〈表 5-59〉는 대구은행 및 대구상공회의소가 대구지역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隘路要因을 調査하여 발표한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한 것이다. 이 역시 그때 그때마다의 대상 설문방법 설문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통일된 관점에서 상호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그러나 대체로 그때마다의 隘路要因이 어떠하였고 지역수출업체들이 그들의 輸出競爭力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었는가에 대한 인식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이같은 경쟁력조사 및 애로사항조사결과 등을 참고로 하여 大邱輸出의 國際競爭力要因상의 特性과 問題點을 종합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表 5-58〉 地域輸出企業의 隘路要因 調査結果 (단위: %)

대구은행(1972, 117업체)		대구상의(1974, 32업체)		대구은행(1976, 271업체)	
수출절차복잡	37.2	수출채산성악화	22.7	원자재수급 및 가격	21.7
시설노후	14.1	해외수요부진	20.2	국제가격경쟁력	13.3
수출이윤낮음	10.3	원자재확보난	19.7	수출채산성악화	12.5
원자재공급 및 가격	10.2	자금난	13.1	업체간과당경쟁	10.1
기능공부족	7.7	국제경쟁격화	6.8	자금난	8.0
정보부족	7.7	수출절차복잡	4.9	기능공부족	7.7
자금난	7.7	기타	13.1	해외수요부족	7.5

대구은행(1980, 198업체)		대구상의(1992, 102업체)		대구상의(1992, 135업체)	
원자재가격 및 수급	23.6	임금상승에 의한 원가	36.3	가격경쟁력상실	30.1(35.1)
수출채산성악화	12.5	기능공인력난	16.2	전문인력의 수급	24.0(30.9)
국제가격경쟁력	11.0	수출시장경기침체	25.5	제품품질의 열악	12.5(6.2)
업체간과당경쟁	7.9	외국제품과의 경쟁	22.5	선진국무역장벽	7.0(5.1)
자금난	9.2	외국의 경제불력화	1.5	노사갈등	6.5(5.1)
해외수요감퇴	7.4	기타	2.0	시장개방압력	3.6(6.7)
숙련공부족	5.0				
수출지원미흡	4.2				

註: (1) 연도뒤의 업체수는 조사에 대한 응답업체수임. (2) ( )속은 섬유업체의 경우임.

資料: (1) 대구은행, 〈大邱地域輸出業體의 實態分析〉《대구지역경제분석》, 1972. 7~8.

(2) 대구은행, 〈大邱地域輸出業體의 實態調査〉《대구지역경제분석》, 1977. 3~4.

(3) 대구은행, 〈大邱地域輸出業體의 實態調査〉《대구지역경제분석》, 1981. 3~4.

(4)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地域輸出企業 環境·經營隘路調査〉《대구경제》, 1976. 1.

(5)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地域纖維物輸出 隘路事項調査報告〉, 1992. 8.

(6)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地域製造業의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1992.

〈表 5-59〉 地域企業의 輸出上の 隘路事項 (단위: %)

價格의 要因	임금상승 97.2(46.7)	후발개도국추격 92.4(35.8)	자금난 91.6(28.0)
	수송보관비증대 86.7(39.6)	원화의 고평가 81.7(16.3)	
非價格的 (品質要因)	신제품개발능력부족 95.3(27.4)	제품대외이미지부족 89.6(31.1)	제품의 끝손질 부족 87.7(24.5)
	생산설비낙후 87.7(22.9)	원자재부품의 불량 80.2(13.2)	
輸出環境 要 因	후발개도국추격 92.4(35.8)	전반적수출마인드저하 89.6(32.4)	해외정보부족 87.9(20.6)
	수출유관기관중양집중 87.6(31.4)	수출부대변잡 85.9(25.5)	연관산업후진성 85.7(7.1)
	기업간해외과당경쟁 80.0(29.5)	원만하지 못한 하청관계 76.1(17.1)	
企業內的 要 因	장단기계획수립미흡 86.6(13.3)	노사관계불안 81.0(13.1)	유능한 마케팅요원 부족 69.8(11.3)
	언어소통상의 문제 44.3(2.8)		

註: (1) 각각의 문항에 대해 '심각함' 내지 '매우 심각함'으로 답한 응답자비율임.

(2) ( ) 속은 '매우 심각함'으로 응답한 업체수비율임.

資料: 대구상공회의소, 〈大邱地域製造業의 國際競爭力 強化方案〉, 1992에서의 설문조사결과를 정리하였음.

첫째, 價格競爭力이 弱化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상기의 경쟁력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만 지역수출기업의 애로요인 등의 많은 조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의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우가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저렴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대량생산체제를 그대로 유지해오는 동안 대내적으로 고임금·고금리 등의 환경변화가 이루어졌고 대외적으로 후발국의 추격이 강력해짐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輸出品의 品質이 크게 향상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현상은 기술력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섬유와 같은 경공업제품의 경우 정확도·정밀성·끝맺음 등과 같은 기술외적 요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 따라서 경공업제품의 품질문제는 종업원의 근로태도·작업능률 등 總體的 品質管理면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섬유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소재부문의 단순성·염색 및 가공기술의 열위성 등에 문제가 있으며 높은 이직률 등으로 인한 생산의 불안정성 역시 품질의 불안정성과 관련되어진다.

셋째, 지역제조업의 경우 技術競爭力이 매우 낮다. <表 5-5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역제조업체들의 경우 기술면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급기술수준을 사용하고 있고 기술단계면에서도 흡수개량단계에 치우쳐 있으며 제품단계면에서도 오히려 많은 부분이 성숙기와 쇠퇴기에 놓여 있다. 또한 新製品開發能力 역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국제경쟁력상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넷째, 제품디자인력이 매우 낮다. 이것은 비단 대구지역만의 문제점은 아니지만 대구의 경우 섬유산업에 있어서의 디자인 능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우리나라 섬유수출은 가격시장을 겨냥한 것이 약 92%이고 패션시장을 겨냥한 것은 약 8% 밖에 안되는데 세계무역전체로서는 80% 대 20%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리가 OEM방식에 의한 수출체제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가격에만 치중된 생산을 해왔고 따라서 이에 대한 專門家의 양성이나 충분한 情報의 수집도 해오지 못함에서 기인된다.

이밖에도, 우리의 수출품은 A/S 및 신용면의 非價格競爭力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① 小品目大量生産體制하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경제수준의 향상에 따른 차별화 개성화에 적응하는 多品目少量生産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② 지금까지 바이어가 원하는 상품을 원하는 상표를 붙여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만 하면 되는 체제하에 머물러 있었으므로 固有的 商標를 개발하지도 못하였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케팅활동을 전개하지도 못하여 이러한 측면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결국 지역업체들은 대내외적 환경과 조건이 급속히 변동되어 가는 動態的 環境變化 속에 있으면서도, 저렴한 노동력에 의한 價格競爭力을 주무기로 하여 주문자의 요청에 의한 OEM製品을 표준화된 기술을 사용하여 大量生産하는 體制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동태적 변화에 상응하는 스스로의 동태적 대응을 이룩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지역수출의 경쟁력은 후발개도국으로부터는 價格競爭力면에서 강력한 추격을 받는 동시에 선진국의 非價格競爭力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으로써 전체적인 국제경쟁력이 계속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할 것이다.

### III. 大邱輸出의 構造變化

#### 1. 輸出의 品目別 構造變化

우선 大邱輸出의 品目別 構造를 이해하기 위하여 전체수출 중 공산품의 비중이 어떠한가 공 산품 중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어떠한가를 1970년대까지의 통계가 제대로 나타내고 있지 못하여 1980년 이후의 변화를 통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수출 중 공산품의 비중이 1982년 80%에서 조금 낮아지다가 1991년 다시 97.8%로 상승하였고, 공산품 중 경공업비중이 89.7%에서 70.7%로 낮아진 반면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10.3%에서 19.4%로 높아져 1982년초 90 : 10의 수준에서 90년대초 80 : 20의 비율이 되어 地域輸出構造의 高度化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비중을 전국수출의 경우와 비교하면, 대구라는 도시지역의 수출이라는 특성상 전체수출 중 工產品의 比重은 전국의 경우보다 높지만 공산품수출중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전국의 경우 40 : 60의 수준임에 대해 대구의 경우 80 : 20의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전히 지나친 輕工業中心의 輸出構造를 면치 못하고 있다.

둘째, 더욱 1991년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면에서 본 대구공업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60 : 40임에 대하여 대구수출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은 80 : 20이어서 대구공업의 수출력 내지 국제경쟁력은 여전히 경공업쪽에 의존하고 있으며 대구의 중화학공업은 제대로의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러한 현상은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부가가치면에서 본 전국공업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대체로 35 : 65인데 수출의 경공업 대 중화학공업의 비중은 40 : 60임과 비교할 때, 대구지역 중화학공업의 생산력 및 수출력이 증가하고는 있다 하나 여전히 제대로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수출의 국제경쟁력과 관련하여 전술한대로, 기계금속 및 화학 등 대구의 중화학공업이 제대로의 비교우위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면서 전통적인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대구지역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수출의 품목별 변화추이를 요약하고 있는 〈表 5-60〉에도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大邱輸出의 品目構造變化推移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表 5-60〉 大邱輸出의 品目構造變化 推移 (단위: %)

연도	纖 維	機械金屬	化 學	기 타	全體輸出
1965	89.9(18.4)	1.8(5.8)	1.2(29.6)	5.0	100(5.4)
1967	93.1(22.7)	1.4(2.4)	1.1(11.9)	4.4	100(8.2)
1971	89.8(16.8)	4.1(3.5)	0.9(2.3)	5.1	100(7.8)
1977	88.2(14.4)	4.4(1.8)	2.3(3.2)	5.1	100(4.6)
1981	84.3(14.4)	6.2(1.7)	3.8(6.0)	5.6	100(4.7)
1987	77.6(10.3)	8.9(1.5)	3.6(4.0)	10.0	100(3.3)
1991	75.2(11.8)	14.7(2.7)	4.2(3.4)	5.9	100(3.4)
1964~1971	90.3(20.1)	2.9(4.6)	1.1(5.5)	5.7	100(7.2)
1972~1980	86.7(13.5)	5.6(2.4)	4.8(4.6)	2.9	100(4.8)
1981~1986	83.0(13.1)	6.8(1.6)	4.1(5.3)	6.1	100(4.0)
1987~1991	75.0(10.5)	13.0(2.1)	4.1(4.2)	7.8	100(3.3)

註: ( ) 속은 동산업수출의 대전국비중임.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각 연호에 의거 작성.

우선 대구수출 중 섬유수출의 비중이 1964년 77% 수준에서 1967년 93.1%로 높아졌다가 이후 조금씩 저하되어 1970년대 80%대, 1980년대 70%대로 떨어져 1991년 75.2% 수준이 되었다. 반면 동기간 중 機械金屬産業의 경우 1.8% 수준에서 14.7%로, 化學産業의 경우 1.2%에서 4.2%로 높아졌다. 따라서 지역수출은 섬유산업의 비중감소와 기계·금속·화학·등의 산업의 비중증대로 輸出構造의 多樣化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수출 중 섬유수출비중 75% 수준은 전국수출 중 섬유수출의 비중이 20%를 약간 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여전히 지나치게 높아 대구가 纖維輸出에 偏重된 構造를 유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기계금속산업이 15%, 화학산업이 6%, 기타산업이 6% 수준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같이 대구수출 중의 비중만을 보면 섬유수출의 비중저하와 기계·금속·화학제품의 수출증대를 나타내지만 이들 수출의 동산업에 있어서의 대전국비중은 1960년대 후반과 1980년대 후반의 평균을 통하여 살펴보면 섬유산업의 경우 20.1% → 10.5%로, 기계금속산업의 경우 4.6% → 2.1%로, 화학산업의 경우 5.5% → 4.2%로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輸出構造의 變化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섬유위주의 편중된 구조를 획기적으로 탈피하지 못하여 대구경제가 여전히 섬유산업의 명암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변화를 이룩하고 있지 못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점들을 지역산업의 輸出競爭力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하면 구조고도화산업으로서의 기계·금속·화학산업의 경쟁력이

제대로 확보되지도 못한 채 주력산업인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됨으로써 지역전체수출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表 5-61>은 대구수출의 주력품목인 섬유수출과 금속·기계·화학 등의 중화학제품수출의 품목구조를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통계자료의 제약상 1982년 이후의 구조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주요한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 현재 대구섬유수출 중 품목별 비중은, 폴리에스테(58.3%), 나일론(19.5%) 등의 합섬직물이 전체의 78%를 차지하고 나머지 직물이 20% 정도를 차지하여 전체직물의 비중이 97.4%이고 양말·홀치기·봉제 등 비중이 2.6%여서 여전히 대부분의 수출이 織物에 편중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1982년 당시 직물 대 기타수출의 비율이 대체로 90 : 10이었음과 비교할 때 오히려 직물수출의 비중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구의 섬유수출은 여전히 부가가치가 낮은 업스트림(up-stream) 내지 미들스트림(middle-stream)의 부문에 치중되어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다운스트림(down-stream)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중이 감소되고 있어 大邱輸出의 構造的 問題點이 되고 있다.

한편 대구의 重化學製品輸出의 品目別 比重을 보면, 1991년 현재 금속(22.8%), 석유화학(22.3%), 자동차부품(15.8%), 기계(12.8%), 전기기타(11.4%), 비철금속(10.9%), 철강(4.1%) 순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속·석유화학의 수출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기계·자동차부품·전기기타 등의 수출비중은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表 5-62>는 대구지역의 주력산업인 纖維産業의 輸出構造(통관기준)를 직물류·사류·제품류로 구분하여 지역전체수출중의 비중과 대전국수출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 있듯이 대구지역의 경우 직물류 수출의 비중이 최근에 약간씩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품류 수출의 비중이 약간씩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88.9% 대 11.2%로 나타나고 있어 전국 섬유수출의 37.0% 대 55.0%와 비교할 때 여전히 지나치게 편중된 직물 위주의 수출구조를 보이고 있다.

다만 각 수출의 대전국비중을 보면 직물류의 경우 대체로 50% 내외에 머물러 있는 반면 제품류의 경우 그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대구지역 양말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통관기준에 입각한 대구지역의 섬유수출구조 역시 대구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직물에 편중된 구조가 개선되고 있지 못하여 대구 및 인근지역을 포함한 지역섬유수출의 구조 역시 대구시의 경우와 유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表 5-61〉 大邱纖維輸出 및 重化學製品輸出의 品目構造 (단위: %)

구 분			1982	1984	1986	1982	1984	1986
섬유제품	모직	직	5.5	5.5	5.7	5.3	4.7	2.0
	면직	직	3.7	2.5	7.2	7.8	5.5	8.2
	견직	직	11.9	13.9	7.1	11.1	9.1	8.3
	나일론	론	33.0	32.1	27.7	22.4	21.6	19.5
	폴리에스테르	텔	35.5	40.8	48.1	47.9	55.4	58.3
	편직	등	0.6	1.0	1.0	2.3	1.6	1.1
	양말	말	1.5	1.6	1.4	1.6	1.5	1.1
	홀치기	기	7.9	1.3	1.0	1.5	1.0	0.9
중화학제품	봉제	제	0.4	1.9	0.7	0.4	0.5	0.6
	철강	강	2.9	3.1	1.3	2.7	3.8	4.1
	기계	계	14.9	5.6	5.9	7.0	14.2	12.8
	금속	속	27.3	35.4	28.9	25.4	17.3	22.8
	자동차부품	품	6.4	8.2	14.0	14.3	19.8	15.8
	비철금속	속	8.3	10.7	5.8	18.7	11.6	10.9
	석유화학	학	38.1	32.6	37.3	21.4	25.9	22.3
	전기기기	타	2.3	4.3	6.5	10.4	7.2	11.4

資料: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表 5-62〉 大邱地域纖維輸出(통관실적)의 品目構造變化 推移 (단위: %)

年度	織物類 (홀치기포함)			絲類			製品類(의류·양말·기타)		
	전국	대구	(비중)	전국	대구	(비중)	전국	대구	(비중)
1970	33.2	66.3	(17.5)	16.5	9.8	(45.8)	50.3	21.9	(36.7)
1975	25.1	83.0	(34.6)	14.5	9.5	(44.9)	60.4	7.5	(20.5)
1980	28.1	92.1	(52.1)	13.8	4.5	(25.1)	(/58.1	3.4	(22.8)
1985	27.0	90.5	(50.6)	9.9	1.1	(24.9)	63.1	7.8	(24.5)
1987	24.4	90.9	(59.0)	6.6	1.6	(22.5)	69.0	5.2	(18.5)
1989	25.5	87.1	(51.7)	7.5	2.5	(20.4)	67.0	11.9	(27.8)
1990	31.6	86.4	(50.4)	8.0	6.5	(12.7)	60.4	13.1	(36.9)
1991	37.0	87.9	(48.0)	8.0	3.2	(10.8)	55.0	11.2	(41.2)

註: (1) 1970~1980년은 大邱稅關(구미·포항 포함)統計이고 1985~1991년은 大邱本部稅關(구미·포항 제외) 통계임.

(2) (比重)은 동품목의 전국수출에 대한 대구수출의 비중임.

(3) 따라서 1970~1980년의 比重은 전국수출에 대한 대구·경북수출의 비중으로 계산하였음.

資料: 大邱稅關 資料 및 大邱市, 《大邱統計年報》

## 2. 輸出의 地域別 構造變化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를 보면, 1970년대 초까지는 대일·대미의존도가 높아 1970년의 경우 이들 두나라의 수출비중이 전체수출의 71.6%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이들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계속 감소하면서 輸出地域의 多邊化가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되는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1년의 경우 대구수출의 地域別 構造를 보면, 홍콩(20.1%), 동남아(18.6%), 중동(12.9%), 미국(11.1%), 유럽(11.1%), 일본(10.6%)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홍콩과 동남아지역에 대한 수출이 거의 40%에 육박하는 한편 중동·미국·유럽·일본 등이 각각 10%를 약간 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수출지역구조를 1970년대 초의 경우와 비교하면, 1970년대의 경우 상술한대로 대일 수출비중과 대미수출비중이 39%, 33% 수준에 머물렀고 그외 동남아(11.1%), 홍콩(7.6%), 유럽(3.5%)의 순이어서 거의 모든 수출이 대일수출과 대미수출에 편중되어 있었던 만큼, 대일·대미수출의 비중이 크게 감소된 반면 타지역의 수출이 증가함으로써 輸出市場의 多邊化가 이룩되었다.

이러한 市場多邊化의 過程을 보면, 1970년대의 경우 일본에 대한 수출이 둔화됨과 동시에 섬유류 등이 타지역으로 수출선을 전환시킨데도 원인이 있으나 철강·전자제품 등이 미국·동남아시아장으로 새로이 진출하였고 석유파동 이후 중동지역으로의 수출증대가 이루어짐으로써

〈表 5-63〉 大邱輸出의 地域別 構造 (단위: %)

	일본	홍콩	동남아	미국	캐나다	중동	유럽	아프리카	대양주	기타
1970	61.5 (38.7)	5.6 (7.6)	6.4 (11.1)	15.7 (32.9)	1.6 (2.6)	0.6 (0.1)	6.5 (3.5)	1.7 (1.5)	0.5 (0.5)	0.2 (2.5)
1975	35.8 (36.8)	4.7 (10.2)	2.6 (14.2)	16.7 (12.1)	3.1 (0.3)	7.5 (6.3)	3.1 (10.6)	3.8 (3.2)	1.0 (0.1)	2.1 (6.2)
1980	23.4	6.0	10.1	19.6	2.2	10.6	11.1	2.1	1.7	5.0
1985	10.9	12.9	18.2	13.8	4.9	15.1	4.9	4.9	3.5	5.5
1990	10.5	20.0	14.3	15.2	2.9	12.1	10.5	2.8	2.4	9.3
1991	10.6	20.1	18.1	11.1	1.3	12.9	11.1	3.1	1.9	12.6

註: (1) 1970·75·80년의 통계는 구미·포항을 포함한 大邱稅關統計이고, 1985·90·91년의 통계는 大邱本部稅關(구미·포항 제외)통계임.

(2) ( ) 속은 大邱市 統計임.

資料: 大邱稅關資料 및 大邱市, 《大邱統計月報》에 의거 작성

다변화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후반의 경우 홍콩·동남아·유럽지역에 대한 수출비중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만 특히 동남아·홍콩지역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데 이는 엔고의 영향에 따른 수출의 증대, 지역기업의 대동남아 진출에 따른 수출확대, 홍콩지역에 대한 화섬직물류의 중국특수 등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表 5-63〉에서와 같이 대구수출의 지역을 크게 분류해 보면 1991년의 경우 동남아시아(18.1%), 중동(12.9%), 미국(11.1%), 유럽(11.1%), 일본(10.6%), 기타(12.6%)로 나타나 있어 동남아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것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균형된 다변화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전국수출의 지역별 비중과 비교하면 동남아시아·중동·기타지역의 경우는 대구의 수출비중이 전국의 경우보다 높은 반면 일본·북미·유럽지역의 경우는 대구의 경우보다 전국의 수출비중이 높아 大邱輸出의 對先進國比重이 전국평균에 미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대구수출의 품목구조와 국제경쟁력구조의 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表 5-64〉 大邱와 全國의 輸出地域 構造比較 (단위: %)

연도	일본	미국	북미	유럽	중동	기타
1970	38.7(28.3)	18.7(11.2)	35.5(48.9)	3.5 (8.1)	0.1 (0.9)	2.9 (2.6)
1975	36.8(23.8)	24.4 (7.5)	12.4(36.4)	10.6(17.5)	6.3(11.1)	9.6 (8.5)
1980	23.4(17.4)	16.1(14.8)	21.8(28.3)	11.1(17.9)	10.6(14.5)	17.0 (7.1)
1985	10.9(15.0)	31.1(13.7)	18.2(39.6)	9.6(14.4)	15.1 (6.5)	19.8(10.8)
1990	10.5(19.4)	34.3(17.5)	12.6(32.4)	11.1(16.9)	12.9 (3.1)	18.6(10.7)

註: (1) 동남아시아는 일본 중동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임.

(2) ( ) 속은 全國輸出의 地域別 比重임.

(3) 1970·75년의 대구통계는 대구시통계임.

資料: 〈表 5-62〉와 동일함.

이상과 같이 대구수출의 지역별 구조는 당초 일본과 미국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구조를 벗어나 어느 정도의 균형된 다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좀 더 면밀히 관찰할 경우 대구수출의 지역별 구조가 나타내고 있는 문제점은, 지금까지 가격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對先進國輸出이 최근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더이상 기존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기술과 비가격적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경쟁력을 찾지 못하여 기존의 이들 수출시장에 대한 市場深化를 이룩하지 못하였고, 또한 개도국시장에 대해서도 동남아를 비롯한 기존의 특정한 개도국시장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새로이 부상하는 개도국시장에 대한 수출 역시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함으로써 진정한 市場多邊化도 이룩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앞으로

대구무역은 새로운 제품개발과 새로운 경쟁력창조를 통하여 기존의 對선진국시장에 대한 市場深化戰略을 추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하여 對개도국시장에 대한 市場多邊化戰略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第7節 大邱貿易의 問題點과 課題

지금까지 논의한 대구무역의 추이와 구조변화를 바탕으로하여 大邱貿易의 歷史的 推移를 요약하고 여기에 내재하는 構造的 問題點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면서 새로이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를 간략히 요약하고자 한다. 그러나 사실 대구무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라는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의 분석은 한일합방 이후 1991년까지의 大邱貿易의 推移를 歷史的으로 기술함에 그 일차적 목적이 있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다루어진 역사적 추이의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간략히 언급해두기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대구무역 내지 대구수출이 갖고 있는 特性과 構造的 問題點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구무역이 근대적 형태를 띠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나라 무역일반이 그러하듯, 한일합방이 이루어진 이후부터이지만 日帝下의 大邱貿易은 본질적으로 비자주적·대일의존적·식민지적 성격 속에서 수직적·정체적·수입초과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解放이후 戰後再建期까지의 무역도 거의 불모에 가까운 상태여서 본격적인 대외무역이 이룩된 것은 정부가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출주도적 성장을 표방한 1962년부터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60년대 大邱貿易은 섬유수출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증대를 이룩하여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크게 높아졌으나,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절대적으로는 여전히 비교적 높은 성장을 보였으나 상대적으로는 정체되기 시작하였고, 직할시 승격 이후의 1980년대에 있어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근본적으로 벗어나지 못하였다.

셋째, 이러한 현상은 1962년부터 1991년까지의 大邱輸出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우선 동기간 중 대구의 輸出規模는 124만 7천달러 수준에서 24억 3900달러로 1,956배 증가하였고, 輸出業體數 역시 19개(1963)업체에서 1,274개업체로 약 63배 증가하였으며, 전기간 동안 연평균



34.03%라는 높은 平均輸出增加率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大邱輸出의 對全國比重을 보면 1962년 2.3%에서 1969년 9.2%까지 높아졌으나 이후 계속 저하되어 70년대 중반 이후 4%대로 떨어졌고 80년대 중반 이후 다시 3%대로 떨어져 1991년 3.4%수준에 머물러 있다.

넷째, 이러한 수준은 199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지역인구의 대전국비중(5.1%), 지역생산의 대전국비중(4.1%)에도 미달되는 것이며, 또한 수출·지역총생산·지역공업부가가치의 대전국비중 중 수출의 대전국비중의 감소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地域輸出力이 지역경제력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地域經濟力의 약화 이상으로 더욱 현저히 저하되고 있어 지역수출전체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섯째, 지역수출의 경쟁력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여전히 纖維産業이 타산업에 비하여 강한 비교우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작 이러한 주력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향상되지 못한 채 오히려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새로운 고도화산업으로 성장하여야 할 기계·금속·화학산업의 경우 아직 확고한 比較優位性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지역전체수출의 경쟁력이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지역의 傳統的인 비교우위산업인 섬유산업에 있어서, ① 경쟁력의 지속이 가능한 부문의 産業效率化, ② 사양화부문의 구조조정을 통한 産業合理化, ③ 새로운 경쟁력의 창조를 통한 産業高度化를 이룩하려는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노력과 함께, 기계·금속·화학산업의 유치와 경쟁력향상을 통한 地域産業構造의 改編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전체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여섯째, 지역수출의 경쟁력을 競爭力要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價格競爭力은 그동안의 대내외적 환경변화로 인해 후발개도국들에 의해 추격당하고 있는 반면, 기술·품질·디자인·신용 등의 非價格競爭力은 여전히 열악하여 선진국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비가격경쟁력과 관련하여 신제품개발능력·고유브랜드의 확보·다품종소량생산능력·마케팅능력 등에 있어서의 경쟁력이 저급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價格競爭力 중심체제로부터, 고기술·고부가가치제품 위주의 다품목소량체제로의 전환을 이룩하면서 디자인·고유상표개발·마케팅능력의 제고를 통한 非價格競爭力 중심체제로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일곱째, 지역수출의 品目構造를 보면 그동안 꾸준히 개선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경공업중심의 구조 및 纖維輸出中心의 구조를 탈피하지 못하여 지역수출의 장기적 성장과 고도화가 확실히 향상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주력산업인 섬유수출의 경우 그 품목구조를 보면 부가가치가 낮은 엡스트림부문의 수출비중이 여전히 높아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관점에 입각된 계속적인

구조조정이 요청되고 있다.

여덟째, 지역수출의 地域別 構造 역시, 당초 일본과 미국에 지나치게 편중되었던 구조를 벗어나 어느 정도 均衡된 多邊化를 상당히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기존의 중요한 수출시장인 선진국시장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이에 대한 적절한 市場深化戰略이 필요한 동시에,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 개도국 시장 역시 동남아국가에 대한 비중만 급격히 높아졌을 뿐 이들에 대한 진정한 市場多邊化가 실현되고 있지 못하여 수출대상국의 확대를 포함하는 진정한 市場多邊化戰略 역시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논의들은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역사적 추이속에 나타난 대구수출의 문제점을 요약하여 그것의 극복을 위한 과제를 주로 產業的·企業的 側面에서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수출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① 지역무역을 더욱 원활히 해 줄 都市機能의 國際化, 產·官·學을 연결하는 선진된 產學體制의 구축, 절차의 간소화를 포함한 행정개혁과 함께 적절한 行政的 支援과 指導, ② 국제화·개방화·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企業家精神의 함양,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專門人力의 養成, 그동안 저하된 전반적인 수출마인드를 회복하는 동시에 역내기업간에 진정한 의미의 경쟁과 협력을 이룩하려는 企業文化의 暢達과 같은 外部的 環境的 要因 및 自救的 次元의 노력 역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